

祈雨祭謄錄
기우제 등 록
4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祈雨祭謄錄
기우제 등 록
4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5책

정조조

임인년1782	10	무진년1808	91
계묘년1783	19	기사년1809	93
병오년1786	29	경오년1810	104
정미년1787	36	신미년1811	107
무신년1788	43	계유년1813	122
기유년1789	43	갑술년1814	127
신해년1791	47	을해년1815	135
임자년1792	51	기묘년1819	139
갑인년1794	55	임오년1822	141
무오년1798	59	을유년1825	145
기미년1799	66	임진년1832	148
경신년1800	75	계사년1833	157

헌종조

순조조

신유년1801	78	을미년1835	160
계해년1803	78	병신년1836	161
갑자년1804	81	정유년1837	163
병인년1806	86	무술년1838	167
정묘년1807	89	기해년1839	176
		임인년1842	180

6책

헌종조

무신년1848 188

철종조

경술년1850 192

신해년1851 193

임자년1852 198

계축년1853 200

갑인년1854 205

병진년1856 210

정사년1857 214

무오년1858 216

경신년1860 219

신유년1861 226

임술년1862 228

계해년1863 233

고종조

갑자년1864 236

을축년1865 242

병인년1866 250

정묘년1867 257

무진년1868 263

경오년1870 264

신미년1871 269

계유년1873 272

을해년1875 274

병자년1876 276

무인년1878 298

기묘년1879 300

신사년1881 304

임오년1882 306

계미년1883 317

갑신년1884 323

을유년1885 325

정해년1887 333

무자년1888 339

기축년1889 342

기우제등록 용어집 348

기우제등록 제5책

1782~1842년

기우제기청록 7

祈雨祭祈晴錄 七

정조조 임인년¹⁷⁸²부터 헌종조 임인년¹⁸⁴²까지

예조 상

自正廟朝壬寅 止憲廟朝壬寅

禮曹上

임인년¹⁷⁸² 5월 7일

● 기우제를 지낼지 여부를 자신의 의견을 참작하여 장계를 올리라는 전교

좌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오려나 비가 오려나 했더니 해만 쨍쨍 내리쬘고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애타고 걱정이 다. 두루 기우제를 지내 나 자신을 희생으로 대신하는 정성을 바치려는 마음 간절하지만, 보릿고개가 이미 지나고 김매는 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번거롭게 호소하는 것이 두려워 아직 머뭇거렸다. 다시 4, 5일 더 보고 나서 기우제를 지내도 과연 너무 늦지 않겠는가.

지금의 농사 형편은 문서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관찰하는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묻거나 만나서 물어 기우제를 언제 설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자신의 의견을 참작하여 한 가지로 결정하여 장계로 아뢰라고 경기와 충청 관찰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임인년¹⁷⁸² 5월 9일

● 1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까마득하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壬寅五月初七日

● 祈雨祭設行當否, 參以已見狀聞事, 傳教.

一. 左承旨入侍時, 傳曰: “其雨其雨, 出日杲杲, 言念民事, 萬萬渴憫, 切擬遍舉圭璧, 以效代犧之誠, 而麥嶺已過, 鋤期未屆, 瀆籲是懼, 姑且趲趲, 更欲觀四五日禱雨, 果不至太晚乎否? 目下農形, 難以狀辭, 詳悉領略, 所管列邑, 關問或面詢, 祈雨祭何間設行當否, 參以已見, 指一狀聞事, 分付畿·湖伯處.”

壬寅五月初九日

● 初次祈雨祭設行

一. 次對入侍時, 傳曰: “閱月不雨, 雨意邈然, 禱雨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不卜日,

수 없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

예조의 계사에,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전례대로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헌관은 당하관·시임과 원임 각신·시임 옥당·양사를 막론하고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임인년¹⁷⁸² 5월 12일

● 2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당일 파루^{罷漏} 때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였으므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단자를 가지고 승정원에 들어가 입계할지 여부를 자세히 물었더

十一日設行事, 分付該曹.”

● 祈雨設行草記

一. 曹啓辭: “初次祈雨祭, 不卜日, 十一日設行事, 命下矣.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依例設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獻官無論堂下·時原任閣臣·時任玉堂·兩司, 各別擇差分付.”

壬寅五月十二日

● 再次祈雨設行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今十四日設行之意, 知委何如?” 【當日罷漏時, 或霪或止, 故待開門, 持單子入去政院, 入啓與否, 詳稟, 則以入呈爲言, 故入啓.】

니, 들어가 바치라고 말하였으므로 입계하였다.】

● 단자에 대해 형세를 보고 설행하라는 하교

2차 기우제 단자에 대한 비답에 전교하기를,
“단비가 밤새도록 내려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이어서 비가 쏟아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예전에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린 뒤에 제사를 일단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2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고 설행하겠다. 알도록 하라.”
하였다.

● 기우 보사제를 입추 전에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령한 감응이 어긋나지 않아 단비가 이미 내렸으니, 보사제를 지내는 일은 예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정식으로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입추 전에 보사제를 지낸 전례가 많으니 택일하지 말고 이번 15일에 설행하라. 헌관은 승지와 각신을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單子觀勢設行事, 下敎.

一. 再次祈雨祭單子批答, 傳曰: “甘雨通宵, 簷響不止, 繼此霈然, 方切顓企. 在前祈雨, 得雨後享祀, 有姑停止之例, 再次祈雨祭, 觀勢設行之意, 知悉.”

● 報謝立秋前設行

一. 曹啓曰: “靈應不忒, 甘霈既得, 報謝之舉, 在禮則然, 三角·木覓·漢江報謝祭, 依定式, 待立秋後, 擇日設行, 何如?” 傳曰: “立秋前報謝, 既多有例, 不卜日, 今十五日設行, 獻官以承旨·閣臣填差.”

임인년¹⁷⁸² 5월 17일

● 2차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전교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매번 이달을 만나면 미웁하고 모진 목숨이 아직 살아 있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어찌 혹시라도 명령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혹시 재계하는 날이 지나기를 기다린다면 때를 놓칠까 몹시 두렵다. 현재 여려도의 가뭄 재해가 극심하여 백성이 당황하고 우려하니, 얼마 전 보사제를 설행하였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또 전례를 살펴보니 전례가 하나가 아니었다.

용산강에는 중신을 보내고 저자도에는 재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기우제를 설행하라.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고 즉시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임인년¹⁷⁸² 5월 21일

● 3차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과 제관의 품계를 여쭙다.

예조의 계사에,

“비가 내릴 기색이 짙기는 하지만 아직 쏟아지지 않았으니,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3일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풍운뇌우·산천·우사단에서 설행하겠습니다. 용산강의 기우제 헌관은 특별히 하

壬寅五月十七日

● 再次祈雨祭設行事, 傳教

一. 承傳色口傳下教曰: “每值是月, 但恨¹頑忍尙在, 豈²或發號施令, 而儻欲遲待過齋, 切恐不免後時, 目今諸路, 旱災孔棘, 民情遑憂, 不可以才行報謝之舉, 持疑於禱雨. 且考已例, 例亦不一, 龍山江遣重臣, 楸子島遣宰臣, 不卜日, 今二十日祈雨祭設行事, 該房知悉, 卽爲分付該曹.”

壬寅五月二十一日

● 三次祈雨設行及祭官品秩稟

一. 曹啓辭: “雨意雖濃, 霈澤尙闕,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三日, 當依例遣宰臣, 設行於風雲雷雨·山川·雩祀壇,

1 恨 : 저본에는 '限'. 『승정원일기』 정조 6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 豈 : 저본에는 '是'. 『승정원일기』 정조 6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교대로 이미 중신을 보냈으니, 이번 헌관은 감히 전례대로 재신으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 우사단에 기우제를 친행하겠다는 하교

“지난밤에 제법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또 막연하였다. 농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타는 듯하다. 관원에게 대신 섭행하라고 명하면 제사 지낸 것 같지 않다는 탄식만 더할 뿐이다. 감히 몸소 기도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대신하는 정성을 바칠 수 있겠는가. 택일하지 말고 내일 우사단에 공경히 나아가 기우제를 친행할 것이니 재관은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제제하는 중이라 선포하여 알리기 어려우나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와 차이가 없으니, 동가할 때는 연여輦輿와 시종신의 절차는 제외하고, 그 밖의 의장과 시위는 전례를 참고하여 줄이도록 힘쓰라고 분부하라. 남교의 3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 섭행하라고 일체 분부하라. 축문祝文은 이미 친히 지었으니, 출궁하기 전에 친압親押하겠다. 이렇게 알도록 하라.” 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而龍山江祈雨祭獻官，因特教，既遣重臣，則今此獻官，有不敢以宰臣循例舉行，何以爲之乎？敢稟。”

● 雩祀壇親行祈雨下教

一. “去夜頗有雨意，到朝又復邈然，言念民事，中心如灼。命官替攝，徒增如不祭之嘆，敢不躬禱，以效代犧之誠？不卜日，明日祇詣雩祀壇，親行祈雨，齋官另加擇差，坐齋之故，姑難宣示，而無異減膳之時，動駕時，除輦輿及侍臣節次，其他儀衛，參已例，務從省減事，分付，南郊三次祈雨，遣大臣攝行，一體分付。祝文已親撰，出宮前親押，依此知悉”事，榻前下教。

임인년¹⁷⁸² 5월 26일

● 선농단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전교

전교하기를,

“근래 가뭄이 몹시 심하여 다시 몸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정성이 참으로 알아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기 어렵다. 더구나 친히 기도한 뒤 설행한 전례가 많으니,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에 선농단 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임인년¹⁷⁸² 5월 29일

● 5차 기우제 처소와 제관의 품계를 여쭙다.

예조의 계사에,

“4차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는 복교와 사직이고, 헌관은 전례대로 재신과 중신으로 채워 차임하였습니다. 이번 4차 기우제는 특교로 인하여 대신을 보내 선농단에서 설행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에 설행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제관의 품계는 예조에서 감히 전례대로 마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이 초기는 전례대로 입계하기 위해 수절을 받고 기다리다가 같은 날 차대에서 홀기^笏記로 여쭙었더니 하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壬寅五月二十六日

● 先農壇祈雨傳敕

一. 傳曰: “近日亢旱烈酷, 非不欲更爲躬禱, 而予誠誠淺, 難望仰格, 況親禱後攝事, 亦多已例, 不卜日, 今二十八日, 先農壇祈雨祭, 遣大臣設行.”

壬寅五月二十九日

● 五次祈雨處所及祭官品秩稟

一. 曹啓辭: “四次祈雨祭處所, 卽北郊·社稷, 獻官則例以宰臣·重臣填差, 而今番四次祈雨祭, 因特敕, 遣大臣於先農壇設行矣. 五次祈雨祭, 不卜日, 來六月初二日, 當爲設行, 而祭享處所, 祭官品秩, 臣曹不敢循例磨鍊, 何以爲之乎? 敢稟.” 【此草記, 依例入啓次, 受手決以待矣. 同日次對, 以笏記仰稟, 有待下敕爲之教.】

임인년¹⁷⁸² 6월 1일

● 5차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비가 오려나 비가 오려나 했더니 구름이 자욱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초복이 다가와 농사가 황급하니, 몸소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모레 사직단에 나아가 몸소 5차 기우제를 행할 것이다. 해당 조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원임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사직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라고 탑전 하교하였다.

임인년¹⁷⁸² 6월 5일

● 6차 기우제와 제관의 품계를 여쭙다.

예조의 계사에,

“5차 기우제 처소는 북교·사직에서 설행해야 하는데, 특교대로 대신을 보내 사직에서만 설행하고, 북교는 아직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7일에 거행해야 하는데, 제사 지낼 장소와 제관의 품계는 아래에서 감히 전례대로 마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뢰니다.” 하였다. 【이 초기를 입계하는 날에 차대와 겹쳤으므로 판서 대감이 이 내용을 흘기로 여쭙니 하교를 기

壬寅六月初一日

● 五次祈雨設行傳教

一. 傳曰：“其雨其雨，密雲不雨，初庚在即，民事遑急，躬禱之舉，不容少緩，再明日詣社壇，當躬行五次祈雨祭，該曹知悉。”

一. 時原任大臣入侍時，傳曰：“社壇祈雨祭，遣大臣攝行”事，榻前下教。

壬寅六月初五日

● 六次祈雨及祭官品秩稟

一. 曹啓辭：“五次祈雨祭，當行於北郊·社稷，而因特教，遣大臣，只行社稷矣，北郊則未及設行。今此六次祈雨祭，不卜日，初七日當爲舉行，而祭享處所及祭官品秩，自下不敢循例磨鍊，何以爲之乎？敢稟。” 【此草記入啓之日，次對相值，故判書大監，以此辭緣，

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임인년¹⁷⁸² 6월 6일

●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내겠다는 전교

전교하기를,

“지금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도 짙으니, 이러한 때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비록 번거로우나 중간에 또 뜨거운 별이 내리쬘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들 또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처럼 얇은 정성으로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나 지금 들판에 푸른빛이 없어 백성이 장차 전부 죽게 되었으니, 나 한 사람으로 만백성을 대신하는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겠는가. 군사와 백성이 어가를 따른다면 길을 닦아야 하는 폐단이 있으니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몸소 북교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 재관을 가려 각기 각별히 재계하게 하라.”

하였다.

● 단상 수리

예조의 계사에,

“이번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단상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과 본조 낭청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

以笏記稟，有待下教之教.】

壬寅六月初六日

● 北郊祈雨祭親行事，傳教

一. 傳曰：“見今密雲不散，雨意猶緊，此時禱雨之舉，雖涉瀆擾，間又烈日杲杲，及今不禱，禱亦何益？顧此菲誠，安望昭格？然今野畿無青，民將盡劉，以一己代萬姓之心，遑恤昭格與否，至於軍民陪駕，或治道之弊，有不容軫念，明日躬詣北郊，行祈雨祭，齋官另擇，俾各各別齋戒。”

● 壇上修理

一. 曹啓辭：“今此北郊祈雨祭親祭時，壇上修理等事，依例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舉行，何如？”傳

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북교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다.

예조의 계사에,

“북교는 비록 중사中祀이나 예문에 악장樂章이 없으니, 예전부터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하겠습니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북교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는 전교

같은 날 시임, 원임대신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신을 섬기는 방도는 번거로움을 경계하는 데 있다. 지금 먹구름이 여전히 짙고 비가 그치지 않으니, 비가 쏟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려야 마땅하다. 기우제를 비를 맞으면서 설행하면 옷이 젖어 체모를 잃기 쉬우니, 이미 예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백관과 군사들이 젖어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일에 속한다. 또 옛일을 살펴보니 지지난 임인년¹⁶⁶²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려 하였을 때 하루 사이로 비가 내렸으므로 곧장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고 명하였다. 비록 설행하더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전^{祀典}을 정지하고 말고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니, 여러 대신에게 묻자 모두가 그렇다고 하였다. 8일 북교 기우제는 우선 형세를 보아 설행하고, 내일 동가하겠다는 하

曰：“允。”

● 北郊不爲用樂

一. 曹啓辭：“北郊雖是中祀，禮文既無樂章，自前祈雨親祭時，用樂一款，不爲舉行矣。今亦依此爲之之意，敢稟。”傳曰：“知道。”

● 北郊祈雨觀勢設行，傳教

一. 同日時原任大臣入侍時，傳曰：“事神之道，戒在瀆褻，見今黝雲尙濃，雨勢不息，沛然之澤，正宜坐而俟之。祈雨之祭，冒雨而行，霑服將事，易致失容，已乖禮經之訓，至於百官諸軍，沾濕之苦，猶屬第二件也。且考古事，往在二去壬寅，將行北郊祈雨，因隔日得雨，旋命觀勢設行，雖設之事不偶爾可也。祀典停否，事係至重，延問諸大臣，僉意皆以爲然。初八日，北郊祈雨祭，姑爲觀勢設行，明日動駕下教，

교는 그만두라. 이 뜻을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6월 25일

● 기우제는 경기의 농사 형편에 따라 설행하겠다는 전교

전교하기를,

“경기 관찰사의 말을 들으니 비를 바라는 백성의 마음이 완급의 차이가 없지 않다고 한다. 지금 가뭄이 날로 심해지니, 비가 흠뻑 내린 곳도 하루 이틀 기다려야 풍흉이 판가름날 것이라 하였다. 하물며 비가 내리지 않은 곳의 농사 형편은 어떻겠는가. 서울은 근본이 되는 곳이니, 경기의 기우제를 비록 온 도에서 설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애되어 주저할 수 없다.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³을 받고, 경기 관찰사는 이미 연석에서 하교를 들었으니 도내의 여러 고을에서 각기 농사 형편에 따라 설행하게 하고, 상황을 조목별로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置之. 以此意, 卽爲分付.”

癸卯六月二十五日

● 祈雨設行畿內農形各從設行傳教

一. 傳曰: “聞畿伯言, 望雨之民情, 不無緩急之殊云, 而見今亢旱日甚, 雖在雨澤霑足之處, 差退一兩日, 將判歉荒, 況未得雨處農形乎? 京師根本之地也, 畿內祈雨, 雖不通一道設行, 不可拘此越³,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不卜日, 明日受香, 畿伯既聽⁴ 筵教, 道內列邑各從農形設行, 形止仍令條別狀聞.”

3 拘此越越: 저본에는 ‘拘曹越越’.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 聽: 저본에는 ‘憂’. 『승정원일기』 정조 7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묘년¹⁷⁸³ 6월 28일

- 2차 기우제 제문은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반성하는 뜻으로 내각에서 지어 바치고, 향을 받는 날 친압하고 향축을 전달하기로 하다.

좌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 듯하다가 내리지 않고 햇벌이 짹짹 내리
쪼니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택일
하지 말고 오는 2일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저자도
에 재신을 보내어 설행하라. 이렇게 분부하고, 제문
은 내각 지제교가 지어 바치라. 자신을 책망하고 허
물을 반성하는 뜻으로 말을 만들라는 것을 알게 하
라. 향을 받는 날, 친압하고 향축을 전달하는 일은
모두 1차의 전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3일

-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단비가 흠뻑 내려 한창 두루 적실 가망이 있으니
농사가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癸卯六月二十八日

- 再次祈雨祭文, 以責躬省愆之意, 內閣撰進, 受香日, 親押傳祝

一. 左承旨入侍時, 傳曰: “欲雨不雨, 出日杲杲, 言念民事, 萬萬罔措, 不卜日, 來初二日, 再次祈雨祭設行, 龍山江·楸子島, 遣宰臣, 以此分付, 祭文, 內閣知製教撰進, 而以責躬省愆之意措辭事, 使之知悉, 受香日, 親押傳祝, 並依初次例磨鍊.”

癸卯七月初三日

- 祈雨觀勢設行

一. 曹啓辭: “甘雨霑然, 方有周洽之望, 民事萬幸. 祈雨祭姑爲觀勢舉行, 何如?” 傳曰: “允.”

계묘년¹⁷⁸³ 7월 4일

● 보사제를 설행할지 여부를 대신에게 문의하라는 전교

좌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낸 뒤 3일 안에 비가 내렸으니 곧장 보사하는 예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비는 기우제를 지낸 다음날에 내렸으나 아직 두루 적시지 못하여 갑자기 보사제를 지내게 할 수 없다. 보사제를 설행할지 여부를 예조로 하여금 대신들에게 문의하고 초기를 올리게 하라.”
하였다.

● 보사제를 설행할지 여부에 대해 수의하고 올린 초기

예조의 계사에,
“이번 7월 4일에 좌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낸 뒤 3일 안에 비가 내렸으니 곧장 보사하는 예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비는 기우제를 지낸 다음 날에 내렸으나 아직 두루 적시지 못하여 갑자기 보사제를 지내게 할 수 없다. 보사제를 설행할지 여부를 예조로 하여금 대신들에게 문의하고 초기를 올리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낭청을 보내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의정부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은
‘어제 단비는 아직 두루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癸卯七月初四日

● 報謝設行當否問議大臣事, 傳教

一. 左承旨入侍時, 傳曰: “祈雨後三日內得雨, 輒行報謝之禮, 而昨日之雨, 在於行祭翌日, 但以猶欠周洽, 不得遽令報謝矣. 報謝祭設行當否, 令禮曹問議諸大臣, 草記.”

● 報謝設行當否收議事, 草記

一. 曹啓辭: “今七月初四日, 左承旨入侍時, 傳曰: ‘祈雨後三日內得雨, 輒行報謝之禮, 而昨日之雨, 在於行祭翌日, 但以猶欠周洽, 不得遽令報謝矣. 報謝祭設行當否, 令禮曹問議諸大臣, 草記’事, 命下矣. 依聖教, 發遣郎廳, 問議于諸大臣, 則議政府領議政鄭存謙以爲: ‘昨日甘雨, 猶欠周洽, 謹按文獻備考, 祈雨三日內報尺, 則例有報謝, 見今雨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살펴보니, 기우제를 지내고 3일 내에 1척 넘는 비가 내리면 으레 보사제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많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보사제는 일단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듯합니다. 막중한 사전祀典에 관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중추부사 신 김상철金尙喆은,

‘목마른 듯 가뭄을 근심하던 가운데 어제 비가 내렸으니 어찌 몹시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비가 쏟아지기를 한창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사제를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성상의 전교가 합당합니다. 전례에 실려 있는 내용도 근거 삼을 만한 것이 있으니, 제사를 지낼지 여부는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행 판중추부사 신 서명선徐命善은,

‘어제 내린 비는 기우제를 지내고 3일 내에 내렸으니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보사제를 지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전례대로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선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고, 행 판중추부사 신 정홍순鄭弘淳은,

‘비가 아직 충분히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사제를 선행하면 신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도리어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모였다 흩어져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많으니, 일단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意尙多，方此顒望，報謝祭姑待沛然，恐合事宜，而事關莫重祀典，伏惟上裁’云。中樞府事臣金以爲：‘憫旱如渴之中，昨日雨澤，豈不萬萬幸甚？而繼此沛然，方此顒祝，不得遽令報謝，聖教允當。典禮所載，亦有可據，行祭進退，伏惟裁處’云。行判中樞府事臣徐命善以爲：‘昨日之雨，既在行祭後三日內，則不可不以差欠周治，不行報謝，依例待秋來設行，恐爲得宜’云。行判中樞府事臣鄭弘淳以爲：‘雨未周治，遽行報謝，其於事神之道，還恐未安，見今陰雲聚散，雨意猶多，姑待霈然以爲得宜’云。行判中樞府事臣李徽之以爲：‘雨澤雖未周治，久旱祈禱之後，得此沾霑移時，焦枯之嘉穀，庶有蘇醒之益，上天所賜，亦云多幸，似不當以其惠澤之不足，不行報謝之舊禮也。然淺見不敢質言，惟在博詢而處之，伏惟上裁’云。行判中樞府事臣洪樂性以爲：‘昨日之

하고, 행 판중추부사 이휘지李徽之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오래 가물어 기도한 뒤에 이렇게 한동안 비가 내렸으니, 메마른 곡식이 소생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 혜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사하는 옛 예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얕은 견해로는 감히 단정하여 말할 수 없으니, 널리 묻고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행 판중추부사 신 홍낙성洪樂性은,

‘어제 내린 비는 다행히 땅을 적시기는 하였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를 빗을 조짐이 많으니, 다시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보사제를 설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막중한 사전을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영돈녕부사 신 김익金翼은,

‘기우제를 지내고 3일 안에 비가 1척 내리면 반드시 보사하는 예를 행하는 것은 신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의상 사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는 것을 3일로 한정하는 것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정성이 지극하고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간절하므로 감히 영험이 빨리 나타나기를 신에게 바라지 않고 천천히 3일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비는 기우제를 지낸 다음 날 내렸으니, 신이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雨, 雖幸霑潤, 猶未周洽. 且今陰雲不散, 方多釀⁵雨之意, 更俟沛霖, 設行報謝, 恐合事宜, 而莫重祀典, 有不敢臆對, 伏惟上裁’云. 領敦寧府事臣金燧以爲: ‘祈雨而三日內得雨報尺, 則必行報謝之禮者, 盖神有惠而禮不可無謝⁶也. 然而祈雨得之, 限以三日者, 以其禱雨之誠至, 而敬神之意切, 故不敢以冥應之捷, 取必於神, 遲⁷待而至於三日也. 昨日之雨, 得之於祈雨翌日, 則神既有惠矣, 而乍霖旋闕, 姑無蘇枯之效, 且幸三日之限未滿, 雲霓之意尙多, 亦安知神不卒惠, 又降周洽之澤耶? 報謝之禮, 恐不必遽先設行, 限今夜姑俟之, 其於憫旱念事神之道, 俱以得宜, 而事關祀典,

5 釀 : 저본에는 ‘釀’.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 謝 : 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 遲 : 저본에는 ‘逢’.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다가 곧 그쳤으니 아직 매마른 곡식이 소생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다행히 3일의 기한이 차지 않았는데 구름이 아직 많으니, 또한 신이 은혜를 마치지 않고 또 충분히 혜택을 내려 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보사하는 예식을 갑자기 먼저 설행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오늘 밤에 한하여 일단 기다리는 것이 가뭄을 근심하고 신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모두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관계된 일이라 감히 어리석은 견해로 단정하여 대답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부사의 의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10일

● 보사제를 설행하기로 하다.

7월 10일, 인정전^{仁政殿}에 친림하여 추도기 유생^{秋到記儒生}의 전강^{殿講}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이재협^{李在協}이 아뢰기를,

¹ 추도기 유생(秋到記儒生) : 성균관 유생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횟수를 적는 부책(簿冊)을 도기(到記)라 하는데, 아침저녁 두 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자격을 얻은 유생에게 가을에 보이는 과거를 추도기(秋到記)라 한 데서 추도기 유생이라 한 것이다.

不敢而魯莽之見，質言仰對，伏惟上裁’云. 諸大臣之意如此，敢啓.” 傳曰：“依領敦寧意施行.”

癸卯七月初十日

● 報謝設行

一. 今七月初十日，親臨仁政殿秋到記儒生殿講入侍時，禮曹判書李在協所啓：“向日報謝祭，有依領敦寧議施行之教，故臣曹不得循例草記矣。今則甘霖連霑，立秋在明，依禮文報謝祭，擇日舉行，何

“지난번 보사제는 영돈녕부사의 의견대로 시행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에서 전례대로 초기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단비가 연달아 쏟아지고 입추가 내일이니, 예문대로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헌관과 집사들의 상전은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전지를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11일

● 보사제 택일

예조의 단자에,

“보사제를 예문대로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4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용산강·저자도에서 이날 전례에 따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24일

● 영제의 헌관은 승지가 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아침과 낮에는 날이 제법 갠 조짐이 있었으니 이로

如?” 上曰：“依爲之。獻官·諸執事賞典，令政院依例捧傳旨可也。”

癸卯七月十一日

● 報謝擇日

一. 曹單子：“報謝祭，依禮文擇日舉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推擇，則今七月十四日爲吉云。龍山江·楸子島，以此日依例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癸卯七月二十四日

● 祭傳教獻官以承宣爲之

一. 傳曰：“朝晝日氣，頗有霽意，因此快晴，方切顯俟，申⁸

8 申：저본에는 '由'.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인해 쾌청하기를 한창 간절히 기다렸다. 그런데 신시(申時) 이후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밤까지 계속 쏟아졌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걱정이다. 가물었다가 장마가 저서 장차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지금 어찌 번거롭게 한다는 혐의를 굳게 지킬 수 있겠는가.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비록 내일 아침에 향을 받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지금 밤이 이미 지나고 새벽이 머지않았으니, 재관을 채워 차임하는 사이에 도리어 군색해질 폐단이 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오후에 향을 받고, 헌관은 승지·각신이 나가며, 집사관은 내외에 입직한 각 관사의 관원을 나누어 배치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무를 행하는 옥당이 단지 한 사람뿐이니, 헌관은 근시로 채워 차임하라. 도승지 심풍지(沈豐之)·좌승지 박우원(朴祐源)·우부승지 조상진(趙尙鎭)·검교 직각 김희(金憲)가 나아가고, 이어서 향을 받기 전에 청재(淸齋)하게 하라.”

하였다.

● 영제를 지내겠다는 초기

예조의 계사에,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 오후에 향을

後雨勢愈緊，至夜一向滂沱，言念民事，萬萬切憫。既早且澇，將致卒瘁，在今豈宜膠守瀆籲之嫌？祈晴之舉，不容遲然，雖於明朝受香，無所不可，見今夜色已闌，曉鼓不遠，齋官填差之際，反有窘速之弊。四門禱祭，不卜日，明日午後受香，獻官承旨·閣臣進去，執事官皆以內外入直各司官分排事，分付。”

一. 傳曰：“行公玉堂，只有一人，獻官以近侍使之填差矣。都承旨沈豐之·左承旨朴祐源·右副承旨趙尙鎭·檢校直閣金憲進去，仍令受香前淸齋。”

● 禱祭草記

一. 曹啓辭：“四門禱祭，不卜日，今二十五日午後受香事，

받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이번 25일에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영제 헌관은 옥당으로 채워 차임하다.

같은 달 25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공무를 행할 옥당이 단지 한 사람뿐이니, 처음에는 승지를 채워 차임하였다. 오늘 정사에서 새로 제수된 사람이 많고, 또 친향할 때의 청재^{淸齋}가 모레 있다고 한다. 사문^{四門}의 헌관은 옥당으로 다시 채워 차임하게 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26일

- 날이 깨끗이 개면 기청제는 3일의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정지하고, 신위판을 받들고 가서 그대로 보사제를 행하며, 제사를 지낼 때 성문을 닫지 말라고 하다.

비망기에,

“날이 저문 뒤 날씨가 맑아졌으니 이로 인해 깨끗이 날이 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늘 밤 각별히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고 사문의 헌관에게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 만나서 신칙하게 하고, 다시 내일 날씨를 보아 만약 깨끗이 개면 기청제는 3일의 기한을

命下矣. 依聖教, 今二十五日爲始設行, 三日止事, 分付何如?” 傳曰: “允.”

● 祭獻官, 以玉堂填差

一. 同月二十五日承旨入侍時, 傳曰: “行公玉堂, 只有一人之故, 初以承宣填差矣. 今日政, 既多新除之人, 且聞親享時清齋在再明云, 四門獻官, 以玉堂更令填差.”

癸卯七月二十六日

- 快霽則祈晴, 不待三日限停止, 以奉去神位版, 仍行報謝, 行祀時, 勿閉城門

一. 備忘記: “晚後日氣清朗, 因此快霽, 方切顯企. 今夜另加虔誠行祀之意, 四門獻官處, 分遣宣傳官面飭, 更觀來朝日氣, 如得快霽, 則祈晴祭不待三日之限, 敬依先朝己丑傳教, 卽當停止, 令該曹以此

기다리지 말고 삼가 선조^{先朝} 기축년¹⁷⁶⁹ 전교대로 즉시 정지해야 한다. 해당 조로 하여금 이렇게 알도록 하고, 내일 아침 다시 초기를 올려 나의 뜻을 물으라. 신위판을 받들어 가고 받들어 오는 것은 번거로운 일에 가까우니, 보사제는 모레 설행하고, 보사제를 지낼 때는 역시 선조 기축년 전교대로 성문을 닫지 말라.”
하였다.

계묘년¹⁷⁸³ 7월 27일

● 기청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계사에,
“지금 비가 깨끗이 개었으니 성상의 전교대로 기청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는 오늘 그대로 향을 받아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영제의 향축을 한꺼번에 받아서 모시고 가서 1일치 향축을 태우라고 하다.

예조의 계사에,
“사문영제를 지내는 3일간 향축은 전례에 첫날 한꺼번에 받아서 모시고 가서 3일 연속 사용합니다. 이번 영제 때 2일은 받아 썼고 1일치 향축은 아직도 네 곳의 제사 지내는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각 처의 제관에게 즉시 향실^{香室}의 깨끗한 곳으로 받들

知悉，待明朝更爲草記稟旨，神位版奉去奉來事，近瀆屑，報謝祭仍於再明日設行，報謝行祀時，勿閉城門，亦依先朝己丑傳教爲之。”

癸卯七月二十七日

● 祈晴停止報謝設行

一. 曹啓辭：“今則雨意快霽，依聖教，祈晴祭停止，報謝祭今日仍爲受香設行之意，知委何如?” 傳曰：“允.”

● 祭香祝都受陪去一日 香祝燒火

一. 曹啓辭：“四門祭祭三日，香祝例以初日都受陪去，連三日用之矣，今番祭祭時，二日則奉用，而一日香祝，尙在四處享所云，令各處祭官，卽爲奉來香室淨潔處，仍爲燒火

어 와서 그대로 불태우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수결을 받고 입계하려고 할 때 전교가 있어 그만두었다.】

● 보사제 축문은 함께 망료하고, 헌관이 보사제 헌관과 만나 보고 물러나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기청제 축문 1장은 오늘 밤 보사제를 지낸 뒤 본 축문과 함께 망료望燎하라고 분부하라. 신위관은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에 받들고 가고, 헌관과 전사관은 일단 머물러 기다리다가 보사제 헌관이 향을 받고 나아간 뒤 만나 보고 물러나라고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2일

예조의 계사에,

“봄과 여름 이후로 연달아 비가 내리다가 가뭄이 들었는데 월초에 단비가 내렸으나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고 소서가 다가왔는데 먹구름이 간혹 퍼지더라도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종한 싹은 말라 죽고 아직 움겨 심지 않은 모는 때를 놓치게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역산·한강 등의 장소에 전례대로 3품 관원을

事, 分付何如?”【受手決, 方欲入啓之際, 有傳教置之.】

● 報謝祝文, 同爲望燎, 獻官與報謝獻官面看退去

一. 傳曰: “祈晴祭祝文一張, 今夜報謝祭後, 與本祝文望燎事, 分付, 神位版仍奉祭所, 獻官·典祀官姑爲留待, 待報謝獻官受香進詣後, 面看退去事, 卽爲分付.”

丙午六月初二日

一. 曹啓辭: “春夏以來, 連雨嘆乾, 月初喜雨, 終靳浹洽, 夏至已過, 小暑且近, 密雲或布, 一需尙遲, 已播之苗, 不免枯損, 未移之秧, 將致愆期, 言念民事, 誠爲渴憫.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依例遣三品官, 不卜日, 初八日設行之意, 知委何如?”

보내 택일하지 말고 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초기는 들이지 않고 특교에 따라 9일에 설행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6일

●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8일에 향을 받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근시를 보내 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7일

● 기우제는 저녁 날씨를 기다려 다시 여쭙라고 하다.

승정원의 계사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오는 9일 기우제를 근시를 보내 설행하겠다는 예조의 단자를 계하하셨습니다. 승지 3명이 가야 하는데 어떤 승지가 가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비록 쏟아지지는 않았

【此草記不入，因特教，初九日設行.】

丙午六月初六日

● 祈雨設行

一. 曹單子：“初次祈雨祭，不卜日，初八日受香事，命下矣。依聖教，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近侍，初九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午六月初七日

● 祈雨待晚日氣更稟

一. 政院啓辭：“三角山·木覓山·漢江，今初九日祈雨祭，遣近侍設行事，禮曹單子啓下矣。承旨三員，當爲進去，何承旨進去乎？敢稟。” 傳曰：“好雨伊始，雖未霑然，繼此周洽，方切顛俟，稍待晚來日氣，更稟可也。”

지만 이어서 두루 적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저녁의 날씨를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여쭙라.”
하였다.

● 기우제에 승지를 보내다

전교하기를,

“내일 기우제의 향을 받을 때 헌관은 삼각산에는 좌
승지가 나아가고, 목덕산에는 우승지가 나아가며,
한강에는 우부승지가 나아가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8일

●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1일에 호미날을 적실 만큼 비가 내렸지만 충분히
적시는 도움이 없었다. 그 뒤 며칠 동안 뜨거운 햇
별이 쨍쨍 내리쬘었다. 지금 모내기철이 이미 지났
는데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
면 어찌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는
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근시^{近侍}를 보내 목덕산·삼각
산·한강에서 제사를 지내라. 내일은 국기일^{國忌日}의
향을 받는 날과 겹치니 모래 향을 받게 하고, 집사
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 축문은 문임^{文任}으로 하여
금 지어 바치게 하라.

● 祈雨遣承旨

一. 傳曰: “明日祈雨祭受香時
獻官, 三角山左承旨進去, 木
覓山右承旨進去, 漢江右副承
旨進去事, 分付.”

丙午六月初八日

● 諸執事另擇傳教

一. 傳曰: “初一日, 鋤雨既乏
霑潤之益, 伊後數日, 烈陽杲
杲, 見今秧節已過, 一需尙靳,
言念民事, 豈勝渴憫? 禱雨之
舉, 不容少緩, 不卜日, 當遣近
侍, 設祭於木覓·三角·漢江,
明日則國忌受香相值, 再明日⁹
使之受香, 諸執事另擇, 祝文
令文任撰進. 昨見畿伯狀聞,
再朝間有犁雨所得處云, 然則

9 再明日: 저본에는 ‘再明明日’. 정조
10년 6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어제 경기 감사가 장계로 아뢴 내용을 보니, 그에게 아침 사이에 쟁기날을 적실 만큼 비가 내린 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고을에 내린 비가 필시 많고 적음이 있을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그 완급에 따라 내일부터 먼저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또 충청 감사가 장계로 아뢴 내용을 보니, 어제 감영에 내린 비가 3촌이 넘었다고 하였다. 도내의 여러 고을은 과연 모두 두루 적셨으며 기우제도 이미 정지하였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충청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11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내렸는데 쏟아지다 곧바로 그쳤습니다. 1차 기우제의 영험이 중간에 끊긴 듯합니다. 2차 기우제를 용산강·저자도에서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헌관과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고, 축문은 문임에게 지어 바치게 하며, 제물은 각별히 정갈하게 마련하라고 통지하라.”

列邑所得雨澤，必有多寡，令道伯隨其緩急，自明日先卽虔禱之意知委之際，又見錦伯狀聞，日昨雨澤，營下¹⁰所得，至過三寸餘云，道內列邑，果皆均霑，而祈雨祭亦已停止乎？令廟堂行會錦伯處，使卽具由狀聞。”

丙午六月十一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日昨甘霈，乍霽旋止，初禱靈應，¹¹ 若將中閔，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不卜日，今十三日，依例遣宰臣設行，何如？”傳曰：“允。獻官諸執事另擇，祝文令文任撰進，

10 下 : 저본에는 ‘產’.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6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 初禱靈應 : 저본에는 ‘初禱’.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6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14일

● 3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연일 비가 조금 내렸으나 겨우 먼지를 적시고 그쳤 습니다. 재차 정성을 다하였는데 아직 비가 쏟아지 지 않았으니,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우사단에 택 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아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 음이 간절하다. 지금은 비가 내릴 조짐이 제법 많으 니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내일 아침에 형세를 보아 하교하겠다.”

하였다.

● 3차 기우제

같은 날 예조의 계사에,

“3차 기우제는 성상의 전교대로 우사단에 중신을 보 내 이번 16일에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젯밤 내린 비는 호미날과 쟁기날을 적시지 못하 였는데 비가 내릴 기미가 오전에 비해 더욱 아득하 다.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애타고 걱정이다. 기도

祭物各別精備事, 知委可也.”

丙午六月十四日

● 三次祈雨觀勢設行

一. 曹啓辭: “連日小雨, 僅止 涸塵, 再次致虔, 一需尙靳, 三 次祈雨祭, 風雲雷雨·雩祀壇, 不卜日, 今十六日, 依例遣宰臣 設行, 何如?” 傳曰: “一需尙 遲, 顒望方切, 今則雨意頗多, 政宜靜而俟之, 明朝當觀勢下 教.”

● 三次祈雨

一. 同日曹啓辭: “三次祈雨 祭, 依聖教, 雩祀壇遣重臣, 今十六日設行之意, 敢啓.” 傳 曰: “昨夜之雨, 未鋤犁, 雨意 比午前尤漠然, 言念民事, 萬 萬渴憫. 禱雨之舉, 不可中止, 禮曹草記, 俄以明日觀勢爲之

하는 일을 중지할 수 없는데, 예조의 초기에 대해 방금 ‘내일 형세를 보아 하겠다.’라고 하교하였다. 지금의 날씨로는 천천히 기다리기 어려우니, 우사단의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 설행하고, 내일 향을 받으라.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고 각별히 목욕재제하며, 제문은 문임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 기우제 집례를 채워 차임하라는 전교

같은 날 전교하기를,
“지금 우사단의 보부^{報府}를 통해 처음 들으니, 기우제를 단헌^{單獻}으로 지내면 집례^{執禮}가 없다고 한다. 찬의^{贊儀}와 인의^{引儀}가 대행하면 일의 체모가 구차하니, 앞으로 기우제를 단헌으로 지낼 때는 집례를 채워 차임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병오년¹⁷⁸⁶ 6월 17일

● 보사제는 전례를 살펴 거행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낸 저녁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부터 아침까지 내려 높고 낮은 곳을 두루 적셨으니, 보사하는 일을 입추까지 천천히 기다릴 수 없다.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전례를 살펴 택일하여 초기를 올리게 하고, 헌관 이하의 상전은 원래 시행해야 하

下教，而以今日候有難遲待，
雩祀壇祈雨祭，遣重臣設行，
明日受香，諸執事另擇各別齋
沐，祭文令文任撰進。”

● 祈雨執禮填差傳教

一. 同日傳曰：“今因雩壇報府
始聞之，祈雨祭單獻，則無執
禮之云。贊引之代行，事面苟
艱，此後祈雨祭，單獻時，執禮
填差事，分付該曹。”

丙午六月十七日

● 祈雨報謝考例舉行

一. 傳曰：“祈雨之夕，甘澍伊
始，夜朝所得，高低周洽，報謝
之舉，不容遲待立秋，令該曹
即考已例，涓吉草記，獻官以
下賞典，自是應行之事，亦令
該房考例捧傳旨。”

는 일이니, 역시 해당 방으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전
지를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 보사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

“예조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낸 저녁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
부터 아침까지 내려 높고 낮은 곳을 두루 적셨으니,
보사하는 일을 입추까지 천천히 기다릴 수 없다. 해
당 조로 하여금 즉시 전례를 살펴 택일하여 초기를
올리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등록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비가 내린 뒤 보사제를 입추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
시 거행한 전례가 몹시 많습니다. 근래의 일로 말하
자면 임인년¹⁷⁸²과 계묘년¹⁷⁸³에도 이미 시행하였습니
다. 성상의 전교대로 보사제를 지내는 길일을 일관
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5일이 길하다고 하였
습니다. 이날 우사단에 보사제를 설행하라고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報謝設行草記

一. 曹啓辭：“傳教內：‘祈雨之
夕，甘澍伊始，夜朝所得，高低
周洽，報謝之舉，不容遲待立
秋，令該曹取考已例，涓吉草
記’事，命下矣。取考騰錄，則
得雨後報謝¹²祭之不待立秋，
卽爲舉行者，事例甚多，就以
近年言之，壬寅癸卯亦已行之，
依聖教，報謝祭吉日，令日官
推擇，則今六月二十五日爲吉
云。以此日零祀壇報謝祭設行
事，知委何如？”傳曰：“允。”

12 謝：저본에는 ‘別’.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정미년¹⁷⁸⁷ 4월 16일

● 1차 기우제 헌관을 특별히 가리고, 제물은 정갈하게 준비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이번 가뭄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지난해 6월 그믐에 비가 내린 뒤로 해를 넘길 때까지 통틀어 헤아려 보니, 겨우 20여 차례 비가 내렸고 수심도 겨우 1척 1촌이었다.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비록 추측하기 어려우나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어찌 빌미가 없겠는가. 내가 한창 몸을 기울여 수신하고 반성하느라 한가하게 지낼 겨를이 없으나,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절기가 조금 이르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고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 우물과 샘이 모두 고갈되고 싹은 말랐다. 당장 긴급하기가 거의 봄과 여름보다 심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타는 듯하다. 가까운 지난 전례를 살펴보니, 단오 이전에 기우제를 지낸 것은 숙종 경오년¹⁶⁹⁰에 설행하였고, 선조^{先朝} 임진년¹⁷⁷²에도 설행하였으니, 오늘 계승할 단서가 된다.

삼각산·목멱산·한강^{漢江}에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에 향을 맡고, 헌관^{獻官}은 근시 중에서 차임하여 보내겠다. 제수는 정갈하게 마련하고 재관을 각별히 가려 뽑아 각기 목욕재계하고 옷을 세탁하여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고 해당 조로 하여금 통지하여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丁未四月十六日

● 初次祈雨獻官另擇，祭物精備傳教

一. 傳曰：“今茲之旱，胡至此甚？自去年季夏晦，得雨之後，通計跨年所得，堇爲廿餘次，水深又堇爲尺有寸，玄遠之理，縱難推測，苟究厥由，豈無所崇¹³？予方側身修省，不還自暇，而虔禱之舉，亦豈容暫緩？節序雖已差早，冬無雪春不雨，井泉俱涸，苗則稿矣。目下渴急，殆甚於春夏，念及稿事，心焉如焚。近考往例，五月節前祈雨，肅廟庚午行之，先廟壬辰亦行之，爲今日仰述之端，三角山·木覓山·漢江初次祈雨祭，不卜日，以今十七日受香，獻官，近侍中當差遣，祭品精備，齋官另擇，俾各齋沐其身，洗濯其衣，虔誠將事事，令該曹知委申飭。”

13 崇：저본에는 '祭'.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4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기우제를 단오 이전에 설행할지 여부를 전례를 살펴 아뢰라고 하다.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경기 감사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단오 이전에 기우제를 설행한 일은 전례가 거의 없고 겨우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특별히 전례를 벗어난다는 뜻으로 내일부터 설행하라. 지방은 지방의 전례를 지켜야 하니, 단오 이전에 설행하였는지 여부를 전례를 소급하여 살펴 다시 장계로 아뢴 뒤 회답을 기다려 거행하라고 즉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4월 18일

● 전교

전교하기를,

“우승지와 예조 판서는 『기우제등록』을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4월 19일

●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계사에,

“기우제를 지낸 뒤에 메아리처럼 신령이 빠르게 응답하여 단비가 밤새도록 내려 농민을 위로하였으

● 祈雨節前設行與否, 考例
啓聞

一. 以京圻監司狀啓, 祈雨祭設行事, 傳曰: “五月節前, 祈雨之舉, 前後絕無而堦有, 京中則特以拔例之意, 自明日設行, 外方當守外方之例, 入節前設行與否, 溯考前例, 更爲狀啓後, 待回下舉行事, 卽爲回諭.”

丁未四月十八日

● 傳敎

一. 傳曰: “右承旨與禮曹判書, 持祈雨祭謄錄入侍.”

丁未四月十九日

● 報謝祭設行

一. 曹啓辭: “祈雨祭後, 靈應如響, 甘露通宵, 慰滿三農, 報謝之舉, 不容少緩. 三角山·木

니, 보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이번 4월 21일에 즉시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5월 27일

● 영제^祭

예조의 계사에,

“단비에 장마가 되어 잠깐 개었다가 다시 쏟아지니, 농사가 손상을 입을까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5월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있으니, 사문영제를 택 일하지 말고 이번 29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우제와 기청제를 지내서 곧바로 감응할지는 내가 덕이 없고 정성이 얕아 감히 확신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복을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4월에 기우제를 지내고 5월에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전고를 찾아보아도 전례가 몹시 드물다. 기청제를 아직까지 설행하지 않은 것이 어찌 태만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감히 번거롭게 하는 결과가 될까 두려워서이다. 지난달 기우제를 지낸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번 영제도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覓山·漢江報謝祭, 不待立秋, 今四月二十一日, 卽爲設行之意, 知委何如?” 傳曰: “允.”

丁未五月二十七日

● 祭

一. 曹啓辭: “甘雨成霖, 乍晴旋霖, 稼穡受損, 誠極悶慮. 五月祈晴, 已有前例, 四門祭, 不卜日, 今二十九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祈雨祈晴, 有所輒應, 以予否德淺誠, 非敢固必, 而修盡人事, 冀垂冥鷺, 卽不容已之舉也. 然四月祈雨, 五月祈晴, 求之掌故, 已例絕罕. 祈晴之尙靳設行, 寧或沁泄而然? 恐敢瀆褻之歸, 前月祈雨, 迫於群情, 不得已行之, 今番祭, 亦何異是? 草記以今二十九日設行, 獻官以承旨填差, 諸執事擇差, 時任玉堂勿拘, 祭文令內閣知製教撰進,

초기대로 이번 29일에 설행하라. 헌관은 승지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가려 차임하되 시임^{時任} 옥당^{玉堂}도 구애받지 말라. 제문은 내각 지제교에게 지어 바치게 하고, 제물은 정성껏 정갈하게 마련하라고 아울러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6월 3일

● 기청 보사제 설행

예조의 계사에,
“기청제를 설행한 뒤에 메아리처럼 신령이 감응하여 장맛비가 말끔히 그쳤으니, 보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보사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월 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청제를 지내자 즉시 날이 개었으니, 보사제를 지내는 일은 초기대로 조금도 늦출 수 없다. 하지만 하루 이틀 조금 기다렸다가 설행해도 좋으니, 7일에 하라. 헌관 이하 집사들은 정성껏 제사를 지낸 노고에 대해 본래 시행하는 상전이 있으니, 승정원에서 전례를 살펴 전지를 봉입하라. 제문은 내각의 지제교에게 지어 바치게 하고 헌관은 승지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祭物虔誠精備事，並即分付可也。”

丁未六月初三日

● 祈晴報謝祭設行

一. 曹啓辭：“祈晴祭設行後，靈應如響，積雨快霽，報謝之舉，不容少緩，依定式，報謝祭不卜日，今六月初五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祈晴即晴，報謝之舉，當依草記，不容少緩，而差待一兩日設行亦好，以初七日爲之，獻官以下諸執事，虔誠將事之勞，自有應行賞典，令政院敢考前例，捧傳旨，祭文令內閣知製教撰進，獻官以承旨填差可也。”

정미년¹⁷⁸⁷ 6월 24일

● 영제는 저녁 이후 날씨를 다시 보고 하겠다는
하고

하교하기를,

“이달 초 기청제를 설행한 후 삼가 이어서 날이 개기를 바랐는데, 그 뒤 맑은 날이 드물고 그르저께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도록 쏟아져 지금까지 개다가 쏟아지다가 한다. 농사를 망치는 것이 참으로 너무도 걱정이지만, 민가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빠지는 것은 더욱 불쌍하고 참혹하니, 이를 생각하면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어찌 전례의 유무에 구애받겠는가. 또 6월에 기청제를 지내고 한 달에 재차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모두 많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 향을 받고, 헌관은 승지를 차임하여 보내며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고 제물을 정갈하게 마련하라고 분부하라.

오후에 날이 갠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깨끗이 갠지 확신할 수 없으니, 제물을 모시고 가는 일과 집사들의 청재^{淸齋}는 저녁 이후의 날씨를 다시 보고 하교를 기다려 하라. 집사들은 모두 입직한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여 날이 깨끗이 개기를 기다리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丁未六月二十四日

● 祭更觀夕後日氣爲之事, 下教

一. 傳曰: “月初祈晴之後, 竊冀仍此快霽, 伊後晴日既鮮, 三昨之雨, 通宵大注, 迄此乍晴旋霖, 穰稼固萬萬切悶, 而民舍之漂顛, 人命之墊沒, 尤用矜慘, 言念及此, 不遑寧處, 祈晴之舉, 何拘前例有無? 且聞六月祈晴, 月再祈晴, 俱多已例, 四門祭, 不卜日, 明再明間受香, 獻官以承旨差遣, 諸執事另擇, 祭物精備事, 分付. 午後雖有晴意, 快霽亦未可必, 祭物陪進及諸執事清齋, 更觀夕後日氣, 待下教爲之. 諸執事皆以入直官員填差, 以待快霽事, 分付.”

정미년¹⁷⁸⁷ 6월 28일

● 영제를 설행하지 않다.

전교하기를,

“어제 오후 이후에 비가 깨끗이 그쳤고 오늘도 날이 개었으니 다시 하루 이틀 보다가 만약 깨끗이 개면 영제는 설행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7월 3일

● 영제

예조의 계사에,

“이미 가을이 되었는데도 장마가 개지 않아 농사가 손상을 입으니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5일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하다. 제관^{祭官}을 가려 차임하고, 제물^{祭物}을 정갈하게 준비하라.”

하였다.

정미년¹⁷⁸⁷ 7월 9일

● 영제 보사제는 우선 물리다.

예조의 계사에,

丁未六月二十八日

● 祭祭不爲設行

一. 傳曰：“昨午以後，雨勢快息，今日又有晴色，更觀一兩日，若快霽則祭祭勿爲設行事，分付。”

丁未七月初三日

● 祭祭

一. 曹啓辭：“秋節已屆，霖雨不霽，稼穡受損，誠極憫慮。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祭祭，不卜日，今初五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獻官擇差，祭物精備。”

丁未七月初九日

● 祭祭報謝祭姑退

一. 曹啓辭：“祭祭纔舉，積雨

“영제_{榮祭}를 설행하자마자 장마가 깨끗이 그쳤으니
보사제를 설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택일하지 말고 이달 1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헌관_{獻官} 이하 집사_{執事}들의 상전_{賞典}은 규례대로 전
지_{傳旨}를 받들라.”

하였다. 【10일 차대에서 예조 판서 서유린_{徐有隣}이 입
시하였을 때 다시 택일하여 물리라고 직접 하교를
받들어 이렇게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였다.】

정미년₁₇₈₇ 9월 10일

● 보사제 택일

이번 9월 10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김
이소_{金履素}가 아뢰기를,

“7월에 기청제를 지낸 뒤 보사제는 가을을 기다려
택일하여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일관_{日官}에
물었더니 오는 12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快晴，報謝之舉，不容少緩。
報謝祭不卜日，今十二日設行
之意，知委何如？”傳曰：“獻
官以下諸執事賞典，依例捧
傳旨。”【初十日次對，本曹判
書徐入侍時，更爲擇日退行
事，親承下教，以此知委各該
司。¹⁴】

丁未九月初十日

● 報謝祭擇日

一. 今九月初十日次對入侍時，
禮曹判書金履素所啓：“七月
祈晴祭後，報謝祭有待秋成擇
日舉行之命矣，問于日官，則
今十二日爲吉云，以此日舉行，
何如？”上曰：“依爲之。”

¹⁴ 該司：저본에는 없음. 문맥을 고
려하여 보충

무신년¹⁷⁸⁸ 8월 13일

● 영제를 지낼지 여쭙다.

예조의 계사에,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찬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여 아직 날이 갠 조짐이 없으니 농사에 해가 될까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설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월 15일에 시작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초기는 도로 내어주고 하교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구전 하교하였다.】

기유년¹⁷⁸⁹ 6월 6일

● 기청제 전교

전교하기를,

“수표석^{水標石}이 넘쳐흐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거세게 내리는 비가 온종일 내리지도 않았으나, 두 달 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니 농사를 망치거나 앓을까 걱정이다. 평안도에서는 물에 떠내려간 민가가 이처럼 많고, 함경도의 일도 참으로 마음에 걸린다. 서울은 팔도의 대표이니 절기의 이르고 늦음을 따질 것 없이 기청제를 택일하지 말고 근시^{近侍}를 보내 7일 설행하되, 집사관^{執事官}은 전례대로 내사^{內司}와 외사^{外司}의 입직한 관원 중에 채워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戊申八月十三日

● 禳祭取稟

一. 曹啓辭：“秋節已深，冷雨或霖或灑，尙無開霽之意，恐有害稼之慮，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禳祭，不卜日，今八月十五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何如？”【此草記還出，待下教舉行事，口傳下教.】

己酉六月初六日

● 祈晴傳教

一. 傳曰：“水標不至過流，霖勢不至竟日，而跨朔成霖，痒稼可慮，關西水漂此多，北路事誠關心，京城爲八路之表，時令早晚不須論，祈晴祭，不卜日，遣近侍，初七日設行，執事官依前例，以內外司入直官中填差事，分付.”

하였다.

● 기청제 기사

예조의 기사에,

“기청제는 택일하지 말고 근시^{近侍}를 보내 7일에 설행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이번 7일에 설행하되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유년¹⁷⁸⁹ 6월 10일

● 영제를 지낼지 여쭙다.

예조의 기사에,

“1차 기청제는 이미 특교에 따라 설행하였으나 비가 아직 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2차 영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설행하고 내일 향을 받으라.”

하였다.

● 영제를 지내라고 통지하다.

예조의 기사에,

“2차 영제는 이번 12일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이번 12일에 시작하되 3일 뒤 중지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祈晴啓辭

一. 曹啓辭: “祈晴祭, 不卜日, 遣近侍, 初七日設行事, 命下矣. 四門禁祭, 今初七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己酉六月初十日

● 禁祭取稟

一. 曹啓辭: “初次祈晴祭, 既因特教設行, 而雨勢尙無開霽之意, 再次禁祭,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仍爲設行, 明日受香可也.”

● 禁祭知委

一. 曹啓辭: “再次禁祭, 今十二日設行事, 命下矣. 四門禁祭, 今十二日爲始,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하였다.

기유년¹⁷⁸⁹ 6월 11일

- 승정원 계사에 대해 영제의 향을 받는 것은 다시 날씨를 보고 여쭙어 처리하라고 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문영제의 향을 오늘 받아야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날이 개기 시작하여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다시 며칠 살펴보다가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하루 간격으로 다시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롭다는 혐의가 있어 어제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릴 때 향을 받는 것은 우선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저녁에 하라고 하였다. 지금 이 계사도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하니, 조금 날이 저물면 다시 날씨를 보았다가 해당 조로 하여금 초기를 올려 내 뜻을 묻게 하라.”

하였다.

- 영제는 우선 중지하겠다는 계사에 대해 그대로 향을 받고 제사를 지내라고 분부하다.

예조의 계사에,

“승정원의 계사에 대한 비지에,

‘하루 간격으로 다시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롭다는 혐의가 있어 어제 초기에 윤허를 내릴 때 향을

己酉六月十一日

- 政院啓辭, 榮祭受香, 更觀日候稟處.

一. 政院啓曰: “四門榮祭, 今日當爲受香, 而自昨夕始霽, 姑無雨意, 更觀數日, 設行何如?” 傳曰¹⁵: “間日更擧, 誠有瀆褻之嫌, 昨於草記允下之時, 受香則使之姑待, 今夕爲之矣. 今聞此啓辭, 亦因前例云, 而更觀稍晚日氣, 令該曹草記, 稟旨可也.”

- 榮祭姑爲停止啓辭, 仍爲受香行祀之意, 分付.

一. 曹啓辭: “政院啓辭批旨內: ‘間日更擧, 誠有瀆褻之嫌, 昨於草記允下之時, 受香則使

¹⁵ 傳曰: 저본에는 ‘畧’.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6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받는 것은 우선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저녁에 하라고 하였다. 지금 이 계사도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조금 날이 저물면 다시 날씨를 보았다가 해당 조로 하여금 초기를 올려 내 뜻을 묻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제법 비가 그칠 가망이 있으니 영제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제물을 이미 봉진하였다고 하니, 오늘은 그대로 향을 받아 제사를 지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之姑待，今夕爲之矣。今聞此啓辭，亦因前例云，而更觀稍晚日候，令該曹草記，稟旨可也’事，命下矣。今則雨意頗有開霽之望，祭姑爲停止，何如？”傳曰：“祭物聞已封進云，今日仍爲受香行祀之意，分付可也。”

기유년¹⁷⁸⁹ 6월 13일

● 영제를 지내고 이어서 보사제를 지낸다.

이번 6월 13일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이 아뢰기를,

“오늘은 비가 깨끗이 개었으니 영제를 연이어 설행하는 것은 번거로운 혐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역시 영제를 중지하고 이어서 보사제를 설행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사제를 거행하는 일은 특교로 날짜를 앞당겨 정할 경우가 아니면 입추가 지난 뒤 날을 잡아 한다. 입추가 며칠 남지 않았

己酉六月十三日

● 祭祭仍行報謝祭

一. 今六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禮曹判書鄭所啓：“今則雨意快晴，祭祭之連爲設行，不無瀆褻之嫌，在前如此之時，亦有祭祭則寢止，仍行報謝之例，今亦依此舉行，何如？”上曰：“不但有前例，凡報謝之舉，除非特教進定，則待立秋後卜日，而立秋只隔數日，神位版之更爲奉來，亦近瀆褻，依前例，今日受

는데 신위판^{神位版}을 다시 받들고 오는 것도 번거로운 데 가깝다. 전례대로 오늘 향을 받고 이어서 보사제를 지내라. 헌관과 집사들은 각별히 채워 차임하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신해년¹⁷⁹¹ 7월 19일

● 기청제 전교

전교하기를,
“사문 기청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에 설행하라. 헌관은 근시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내외 각 관사의 입직한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라. 흥인문^{興仁門}에는 우승지, 숭례문^{崇禮門}에는 좌부승지, 돈의문^{敦義門}에는 우부승지, 숙정문^{肅靖門}에는 동부승지가 나가고, 제물은 정갈하게 준비하며, 제관의 재계와 목욕은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 기청제를 지내겠다는 계사

예조의 계사에,
“사문 기청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0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 기청제는 이번 20일에 설행하되, 3일 후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香, 仍行報謝, 獻官諸執事, 別爲填差事, 分付銓曹可也.”

辛亥七月十九日

● 祈晴傳教

一. 傳曰: “四門祈晴祭, 不卜日, 今二十日設行, 獻官以近待填差, 諸執事以內外各司入直官填差, 興仁門右承旨, 崇禮門左副承旨, 敦義門右副承旨, 肅靖門同副承旨進去, 祭物精備, 祭官齋沐, 各別申飭.”

● 祈晴啓辭

一. 曹啓曰: “四門祈晴祭, 不卜日, 今二十日設行事, 命下矣. 四門祈晴祭, 今二十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신해년¹⁷⁹¹ 7월 23일

● 영제 보사 초기에 대한 비답에, 대신의 의견을 받으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영험한 감응이 메아리 같아 장마가 깨끗이 개었으니 보사제를 설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식^{定式}대로 보사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월 2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청제를 지내자마자 비가 개었으니 다행히 신령의 감응이 도와준 것 같지만 장마가 내리다가 오늘 비로소 날이 갠 조짐이 있다고 갑자기 사전^{祀典}을 설행할 수는 없다. 하루 이틀 날씨를 조금 더 보다가 깨끗이 개기를 기다려 비로소 보사제를 설행할지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이다. 3일을 기다렸다가 보사제를 지내는 것 또한 정해진 법이니, 다시 하교를 기다려 설행하라.

보사제를 지낼 장소는 하문한 뒤 결정하려고 하였는데, 경^卿이 말고 있는 예조에서 이미 초기를 올렸으니 이로 인하여 수의^{收議}하더라도 너무 이르는 않을 것이다. 영제의 보사제를 사문에서 설행하는 것은 신실^{神室}에 함께 봉안한 여러 신위^{神位} 때문에 사방 산천^{四方山川}의 신위에만 따로 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침 신실을 수리한 일 때문에 아직 도로 봉안하지 않았는데, 도로 봉안하는 날짜는

辛亥七月二十三日

● 祭報謝草記批答, 受議大臣事

一. 曹啓曰：“祭設行後，靈應如響，積雨快霽，報謝之舉，不容少緩，依定式，報謝祭，不卜日，今七月二十五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祈晴即晴，雖幸靈應之若有所相，然積雨之餘，不可以今日始有晴意，遽行祀典，稍觀一兩日日氣，待快晴，始議報謝之舉，似合事宜。待三日後報謝，亦係彝典，更待下教設行可也。報謝祭處所一款，欲爲詢問後爲之者，卿曹草記，既登聞，因此收議，庶不至太早。凡祭祭報謝，設行於四門者，以神室同奉諸位，有難獨設於四方山川神位也。今番適因修改事，姑未還安，而還安日字，當在快晴後，其時亦當有祭儀，若於四方山川神位祝辭，添入報謝之意，兼告還安之由，於禮似無不可，亦省奉往奉來之屑瀆，係是罕有之例，發遣郎官，

꽤청해진 뒤일 것이다. 그때도 제의祭儀가 있을 것이니 사방 산천 신위의 축사祝辭에 보사한다는 뜻을 보태 넣고 겸하여 도로 봉안하는 사유를 고한다면 예의상 안 될 것 없을 듯하고, 번거롭게 받들어 오가는 것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혼치 않은 사례이니 낭관郎官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고 오게 하여 경이 이치를 따져 결론을 내리고 초기를 올려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해년¹⁷⁹¹ 7월 24일

● 보사제에 대해 수의收議한 뒤의 초기

예조가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낭청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의정부 좌의정 체제공蔡濟恭은,
 ‘도로 봉안하는 곳이 가까운 데 있고, 마침 보사제를 지낼 때를 만났으니, 성상께서는 신위神位를 받들고 다녀오는 것이 행여 번거로울까 염려하여 도로 봉안하는 축문에 보사하는 뜻을 아울러 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봉안할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예법이고, 보사제를 실행하는 것은 특별히 거행하는 전례典禮입니다. 만약 겸하여 고하게 한다면 특별히 거행하는 뜻에 맞지 않은 듯합니다. 종묘와 사직에 일이 있으면 겸하여 사유를

問議大臣以來，卿其論理指一，草記稟處，可也.”

辛亥七月二十四日

● 報謝祭收議後草記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依聖教，發遣郎廳，問議于大臣，議政府左議政蔡濟恭以爲：‘還安在近，適值報謝，聖意以神位之奉往奉來，慮或瀆屑，欲於還安之祝，兼告報謝之意，而但念還安有祭，應行之禮也，報謝行祀，特舉之典，若令兼告，則特舉之意，恐或不然。廟社有事，兼告事由，儘是節文之得宜，而今此報謝，出於別致之義。臣意則待快晴還安後，更設四門報謝，似

고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절차이지만, 이번 보사제는 특별히 지내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날이 깨끗이 개기를 기다려 도로 봉안한 뒤 다시 사문에서 보사제를 설행하는 것이 정성과 예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영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영돈녕부사 홍낙성(洪樂性)·행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은 모두 병 때문에 헌의(獻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제를 지낸 뒤 보사제를 지내는 일은 갑진년(1784)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신실(神室)에서 설행하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오래된 문헌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참고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선조(先朝) 무인년(1758) 여름, 몸소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미처 예를 설행하지도 않았는데 큰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우제의 축사(祝辭)에 보사(報謝)한다는 구절을 보태 넣고 그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성상의 뜻은 아마도 신위(神位)를 자주 받들고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참고할 만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대신의 헌의는 실로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 논의이니, 막중한 전례(典禮)를 신이 맡고 있는 예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견도 좋다. 보사제는 사문에서 거행하되

合誠禮，伏惟上裁’云。領中樞府事徐命善·領敦寧府事洪樂性·行判中樞府事李福源，俱病不獻議矣。祭祭後報謝，初自甲辰，則行於神室，既無可據之例，久遠文獻，無一見存，亦無傍照之道，而第伏念先朝戊寅夏，親行北郊祈雨祭時，未及行禮，大雨霽霽，乃於祈雨祝辭，添入報謝句語，仍以行祀，伊時聖意，蓋以神位之數數奉來，爲屑瀆故也。此或爲傍照之已例，而今此大臣獻議，實出守經之論，則莫重典禮，臣曹不敢擅便，上裁何如？”傳曰：“大臣之意亦好，報謝祭，以四門舉行，日字以二十七日爲之，獻官以近侍填差，可也。”

날짜는 27일로 하고 헌관은 근시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임자년¹⁷⁹² 6월 12일

- 기청제 초기에 대한 비답에, 오늘 향을 받고 6월로 지레 조정하기로 논의한 전례가 없으니 해당 조의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고, 앞으로 6월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은 대신에게 문의하거나 구대^{求對}할 때 외에는 혹시라도 먼저 초기를 올리지 말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단비가 장마가 되어 잠시 개었다가는 바로 쏟아져 농사에 피해를 입히니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설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설행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한 지 오래되었으나 큰비가 때로 내리는 절기라 우선 상황을 보고자 하였다. 이 초기를 보고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신도 오늘 향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다시 생각해 보니, 입추 전에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충분히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다.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찌 내일까지 기다리겠는가. 사문영제의 향은 오늘 받으라. 헌관은 내각^{內閣}·옥당^{玉堂}으로 가려 차임하고, 집사들도 입

壬子六月十二日

- 祈晴草記批旨內, 受香今日爲之, 而徑¹⁶議闊狹, 六月無例, 該曹堂上從重推考, 此後六月祈晴, 除非議大臣及求對, 莫或經先草記.

一. 曹啓曰: “時雨成霖, 乍晴旋霖, 稼穡受傷, 誠極憫慮, 祈晴之舉, 不容少緩, 四門祭, 不卜日, 今十四日設行, 三日止事, 知委何如?” 傳曰: “方寸之禱雖久矣, 以其大雨時行之節, 姑欲觀勢矣, 觀此草記, 問大臣, 大臣亦以受香爲可云, 更思立秋前祈晴, 足有可據之例, 而欲爲則何待來日乎? 四門祭受香, 以今日爲之, 獻官以內閣·玉堂擇差, 諸執事亦以入直官員填差, 有

16 徑: 저본에는 '經'.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직한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라.

담당 관원은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한다. 대체로 6월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도 볼 수가 없다. 오직 병신년¹⁷⁷⁶에 특교에 따라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본받을 만한 법이겠는가. 5월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사전^{祀典}은 막중하니 일개 예관^{禮官}의 소견을 따라 곧바로 조정하기로 논의하면 안 된다. 6월에 지낸 전례가 없는데도 지내고자 한다면 역시 대신에게 가서 문의하거나 구대^{求對}하여 내게 물어 청해야 하는데, 곧바로 초기를 올린 것은 너무나 경솔하다. 해당 조의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라. 앞으로 6월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은 대신에게 문의하거나 구대할 때 외에는 혹시라도 먼저 초기를 올리지 말고 전례를 준수하라.” 하였다.

임자년¹⁷⁹² 6월 22일

- 기청제를 설행한 뒤 보사제를 설행하기를 청하는 초기에 대한 비답에, 날이 갠 지 며칠 만에 또 보사제를 청하였으니 공무를 행한 해당 당상을 모두 파직하고 다음 달 초에 다시 물으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청제를 설행한 뒤 메아리처럼 신령이 빠르게 응답하여 장마가 깨끗이 개었으니 보사하는 일이 없

司之臣，當守經常之典，大抵六月祈晴之已例，溯考久遠，未之見焉，唯有丙申年，因特教一事，此豈可倣之典乎？至於五月則尙可，祀典莫重，不可以一禮官之見，徑¹⁷議闊狹，六月之無例，而欲行之，則亦當往議大臣或求對稟請，而直呈草記，太涉率易。該曹堂上從重推考，此後六月祈晴，除非議大臣及求對，莫或經先草記，以遵舊例可也。”

壬子六月二十二日

- 祈晴設行後，報謝請行事草記批旨內，霽未數日，又請報謝，當該行公堂上罷職，來初更稟。

一. 曹啓曰：“祈晴祭設行後，靈應如響，積雨快霽，不可無

¹⁷ 徑：저본에는 ‘經’.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을 수 없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에게 잡도록 하였더니 이번 25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예조 판서의 행동이 어찌 이리도 조급하고 어지러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 삼경^{三庚}에 해당하는 6월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없으니, 이것을 시작한 뒤에는 큰비가 내려 정말로 제사를 지내야 할 때는 번거롭다는 혐의 때문에 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어제 태양이 증천에 떠서 광채가 빛나고 있으니 이어서 날이 깨끗이 개기를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날이 갠 지 며칠 만에 또 보사제를 지내도록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조용히 기다리는 뜻이겠는가. 게다가 7월은 아직도 멀었는데 어찌 이때 보사제를 지낸 전례가 있었는가. 공무를 행한 해당 당상을 모두 파직하고 봉납^{捧納}한 승지를 체차한 뒤, 다시 다음 달 초에 내게 물으라.”

하였다.

임자년¹⁷⁹² 7월 4일

- 보사제를 지낼지 여쭙는 초기에 대한 비답에, 낭관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고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報謝之舉，報謝祭吉日，令日官推擇，則今二十五日爲吉云。

以此日設行之意，知委何如?”

傳曰：“近來禮判舉措，何如是燥擾乎? 甚非所知，三庚六月之祈晴，既無其例，而自朧之後，大水真正當爲之時，嫌於煩瀆，不得設行，何幸昨日太陽中天霽光赫然，因此快得收晴，方齋心默禱，則霽未數日，又請報謝者，是豈靜而待之意乎? 況七月尙遠，亦豈有此時報謝祭之例乎? 當該行公堂上，並罷職，捧納承旨遞差，更待來初稟旨可也。”

壬子七月初四日

- 報謝稟旨草記批旨內，發遣郎官，議于大臣，稟處事一. 曹啓曰：“去六月二十二日報謝祭設行事草記批旨內，更

“지난 6월 22일 보사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한 비지에, 다시 내달 초에 물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각 연도의 등록^{騰錄}을 소급하여 살펴보니, 영제^{榮濟}를 마친 뒤에 보사제를 설행하는 것은 갑진년¹⁷⁸⁴ 7월부터 정식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기청제를 지내고 즉시 날이 개어 헌관^{獻官} 이하를 논상할 때의 일입니다. 기유년¹⁷⁸⁹과 신해년¹⁷⁹¹ 두 해에 보사제를 설행하였을 때는 제관^{祭官}이 상전을 받지 못하였으나 영제를 지내고 3일 뒤에 본조에서 성상의 뜻을 여쭙고 그대로 보사제를 설행하거나, 영제를 설행한 다음 날 날이 즉시 개자 초기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헌관을 논상하지 않은 데다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낭관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고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 보사제에 대한 수의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제 초기에 대해 전교하기를,

‘낭관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낭청^{郎廳}을 보내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의정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6월 26, 27일부터 날이 개고 날씨가 조화로워 근래

待來初稟旨可也事, 命下矣. 溯考各年騰錄, 則榮祭後報謝設行, 自甲辰七月定式, 而此皆祈晴即晴, 獻官以下論賞時事也, 己酉辛亥兩年報謝設行時, 則祭官雖未蒙賞典, 而或於榮祭第三日, 因本曹稟旨, 仍行報謝, 或於榮祭翌日, 旋即開霽, 草記舉行, 今番則獻官既不論賞, 前例亦無可據,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發遣郎官, 議于大臣, 稟處可也.”

● 報謝收議

一. 曹啓曰: “報謝祭草記, 傳曰: ‘發遣郎官, 議于大臣處可也’事, 命下矣. 依聖教, 發遣郎廳, 議于大臣, 則議政府左議政臣蔡濟恭以爲: ‘自六月廿六七, 天宇開霽, 日氣調和, 近日以來, 農家頗有喜報, 天神

농가에 제법 기쁜 소식이 있으니 하늘이 묵묵히 보살피 주심을 누군들 우리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26, 27일은 영제의 재계를 마친 날과 10일 넘게 떨어져 있으니, 이는 연전에 영제 3일째나 이튿날 성상의 뜻을 여쭙어 보사제를 지낸 때와는 대략 같지 않고 헌관에 대한 논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사제를 실행하는 것은 번거로운 데 가까울 듯합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봉조하 정존겸^{鄭存謙}·영돈녕부사 홍낙성^{洪樂性}·영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행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은 모두 병으로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논의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후 영제의 실행은 3일 내에 날이 개면 논상을 행하지 않더라도 보사제를 실행하도록 청하고, 3일 뒤 날이 개면 보사제를 실행할지 여부를 논란하도록 하다.】

갑인년¹⁷⁹⁴ 7월 10일

- 1차 기우제는 근시를 보내 실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몹시 심하니 걱정에 마음이 타는 정

默佑，孰不仰感？而第廿六七之距祭罷齋日，恰爲一句，此與年前第三日或翌日稟旨報謝之時，略有不同，獻官亦無行賞，而今乃行報謝之祭，似近瀆褻，臣見如此，伏惟上裁’云。奉朝賀臣鄭存謙·領敦寧府事臣洪樂性·領中樞府事臣李福源·行判中樞府事臣朴宗岳，俱病不獻議云矣。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大臣議施行可也。”【此後祭設行，三日內得晴，則雖無行賞，當請報謝，而三日後得晴，則報謝祭設行當否，論難次。】

甲寅七月初十日

- 初次祈雨祭，遣近侍設行事，傳教

一. 傳曰：“旱氣如是太甚，憂

도가 아니다. 조만간 폐백을 가지고 여러 곳에 두루 제사를 지내려 하였으니, 어찌 지금까지 머뭇거린 것이겠는가. 경기와 전라도, 경상도에 비구름이 걷힌 지 10여 일 남짓 되었고, 며칠 동안 찌는 듯이 더워서 비가 내릴 가망이 제법 있었다. 어제 대신에게 하문하고 우선 조용히 기다렸는데, 저녁이 되자 되레 바람이 불더니 타는 듯이 날이 쨍쨍하였다. 농사를 생각하니 염려를 말할 수 없다. 올해는 날씨가 적절하였는데 최근 심한 가뭄이 골칫거리가 되었다. 재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반성하며 자책하느라 매일 밤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지낸 지 오래이다. 내가 참으로 부덕한 탓이니 백성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제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태일하지 말고 삼각산·목덕산·한강에 근시^{近侍}를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되,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향을 받도록 하라. 재관^{齋官}을 각별히 신칙하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예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하였다. 【12일에 설행하니, 이날은 입추였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 및 제관의 품계는 이미 특교가 있었으므로 따로 단자^{單子}를 작성하여 아뢴 절차는 없고, 단지 제향^{祭享}하는 각 관사에 감결을 보내 통지하였을 뿐이다.】

思不啻如焚，夙將珪幣，編及羣祀，豈或沁泄至今，而畿甸與湖嶺之收霽，有匝旬之遠近，數日蒸熱，亦頗有其雨之望，昨詢大臣，姑且靜俟，晚又反風，杲杲¹⁸如烘，念及三農，無以爲喻，以今年雨暘之適宜，有近日亢旱之爲愆，災不虛生，必有所召，反躬咎責，不覺每夜明發者久矣。予誠否德，百姓何辜？到今齋誠虔禱之不容暫緩，不卜日，遣近侍于三角山·木覓山·漢江，行祈雨祭，待開門受香，另飭齋官，俾各濯垢澣污，明潔將祀，禮畢前，勿切飲酒。”【十二日設行，而是日即立秋節矣，設祭處所及祭官品秩，既有特教，故別無單子修啓之節，只舉祭享各司捧甘知委而已。】

18 杲杲：저본에는 '투투',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7월 1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인년¹⁷⁹⁴ 7월 1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번 1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계하하였다. 【거위 등은 호조에서 진배하게 하였다. 일기에 있다.】

갑인년¹⁷⁹⁴ 7월 16일

● 북교에 정경을 보내 3차 기우제를 지낸다.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감히 몸소 폐백을 가지고 희생^{犧牲}을 대신하는 정성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병세로는 내 힘으로 행하기 어렵다. 또 관원을 보내 정성껏 기도하여 비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 택일하지 말고 북교에 정경을 보내 3차 기우제를 설행하고, 내일 향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갑인년¹⁷⁹⁴ 7월 20일

● 4차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甲寅七月十三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¹⁹·楮子島，遣宰臣，不卜日，今十五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允. 【鵝屬自戶曹進排，在日記.】

甲寅七月十六日

● 北郊遣正卿三次祈雨

一. 傳曰：“以今旱氣之愈甚，敢不躬將珪璧，以效代犧之誠，顧此病勢，難以自力，又當遣官虔禱，以祈霈然，不卜日，遣正卿于北郊，行三次祈雨祭，使之明日受香.”

甲寅七月二十日

● 四祈雨傳教

一. 傳曰：“第四次祈雨祭，不

¹⁹ 龍山江：자본에는 ‘龍江山’.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제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남단南壇에서 설행하
되,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내일 향을 받으라.
우사단霽祀壇에서도 같은 날 설행하되, 중신을 보내라
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처소와 제관의 품계는 특교로 거행하였으
므로 단자를 입계하지 않고 각 해당 관사에 감결만
보냈다.】

갑인년¹⁷⁹⁴ 7월 24일

● 5차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 기미가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대신을 보
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되 내일 향을 받으라.”
하였다.

갑인년¹⁷⁹⁴ 7월 27일

●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라는 초기에 대한 비지 에, 사직단 보사제는 추향과 겸행하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19일 내리신 전교에, 오늘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미 비가 내려서 수표석水
標石이 5촌 5분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부터 전례
대로 평상시의 음식과 음악을 회복하도록 각 해당

卜日，行于南壇，遣大臣行祀，
明日受香。” 霽祀壇同日設行，
遣重臣事，分付禮曹。【處所及
祭官品秩，因特教舉行，故單
子不爲入啓，只捧甘各該司。】

甲寅七月二十四日

● 五祈雨傳教

一. 傳曰：“雨意漠然，不卜日，
遣大臣，祈雨于社壇，明日受
香。”

甲寅七月二十七日

● 復膳草記批旨內，社壇報 謝秋享兼行

一. 曹啓曰：“今七月十九日所
下傳教中，自今日限得雨間，
減常膳撤樂事，命下矣。今已
得雨，水標流下，至爲五寸五
分，自今日依例復常膳法樂事，
知委各該司，何如？” 傳曰：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오늘 비가 쏟아질 줄 어찌 생각했겠는가. 모두 하늘이 묵묵히 보살피고 도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사하는 예를 어찌 감히 지체하겠는가마는 내일이 8월이고 또 오늘 내린 비 외에 밤에도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기우제는 정지하라. 사직단의 보사제는 따로 길일을 잡아 설행해야겠지만 시향^{時享}이 가까운데 따로 설행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겸행하도록 마련하라. 헌관과 집사는 어제 제관으로 차임한 사람을 변통하여 채워 차임하라. 희생과 폐백은 친행^{親行}하는 전례대로 하고, 축문에는 감사한다는 뜻으로 대제학을 그때 패초하여 지어 올리게 하되, 의례적으로 쓰는 축문에 보태 넣게 하라.” 하였다.

무오년¹⁷⁹⁸ 5월 15일

● 기우제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입하^{入夏} 이래로 비가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지만, 간혹 비가 내려 완전히 가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절기가 소서^{小暑}에 가까운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없으니, 앞으로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조금도

“允. 今日之霈然, 是豈意想之所及? 莫非冥庥陰鷲之攸錫, 禮有報謝, 其敢或緩? 八月隔日, 今日所得之外, 入夜連爲霖下, 祈雨則停止, 社壇報謝祭, 當別爲涓吉, 時享在近, 別設則瀆²⁰, 以兼行磨鍊, 獻官執事, 昨日差祭人, 通融填差, 牲幣用親行例, 祝文以仰謝之意, 大提學臨時牌招撰進, 添入於例用之祝可也.”

戊午五月十五日

● 祈雨啓辭

一. 曹啓曰: “入夏以來, 雨澤雖未周洽, 間或得雨, 不至全然旱乾, 故姑爲顙望矣. 卽今節近小暑, 淒風連吹, 雨意漠然, 前頭民事, 誠爲渴憫, 祈

20 瀆: 저본에는 ‘瀆以.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7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늦출 수 없고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1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서 전례대로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번 1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입계하기 전에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전교가 있었다.】

● 기우제를 지내라는 하교

전교하기를,
 “며칠 동안 조용히 기다렸지만 양기陽氣가 기승을 부려 날마다 해가 쨍쨍하다. 경기의 농사가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애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도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조정은 사방의 대표이니 이 시기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근시近侍를 보내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게 하라.”
 하였다.

무오년¹⁷⁹⁸ 5월 20일

● 2차 기우제를 내일 설행해도 되는지 시임·원임 대신에게 가서 문의하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런 시기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하교를 반포하겠는

禱之舉，不容少緩，而大臣之意亦如此，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依例遣三品官，不卜日，今十七日設行之意，知委何如？” 【未入啓之前，有祈雨設行傳教.】

● 祈雨下教

一. 傳曰：“靜俟數日，而亢暘日日杲杲，畿農愆時，非不焦慮，言念湖西民情，其嗷嗷之狀，若在目中，朝廷爲四方之表，此時禱雨之舉，不容少緩，不卜日，明日受香，遣近侍，禱雨于三角山·木覓山·漢江.”

戊午五月二十日

● 再次祈雨，雖明日設行當否，往問于時原任大臣.

一. 曹啓曰：“此時此中，何可以辭教頒宣，而民事所關，不可或緩，再昨日之雨，雖甚萬

가마는 농사에 관련된 일이라 혹여 지체할 수 없다. 그저께 비가 내려 몹시 다행이지만 측우기의 수심이 겨우 1촌 정도였고, 이후로는 아직 다시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2차 기우제를 내일이라도 설행하는 것이 좋겠는가? 예조 판서를 들어오게 하여 이 뜻을 전하고 즉시 서울에 있는 시임·원임 대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돌아와 아뢰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승지가 전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명을 받고 시임·원임 대신에게 가서 물었더니,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지금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오늘 내일의 날씨를 조금 본 뒤에 다시 설행할지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으나 구름이 여전히 짙으니, 신중하게 하는 도리로 보아 우선 하루 이틀 살펴본 다음 다시 기우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는,

‘단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여 옷을 적시기까지 하였으니, 지금 소견으로는 다시 기우제를 논의하는 것은 번거로울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幸, 測雨器水深, 僅爲寸許, 伊後姑未更得沛然之澤, 再次祈雨祭, 雖明日設行爲可乎, 禮曹判堂使之入來, 傳此意, 卽爲往問于在京時原任大臣回奏事, 承旨奉傳教矣. 臣承命往于問時原任大臣, 則左議政蔡濟恭以爲: ‘見今黑雲未解, 雨色霏微, 稍觀明日候, 更議設行爲宜’云. 右議政李秉模以爲: ‘雖未及雨, 雲氣尙濃, 其在慎重之道, 姑觀一兩日, 更議祈雨爲宜’云. 領敦寧金履素以爲: ‘甘雨方始, 至於霑衣, 以今所見, 更議祈雨, 恐有煩黷之慮’云矣, 敢啓. 傳曰: “知道.”

● 2차 기우제는 용산강에 중신을 보내고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며 신위는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고 하교하다.

전교하기를,

“어제와 오늘 날씨가 또다시 쨍쨍하니 황급한 백성의 마음이 어찌 충청도만 그러하겠는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장차 어찌 되겠는가. 밤낮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워 마음이 타는 듯하다. 재차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아 용산강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 설행하라. 제문^{祭文}은 예문관 제학을 패초^{牌招}하여 지어 올리게 하되,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말을 만들게 하라. 두 군데에는 으레 모두 용을 그려서 제사를 올리는데, 신위^{神位}는 지방^{紙榜}을 사용하도록 지금부터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루 전에 헌관은 태상사에서 재숙^{齋宿}하면서 그대로 구임 낭청^{久任郎廳}과 함께 그림을 감독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힘쓰고, 다음 날 아침에 향실^{香室}에 나아가 향을 받고 도로 태상시로 가서 모시고 갔다가 제사를 마친 뒤 다시 이렇게 봉안^{奉安}하라. 한결같이 근래 여러 단^壇에 제향할 때의 규례대로 하고, 예조와 태상시로 하여금 등록^{謄錄}에 기재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再次禱雨, 龍山江遣重臣, 楮子島遣宰臣, 神位紙榜爲式下教

一. 傳曰: “昨今日氣, 又復杲杲, 民情之遑汲, 豈但湖西爲然? 及今不雨, 歲將奈何? 夙宵憂恐, 方寸煎灼, 再次禱雨之舉, 不容少緩, 不卜日, 明日受香, 龍山江遣重臣, 楮子島遣宰臣設行, 祭文則藝文提學牌招撰進, 責躬省愆之辭, 使之措語, 兩處例皆畫龍行事, 神位用紙榜, 自今爲式, 先一日, 獻官齋宿於太常, 仍與久任郎眼同監畫, 務從精潔, 翌朝詣香室受香, 還至太常陪進之, 祭畢後還奉亦如之, 一依諸壇享事近例爲之事, 令禮曹太常載之謄錄, 遵行.”

무오년¹⁷⁹⁸ 5월 27일

- 보사제를 설행하고 기우제를 정지하라는 초기에 대해 다시 날씨를 보고 택일하여 설행하려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 이후 메아리처럼 신령이 감응하여 단비가 쏟아졌으니 보사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騰錄}을 살펴보니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리면 입추^{立秋}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사제를 설행한 가까운 전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전례대로 용산강·저자도에 이달 29일에 보사제를 즉시 설행하고,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하다. 기우제의 향을 받는 날에 비가 내리면 보사제를 겸행한 전례도 있으니, 이번 보사제를 입추 전에 설행하는 것은 본디 옳다. 현재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줄곧 가물던 뒤에는 필시 장마가 되기 쉬운 법이다. 이 초기는 전에 이미 하교한 것이 있으니, 다시 날씨를 보아 택일하여 설행하라.”

하였다.

- 비지에 지난번 향을 받은 근시·중신·재신은 택일하여 보사제를 설행하라고 하교하였다.

전교하기를,

“처음 제사를 지내자 신령한 비가 바로 내렸고, 재

戊午五月二十七日

- 報謝設行祈雨停止事草記, 更觀陰晴卜日設行

一. 曹啓曰: “再次祈雨後, 靈應如響, 甘雨霈然, 報謝之舉, 不容少緩, 而且考騰錄, 則祈雨後得雨, 不待立秋設行報謝, 多有近例, 依近例, 龍山江·楮子島, 今二十九日, 卽爲設行, 而祈雨祭仍爲停止, 何如?” 傳曰: “允. 祈雨受香日得雨, 亦有兼行報謝之已例, 今番報謝祭, 立秋前設行固可, 見今雨勢一向霈霖, 恒暘之餘, 必易成霖, 此草記, 前已有下教者, 更觀陰晴, 卜日設行可也.”

- 批旨, 前次受香之近侍·重臣·宰臣, 卜日行報謝祭, 下教

一. 傳曰: “初薦珪璧, 靈雨隨

차 정성껏 기도하자 이튿날 또 비가 쏟아졌으니, 모두 신령이 준 것이다. 감히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곳을 두루 충분히 적셔 주기를 기대하였다. 마음을 두 곳에 쓰지 않는 뜻에 따라 거행해야 하는 보사제를 일단 늦추었다가 오늘 이미 3일이 지났다. 3일 동안 내린 비로 측우기의 수심이 두서너치를 넘었고, 지금도 또 연이어 비가 쏟아질 기미가 있다. 기우제를 지내어 비가 내리면 재관齎官을 논상하고 이어서 보사제를 지내는 것은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일을 중시하며 아울러 신령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해서이다. 이미 비가 내렸는데 보사제를 지체하는 것 또한 귀신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 지난번 향을 받은 근시·중신·재신을 보내 택일하여 보사제를 설행하게 하라.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을 논상하는 일은 승정원에서 전례를 살펴 내게 물으라.” 하였다.

무오년¹⁷⁹⁸ 6월 22일

- 보사제 초기에 대해 입추가 하루 남았으니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비답을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제는 다시 날씨를 보고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방금 일관日官 지경철池景喆에게

降, 再行虔禱, 翌又滂沱, 皆靈貺也. 非敢曰不知足, 望望一念, 竊冀遠邇, 原濕之咸得周洽, 以心無二用之義, 應行報謝之舉, 姑且遲之, 而今日已過三日, 三日內所得, 測雨器水深, 過數寸, 今又連有需注之意, 凡祈雨得雨也, 齎官論賞, 仍行報謝, 所以識其喜而重其事, 兼欲報答冥冥之庥也. 既雨稽謝, 亦非事神之道, 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楮子島, 遣前次受香之近侍·重臣·宰臣, 卜日行報謝祭, 獻官以下諸執事論賞, 自政院考例稟旨.”

戊午六月二十二日

- 報謝祭記立秋隔日稍待涼生事, 批下
一. 曹啓曰: “報謝祭更觀陰晴, 卜日設行可也事, 命下矣. 卽今日官池景喆推擇, 則今六

날을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4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날씨가 다행히 바람에 맞았으나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제수를 노지露地에 숙설熟設하면 반드시 정갈하게 장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재관齎官들 역시 어떻게 몸을 깨끗이 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입추가 내일이니 그날이 지나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더라도 수십 일 사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이 초기는 우선 그대로 두라.”

하였다.

무오년¹⁷⁹⁸ 7월 29일

- 보사제는 삼각산·목역산·한강에서는 절제를 겸행하고, 용산강·저자도에서도 일체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제는 조금 서늘해지기를 기다리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즉시 일관日官 이정복李廷馥에게 날을 잡게 하였더니 오는 8월 6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목역산·한강은 절제를 6일로 정해 설행하려 합니다. 갑인년¹⁷⁹⁴ 8월 4일 사직 추향 대제社稷秋享大祭를 기우 보사제와 겸행한 전례대로 절제를 겸행하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며, 용산

月二十四日爲吉云。以此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今日暘雨，雖幸叶望，此時烈陽，祭品之露處熟設，未必致精，齋官等亦何以操潔行事乎？立秋隔日，過此稍待涼生，亦不過數旬間，此草記，姑置之可也。”

戊午七月二十九日

- 報謝祭，三角·木覓·漢江，則節祭兼行，龍山江·楮子島，一體設行

一. 曹啓曰：“報謝祭稍待涼生事，命下矣。卽今日官李廷馥推擇，則來八月初六日爲吉云。而三角山·木覓山·漢江，則節祭以初六日定行矣，謹依甲寅八月初四日社稷秋享大祭兼行祈雨報謝之例，節祭兼行，祝文中措辭添入，龍山江·楮子

강·저자도에서도 같은 날 일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같이 겸행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마땅하니 이대로 하라. 헌관은 그대로 임용하고, 축문은 내각에서 지어 올리라.”

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12일

-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옥당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대신에게 문의하고 성상에게 여쭙어 처리하라고 하다.

홍문관 수찬 윤익렬^{尹益烈}이 상소하기를,

“근년에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은 모두 처음에는 가뭄이 들었다가 나중에 장마가 든 탓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내기를 할 때라 가뭄을 걱정하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간절한 지 오래입니다. 농사를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은 산천에 제물을 올리고 정성을 쌓기에 힘쓰면 인자한 하늘이 필시 감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위하고 농사를 중시하는 방도로 볼 때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하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고수하여 정성껏 기도하는 일이 늦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담당한원에게 하문하여 속히 기우제를 지내 무지개를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島, 同日一體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如是兼行, 甚爲便當, 依此爲之, 獻官仍用, 祝文內閣撰進, 可也.”

己未五月十二日

- 玉堂上疏祈雨祭設行事批旨內, 問于大臣稟處

一. 弘文館修撰尹益烈上疏: “蓋邇歲穡事之告歉, 皆由於始旱終澇, 而今此移秧之及辰, 久切惜乾之興望, 南畝之憂, 容有極哉? 臣竊以爲山川圭璧, 務積誠意, 則仁愛之天, 冥應必有, 其在爲民重農之道, 宜有所靡不用極, 何可常例之膠守, 以致虔禱之差晚耶? 伏願殿下, 下詢有司之臣, 亟行祈雨之舉, 俾爲²¹望霓之情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

21 慰: 저본에는 ‘爲’.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금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어찌 상소하여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먼저 경기 고을부터 시작하게 한 것은 전례를 갖추어 설행하면 번거로운 데 가까울 듯하고, 나누어 설행하면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경기 감사의 장계가 도착하면 어떻게 거행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해당 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문의한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13일

● 대신에게 문의한 초기에 대해 심 판부사의 논의에 따라 시행하라고 비답을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비지의 내용에 따라 낭청^{郎廳}을 보내 시임·원임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의정부 좌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어진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물을 안타까워하고 무지개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위로 근심하고 애쓰는 성상의 마음을 유념하고 아래로 애태우고 걱정하는 여론을 들었는데, 어찌 혹시라도 기우제를 지낼 시기를 전혀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금년의 절기를 참고하고 가

疏具悉，以今夙夜望雨之心，何待疏請？而先令畿邑始之者，蓋以備例則近於瀆襲，分行則或可專一也。畿伯狀本來到，可以知舉行之如何，京中則令該曹問于大臣稟處。”

己未五月十三日

● 問議大臣草記，依沈判府事議施行可也事，批下

一. 曹啓曰：“云云事，批下矣。謹依批旨內辭意，發遣郎廳，問議于時原任大臣，則議政府左議政臣李以爲：‘人無智愚賢不肖，而惜乾望霓之情，皆出於無所爲之誠心，伏況仰體憂勤之聖念，俯聽渴悶之輿論，豈或全無料量於圭幣之早晚哉？參以今年節候，採之近鄉物情，姑且大小靜俟，俟至望後數日而舉行，恐合事天以實

까운 고을의 여론을 채집하니, 우선 다소 조용히 기다리다가 보름이 지나고 며칠 뒤에 거행하는 것이 성실로 하늘을 섬기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유신^{儒臣}이 농사를 중시하는 뜻에서 상소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고, 우의정 이시수^{李時秀}는,

‘근래 가뭄을 안타까워한 지 이미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황해도·강원도 및 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은 간간히 호미날이나 쟁기날을 적실 정도로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한강 이남부터는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아 성상께서 애태우며 밤낮으로 근심하시니, 이런 때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방도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리와 밀은 지금 거의 수확하였고, 모내기할 시기는 농가에서 오래 하지를 기한으로 삼습니다. 하지가 되려면 아직 7일이 남았으니, 며칠 안에 비를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감응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 고을에는 이미 먼저 기우제를 지내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서울은 일의 체모가 더욱 엄중하므로 다시 보름 뒤까지 기다렸다가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판중추부사 심환지^{沈煥之}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호응하는 오묘한 이치는 단지 하나의 마음이 흘러 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왕^{聖王}은 천지와 덕이 부합하니,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어찌 예물과 제수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라

之道，而儒臣疏陳，既出重農之意，臣何敢臆斷乎？伏惟上裁’云。議政府右議政臣李以爲：‘近日惜乾，已涉數旬，海西·關東及漢北諸邑，間得鋤犁之澤，而自漢以南，一直漠然，聖心焦勞，夙宵憧憧，此時求雨之道，宜無所不用其極，而兩麥則今幾登場，秧節則農家例以夏至爲期，夏至尙餘七日，方寸之孚應不日是俟，畿邑則已有先始之命，而京中則事體尤重，更待望後，稟旨舉行，似爲得宜’云。行判中樞府事臣沈以爲：‘天人相應之妙，祇在一心之流通，而聖王與天地合其德，凡有所祈，何待乎植璧備物以爲禮乎？今當憫旱，伏想聖心之默禱久矣，況弭災之道，以修德行政爲本，而桑林之責躬當次之，臣之愚意，竊謂祈雨祭，依禮典，以時設行爲宜’云矣。時原任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沈判府事議施行可也。”

고 여겼겠습니까. 지금 가뭄을 걱정하는 때 성상께서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신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재해를 그치게 하는 방도는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는 것이 근본이고, 상림^{桑林}에서 스스로 꾸짖는 것이 다음에 할 일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기우제는 예전^{禮典}에 따라 때에 맞게 설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시임·원임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심 판부사의 의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16일

● 1차 기우제 설행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없으니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어찌 하지까지 기다리겠는가. 내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가 향을 받도록 하고 제문은 문형^{文衡}을 패초^{牌招}하여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己未五月十六日

● 初次祈雨祭設行

一. 傳曰: “雨意漠然, 禱雨之舉, 何待夏至乎? 明日三角山·木覓山·漢江, 近侍受香, 而祭文^{文衡}牌招, 使之撰進.”

기미년¹⁷⁹⁹ 5월 17일

● 기우제 정지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멱산·한강 1차 기우제의 향을 지금 받아야 하는데, 단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여 참으로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때는 매번 성상의 뜻을 여쭙어 정지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우선 비 내리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19일

● 1차 기우제 설행

예조가 아뢰기를,
“17일에 내린 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여 아직도 비가 시원하게 내렸다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각산·한강·목멱산의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21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22일

● 2차 기우제 설행

예조의 단자에,

己未五月十七日

● 祈雨祭停止

一. 曹啓曰：“三角山·木覓山·漢江初次祈雨祭，今當受香矣。甘雨伊始，政有霈然之望，在前如此之時，每多稟旨停止之例，今亦依此例，姑觀雨勢，舉行何如？”傳曰：“允。”

己未五月十九日

● 初次祈雨設行

一. 曹啓曰：“十七日之雨，猶未周洽，或陰或陽，尙靳霈然之喜，三角山·漢江·木覓山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一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己未五月二十二日

● 再次祈雨設行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특교에 따라 용산강에 중신을 보내기로 하여 본조의 판서 대감을 제관으로 차출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25일

● 3차 기우제를 특교에 따라 설행하다.

5월 25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우사단 3차 기우제는 1품 중신을 보내 설행하고 내일 향을 받으라고 탑전 하교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28일

● 기우제를 정지하고 헌관을 논상하다.

전교하기를,

“제 차례 기우제의 감응이 어긋나지 않아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쏟아져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충분히 적셨다. 다시 비를 비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두서너촌을 넘었으니,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은 형세를 보아 내게 물으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우사단에 나아간 헌관·집사들은 전례대로 논상할 것이니 이조

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今二十四日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因特教, 龍山江遣重臣, 本曹判書大監差祭.】

己未五月二十五日

● 三次祈雨因特教設行

一. 今五月二十五日次對入侍時, 三次祈雨祭雩祀壇, 遣一品重臣設行, 明日受香事, 榻前下教.

己未五月二十八日

● 祈雨停止獻官論賞

一. 傳曰: “三次祈雨, 其應不忒, 朝晝及宵, 霏灑滂沱, 遠邇原濕之普洽, 更切企祝, 測雨器水深, 既過數寸, 祈雨之舉, 觀勢取稟事, 分付該曹, 而雩祀壇進去獻官·諸執事, 當依例論賞, 分付吏曹書入.”

에 분부하여 써서 들이게 하라.”
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5월 29일

● 우사단 보사제 설행

예조가 아뢰기를,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낸 뒤 메아리처럼 영험한 감응이 있어 단비가 쏟아졌으니, 농사가 참으로 다행입니다. 기우제를 지낸 뒤에 감응이 있으면 입추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사제를 지낸다는 규정이 이미 예전禮典에 실려 있습니다. 우사단 보사제는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고,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보사제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우사단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日官 전종주全宗周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6월 6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己未五月二十九日

● 雩祀壇報謝祭設行

一. 曹啓曰：“三次祈雨後，靈應如響，甘雨霑然，民事萬幸，祈雨後有應，則不待立秋，即行報謝，既有禮典所載，雩祀壇報謝祭，即爲擇日設行，而祈雨祭仍爲停止，何如？”傳曰：“允。”

● 報謝祭擇日

一. 曹啓曰：“雩祀壇報謝祭，不待立秋，即爲擇日設行事，草記允下矣。吉日今日官全宗周推擇，則來六月初六日爲吉云。以此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기미년¹⁷⁹⁹ 6월 3일

● 우사단의 보사제를 물러 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예조의 보사제 택일 초기를 해당 방^房에 도로 내려 보내고 다음 연석에서 다시 나의 뜻을 물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제 연석에서 전례대로 써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8촌 남짓 비가 내린 것은 실로 신의 축복이다. 즉시 보사제를 지내는 것이 예법상 당연하나 선조^{先朝}의 수교^{受教}가 있기 전에는 으레 입추 이후에 보사제를 지냈다. 또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비가 내린 상황을 보니, 한강 이남의 여러 고을은 서울보다 적게 내린 곳이 있다. 계속해서 비가 다시 충분히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마음은 본디 두 곳에 써서는 안 되니, 더구나 신을 섬기는 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우사단 보사제의 길일은 한강 이남의 고을에 비가 충분히 내리기를 다시 기다린 뒤 택일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7월 8일

● 우사단 보사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

예조가 아뢰기를,

“우사단 보사제 택일 초기에 대해 전교하기를,

‘입추가 지난 뒤 택일하고 향을 받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日官} 지경철^{池景}

己未六月初三日

● 雩祀壇報謝祭退行傳敎

一. 傳曰：“禮曹報謝祭擇日草記，還下該房，後筵使之更稟，而日昨筵中，未免循例書下矣。今番八寸餘之雨澤，實荷神賜，卽舉報謝，於禮卽然，而先朝受教以前，則例行於立秋之後，且觀於遠近得雨之狀，漢南諸邑，比京中或有不及處，續此更得周洽，益切顯企，心固不可二用，況於事神之際乎？雩祀壇報謝祭吉日，更待漢南諸邑周洽後，擇日事，分付禮曹。”

己未七月初八日

● 雩祀壇報謝設行草記

一. 曹啓曰：“雩祀壇報謝祭擇日草記，傳曰：‘立秋後擇日受香可也’事，命下矣。吉日令日官池景喆推擇，則今七月十一

喆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11일이 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9일에 도로 내어주고, 날이 이처럼 더워 제물祭物이 정갈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시원해진 뒤 다시 택일하라고 구전 하교口傳下敎하였다.】

기미년¹⁷⁹⁹ 7월 27일

- 우사단 기우제의 택일 초기에 대한 비답에, 2일에 설행하되 삼각산·목덕산·한강의 절제는 보사제와 겸행하며, 축문에 말을 만들고, 헌관은 문신 삼사 중에 차임하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우사단의 보사제는 날이 시원해진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日官 지경철池景喆에게 잡도록 하였더니, 오는 8월 8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남단南壇과 산천山川 절제節祭의 향을 받는 날이 2일인데, 올해 우사단에 보사제를 지내는 것은 2차 기우제를 지내고 곧바로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산천에 1차 기우제를 지냈을 때도 신의 보살핌을 받았으니, 마침 절제를 지내는 때를 만나 보답하는 정성을 함께 펴는 것이 의리로 볼 때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

日爲吉云. 以此日設行事, 知委何如?” 【初九日還爲出給, 而日熱如此, 祭物有不潔之慮, 涼生後更爲推擇事, 口傳下敎.】

己未七月二十七日

- 雩祀壇報謝擇日草記批旨
內, 初二日爲之, 三角·木覓·漢江節祭, 兼行謝祭事, 祝文中措辭, 獻官文臣三司中差事.

一. 曹啓曰: “雩祀壇報謝祭, 涼生後更爲擇日設行事, 命下矣. 吉日令日官池景喆推擇, 則來八月初八日爲吉云. 以此日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南壇山川節祭受香, 在初二日, 今年報謝於雩壇, 以再祈卽應也, 初禱於山川, 亦有冥庥, 則適值節享, 兼伸報謝, 於義則然, 然則雩祀報謝, 行於初二日爲可, 以此分付. 山川祝文中添入謝語, 與雩祀

사단의 보사제는 2일에 설행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분부하라.

산천의 축문에 감사하는 말을 보태 넣되, 우사단의 축문과 함께 친제親祭의 전례대로 모두 문형文衡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삼각산·목멱산·한강의 헌관은 이번에는 음관陰官으로 채워 차임하지 말고, 삼사三司 중에서 차임하여 정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⁰⁰ 5월 1일

전교하기를,

“예조 판서는 『기우제등록』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⁰⁰ 5월 11일

● 1차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근래 저녁에는 바람이 불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며 비가 내릴 조짐은 막연하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헌관은 근래의 전례대로 근시로 채워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祝文，依親祭例，並令文衡撰進，三角·木覓·漢江獻官，今番則勿以陰官填差，三司中差定可也。”

庚申五月初一日

一. 傳曰：“禮曹判書持祈雨祭謄錄來待。”

庚申五月十一日

● 初次祈雨傳教

一. 傳曰：“昨今晚風朝霧，雨意姑漠然，禱雨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明日受香，獻官依近例，以近侍填差事，分付。”

● 기우제 지내는 장소에 대해 거조를 내다.

이번 5월 11일 여러 신하가 와서 대령하다가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근시를 보내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문대로 삼각산·목멱산·한강 세 곳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⁰⁰ 5월 14일

● 보사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라고 비답을 내리고 헌관·집사에게 논상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처음 기우제를 지내자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뽕라 비가 낮부터 밤까지 이어져 농민이 두루 만족하고 팔도가 모두 기뻐합니다. 기우제를 지낸 뒤 영험이 있으면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보사제를 지낸다고 예전^{禮典}에 실려 있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 등 세 곳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보사제를 지내는 일을 어찌 입추 이후까

● 祈雨處所出舉條

一. 今五月十一日來待諸臣入侍時, 禮曹判書李所啓: “初次祈雨祭, 不卜日, 明日受香, 遣近侍設行事, 命下矣. 依禮文, 三角山·木覓山·漢江三處設行, 何如?” 上曰: “依爲之.”

庚申五月十四日

● 報謝祭設行草記, 待立秋設行事, 批下, 獻官·執事論賞.

一. 曹啓曰: “圭幣初舉, 靈應如響, 方寸霈澤, 通晝達宵, 三農均洽, 八域齊歡, 祈雨後有應, 則不待立秋, 卽行報謝, 既有禮典所載. 三角山·木覓山·漢江三處報謝祭, 卽爲擇日設行, 何如?” 傳曰: “允. 報謝之舉, 豈待立秋之後? 而初庚未屆, 秋成尙遠, 滌場以前之一雨一暘, 或恐此心之暫忽,

지 기다리겠는가. 그러나 초복이 아직 오지 않았고 가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추수를 마치고 전에 한 번 비가 내리고 한 번 날이 개었으니 이 마음이 잠시라도 소홀해질까 두렵다. 비록 재계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찍 기우제를 지냈으나 어제 즉시 비가 내렸으니 도리어 선부르고 번거로운 듯하여 밤새 걱정하며 감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관과 집사들이 성심을 다하였다. 비가 내리면 상을 내리는 것은 신령의 도움을 밝히고 제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말과 활을 상으로 줄 것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전지를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⁰⁰ 8월 2일

● 세 곳의 보사제를 택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멱산·한강 세 곳의 보사제 길일을 다시 일관 지경철^{池景喆}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8월 2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일에 공제^{公除}가 지난 뒤 전에 들인 초기를 도로 내리고 다시 택일하여 들이라고 하교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로 택일하여 들

雖以坐齋之隔日，不得不稍早薦璧，而昨卽得雨，反以或涉徑與瀆，通宵耿耿，不敢弛心。報謝祭，待立秋舉行事，分付，非曰的是，獻官·執事等誠心所致而得雨則賞，所以昭靈貺重祀事也，錫馬弓子之賞，令政院考例，捧傳旨可也。”

庚申八月初二日

● 三處報謝祭擇日

一. 曹啓曰：“三角山·木覓山·漢江三處報謝祭吉日，更令日官池景喆推擇，則今八月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初一日過公除後，還下前入草記，而更爲擇入事下教，故仍爲擇入啓下。】

이고 계하를 받았다.】

신유년¹⁸⁰¹ 5월 9일

- 기우제를 설행할지 여쭙니 하교를 기다려 거행 하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의 비는 봄부터 조금씩 내리지 않다가 하지가 되자 심한 가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고 저녁에 바람이 부는데 아직 한 번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 전례대로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번 11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기우제는 하교를 기다려 거행하라.”
하였다.

계해년¹⁸⁰³ 5월 20일

- 1차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辛酉五月初九日

- 祈雨祭設行取稟, 待下教舉行

一. 曹啓曰: “今年雨澤, 自春稍闕, 節屆夏至, 仍成亢旱, 朝霧晚風, 尙靳一霽, 言念民事, 誠極悶慮, 珪璧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依例遣三品官, 不卜日, 今十一日設行之意, 知委何如?”

一. 大王大妃殿以承傳色口傳下教曰: “祈雨祭事, 待下教舉行.”

癸亥五月二十日

- 初次祈雨祭啓辭

一. 曹啓曰: “今夏雨澤, 三南

“올여름 비는 삼남과 평안도에는 다행히 충분히 내렸지만 이 밖의 여러 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많고, 서울과 경기의 여러 고을은 계속해서 가물었습니다. 며칠 전 소나기가 내려 겨우 먼지를 적셨지만 뜨거운 해가 다시 내리쬘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지금 초복이 다가왔는데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고, 비가 한 번 쏟아질 조짐은 갈수록 막연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경기 감사의 장계는 어제 이미 아뢰었는데, 이러한 때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⁸⁰³ 5월 2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關西, 幸得周洽, 外此諸道, 尙多慳閔, 而京中及畿甸諸邑, 一直旱乾, 數昨驟霖, 僅得沍塵, 杲日旋曝, 淒風連吹, 見今初庚在近, 秧節漸晚, 而一霈之意, 轉益漠然, 言念民事, 萬萬渴憫, 畿伯禱雨之啓, 昨已登聞, 此時圭璧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癸亥五月二十三日

● 再次祈雨祭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今二十五日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계해년¹⁸⁰³ 5월 24일

● 비가 내려 정지하도록 여쭙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단자로 인하여 2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 달해야 하는데, 어제 단비가 밤새도록 아침까지 계속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계품하여 정지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이처럼 단비가 내렸으니 기쁜 마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2차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라.”
하였다.

계해년¹⁸⁰³ 5월 26일

이번 5월 26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겸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지내자 신령한 감응이 즉시 나타나 오늘 비가 쏟아져 사방 들판을 두루 적셨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보사하는 예를 즉시 거행해야 합니다. 삼가 『대전통편^{大全通編}』 원전^{原典}을 살펴보니 보사제는 입추 뒤에 선행한다는 조목에 증보한 내용에 ‘감응이 있으면 입추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조^{先朝}에서는 매번

癸亥五月二十四日

● 得雨停止稟

一. 政院啓曰：“因禮曹單子，再次祈雨祭，今日當爲傳香，而昨日甘霖，通宵至朝，連爲霖灑，在前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事，何以爲之乎？敢稟。”傳曰：“悶旱之餘，得此甘霖，欣喜可言，再次祈雨祭，依前例停止。”

癸亥五月二十六日

今五月二十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兼禮曹判書李所啓：“初次祈雨祭，靈應卽至，今日雨勢滂沛，四野周洽，言念民事，誠極萬幸。報謝之禮，宜卽舉行，而謹考大典通編原典，則報謝祭立秋後設行增條曰，有應則不待立秋，先朝每以有瀆屑之慮，命於秋節享兼行矣。今番謹遵先朝下

번거로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을 절향^{節享}과 겸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삼가 선조의 하고대로 입추 이후에 절향과 겸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듯합니다. 그러나 사전^{祀典}은 막중하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보사제를 입추 뒤에 설행하는 것이 예전^{禮典}의 본문이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과연 좋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관주^{金觀柱}가 아뢰기를,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 겸행하는 것은 이미 선조 때 정한 규례이니, 이대로 설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敎，待立秋後節享兼行，似合事宜，而祀典莫重，下詢大臣，處之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左議政徐曰：“報謝之待立秋設行，卽是禮典本文，依此舉行，果好矣。”右議政金曰：“報謝祭之待立秋節兼行，既有先朝時定例，則依此設行，恐爲得宜矣。”上曰：“依爲之。”

갑자년¹⁸⁰⁴ 5월 1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봄에 비 내리고 맑은 날씨가 두루 적절하여 제때 농사를 지었는데, 입하 이후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밀과 보리가 대부분 누렇게 마르고 모판도 말라 버렸는데 10일의 비는 겨우 먼지만 적셨습니다

甲子五月十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春雨暘均適，農作及時，入夏以來，雨澤久闕，兩麥舉多枯黃，秧坂亦至乾涸，而初十日之雨，僅得沍塵，見今夏至迫近，一需終靳，

다. 지금 하지가 다가왔는데 끝내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5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⁰⁴ 5월 16일

● 기우제를 우선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처음 지내자 신령한 감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1촌을 넘었으니 급한 사정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번거로운 듯하니, 기우제는 지금 우선 정지하고 조금 며칠 기다리며 형세를 보아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⁰⁴ 5월 20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조금 며칠 기다리며 형세를 보아 실행하

言念民事，誠爲渴閔，此時圭壁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五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甲子五月十六日

● 祈雨姑停

一. 曹啓曰：“圭壁初舉，靈應既至，昨日之雨，雖未浹洽，測雨器水深，既過寸餘，庶可救急，續續祈告，且近瀆屑，祈雨祭今姑停止，稍俟數日，觀勢設行，何如？”傳曰：“允。”

甲子五月二十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祈雨祭，稍俟數日，觀勢設行事，草記允下矣。”

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15일의 비는 이미 두루 적시지 못하였는데 뜨거운 해가 곧장 내리쬘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막막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2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⁰⁴ 5월 23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에 남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전례대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자년¹⁸⁰⁴ 5월 26일

●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몇 촌의 단비가 갈망하던 끝에 내려 사방 교외를 두루 적셨으니 농민을 위로하고 농사가 천만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고, 보사하는

十五日之雨，既未周洽，杲日旋曝，淒風連吹，夏至已過，霈意愈邈，言念民事，誠爲渴憫。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二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何如？”傳曰：“允。”

甲子五月二十三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五日，南壇·雩祀壇，遣宰臣，依例設行，何如？”啓依所啓施行。

甲子五月二十六日

● 祈雨停止，報謝待立秋設行²²

一. 曹啓曰：“今此數寸甘霖，得之於渴望之餘，霈均四郊，

²² 報謝待立秋設行：저본에는 ‘報謝待秋設行’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절차를 예전禮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1804 6월 22일

● 보사제는 절향과 겸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보사제는 입추 뒤에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남단의 보사제는 오는 8월 4일에 가을 절향과 겸행하고, 우사단의 보사제는 같은 날 설행하되 삼각산·목멱산·한강은 1차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내려 이미 1촌을 넘었으니, 또한 보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가을 절향과 일체 겸행하겠습니다. 축문을 지어 내고 보태 넣는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1804 6월 26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가 되어 마침내 한 달이 넘었으니 도리

慰滿三農，民事萬幸。祈雨祭，依例停止，報謝之節，依禮典，待立秋後，擇日舉行，何如？”
傳曰：“允。”

甲子六月二十二日

● 報謝節享兼行

一. 曹啓曰：“報謝祭立秋後設行事，前已啓下矣。南壇報謝祭，來八月初四日，秋節享兼行，雩祀壇報謝祭，同日設行，而三角山·木覓山·漢江初禱得雨，既過寸餘，亦不可無報謝之舉，同日秋節享，一體兼行，祝文撰出及添入事，令藝文館依例舉行，何如？”傳曰：“允。”

甲子六月二十六日

● 禳祭

一. 曹啓曰：“傳曰：‘好雨成霖，遂至跨朔，反有瘳稼之嘆，言念民事，不勝憂悶，禳祭令該

어 농사를 해칠까 하는 탄식이 있다.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을 건드릴 수 없다. 영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8일에 설행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⁰⁴ 6월 28일

- 기청제는 3일의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이어서 보사제를 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아침 연석에서 해당 방^房이 아뢴 말을 들었다. 요즘 날씨가 쾌청하니, 기청제는 3일의 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선조^{先朝} 계묘년¹⁷⁸³의 전례대로 하라. 보사제는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거행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선조 계묘년의 전례대로 영제는 이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설행한 뒤 정지하고, 오는 1일 보사제를 설행하겠습니다. 신위판은 그대로 제사 지낼 곳에 두고, 헌관과 전사관은 우선 머물러 기다리다가 보사제의 헌관이 향을 받고 나아간 뒤 얼굴을 보고 물리나며, 영제 축문 1장은 보사제를 지낸 뒤 본래의 축문과 함께 망료^{望燎}하며 성문은 닫지 말라고 모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曹不卜日設行’事，命下矣。四門祭，不卜日，今二十八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甲子六月二十八日

- 祈晴祭不待三日限，仍行報謝

一. 曹啓曰：“傳曰：‘朝筵聞該房所奏矣，昨今日氣快霽，祈晴祭不必待三日之限，依先朝癸卯年例爲之，報謝祭令該曹稟旨舉行事，命下矣。謹依先朝癸卯年例，祭祭今二十八日二十九日，連二日設行後，仍爲停止，來初一日設行報謝祭，而神位版仍奉祭所，獻官與典祀官，姑爲留待，報謝獻官受香進詣後，面看退去，祭祭祝文一張，報謝祭後，與本祝文，同爲望燎，城門勿閉事，並爲知委，何如?” 傳曰：“允。”

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6월 1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여름 사이에 비가 빈번히 내려 모내기를 일찍 하였는데, 5월 20일 이후로 한결같이 가물고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입추가 머지않았는데 비가 내릴 조짐은 막연합니다. 각 도에 계하한 장계를 연이어 보니, 전답의 각종 곡식이 점차 말라 죽고 경기의 여러 고을은 이미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애타고 걱정입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1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6월 2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4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丙寅六月十九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雨澤頻仍，秧功早就，自五月念後，一直旱乾，庚炎轉酷，淒風連吹，立秋不遠，雨意邈然，連伏見各道啓下狀本，田畝各穀，漸就萎損，畿甸列邑，已始祈雨之舉，言念民事，萬萬渴悶。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丙寅六月二十二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四日，龍山江·楸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6월 24일

- 단비가 겨우 먼지만 적셨기에 정유년¹⁷⁷⁷의 수교대로 3차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를 지낸 뒤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겨우 먼지만 적셨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사방에 모여 비가 내릴 조짐이 뚜렷하니, 이어서 큰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아직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우제를 지낼지 절대 번거롭게 여쭙지 말라는 선조 정유년¹⁷⁷⁷의 수교가 있으니,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7일에 남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6월 26일

- 승정원의 계사

승정원의 계사에,

“아침에 기우제의 제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비 내리는 기세가 이와 같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 관원에게 신속히

如?” 啓依所啓施行.

丙寅六月二十四日

- 甘澍僅得涸塵, 依丁酉受教, 三次祈雨

一. 曹啓曰: “再次祈雨祭後, 甘澍伊始, 僅得涸塵, 見今陰雲四集, 雨意尙濃, 繼降大霈, 方切顚望, 而未得滂沱, 則祈雨祭, 切勿煩稟, 既有先朝丁酉年受教,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七日, 南壇·雩祀壇, 遣宰臣設行, 何如?” 傳曰: “允.”

丙寅六月二十六日

- 政院啓辭

一. 政院啓辭: “朝者祈雨祭官, 既已受香, 而見今雨勢如此, 祭文中, 似當添入得雨之意, 令知製教措辭添入, 使香室官員, 急速陪進, 何如?” 傳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6월 28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단비가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않지만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1촌을 넘었으니 급한 사정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또한 번거로운 데 가까우니 기우제는 우선 앞으로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⁰⁶ 7월 1일

● 남단·우사단·용산·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비가 내려 적신 뒤 또 이렇게 비가 쏟아져 전답의 각종 곡식이 소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2일간의 비는 모두 기우제를 지낸 지 3일 안에 내렸으니 보사제를 지내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남단의 보사제는 오는 8월 8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측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며 우사단·용산강·저

日：“允。”

丙寅六月二十八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再昨甘霖，雖未周洽，測雨器水深，既過寸餘，庶可救急，續續祈告，且近瀆屑。祈雨祭，姑觀來頭設行，何如？”傳曰：“允。”

丙寅七月初一日

● 南壇·雩祀壇·龍山·楮子島報謝祭設行

一. 曹啓曰：“日昨霑潤之餘，又得此沛然之澤，田畝各穀，可期蘇醒，言念民事，誠爲萬幸。今番兩日之雨，俱在祈禱三日之內，不可無報謝之舉。南壇報謝祭，來八月初八日，節享兼行，祝文中，措辭添入，雩祀壇·龍山江·楮子島報

자도의 보사제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고,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⁰⁷ 4월 3일

● 1차 기우제의 계사

예조가 아뢰기를,

“겨울에 1척을 채울 만한 눈이 내리지 않았고, 봄에는 1촌을 넘는 비가 내리지 않아 절기가 입하에 되도록 한결같이 가물어 보리는 이미 흉년이 들었고, 모내기도 시기를 놓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전에는 이와 같은 때에 하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도록 청한 전례가 이미 많고, 대신에게 의논하니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5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⁰⁷ 4월 6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용산강·저

謝祭, 同日一體設行, 祝文令藝文館撰出事, 並爲分付, 何如?” 傳曰: “允.”

丁卯四月初三日

● 初次祈雨啓辭

一. 曹啓曰: “冬無盈尺之雪, 春乏過寸之雨, 節屆立夏, 一直嘆乾, 麥旣判歉, 秧又愆期, 言念民事, 誠極渴悶. 在前如此之時, 不待夏至, 請舉圭璧, 已多其例, 議于大臣, 亦以爲然.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五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丁卯四月初六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八日, 龍山江·楮

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묘년¹⁸⁰⁷ 4월 8일

● 기우제를 우선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갈망하던 끝에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여러 촌을 넘겼으니, 비록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급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또한 번거로운 데 가까우니, 기우제는 우선 앞으로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⁰⁷ 4월 20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두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연달아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보사제를 지내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각산·목덕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예전^{禮典}대로 가을을 기다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子島, 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卯四月初八日

● 祈雨姑停

一. 曹啓曰: “昨日甘霖, 得於渴望之餘, 言念民事, 誠爲萬幸, 測雨器水深, 既過數寸, 雖未周洽, 庶可救急, 續續祈雨, 且近瀆褻. 祈雨祭, 姑觀來頭設行, 何如?” 傳曰: “允.”

丁卯四月二十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 “兩次祈雨, 連得甘澍, 言念民事, 誠爲多幸, 不可無報謝之舉, 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楸子島報謝祭, 依禮典, 待秋設行, 何如?” 傳曰: “允.”

무진년¹⁸⁰⁸ 5월 1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입하 이후 비록 간간이 소나기가 내렸으나 결국 고루 적시지 못하였고 절기가 초복이 되도록 서늘한 바람이 연달아 불고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아 우물과 샘이 마르고 모내기할 시기를 놓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1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4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진년¹⁸⁰⁸ 5월 24일

●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

戊辰五月十九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立夏以後，雖得間間驟雨，終未均霑，節屆初庚，淒風連吹，一霈尙靳，至於井泉枯涸，移秧愆期，言念民事，誠極渴悶，圭璧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四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戊辰五月二十四日

● 祈雨姑停

一. 曹啓曰：“渴望之餘，得此甘霑，言念民事，極爲萬幸，測

각하면 지극히 천만다행입니다.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여러 촌을 넘겼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져 두루 적실 수 있을 듯합니다. 기우제는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 제관의 상전

비망기에,
“가뭄을 근심하다가 재차 기우제를 지내자 연일 단비가 내려 이제부터 풍년을 점칠 수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찌 그치겠는가. 일전 기우제의 헌관 서능보徐能輔·조진순趙鎭順·정동간鄭東幹·조홍진趙弘鎭·홍의호洪義浩에게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고, 대축 박기수朴著壽·신재업申在業·이영석李永錫·이영하李泳夏·조민화趙民和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고, 그 나머지 집사에게는 각각 부장궁不粧弓 1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무진년¹⁸⁰⁸ 5월 26일

● 보사제는 입추 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갈망하던 끝에 두 차례 기우제를 지낸 뒤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라 단비가 쏟아졌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보사하는 일

雨器水深，既過數寸，霖灑不止，庶可周洽。祈雨祭，今姑停止，何如？”傳曰：“允。”

● 祈雨祭官賞典

一. 備忘記：“悶旱之餘，再薦圭璧之舉，連日甘澍，自此可占豐登，言念民事，萬幸曷已？日前祈雨祭獻官徐能輔·趙鎭順·鄭東幹·趙弘鎭·洪義浩，各半熟馬一匹賜給，大祝朴著壽·申在業·李永錫·李泳夏·趙民和，各上弦弓一張賜給，其餘執事，各不粧弓一張賜給。”

戊辰五月二十六日

● 報謝立秋後設行

一. 曹啓曰：“渴望之餘，兩次祈雨後，靈應如響，甘雨霈然，言念民事，誠爲萬幸，不可無報謝之舉。三角山·木覓山·漢

이 없을 수 없으니, 삼각산·목덕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예전禮典대로 입추 이후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진년¹⁸⁰⁸ 6월 24일

● 보사제를 택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덕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입추 이후에 설행하겠다는 이전의 초기에 대해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7일에 절제節祭와 겸행하고, 용산강·저자도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을 지어 내고 보태 넣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비록 비가 쏟아지지는 않았고 수표교에 흐르는 물도 없었으나 이미 상전을 냈으므로 아울러 보사제를 설행하도록 청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12일

● 1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같은 날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江·龍山江·楮子島報謝祭, 依禮典, 立秋後設行, 何如?” 傳曰: “允.”

戊辰六月二十四日

● 報謝擇日

一. 曹啓曰: “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楮子島報謝祭, 待秋設行事, 前已草記允下矣.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來八月初七日, 節祭兼行, 龍山江·楮子島, 同日一體設行, 而祝文撰出添入等事, 令藝文館依例舉行事, 分付何如?” 傳曰: “允.” 【初次設行後, 雖未滂沱, 亦無水標流下, 旣出賞典, 故並請報謝祭設行.】

己巳五月十二日

● 初次祈雨祭設行

一. 同日次對入侍時, 左議政金所啓: “亢陽轉劇, 節序已

“무더위가 갈수록 극심하고 절기는 이미 늦었으니 백성의 마음이 애타고 다급하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한만유^{韓晩裕}가 아뢰기를,

“입하 이후로 비가 끝내 고루 적시지 못했고,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가뭄 기세가 갈수록 극심하니, 비가 한 번 쏟아지기 바라며 민심이 애태우고 걱정합니다. 대신이 이미 아뢰었으니,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4일에 삼각한·목덕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15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계사에,

“그저께의 비가 비록 조금씩 적셨다고 하나 심한 가뭄 뒤에 농민의 바람을 위로하기는 부족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晚, 民情渴急, 日甚一日. 祈雨祭, 不卜日設行之意, 分付該曹, 何如?” 上曰: “依爲之.” 本曹判書韓所啓: “立夏以後, 雨澤終未均洽, 見今夏至已過, 旱勢愈劇, 一需之望, 群情渴悶, 大臣既有所奏,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四日,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下三品官設行, 何如?” 上曰: “依爲之.”

己巳五月十五日

● 再次祈雨

一. 曹啓辭: “再昨之雨, 雖稍霑潤, 亢旱之餘, 不足慰三農之望,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七日, 龍山江·楸子島, 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1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남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21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3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단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22일

● 기우제를 정지하겠다는 승정원의 계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단자로 인하여 4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어제 단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이전

己巳五月十八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日, 南壇·雩祀壇, 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巳五月二十一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三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巳五月二十二日

● 祈雨停止政院啓辭

一. 政院啓曰: “因禮曹單子, 四次祈雨祭, 今日當爲傳香, 而昨日甘霖, 通宵霑灑, 在前

에 이와 같은 때에는 계품하여 정지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애태우고 걱정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위하여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어제 내린 비는 비록 1촌 남짓을 넘지 못하였고,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짙으나 아직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았으니 고루 적었다고 말할 수 없다. 4차 기우제는 그대로 정성껏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기사년1809 5월 24일

● 5차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6일에 종묘에 종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1809 5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정대후鄭大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8촌 높이로 흘

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事，何以爲之？敢稟。”傳曰：“渴悶之餘，得此甘霖，爲民事萬幸，然昨日所得，未過寸餘，見今雨意雖濃，猶未快霑，不可以周洽論。四次祈雨祭，仍爲之，使之虔誠設行。”

己巳五月二十四日

● 五次更設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六日，宗廟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己巳五月廿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鄭大星手本內：‘今日雨水，水標看審，則三尺八寸流下’是如爲白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5월 26일

● 제관의 상전

전교하기를,
 “갈망하며 정성껏 기도한 뒤 신령의 감응이 메아리
 처럼 빨라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민을 위해 너
 무나 기쁘고 다행이다. 23일의 기우제의 사직 헌관
 병조 판서 김희순^{金義淳}·북교 헌관 행 호군 이유경^{李儒慶}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고, 대축 수찬 이
 지연^{李止淵}·부사과 김후^{金鏞}에게 각각 아마 1필을 내
 려주고, 집례 이하 집사들에게는 각각 상현궁 1장
 을 하사하라. 비가 내린 차이는 있으나 22일의 기우
 제의 남단 헌관 예조 참관 민기현^{閔耆顯}·우사단 헌관
 우윤 조홍진^{趙弘鎭}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고,
 대축 교리 조종진^{趙琮鎭}·부교리 김학순^{金學淳}에게 각
 각 상현궁 1장을 하사하고 집례 이하 집사들에게 각
 각 부장궁 1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臥乎事.”

己巳五月廿六日

● 祭官賞典

一. 傳曰：“渴望虔禱之餘，冥
 應如響，得此甘霖，爲三農萬
 萬喜幸，二十三日祈雨祭，社
 稷獻官兵曹判書金義淳·北郊
 獻官行護軍李儒慶，各半熟馬
 一匹賜給，大祝修撰李止淵·
 副司果金鏞，各兒馬一匹賜給，
 執禮以下諸執事，各上弦弓一
 張賜給，得雨雖有大小之殊，
 二十二日祈雨祭，南壇獻官禮
 曹參判閔耆顯·雪祀壇獻官
 右尹趙弘鎭，各半熟馬一匹賜
 給，大祝校理趙琮鎭·副校理
 金學淳，各上弦弓一張賜給，
 執禮以下諸執事，各不粧弓一
 張賜給.”

기사년1809 5월 27일

● 6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연달아 단비가 내렸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 농민의 바람이 더욱 애타고 급합니다.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9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린 비가 비록 충분하지 않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짙으니, 우선 앞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아 거행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수표직 정대후鄭大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사년1809 5월 30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己巳五月廿七日

● 六次祈雨觀勢設行

一. 曹啓辭: “連得甘澍, 尙未周洽, 農民之望, 去益渴急, 六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九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得雨雖未周洽, 雨意尙濃, 姑觀來雨, 舉行可也.”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鄭大屋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己巳五月卅日

● 六次祈雨

一. 曹啓曰: “六次祈雨祭草記

“6차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초기에 대한 비지에 우선 앞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단비가 비록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곧 가물었습니다. 지금 초복이 이틀 남았는데 농사가 시기를 놓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애타고 걱정입니다.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초기를 도로 내리고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덥고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있으니, 우선 날씨를 보아 다시 내게 물으라.’ 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2일

● 6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기우제가 다섯 번이 넘어가려 하는데 일전의 비는 여전히 두루 적시지 못하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다. 6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덕산·한강에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에 근시를 보내 침호두를 정성껏 설행하라. 청재^{淸齋}를 삼가지 않은 비단 제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례^{下隸}의 죄이기도 하니, 이번에는 더욱 두려워하고 유념하라. 제향에 나아가는 근시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批旨內, 姑觀來雨, 舉行可也事, 命下矣. 伊日甘澍, 雖未得周洽, 旋即乾曝, 見今初庚隔日, 三農愆期, 言念民事, 萬萬渴悶. 六次祈雨祭, 不卜日, 來六月初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 虔誠設行, 何如?” 【草記還下, 口傳下教內, 日氣甚熱, 雨意尙存, 姑觀日氣, 更稟.】

己巳六月初二日

● 六次祈雨

一. 傳曰: “圭璧之薦, 將過五舉, 日前之雨, 猶未周洽, 言念民事, 誠萬萬渴悶. 六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 不卜日, 今初三日, 遣近侍沈虎頭, 虔誠設行, 淸齋之不謹, 非但祭官之責, 亦致下隸之罪, 今番則益加惕念事, 祭享進去近侍知悉.”

기사년¹⁸⁰⁹ 6월 4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6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7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9일에 남단·우사단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8일

● 친히 남단에서 기도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중복이 이미 다가왔는데 한결같이 가물어 1촌의 비도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이요. 어찌 예전에 비가 내렸다고 농민을 위로하고 농사에 보탬이 되겠는가. 애타는 마음에 먹고 자는 것도 편치 않다. 기우제가 장차 아홉 차례가 되

己巳六月初四日

● 七次祈雨

一. 曹單子：“七次祈雨祭，不卜日，今初六日，龍山江·楮子島，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巳六月初七日

● 八次設祈雨

一. 曹單子：“八次祈雨祭，不卜日，今初九日，南壇·雩祀壇，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己巳六月初八日

● 親禱南壇

一. 傳曰：“見今中庚已近，一直亢旱，不得寸雨，言念民事，萬萬憂悶，豈可以向者得雨，有所慰²³三農而益於民事，懂

23 慰：저본에는 ‘寫’. 『승정원일기』 순조 9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는데, 누차 기도하는 것이 비록 번거로우나 정성을 다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더욱 변변찮은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 남단에서 몸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정대후^{鄭大屋}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같은 날 재차 4척 5촌이라고 입계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12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내시니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라 어제 단비가 내려 밤새 쏟아졌으니 거의 충분히 적서 농민을 만족시켰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몹시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친히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린 뒤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않고 설행한 전례가 있으니, 즉시

懂一念，宿食靡甘，圭璧將至九舉，屢次祈禱，雖爲煩屑，其在獻虔獻誠之道，何敢不益獻菲誠乎？明日南壇，躬禱得雨，該房知悉。”

己巳六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鄭大屋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同日再次四尺五寸入啓。

己巳六月十二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南壇親將圭璧之薦，靈應如響，昨日甘澍，繼夜滂沱，庶可周洽，慰滿三農，言念民事，誠甚萬幸。祈雨祭停止，親禱得雨後，報謝不待立秋設行，既有已例，卽爲擇日舉行，而前此三次南壇·雩

택일하여 거행하겠습니다. 이전에 3차로 남단·우사단, 4차로 사직단·북교, 5차로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으니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보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일체 설행하되 남단의 축문에 별도로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택한다. 정성껏 몸소 제사를 지낸 것은 만백성을 위해 하늘에 기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감히 메아리처럼 빠른 신령의 감응을 바랄 수 없어 그저 애태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신의 복을 받아 희생과 폐백을 진열하자마자 신령한 비가 떨어지고, 그제께가 되자 단비가 두루 적셨으니, 보사하는 예를 늦출 수 없다. 며칠 안으로 택일하고, 남단에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설행하라는 비답을 19일에 내렸다.】

기사년1809 6월 19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의 보사제를 며칠 안으로 택일하고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관 지경필(池景泌)에게 날을 잡게 하였더니 이달 6월 22일, 25일이 모두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로 정하여 행

祀壇, 四次社稷·北郊, 五次宗廟, 祈雨得雨, 雖有大小之殊, 不可無報謝之舉, 一設體設行, 南壇祝文中, 別爲措辭添入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虔誠躬禱之舉, 喜出於爲萬民祈命, 而以予涼德, 不敢望冥應之如響, 只自憧憧焦悶矣. 幸獲神休, 牲幣纔陳, 而靈雨其零, 至于再昨, 膏澤普洽, 報謝之禮, 不容許徐, 不多日內擇日, 南壇親臨磨鍊可也.” 【追因大臣筵奏攝行, 批答十九日下.】

己巳六月十九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 “南壇報謝祭, 不多日內擇日, 親臨磨鍊可也事, 命下矣. 卽今日官池景泌推擇, 則今六月二十二日二十五日俱吉云. 以何日定行乎? 敢稟.”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2일에 하라.”

하였다.【추후 25일로 고쳐 써서 내었다.】

● 위와 같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에서 친히 행하는 보사제는 22일에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종묘·사직단·우사단·북교의 보사제를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25일로 고쳐서 부표하였다.】

기사년¹⁸⁰⁹ 6월 20일

● 보사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남단의 보사제는 이미 친향하겠다고 명하였으나, 지금 연석에서 대신이 전례가 드물다고 말하였다. 다만 제사를 설행하는 것은 몸소 지내는 것만 못하므로 윤허하기 어려웠다. 다시 생각하니, 무더운 날 씨에 교외에서 백관과 군병이 밖에서 밤을 지내는 것도 몹시 걱정스럽다. 보사제는 다시 22일에 설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치재와 제물에 관한 일은 더

傳曰：“以二十二日爲之。”【追後以二十五日改書出.】

● 上同

一. 曹啓曰：“南壇親行報謝祭，以今二十二日爲之事，命下矣。宗廟·社稷·雩祀壇·北郊報謝祭，同日一體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以二十五日改付標.】

己巳六月二十日

● 報謝命攝

一. 傳曰：“南壇報謝，既命親享，而今筵大臣，以前例之絕罕爲言，但攝行圭璧，莫如躬將，故難於允從，更思之，暑炎郊野，百官·軍兵之冒露經夜，亦甚可悶，報謝祭，更以二十二日，攝行磨鍊，凡係致齋祭物等節，益加申飭.”

옥 신칙하라.”

하였다.

경오년¹⁸¹⁰ 6월 5일

● 기우제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 1차 기우제

이달 6월 5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박운수^{朴崐壽}가 아뢰기를, “올해 비가 봄부터 내리지 않다가 입하 이후로는 연이어 자주 왔습니다. 밀과 보리는 다행히 이삭이 패서 농사를 다행히 망치지 않을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지가 이미 지나고 초복이 점차 다가와 한창 모내기할 때를 만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가물어 아직도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지금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7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초복이 머지않았고 절기가 점차 늦어지니 이러한

庚午六月初五日

● 祈雨

一. 祈雨祭不卜日設行事, 榻前定奪

● 初次祈雨

一. 今六月初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禮曹判書朴所啓: “今年雨澤, 自春慳閏, 立夏以後, 連爲頻仍, 兩麥既幸登稔, 三農庶幾無愆矣. 夏至已過, 初庚漸近, 而方當移秧之節, 跨朔旱乾, 一需尙遲, 言念民事, 誠甚渴悶. 此時圭璧之薦, 恐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七日, 三角·木覓·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左議政金曰: “初庚不遠, 節序漸晚, 此時望雨, 一日爲急, 依禮曹所奏, 不卜日設行好矣.” 右議政

때 비를 바라는 것은 하루가 급합니다. 예조가 아뢴 대로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모내기철이 이미 늦었는데 비가 아직 쏟아지지 않으니, 이러한 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경오년¹⁸¹⁰ 6월 8일

【7일에 수표교의 수심은 1척 8촌이었다.】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쏟아지다가 곧 그쳤으니, 가뭄이 든 뒤라 아직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⁸¹⁰ 6월 11일

● 기우제는 형세를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金曰：“秧節已晚，一霈尙靳，此時祈雨，不容少緩矣。”上曰：“依爲之。”

庚午六月初八日

【初七日，水標一尺八寸】

● 再次祈雨

一. 曹啓曰：“昨日甘霖，驟霏旋止，旱乾之餘，猶未周洽，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十日，龍山江·楸子島，依例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庚午六月十一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圭璧再舉，靈應

“기우제를 재차 지내자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라 단비가 쏟아졌으니 농사에 천만다행입니다. 3
차 기우제는 우선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⁸¹⁰ 6월 12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어제와 오늘 이
틀간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4촌 5분을 넘겼습니다.
거의 두루 적실 수 있어 농민을 만족시켰으니 농
사가 참으로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
하고, 보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삼각산·목덕
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삼가 예전禮
典대로 입추 이후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¹⁸¹⁰ 6월 26일

● 보사제를 겸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1차, 2차 기우제에 대한 보사제를 삼가 예전대로 입
추 이후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택을 내리셨습
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4

如響，甘澍霈然，民事萬幸，三
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
如?” 傳曰：“允。”

庚午六月十二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渴望之餘，得此
甘霖，昨今兩日，測雨器水深，
既過四寸五分，庶可周洽，慰
滿三農，民事誠爲萬幸。祈雨
祭，依例停止，而不可無報謝
之舉，三角山·木覓山·漢江·
龍山江·楮子島報謝祭，謹依
禮典，立秋後設行，何如?” 傳
曰：“允。”

庚午六月二十六日

● 報謝兼行

一. 曹啓曰：“初次再次祈雨報
謝，謹依禮典，立秋後設行事，
草記允下矣。三角山·木覓山·
漢江報謝祭，來八月初四日，

일에 절향^{節享}과 전례대로 겸행하고, 용산강·저자도의 보사제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 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1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겨울에 눈이 한 자도 내리지 않았고 봄에는 쟁기
날을 적실 만큼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입하 이후
로 가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리가 흉년이 들려
하고 모내기할 시기도 놓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하지를 기다리
지 않고 기우제를 거행하도록 청한 전례가 이미 많
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3일에 삼각
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일에 용산강과

節享依例兼行，龍山江·楮子
島報謝，同日一體設行，而祝
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
行事，分付何如?” 傳曰：“允。”

辛未四月初一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冬無尺雪，春乏
犁雨，而立夏以後，嘆乾愈甚，
麥將失稔，秧亦愆期，言念民
事，誠極渴悶，不待夏至，請
舉圭璧，已多其例。初次祈雨
祭，不卜日，初今初三日，三角
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
三品官，虔誠設行，何如?” 傳
曰：“允。”

辛未四月初四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
卜日，今初六日，龍山江·楮子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5일

● 사직에서 친히 기도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이미 두 차례나 지냈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지금까지도 막연하니, 백성을 위한 걱정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내일 사직에 나아가고 다음 날 새벽 기우제를 친행할 것이다. 시위^{侍衛}는 평상시의 거동에 비해 줄여야 하니, 선상^{先廂}과 후상^{後廂}은 내외 각 영^營에 입직한 마군^{馬軍}과 보군^{步軍} 중에서 5분의 3을 가져다 쓰겠다. 훈련대장은 약간의 전배기고前排旗鼓만 거느리고 도령^{都領}이 되어 어가를 따르라. 협련군^{挾輦軍}은 80명으로 하고, 창검군^{槍劍軍}은 20명으로 하라. 의장은 기우의장^{祈雨儀仗}을 쓰고 부련^{副輦}은 그만두라. 금군^{禁軍}은 80명으로 마련하고, 어가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는 군관과 유청군관^{有廳軍官} 역시 제외하라. 유진영^{留陣營}은 보류하고 연輦과 여輿 대신 보련^{步輦}으로 이동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하였다.

● 친히 기도할 때 희생을 살피다.

예조가 아뢰기를,

島, 依例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辛未四月初五日

● 社稷親禱

一. 傳曰: “祈雨已至再舉, 雨意尙今漠然, 爲民謹念, 夙宵不已, 明日當詣社稷, 翌曉親行祈雨祭, 侍衛依常時舉動宜省減, 先後廂, 以內外各營入直馬步軍中, 以五分之三取用, 訓將只率前排旗鼓若干名, 都²⁴領隨駕, 挾輦軍以八十名爲之, 槍劍軍以二十名爲之, 儀仗用祈雨儀仗, 副輦置之, 禁軍以八十名磨鍊, 駕前駕後扈衛軍官·有廳軍官, 亦爲除之, 留陣營安徐, 除輦輿, 代以步輦作行, 該房知悉.”

● 親禱時省牲

一. 曹啓曰: “今此社稷祈雨親

²⁴ 都 : 저본에는 ‘常’. 『승정원일기』 순조 11년 4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이번에 사직 기우 친제 때 희생과 기물을 살피는 절차는 전례대로 친람하는 것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8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질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니 영험을 바랄 만하지만,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므로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정성껏 설행하되 집사들 및 의식과 절차는 충분히 신중하게 살피 기필코 신을 부르고 하늘을 감동시켜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11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를 사직과 북교에서 지내야 하는데, 사직에서는 이미 친제를 지냈으니 전례대로 정지하고,

祭時, 省牲省器之節, 依例以親臨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辛未四月初八日

● 三²⁵次祈雨

一. 曹啓曰: “濃雲不解, 靈應可冀, 霈澤姑闕, 虔禱尤宜,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南壇·雩祀壇, 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虔意設行, 諸執事及儀節, 務得十分審慎, 必期格神感天之誠可也.”

辛未四月十一日

● 四次祈雨

一. 曹啓曰: “四次祈雨祭, 當行於社稷北郊, 而社稷既經親

25 三: 저본에는 ‘二’.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북교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14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종묘에서 친히 기도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종묘에 나아가 기우제를 친행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하였다.

● 영녕전^{永寧殿}은 대신을 보내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기우 친제를 지내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부터 종묘 친제 때는 으레 영녕전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祭, 依例停止, 北郊則不卜日, 以今十三日, 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辛未四月十四日

● 五次祈雨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六日, 宗廟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宗廟親禱

一. 傳曰: “明日當詣宗廟, 親行祈雨祭, 該房知悉.”

● 永寧殿遣大臣攝行

一. 曹啓曰: “宗廟祈雨親祭事, 命下矣. 自前宗廟親祭時, 例有永寧殿遣大臣攝行之禮, 今亦依此舉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신미년¹⁸¹¹ 4월 16일

● 향축을 친히 전하다.

전교하기를,

“친히 기도한 뒤에 비가 내릴 조짐이 여전히 막연하니 애타는 마음이 또 어떠하겠는가. 다음 날짜를 친히 기다릴 수 없으니, 오늘 내각^{內閣}에 나아가 재숙^{齎宿}하고 내일 승정전^{崇政殿}의 월대^{月臺}에서 친히 향축을 전할 것이다.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하였다.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교대로 6차 기우제를 18일로 당겨 정하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향을 친히 전달한 뒤에 그대로 향을 지영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19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0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辛未四月十六日

● 香祝親傳

一. 傳曰：“親禱之後，雨意尙此漠然，焦灼之心，當復如何？當次日子，有不容遲待，今日當詣內閣齎宿，明日崇政殿月臺，親傳香祝，該房知悉。”

● 六次祈雨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依下教，六次祈雨祭，進定於今十八日，而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親傳香後，仍爲香祇迎。】

辛未四月十九日

● 七次祈雨

一. 曹單子：“七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日，龍山江·楮子島，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七次祈雨祭，

하니, 전교하기를,
“7차 기우제는 내일로 당겨 정하라.”
하였다.

● 향축을 친히 전하다.

향실香室에서 기우제 전향 단자傳香單子를 아뢰자 친히
향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 8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8차 기우제는 내일로 당겨 정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3일의 8차 기우제는 이번
22일로 당겨 정하고, 남단과 우사단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더욱 공경하고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22일

● 9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연달아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
하니, 위에서 공경을 다하는 도리를 극진히 한 뒤에
야 하늘을 감동시키고 아랫사람을 권면하는 의리를

進定於明日.”

● 香祝親傳

一. 以香室祈雨祭傳香單子啓,
親傳香爲良如教

● 八次祈雨

一. 曹啓曰：“傳曰：‘八次祈雨
祭，進定于再明日’事，命下矣。
二十三日，八次祈雨祭，進定
於今二十二日，南壇・雩祀壇，
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
如？”傳曰：“允。益致敬謹可
也。”

辛未四月二十二日

● 九次祈雨

一. 傳曰：“連次祈雨，雨意漠
然，自上致敬之道，靡不用盡，
然後方可爲格天勸下之義，三
明日兩處九次祈雨祭，再明日

행할 수 있다. 글피로 예정된 두 곳의 9차 기우제는 모래 실행하되, 내일 향을 전달하고 재숙齋宿할 장소는 경선당慶善堂으로 하며 시위侍衛는 입직하는 군사로 하고 지난날의 규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 석척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교대로 이번 25일의 9차 기우제는 24일로 당겨 정하고, 북교에 중신을 보내 실행하되, 삼가 영종조英宗朝 계유년¹⁷⁵³의 수교受敎대로 춘당대 연못가와 모화관 연못가는 모두 제외하고 경회루 연못가에서만 석척동자 기우제를 종2품 무신을 보내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구전 하교로 인하여 24일에는 모화관 연못가, 25일에는 경회루 연못가, 26일에는 시어소時御所 만상문萬祥門 못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위와 같음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예전에 석척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는 헌관과 감찰이 경복궁 안에 유숙하고, 본조의 낭청과 형조의 낭청 각 1원이 동자군 100명을 거느리고 궁 밖에 유숙하면서 각별히 검칙하고

設行, 而明日傳香, 齋宿處所, 以慶善堂爲之, 侍衛以入直, 依向日例舉行.”

● 蜥蜴祈雨

一. 曹啓曰: “云云事, 命下矣. 依下敎, 今二十五日, 九次祈雨祭, 進定於二十四日, 北郊遣重臣設行, 而謹依英宗朝癸酉年受敎, 春塘臺池邊及慕華館池邊並除, 但於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 遣從二品武臣, 同日爲始,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因口傳下敎, 二十四日慕華館池邊, 二十五日慶會樓池邊, 二十六日時御所萬祥門池邊.】

● 上同

一. 曹啓曰: “謹考膳錄, 則在前蜥蜴童子祈雨時, 獻官·監察, 宿於景福宮內, 本曹郎廳·刑曹郎廳各一員, 領率童子軍一百名, 留宿宮外, 另加檢飭,

날마다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내되, 내 자시·내섬시·예빈시로 하여금 돌아가며 대접하게 하였으나, 제물을 진배하였다는 글은 없고 헌관은 향만 피우고 감찰은 검칙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23일

● 위와 같음. 재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석척동자 기우제를 이번 24일부터 시작하여 3일 동안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이미 윤희를 받았습니다.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재계하는지 여부는 애당초 등록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이미 향을 받았으니, 정성껏 삼가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석척 기우제는 매일 기우제 때 향을 받는 날의 전례대로 일체 재계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나,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일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초기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逐日待開門入送，而令內資寺·內贍寺·禮賓寺，輪回供饋，無祭物進排之文，只獻官焚香，監察檢飭而已。今亦依前例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辛未四月二十三日

● 上同用齋

一. 曹啓曰：“蜥蜴童子祈雨，自今二十四日爲始，三日設行之意，已爲草記蒙允矣。謹稽膳錄，則用齋與否，初不載錄，雖非行祭，既有受香，則似不可無示以誠謹之舉，蜥蜴祈雨，每日依祈雨受香日例，一體用齋，恐合事宜，而此係初始，何以爲之乎？敢稟。”傳曰：“依草記施行。”

신미년¹⁸¹¹ 4월 24일

● 기우제 때 의빈 및 대신을 보내다.

전교하기를,

“나의 정성이 얕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는데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 아, 백성이 장차 어찌 살아가겠는가. 이번에는 특별히 예를 다하여 횃수에 구애받지 말고 모레 남단과 우사단에 의빈 및 대신을 따로 보내 제사를 지내되, 제문은 좌의정이 친히 짓는 것을 대신하는 규례대로 지어 올리고, 친히 향을 전달하는 장소는 숭정전^{崇政殿} 동월대^{東月臺}로 하고, 재숙하는 장소는 집희당^{緝熙堂}으로 하고, 출궁할 때의 문로와 시위는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27일

● 10차 기우제와 민간의 병류

예조가 아뢰기를,

“10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9일에 사직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되, 민간의 병류는 향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辛未四月二十四日

● 祈雨遣儀賓及大臣

一. 傳曰：“微誠淺薄，不能格天感應，祈雨屢舉，尚未得需然之雨，嗚呼，民生將何以生？今番則當別加致禮，勿拘次數，再明日南壇·雩祀壇，別遣儀賓及大臣致享，祭文以左議政代親撰例製進，親傳香處所，以崇政殿東月臺爲之，齋宿處所，以緝熙堂爲之，出宮門路侍衛依前。”

辛未四月二十七日

● 十次祈雨閭閻瓶柳

一. 曹啓曰：“十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九日，社稷遣大臣設行，閭閻瓶柳，受香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신미년¹⁸¹¹ 4월 28일

● 친히 향축을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11차 기우제를 다음 달 종묘 삭제^{宗廟朔祭} 때 겸행하
되, 내일 집희당^{緝熙堂}으로 가서 재숙하고 모레 친히
향을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삭제^{朔祭}
제문의 문구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4월 29일

● 종묘 삭제 때 기우제를 겸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11차 기우제는 다음 달 종묘 삭제^{宗廟朔祭} 때 겸행하
고, 제문의 문구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법전에 따르면, ‘대신을 보
내 설행하되, 삭망제^{朔望祭}가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
만 지낸다.’라는 예문^{禮文}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문대로 기우제만 지내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1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11차 종묘 기우제 때,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 시

辛未四月二十八日

● 親傳香祝

一. 傳曰：“十一次祈雨祭，兼
行於來月宗廟朔祭，明日當詣
緝熙堂齋宿，再明日親傳香，
該房知悉，朔祭祭文中句語，
措辭添入。”

辛未四月二十九日

● 宗廟朔祭兼行祈雨

一. 曹啓曰：“傳曰：‘十一次祈
雨祭，兼行於來月宗廟朔祭，
祭文中句語措辭添入’事，命下
矣。依法典，遣大臣設行，而
朔望若值別祭，則只行別祭事，
載在禮文矣。今亦依禮文，只
行祈雨祭事，知委何如？”傳
曰：“允。”

● 十一次祈雨

一. 曹啓曰：“第十一次太廟祈
雨祭時，閉南門，開北門，遷市

장을 옮기는 등의 일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규례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조 계유년¹⁷⁵³에 학교로 인하여 거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5월 2일

●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예조의 단자에,

“오방토룡제를 전례대로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오방토룡제는 갑일^{甲日}, 병일^{丙日}, 무일^{戊日}, 경일^{庚日}, 임일^{壬日}을 차례로 안배하여 동방, 남방, 중방, 서방, 북방에 설행하는데, 영종조 계유년¹⁷⁵³ 6월 1일에 토룡제를 전례대로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조^{本曹}에서 갑일은 아직 멀어 기다릴 수 없고 병일이 다음 날이니 남방부터 설행하겠다고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갑일이 9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렇게 아뢰어 변통하였고, 이번에는 갑일이

等事, 載在禮典, 當爲依例舉行, 而英宗朝癸酉年, 因下教, 不爲舉行矣. 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今番亦依此舉行.”

辛未五月初二日

● 五方土龍祭

一. 曹單子: “五方土龍祭, 依例擇日舉行之意, 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

● 上同

一. 曹啓曰: “五方土龍祭, 以甲丙戊庚壬日, 按序設行於東南中西北方, 而英宗朝癸酉六月初一日, 有土龍祭依例舉行之命, 則本曹以甲日尙遠, 不可等待, 丙日在明日, 南方爲始設行事, 啓稟蒙允矣. 其時則蓋以甲日遠隔九日, 故有此啓稟變通, 而今番則甲日在本

이달 7일이므로 11차 기우제를 지낸 뒤 6일에 불과합니다. 만약 남방부터 설행한 계유년의 전례를 따르면 3일인 경일에 서방부터 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일과 갑일 사이가 나흘뿐이고, 또 생각건대 지금 농사가 아무리 급하지만 오늘 겨우 하지夏至가 되었으니, 계유년 6월의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큼니다. 이 예를 인용하여 내일로 앞당겨 정하여 너무 서둘러 온당치 않다는 혐의를 만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나흘 간격도 멀다고 해서 5일 임오일에 북방부터 설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습니다. 토룡제에서 동·서·남·중의 네 방위는 모두 소속된 간지干支의 양일兩日에 연달아 설행하며, 북방만 반드시 하루를 더하여 도합 사흘 동안 설행하는데, 이번에는 북방부터 먼저 하여 동방의 갑일을 침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여, 진교하기를,

“모래부터 지내되, 육갑六甲에서 하루씩 5일간 지내라. 연달아 기우제를 지냈으나 끝내 영험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막막하다. 자신을 책망하는 방도를 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늘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6일에 정전을 피하여 광명전光明殿 자내字內의 별당別堂으로 이어移御하여 공손히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겠다. 승지는 상의원으로 옮겨 머무르며, 정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음악을 중지하고, 경연

月初七日，後於十一次祈雨之行，不過六日矣。若用癸酉先南之已例，則當自初三庚日，西方爲始設行，而庚日甲日之間，只是四日，且念此時民事雖急，而今日夏至纔屆，比諸癸酉之六月，則煞有間焉。似不必援此，進定於明日，致有太迫未安之嫌。若以四日之間，尙以爲遠，欲於初五日壬午，先自北方設行，則此又有疑難之端，凡土龍之祭，東西南中四方，則皆以所屬干支兩箇日，連日設行，獨北方則必加一日，合爲三日之設，此則似不可先北，而犯用東方之甲日矣。何以爲之乎？敢稟。”傳曰：“自再明日爲之，而六甲各一日爲五日爲之，連次祈雨之餘，終無靈響，言念民事，極甚罔涯，責躬當靡不用極，自今日減膳，六日避正殿，移御光明殿字內別堂，恭待天雨之來，承旨移接於尙衣院，撤樂限還御，經筵代以召對，亦以得雨爲限可也。”

은 소대^{召對}로 대신하되 이 또한 비가 내릴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으라.”
하였다.

● 오방토룡제

예조가 아뢰기를,
“오방토룡제를 모레부터 지내되, 육갑에서 하루씩 5
일간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서방부터 시작
해야 하는데 3일 경일에 백룡^{白龍}을 조성^{造成}하여 4일
신일^{辛日}에 설행하고, 북방은 5일 임일^{壬日}에 흑룡^{黑龍}
을 조성하여 6일 계일^{癸日}에 설행하고, 동방은 7일 갑
일^{甲日}에 청룡^{靑龍}을 조성하여 8일 을일^{乙日}에 설행하
고, 남방은 9일 병일^{丙日}에 적룡^{赤龍}을 조성하여 10일
정일^{丁日}에 설행하고, 중앙은 11일 무일^{戊日}에 황룡^{黃龍}
을 조성하여 12일 기일^{己日}에 설행하되, 전례대로 3
품 관원을 보내 매일 두 차례 제사를 설행하라고 분
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¹¹ 5월 3일

● 종묘 기우제와 절향을 겸행하다.

전교하기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비가 내릴 조짐
이 아득하니, 아래로 백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초조
하고 괴롭다. 내일 몸소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가서

● 五方土龍祭

一. 曹啓曰：“五方土龍祭，自
再明日爲之，而六甲各一日爲
五日爲之事，命下矣。當自西
方爲始，初三庚日，白龍造成，
初四辛日設行，北方初五壬日，
黑龍造成，初六癸日設行，東
方初七甲日，靑龍造成，初八
乙日設行，南方初九丙日，赤
龍造成，初十丁日設行，中央
十一戊日，黃龍造成，十二己
日設行，而依前例，遣三品官，
每日兩祭設行事，分付何如？”
傳曰：“允。”

辛未五月初三日

● 宗廟祈雨節享兼行

一. 傳曰：“誠未格感，雨意茫
邈，下念生民，焦思勞心，明
日當躬詣崇政殿月臺，親傳香
祝，再明日宗廟·社稷，遣大

친히 향축을 전달하겠다. 모레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 별기우제를 설행하되, 종묘는 단오절 제향과 겸행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5월 7일

● 동방토룡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다행입니다. 지금의 비구름이 흩어지지 않았으니 두루 적서 주기를 기약할 만합니다. 동방토룡제는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시어소로 돌아가다.

전교하기를,
“갈망하던 끝에 비가 내리는 것을 비로소 보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다행스럽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더욱 수양하고 반성하는 도리에 있어 명령한 기한을 채워야 한다. 정전을 피하는 일은 전에 이미 비가 내릴 때까지로 기한을 정하였다. 지금 비가 두루 적실지 확신하기 어려우나 장마가 내려 적서 줄 조짐을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으니 한결같이 정전을 피하는 것은 도리어 지나치다. 오늘을 시

臣, 設行別祈雨祭, 而宗廟則兼行於端午節享, 該房知悉.”

辛未五月初七日

● 東方土龍祭停止

一. 曹啓曰: “渴望之餘, 得此甘露, 言念民事, 誠極萬幸, 見今油雲不解, 周洽可期, 東方土龍祭, 今姑停止, 何如?” 傳曰: “允.”

● 還御時御所

一. 傳曰: “渴望之餘, 雨澤始見, 言念民事, 萬萬多幸, 減膳其在尤加修省之道, 當準成命之限, 至於避殿, 前既以得雨爲期, 今則難必周洽, 霖濃霖沍之意, 自此可推, 一向避殿, 反涉屑越, 今日爲始, 還于時御所, 承旨·堂後一體還接, 出宮門路, 以延光門爲之.”

작으로 시어소로 돌아가고 승지와 주서도 일체 돌아와 머무르되, 출궁할 문로門路는 연광문延光門으로 하라.”
하였다.

신미년¹⁸¹¹ 5월 16일

● 보사제를 친히 행하다.

전교하기를,

“하늘과 조종^{祖宗}이 묵묵히 보우하고 음덕^{蔭德}을 베풀어 단비가 많이 내려 농민을 흠족히 위로하여 봄 사이에 메마른 싹을 보존하기 충분하니, 기쁜 마음을 형용할 수 없다. 종묘와 사직에 보사하며 기쁨을 고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내일 몸소 사직에 가서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며 의식 연습을 친히 행하고, 모레에는 이어서 친제^{親祭}를 지낼 것이다. 종묘에는 대신을 보내 섭행하게 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아두라. 오늘은 우문각^{右文閣}에 가서 재숙^{齋宿}할 것이니 시위^{侍衛}는 입직하는 군사로 마련하고 운검^{雲劍}과 보검^{寶劍}은 그대로 두라. 내일 시위는 대가^{大駕}를 수가^{隨駕}하는 인원 및 오군영^{五軍營}의 수가 군사로 전례대로 전수^{全數}로 마련하라.”
하였다.

辛未五月十六日

● 親行報謝祭

一. 傳曰：“惟天惟祖宗，默佑蔭鷺，喜雨多降，三農治慰，足可以保春間枯萎之苗，心焉權悅，不可形喻，於廟於社，報謝告喜之舉，不容少緩。明日當躬詣社稷，親行省牲省器及肄儀，再明日仍行親祭，宗廟則遣大臣攝行，該房知悉。今日當詣右文閣齋宿，侍衛以入直磨鍊，雲寶劍置之，明日侍衛，以大駕及五營門隨駕，依例全數磨鍊。”

계유년¹⁸¹³ 5월 10일

● 기우제 수의收議

구전 하교에,
“지금까지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니,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에 대해 예조에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초기를 올리라고 승정원이 분부하라.”
하였다.

계유년¹⁸¹³ 5월 11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까지 비가 올 조짐이 막연하니,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조에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초기를 올리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기우제 설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처음 예조의 의논에서는 우선 사나흘 동안 보았다가 아뢰겠다는 뜻으로 회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초조하여 이렇듯 가뭄을 근심하는 하교를 내리셨으니, 지금 설행해야 마땅합니다. 대신들의 논의도 같았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즉시 마련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이번 13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癸酉五月初十日

● 祈雨收議

一. 口傳下教內：“至今雨意漠然，祈雨祭設行事，自禮曹往復大臣停當草記事，政院分付。”

癸酉五月十一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至今雨意漠然，祈雨祭設行事，自禮曹往復大臣停當草記事，下教矣。謹依聖教，議于大臣，則祈雨祭設行當否，初於禮曹之往復，以姑觀三四日啓稟之意，回覆矣。聖念憧憧，有此憫旱之下教，趁今設行爲宜，諸大臣之議詢同，初次祈雨祭，不卜日，卽當磨鍊舉行矣。今十三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계유년¹⁸¹³ 5월 14일

● 2차 기우제를 우선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한 차례 거행하자 영험이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퍼부어 측우기의 수심이 거의 몇 촌 가까이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 비구름이 아직도 짙어 비가 그치지 않고 뿌리니, 두루 적셔 주는 경사가 있기를 기약할 만합니다. 2차 기우제를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3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 14일 이른 아침까지 측우기의 수심이 1촌 5분이었고, 아침 내내 비가 내려서 그 뒤에 수심을 측량하니 충분히 1촌이 되었으므로, 초기를 올려 정지하는 일을 세 대신과 의논한 뒤 거행하였다.】

계유년¹⁸¹³ 5월 16일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지낸 뒤 영험이 메아리처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연일 내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두루 적셔 주어 농민들에게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우제를 지낸 곳에 보사제를 거행해야 하는데, 입추 이후 설행하는 것이 예문에 있는 내용이고 또 근래의 전례입

癸酉五月十四日

● 再次姑停

一. 曹啓曰：“圭璧初舉，靈應斯捷，甘澍伊始，通宵霏霖，而測雨器水深，幾近數寸，言念民事，誠爲萬幸，見今油雲尙濃，霏灑不止，可期有周治之慶，再次祈雨祭，姑爲停止，何如？”傳曰：“允。”【自十三日始雨後，十四日早朝，測雨器水深一寸五分，而終朝霏下，其後水深可量，尤足一寸，故草記停止事，往復三大臣宅後舉行。】

癸酉五月十六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初次祈雨，靈應如響，惜乾之餘，甘霖連日，高低周洽，三農慰滿，今此圭璧之所，宜有報謝之舉，而立秋後設行，禮文所在，且是近例，三角·木覓·漢江報謝祭，待秋節舉行，何如？”傳曰：“允。”

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의 보사제는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유년¹⁸¹³ 6월 8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1차 기우제를 지내자 바로 단비가 한 번에 사흘 동안 연달아 내려 두루 적서 주기를 기약할 수 있을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차 기우제의 설행을 우선 정지하도록 아뢰어 윤택을 받았는데, 날이 갠 뒤 그대로 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 다. 이번 달 4일에는 다행히 몇 촌의 비가 내렸으나 가뭄을 걱정하는 와중에 아직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습니 다. 이미 심은 모는 적셨지만 아직 옮겨 심지 않은 모는 점차 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복이 가까워 농사철이 한창 급하니, 이러한 때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용산강과 저 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정식대로 태상사에서 용의 그림을 그려 배진^{陪進}하되 희생은 쓰지 않고, 호조에서 거위 등숙을 통지하여 진배하였다.】

癸酉六月初八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向於初次祈雨，輒得甘霖，一連三日，庶期均洽，故再次設行，姑爲停止事，啓稟蒙允矣。開霽之後，仍又慳闕，今月初四日，幸得數寸之雨，惜乾之餘，猶未周洽，已插之苗，雖得霑潤，未移之秧，漸致晚時，見今初庚在邇，農節方急，此時圭璧之舉，恐不容少緩。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十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何如？”
傳曰：“允。”【依定式，自太常畫龍陪進，而不用牲，自戶曹鵝屬知委進排。】

계유년¹⁸¹³ 6월 1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유년¹⁸¹³ 6월 14일

●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아뢰기를,

“3차 기우제를 지낸 뒤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1촌을 넘었습니다. 아직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지만,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때때로 비를 뿌리니, 이어서 시원스레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4차 기우제는 우선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유년¹⁸¹³ 6월 15일

【신시^{申時}, 15~17시 이후에 입계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癸酉六月十一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何如？” 啓依所啓施行。

癸酉六月十四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三次祈雨後，甘澍伊始，昨日測雨器水深，既過一寸，雖未周洽，惜乾之餘，誠甚萬幸，而見今濃雲不解，有時霏灑，繼此快霽，方切顒望。四次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 傳曰：“允。”

癸酉六月十五日

【申後入啓】

● 祈雨祭停止，報謝祭設行

一. 曹啓曰：“日昨甘澍霑潤之

“일전에 단비가 내려 적서 준 끝에 이렇듯 연일 비가 쏟아져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1척이 넘었습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두루 적서 주어 농민을 충분히 위로하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3차 기우제를 지내고서 영험이 이처럼 분명하니 보사제를 거행해야 합니다. 남단과 우사단의 보사제를 예전禮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유년¹⁸¹³ 6월 21일

● 보사제를 겸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1차와 3차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도록 아뢰어 이미 윤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예전에 가을 제사를 설행하는 장소에서 보사제를 거행하면 삼가 선조先朝의 하교대로 연달아 겸하여 고하고 거행하였습니다. 남단·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6일에 절향節享과 전례대로 겸행하고, 우사단에는 본래 가을 제사가 없으니 보사제를 같은 날 특별히 일체 설행되,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 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시申時 이후에 입계

餘，得此連日霈然之澤，測雨器水深，既過一尺，高低周洽，三²⁶農慰滿，言念民事，誠極萬幸。祈雨祭仍爲停止，三次圭璧之薦，靈應若是孔昭，宜有報謝之舉，南壇·雩祀壇報謝祭，依禮典，待立秋後設行，何如？”傳曰：“允。”

癸酉六月二十一日

● 報謝兼行

一. 曹啓曰：“初次·三次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已爲啓稟蒙允。今當磨鍊，而在前秋節享設行之所，有報謝之舉，則謹依先朝下教，連爲兼告舉行矣。南壇·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來八月初六日，節享依例兼行，雩祀壇，既無秋節享，報謝祭同日別爲一體設行，而祝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行事，分付何如？”

26 三：저본에는 '農三'. 『승정원일기』 순조 13년 6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10일

● 하지 전에 기우제를 지낸다.

이번 4월 10일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각신이 함께 문후하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이번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이미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간혹 비가 내리기는 하였지만 끝내 두루 적시지는 못하여 경기와 충청도 지방의 밀과 보리농사가 흉년이 들 것으로 판가름났습니다. 백성이 시름에 젖고 구렁과 골짜기에 나뭇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밭농사에 힘쓰는 자는 이미 가뭄이 없고, 지금 서늘한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리쬐며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한데 못자리는 모두 물이 말랐고 어린 모는 점점 시들어 갑니다. 지금 만약 줄곧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을 농사가 또 흉년이 들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타는 듯합니다. 하지 이전에 기우제를 지낸 전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민심이 황급한 때 평상시의 규례를 고수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고, 또한 가뭄을 당한 여러 도에 관문을 보내 일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傳曰：“允.”【申後入啓.】

甲戌四月初十日

● 夏至前祈雨

一. 今四月初十日, 藥房入診, 大臣·閣臣同爲承候入侍時, 左議政韓所啓: “今此亢旱, 久已三朔, 間或有霑潤之澤, 終未周洽, 畿湖之間, 兩麥判歉, 民情嗷嗷, 溝壑在則, 服田力穡, 已無其望, 見今淒風杲日, 雨意愈邈, 秧坂盡涸, 稗苗漸萎, 今若一直不雨, 則秋農又將失稔, 言念及此, 如焚如灼, 夏至前禱雨, 其例雖罕, 當此民情遑急之時, 恐不必膠守常典, 以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之意, 分付禮曹, 亦爲發關於被旱諸道, 使之一體設行, 何如?” 上曰: “依爲之.”

“그리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말로 인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월 1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1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5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16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8일에 남단과

● 初次祈雨

一. 曹單子: “因大臣筵達, 祈雨祭不卜日設行事, 命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四月十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甲戌四月十三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五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戌四月十六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八日, 南壇·雩祀壇,

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19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1일에 북교에 재
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22일

【20일 경감의 측우기 수심이 6분이었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그쳐 아직은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선조^{先朝} 정유년
1777의 수교^{受敎}대로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
번 24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甲戌四月十九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
卜日，今二十一日，北郊遣宰
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戌四月二十二日

【二十日京監測雨器水深六分】

● 五次祈雨

一. 曹啓曰：“再昨日，甘澍伊
始旋止，姑未得霑然，謹依先
朝丁酉年受敎，五次祈雨祭，
不卜日，今二十四日，宗廟遣重
臣設行，何如？” 傳曰：“允。”

갑술년¹⁸¹⁴ 4월 25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7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4월 28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1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2일

● 8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단비가 내려 밤낮으로 내린 비의 양을 통틀어 측우기로 측정해 보니 수심이 1촌 6분이었으며, 밤에 또 비가 뿌렸습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사방에 가득하니, 이어서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우제를 여러 차례 지내는 것은 또한 번거롭

甲戌四月二十五日

● 六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七日，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戌四月二十八日

● 七次祈雨

一. 曹單子：“七次祈雨祭，不卜日，來五月初一日，龍山江·楮子島，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戌五月初二日

● 八次觀勢行

一. 曹啓曰：“再昨日甘澍，通晝夜所得，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夜又霏灑，見今濃雲四塞，繼此霈然，方切顒望，而圭璧之屢薦，且近瀆褻，八次祈雨祭，姑爲停止，觀勢設

게 하는 데 가까우니, 8차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16일

● 8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8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
해 전에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경기
여러 고을에 호미와 쟁기를 적실 정도의 비가 내리
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두루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이양할 시기가 점점 늦
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
다. 8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8일에 남단
과 우사단에 증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19일

● 9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9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1일에 북교에 증
신을 보내 설행하되, 삼가 영묘조 계유년¹⁷⁵³의 수교
를 살펴보니, 석척동자 기우제는 1차만 남겨두었고,

行, 何如?” 傳曰: “允.”

甲戌五月十六日

● 八次祈雨

一. 曹啓曰: “八次祈雨祭, 觀
勢設行事, 前已草記允下矣.
伊日以後, 雖有近畿諸邑之鋤
犂所得, 猶未周洽, 而到今夏
至已過, 秧節漸晚, 言念民事,
誠爲渴悶, 八次祈雨祭, 不卜
日, 今十八日, 南壇·雩祀壇,
遣重臣, 虔誠設行, 何如?” 傳
曰: “允.”

甲戌五月十九日

● 九次祈雨

一. 曹啓曰: “九次祈雨祭, 不
卜日, 今二十一日, 北郊遣重臣
設行, 而謹稽英廟朝癸酉年受
教, 則蜥蜴童子祈雨, 只存一

9차 기우제를 지낼 때 춘당대 연못가에서 설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신미년¹⁸¹¹에는 특교로 인하여 모화관·경회루·만상문 안의 연못가에서 날 짜를 나누어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경회루의 연 못가에 무관 중2품 관원을 보내 같은 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석척 기우제 때 헌관이 재속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예전에 석척 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는 헌관과 감찰이 경복궁 안에 유숙하였고, 본조의 낭청과 형조의 낭청 각 1원이 동자군 100명을 거느리고 궁 밖에 유숙하면서 특별히 더욱 검칙하고 날마다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내 되, 내자시·내삼시·예빈시에게 돌아가며 대접하게 하고, 제물은 없으며 헌관은 향만 피우고 감찰은 검칙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석척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신미년¹⁸¹¹의 등록을 살펴보니, 석척 기우제를 3일 동안 설행하되, 매일 기우제 때 향을 받는 날의 전례대로 재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

次, 九次祈雨時, 行於春塘臺²⁷池邊事, 定式, 而辛未因特教, 慕華館·慶會樓·萬祥門內池邊, 分日設行矣, 今番則以慶會樓池邊, 遣武從二品, 同日設行, 何如?” 傳曰: “允.”

● 蜥蜴祈雨時, 獻官齋宿

一. 曹啓曰: “謹稽膳錄, 則在前蜥蜴童子祈雨時, 獻官·監察, 宿於景福宮內, 本曹郎廳·刑曹郎廳各一員, 領率童子軍一百名, 留宿宮外, 另加檢飭, 逐日待開門入送, 而令內資寺·內膳寺·禮賓寺, 輪回供饋, 無祭物, 獻官只焚香, 監察檢飭而已. 今亦依前例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 蜥蜴祈雨

一. 曹啓曰: “謹考辛未膳錄, 則蜥蜴祈雨, 三日設行, 而每日依祈雨祭受香日例, 用齋矣. 今亦依此舉行, 何如?” 傳曰:

²⁷ 春塘臺: 저본에는 ‘慶會樓’.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24일

● 10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9차 기우제 때 북교에서 향을 받은 뒤 비가 연일 내리기는 하였으나 아직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초복이 머지않았는데 이앙할 시기가 늦어지니,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0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에 사직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되, 민간의 병류는 향을 받은 날 시작하여 3일 후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25일

● 기우제에 사용할 향을 받은 뒤 비가 내렸으므로, 축문에 비가 내린 연유를 보태 넣는 일에 대해 승정원에서 계사를 올린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사직 기우제의 제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

“允.”

甲戌五月二十四日

● 十次祈雨

一. 曹啓曰：“九次祈雨，北郊受香以後，雨澤雖云連日，猶未周洽，而見今初庚不遠，秧節愆期，圭璧之舉，不容少緩，十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六日，社稷遣大臣設行，閭閻瓶柳，受香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甲戌五月二十五日

● 祈雨受香後得雨，祝文中，得雨之由添入事，政院啓辭

一. 政院啓曰：“朝者社稷祈雨祭祭官，既已受香，而見今雨勢如此，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意，令知製敎，措辭添入，使香室官員急速陪進，何如？”

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의 관원으로 하여금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5월 27일

●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9차 북교 기우제에 사용할 향을 받은 뒤 비가 연일 내렸고 10차 사직 기우제 이후 이어서 비가 뿌려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을 듯하니, 농사가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를 삼가 예전禮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되, 3차로 남단과 우사단에서, 6차로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7차로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8차로 남단과 우사단에서 기우제를 지낸 뒤 모두 3일 안에 비가 내렸으니,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사제를 거행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례대로 일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술년¹⁸¹⁴ 6월 20일

● 보사제를 겸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라고

傳曰：“允.”

甲戌五月二十七日

● 祈雨祭停止, 報謝祭設行

一. 曹啓曰：“九次北郊祈雨受香後, 雨澤連日, 十次社稷祈雨後, 繼以霏灑, 庶可以慰三農之望, 民事萬幸. 祈雨祭停止, 報謝祭謹依禮典, 待立秋後設行, 而三次南壇·雩祀壇, 六次三角山·木覓山·漢江, 七次龍山江·楮子島, 八次南壇·雩祀壇, 祈雨後得雨, 俱在三日之內, 雖有大小之不同, 不可無報謝之舉, 依例一體設行, 何如?” 傳曰：“允.”

甲戌六月二十日

● 報謝兼行

一. 曹啓曰：“祈雨報謝祭, 待立秋後設行事, 前已啓下矣. 社稷·南壇·三角山·木覓山·

전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사직·남단·삼각산·목
 석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10일에 절향과 겸
 행하고, 우사단·기우단·용산강·저자도는 본래 절
 향이 없어 길일을 일관 지경필(池景泌)에게 잡게 하였더
 니 같은 달 11일이 길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날 설행
 하겠습니다. 축문을 지어 내는 일과 말을 만들고 보
 태 넣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
 행하게 하되, 남단과 우사단에서 3차와 8차 기우제
 를 지낸 뒤에 연달아 비가 내렸다는 뜻으로 특별히
 말을 만들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⁸¹⁵ 5월 5일

● 1차 기우제

이번 5월 5일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면 여제(厲祭)를 설행한다고 사
 전(祀典)에 실려 있는데, 삼가 전례를 살펴보니 매번 특
 교(特敕)로 설행하였습니다. 임자년¹⁷⁹²과 기미년¹⁷⁹⁹에
 이름 모를 질병이 서울과 지방에 두루 퍼지자 역시
 전례대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은 전
 염병이 두 해의 유행병보다 더 심하니, 기양제(祈禳祭)
 를 지내야 하지만, 해당 조에서 감히 먼저 성상의 뜻
 을 여쭙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

漢江報謝祭，來八月初十日，
 節享兼行，雩祀壇·祈雨壇·
 龍山江·楮子島，既無節享，吉
 日令日官池景泌推擇，則同月
 十一日爲吉云。以此日設行，
 祝文撰出及措辭添入等事，令
 藝文館依例舉行，而南壇·雩
 祀壇三次·八次，連爲得雨之
 意，別爲措辭事，分付何如？”
 傳曰：“允。”

乙亥五月初五日

● 初次祈雨

一. 今五月初五日，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時氣大行，
 則設行厲祭，則祀典所在，而
 謹考已例，每以特教設行，壬
 子己未時，有無名之疾，遍行
 京外，亦命如例行祭矣。見今
 時氣，殆甚於兩年輪疾，宜施
 祈禳之禮，而該曹不敢先爲稟
 旨云，故敢此仰達矣。”上曰：
 “依爲之。”又所啓：“見今旱憂
 政甚，牟麥已失姑望，秋穀亦

게 우러러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가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합니다. 보리는 이미 애초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가을 곡식 또한 해를 입은 것이 많아서 민심과 농사 형편이 실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하지夏至가 열흘이나 남았지만 절기에 구애받아서 안 되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고, 여러 도^道는 각각 급한 정도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거행하라고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통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말로 인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월 7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多受病，民情農形，實爲切悶，
夏至雖隔一句，而不可拘於節氣，
祈雨祭，不卜日設行，諸道則各從緩急，隨時舉行之意，
令該曹卽²⁸爲知委，何如？”上曰：“依爲之。”

一. 曹單子：“因大臣筵達，祈雨祭，不卜日設行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五月初七日，三角山·木覓山·漢江，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28 卽：저본에는 '則'. 『승정원일기』 순조 15년 5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을해년¹⁸¹⁵ 5월 8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해년¹⁸¹⁵ 5월 1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해년¹⁸¹⁵ 5월 14일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세 차례 거행하자 영험이 이렇게나 빠르게 나타나 단비가 쏟아져 밤부터 낮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뽁뽁하여 비가 올 조짐이 여전히 짙어 백성을 위로하고 만족스럽게 하니, 농사에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

乙亥五月初八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十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亥五月十一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南壇·雩祀壇，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亥五月十四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圭璧三舉，靈應斯捷，甘澍霑然，夜以繼晝，見今濕雲密塞，雨意尚濃，慰滿三農，民事萬幸，祈雨祭停止，宜有報謝之舉，而立秋設行，禮典所載，且是近例，南壇

고, 보사제를 거행해야 합니다. 입추에 설행하는 것이 예전禮典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또 근래의 전례입니다. 남단과 우사단의 보사제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즉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⁸¹⁵ 7월 4일

● 보사제를 겸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3차 남단·우사단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렸기에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겠다고 아뢰어 전에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예전에 가을 제사를 설행하는 장소에서 보사제를 거행하는 일이 있으면 삼가 선조先朝의 하교대로 연달아 겸하여 고하고 거행하였습니다. 남단의 보사제는 오는 8월 10일에 절향節享과 전례대로 겸행하고, 우사단에는 본래 가을 제사가 없으니 보사제를 같은 날 특별히 일체 설행하되, 축문을 보태 넣고 지어 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雩祀壇報謝祭，待秋節²⁹ 爲舉行，何如？” 傳曰：“允。”

乙亥七月初四日

● 報謝兼行³⁰

一. 曹啓曰：“三次祈雨南壇·雩祀壇得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前已啓稟蒙允矣。今當磨鍊，而在前秋節享設行之所，有報謝之舉，則謹依先朝下教，連爲兼告舉行，南壇報謝祭，來八月初十日節享兼行，雩祀壇既無秋節享，報謝祭同日別爲一體設行，而祝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行事，並以爲分付，何如？” 傳曰：“允。”

²⁹ 卽：지본에는 ‘則’. 『승정원일기』 순조 15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³⁰ 報謝兼行：지본에는 뒤에 ‘報謝兼行 因下教 丙子閏六月二十六日 祭初次 連三日設行 再次二十九日七月初一日設行 三次以報謝設行’. ‘因下教’ 이하는 연문으로 보아 삭제

기묘년¹⁸¹⁹ 5월 5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달포 전에 유신^{儒臣}이 상소하여 청한 일로 기우제를 지낼지 여부를 대신들과 논의하여 초기를 올렸는데, 비지에,
 ‘대신들의 논의에 차이가 있으니 우선 중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쟁기를 적실 정도로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뜨거운 햇볕이 연달아 내리쬘어 한 번도 큰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¹⁹ 5월 8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지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양이 먼지를 적시기도 부족하니, 가뭄인 와중에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이 갑절로

己卯五月初五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月前因儒臣疏請，祈雨當否，就議大臣草記，批旨內，大臣之議，既有參差，姑徐事，命下，而伊日以後，雖有鋤渴之潤，烈暘連曝，一霈尙靳，見今夏至已過，秧節漸晚，言念民事，誠極渴悶，圭璧之舉，恐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初七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己卯五月初八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圭璧纔舉，雨事雖始，昨今所得，不滿涸塵，亢旱之餘，渴悶倍切，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十日，龍山

간절합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¹⁹ 5월 1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⁸¹⁹ 5월 17일

【4차 사직·북교의 기우제에 대한 초기가 누락되었는데, 『승정원일기』에도 누락되어 있다.】

●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네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쏟아져 두루 적셔 백성을 위로하고 만족스럽게 하니, 농사에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하는 절차를 거행해야 하는데, 입추 뒤에 설행하는 것이 예전禮典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또 근래의 전례입니다.

江·楮子島，依例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己卯五月十一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己卯五月十七日

【四次社稷·北郊祈雨草記落漏，原日記亦漏.】

● 祈雨祭停止，報謝祭設行

一. 曹啓曰：“三舉圭璧，甘雨伊始，四薦芬苾，霈然周洽，慰滿三農，民事萬幸，祈雨祭停止，當有報謝之節，而立秋後設行，禮典所載，且是近例，南壇·雩祀壇·社稷·北郊報謝祭，待立秋舉行，何如？”傳

남단·우사단·사직·북교의 보사제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¹⁹ 6월 20일

● 보사제를 겸하여 고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셨습니다. 절향과 겸하여 고한 전례가 많으니, 사직의 보사제는 오는 8월 9일 대제와 겸행하고, 남단의 보사제는 같은 달 10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우사단과 북교는 본래 절향이 없어 길일을 일관에게 잡게 하였더니 같은 달 11일이 길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날 설행하겠습니다. 축문을 지어 내고 보태 넣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⁸²² 6월 7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은 비와 햇볕이 모두 알맞아 모에 물을 대는 때를 놓치지 않았고 보리농사도 잘되었습니다. 다만 5월 보름 이후 지금까지 가뭄이 들어

曰：“允.”

己卯六月二十日

● 報謝兼告³¹

一. 曹啓曰：“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前已啓下矣。節享兼告，多有已例，社稷報謝祭，來八月初九日，大祭兼行，南壇報謝祭，同月初十日，節享兼行，雩祀壇·北郊，既無節享，吉日令日官推擇，則同月十一日爲吉云。以此日設行，祝文撰出添入等事，令藝文館舉行事，分付何如？”傳曰：“允。”

壬午六月初七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雨暘

³¹ 報謝兼告：지본에는 뒤에 ‘報謝兼告 因下敎 辛巳七月初六日 祈晴祭 以秋節前 問議大臣設行 七月初九日 再次祈晴 又因傳敎設行 十七日報謝祭 草記’. ‘因下敎’ 이하는 연문으로 보아 삭제

중복中伏이 이미 왔고 입추가 머지않았는데도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큰비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하하신 여러 도에서 올린 장계를 연달아 보니,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기가 더욱 간절합니다. 각종 곡식은 시들고 말랐으며 못자리는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9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均適，注秧無愆，麥農善就矣。
第自五月望後，至今早乾，中
庚已屆，立秋不遠，淒風連吹，
一霈尚靳，連伏見諸道狀啓啓
下者，望雨之情，畿甸尤甚，各
穀萎枯，秧坂龜拆，言念民事，
萬萬渴悶，此時圭璧之薦，恐
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
日，今初九日，三角山·木覓山
·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何如？”傳曰：“允。”

임오년¹⁸²² 6월 10일

[9일 수표의 수심이 2척 5촌이었다.]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지내자마자 단비가 곧바로 내려 영험이 처음에는 메아리처럼 빠르게 나타났으나, 몇 촌의 비로는 끝내 해결하기 어려워 백성의 마음이 더욱 급합니다. 2차 기우제를 이어서 설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용산강과 저자도에 택일하지 말고 이번 12일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午六月初十日

【初九日水標二尺五寸】

● 再次祈雨

一. 曹啓曰：“圭璧纔舉，甘霖旋作，靈應始焉如響，寸雨終難解渴，亢陽依舊，民情益急，再次祈雨，不可不繼行，龍山江·楮子島，不卜日，今十二日，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임오년¹⁸²² 6월 13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5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오년¹⁸²² 6월 14일

● 기우제에 사용할 향을 받은 뒤 비가 내렸으므로, 축문에 비가 내린 이유를 보태 넣는 일에 대해 승정원에서 계사를 올린다.

승정원의 계사에,

“기우제의 제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의 관원으로 하여금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⁸²² 6월 16일

●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기로 하다.

“두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3촌 가까이 쏟아졌고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이어서 저녁 내내 비가

壬午六月十三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五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壬午六月十四日

● 祈雨受香後得雨，祝文中，得雨之由添入事，政院啓辭

一. 政院啓辭：“祈雨祭之官，既已受香，而見今雨勢如此，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意，令知製教措辭添入，使香室官員，急速陪進，何如？” 傳曰：“允。”

壬午六月十六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再舉圭璧，霈澤幾近三寸，三薦芬苾，霑灑繼

쏟아졌습니다. 애태우고 걱정하던 나머지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비가 그치기는 하였으나 조금 더 내릴 조짐이 아직 많아 비가 쏟아질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4차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⁸²² 7월 8일

●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우선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전에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 정성껏 기우제를 지낸 뒤 소나기가 간간히 내렸고 며칠 전 비가 비로소 쏟아져 두루 적셔 가뭄에 비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지금 절기가 이미 저물고 처서가 또 왔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전례대로 정지하겠습니다. 2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3일 안에 비가 3촌 가까이 내렸으니, 전례를 살펴보면 보사제를 지내야 합니다. 용산강과 저자도의 보사제를 전례대로 마련하고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以終夕，渴悶之餘，誠甚萬幸，而見今雨勢雖止，餘意尙多，不無霈然之望，四次祈雨祭，姑爲停止，觀勢舉行，何如？”
傳曰：“允。”

壬午七月初八日

● 祈雨祭停止報謝祭設行

一. 曹啓曰：“祈雨祭，姑爲觀勢設行事草記，前已允下矣。今番虔禱之後，雨澤間間驟霽，日前之雨，始爲霈然周洽，大慰望霓之情，而見今節序已晚，處暑又屆，祈雨之舉，依例停止，再次設行後，三日之內，霈澤幾近三寸，考之已例，宜有報謝，龍山江·楸子島報謝祭，依例磨鍊，擇日舉行，何如？” 傳曰：“允。”

임오년¹⁸²² 7월 9일

● 보사제를 택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용산강·저자도 기우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일관 홍만중^{洪晩中}에게 날을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25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²⁵ 5월 24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비와 햇볕이 모두 알맞아 모에 물을 대는 때를 놓치지 않았고 보리 농사도 잘되었습니다. 다만 하지 이후 줄곧 가뭄이 들어 간혹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치고는 하였습니다. 지금 초복이 다가왔는데 큰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때맞추어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午七月初九日

● 報謝祭擇日

一. 曹啓曰：“龍山江·楮子島祈雨報謝祭，擇日舉行事草記，允下矣。吉日令日官洪晩中推擇，則今七月二十五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依例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

乙酉五月二十四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雨暘均適，注秧無愆，麥農善就矣。第自夏至以後，一直亢旱乾，間或霏灑，乍始旋止，見今初庚在邇，而一霈尙靳，言念民事，萬萬渴悶，趁此圭璧之薦，恐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六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을유년¹⁸²⁵ 5월 2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9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²⁵ 5월 30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에 남단
과 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²⁵ 6월 3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일에 북교에 재
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乙酉五月二十七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卜日, 今二十九日, 龍山江·楮
子島, 遣宰臣設行事, 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三十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
卜日, 來六月初二日, 南壇·雪
祀壇, 遣宰臣設行事, 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乙酉六月初三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
卜日, 今初五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設行事, 何如?”
啓依所啓施行.

을유년¹⁸²⁵ 6월 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8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²⁵ 6월 9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1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범 머리는 경기감영으로 공문을 보냈다.】

을유년¹⁸²⁵ 6월 12일

【12일 수표의 수심이 1차 측정 때 5촌, 2차 측정 때 1척, 3차 측정 때 3척 7촌이었다.】

●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듯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

乙酉六月初六日

● 五次祈雨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初八日，宗廟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六月初九日

● 六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卜日，今十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虎頭文移畿營。】

乙酉六月十二日

【十二日水標，初次五寸，二次一尺，三次三尺七寸。】

● 祈雨祭停止，報謝祭設行

一. 曹啓曰：“渴望之餘，得此甘霖，言念民事，誠爲萬幸，祈雨祭停止，三角山·木覓山·漢

고,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를 예전禮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²⁵ 7월 1일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를 입추 뒤에 거행
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절향
과 겸하여 고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세 곳의 보사제
를 오는 8월 10일에 절향제와 겸행하되, 축문에 말
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5월 22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여름에 비가 경상도와 전라도, 평안도와 함경
도에는 다행히 제때 내렸으나 이 밖의 여러 도는 아
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서울과 경기는 더욱 가뭄이
극심합니다. 근래 몇 차례 비가 뿌리기는 하였지만
먼지를 적시는 정도에 그쳤고, 햇벌이 곧 짹짹 내리

江報謝祭, 依禮典, 待立秋後,
擇日舉行, 何如?” 傳曰: “允.”

乙酉七月初一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 “三角山·木覓山·
漢江報謝祭, 立秋後舉行事,
草記允下矣. 節享兼告, 多有
已例, 三處報謝祭, 來八月初
十日, 節享祭兼行, 祝文中措
辭添入事, 分付何如?” 傳曰:
“允.”

壬辰五月二十二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今夏雨澤, 兩南
及西北, 幸得及時, 而外此諸
道, 尙多慳閔, 京中及畿甸, 尤
極旱乾, 邇來數次霏微, 不過
沾塵而止, 杲日旋曝, 淒風連
吹, 夏至已屆, 秧節漸晚, 言念

찌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하지가 이미 다가왔는데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4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5월 25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거행하였으나 영험이 아직 아득하니,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월 27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종2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5월 2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종2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民事, 萬萬渴悶, 圭璧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四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壬辰五月二十五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 “圭璧³²舉, 靈應尙邇,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五月二十七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從二品,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壬辰五月二十八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來六月初一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從二品, 虔誠設

32 載: 저본에는 ‘幾’. 『승정원일기』 순조 32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2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월 4일에 북교에
종2품 관원을 보내고 사직에 정2품 관원을 보내 정
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5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월 7일에 종묘에
정2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8일

【수표의 수심이 1차 측정은 6촌, 2차 측정은 1척
7촌이었다.】

● 6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壬辰六月初二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
卜日, 今六月初四日, 北郊遣從
二品, 社稷遣正二品, 虔誠設
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
施行.

壬辰六月初五日

● 五次祈雨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
卜日, 今六月初七日, 宗廟遣
正二品, 虔誠設行事, 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壬辰六月初八日

【水標初次六寸, 二次一尺七
寸.】

● 六次勢祈雨, 觀勢設行

一. 曹啓曰: “屢薦圭璧之餘,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낸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농사에 있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동풍이 계속 불고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으니, 장차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6차 기우제는 우선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12일

● 6차 기우제를 다시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 몇 촌의 비로 해결되었으나 곧바로 가물었습니다. 지금 초복이 며칠 안 남았는데 농사철이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황급합니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삼각산·목역산·한강에 근시를 보내 설행하되, 한강은 전례대로 침호두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13일

● 비가 내리므로 6차 기우제를 정지하는 일로 승정원에서 계사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6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어제 단비가 많이 내려 이미 2촌에

甘澍伊始，爲民事誠爲萬幸，見今東風連吹，濃雲四布，將有霑然之望，六次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傳曰：“允。”

壬辰六月十二日

● 六次更薦

一. 曹啓曰：“日前數寸之雨，雖得解渴，旋即乾曝，見今初庚隔日，三農愆期，言念民事，轉益遑急，六次祈雨祭，不卜日，今十四日，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設行，而漢江則依例沈虎頭舉行，何如？”傳曰：“允。”

壬辰六月十三日

● 六次因雨停止事，政院啓辭

一. 政院啓曰：“因禮曹草記，六次祈雨祭，今日當爲傳香，而昨日甘霈，既至二寸之多，見

이르렀고, 지금 비가 올 조짐이 있어 아직 이어서 쏜
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때는 계품하
여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
히 여쭙니다.”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6월 15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 6차 기우제에 관하여 승정원에서 아뢰
기로 인하여 향 받는 일을 정지하라는 명이 있었습니
다. 그날 이후 곧바로 날이 개고 햇볕이 내리쬘어 경
기의 여러 고을은 호미날과 쟁기날을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렸으나 도리어 도성만 못하니, 밭의 종자에
는 도움이 되었으나 모내기는 애초에 논할 것이 아
닙니다. 절기가 이미 초복을 지나 백성의 마음이 하
루가 갈수록 더욱 급해지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6차 기우제를 이전의 명령대로
삼각산·목멱산·한강에 택일하지 말고 이번 17일에
근시를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今雨意，尙有繼霽之望，在前
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例，
何以爲之？敢稟。”傳曰：“停
止。”

壬辰六月十五日

● 六次祈雨

一. 曹啓曰：“日前六次祈雨祭，
因政院啓稟，有受香停止之命
矣。伊日之後，仍卽晴曝，而近
畿諸邑之鋤犁所得，反不如都
下，田種雖有所益，秧役初非
可論，節序已過初庚，民情轉
急一日，虔禱之舉，不可中止。
六次祈雨祭，依前成命，三角
山·木覓山·漢江，不卜日，今
十七日，遣近侍設行，何如？”
傳曰：“允。”

임진년¹⁸³² 6월 18일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비가 내려 비로소 두루 적셨으니 절기가 조금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농민의 마음을 그래도 위로할 만합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삼각산·목덕산·한강의 보사제를 예전^{禮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에 실행하겠습니다. 종묘에 정성껏 기도한 뒤 두 차례 몇 촌의 비가 내려 먼저 영험을 얻었으니, 또한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일체 실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7월 5일

● 기청제 때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전교하기를,
 “한 번 비가 내리자 한 달이 넘게 내려 마침내 폭우가 되어 비가 지나치게 내리는 재해가 되었다. 재해는 헛되이 생겨나지 않고 반드시 초래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반성하고 허물을 살피니 두려워 어찌할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기청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壬辰六月十八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昨今雨澤，始得周洽，節序雖曰稍晚，農情猶可慰滿，祈雨祭停止，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依禮典，待立秋後設行，而宗廟虔禱之後，兩次數寸之雨，先得靈貺，亦當有報謝之節，使之一體設行，何如？”傳曰：“允。”

壬辰七月初五日

● 祈晴減膳

一. 傳曰：“一雨跨朔，暴霖遂成，極備之災，災不虛生，必有所召，反躬省咎，兢懼靡措，自今日限五日減膳，祈晴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禮曹。”

전교하기를,
“기청제의 제관은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한 번 비가 내리자 한 달이 넘게 내려 마침내 폭우가 되어 비가 지나치게 내리는 재해가 되었다. 재해는 헛되이 생겨나지 않고 반드시 초래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반성하고 허물을 살피니 두려워 어찌할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기청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설행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⁸³² 7월 10일

● 영제는 형세를 보아 다시 의논하기로 하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아직 날이 깨끗이 개지 않았으니, 이어서 두 번째 거행을 청하는 것이 예의상 마땅함

一. 傳曰：“祈晴祭祭官，以閣臣填差。”

● 上同

一. 曹啓曰：“傳曰：‘一雨跨朔，暴霖遂成，極備之災，災不虛生，必有所召，反躬省咎，兢懼靡措，自今日限五日減膳，祈晴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禮曹’事，命下矣。四門祭，不卜日，今初七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壬辰七月初十日

● 祭祭觀勢

一. 次對入侍時，禮曹判書洪奭周所啓：“祭祭設行之後，未獲快晴，則繼請再舉，在禮即然，而見今日候，載陰載陽，

니다. 지금 날씨가 꺾었다가 개었다가 하면서 갑자기 비가 뿌렸다가 곧바로 그치니, 이때 다시 영제를 거행하는 것은 또한 번거롭게 하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며칠 기다린 뒤 형세를 보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⁸³² 7월 21일

● 위와 같은 일을 수의하여 설행하지 않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영제를 지낼지 여부는 형세를 보아 다시 의논하겠다고 지난번에 이미 연석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 동안 점차 날이 개었고 간혹 비가 뿌렸으나 곧바로 맑아졌으니, 영제는 그대로 정지하겠습니다. 기청제를 지내자 날이 개었으니 예법상 보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영제를 정지하라는 청이 이미 수일 뒤에 있었으니, 보사제를 설행하는 일을 감히 규례대로 곧장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다시 물으라.”

하였다.

乍霏旋收，此時更舉，亦不無瀆屑之嫌，姑待數日後，觀勢更議，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壬辰七月二十一日

● 上同事收議，不爲設行

一. 曹啓曰：“祭祭再舉與否，觀勢更議事，頃已筵稟蒙允矣。伊後浹旬，轉向開霽，間或霏霽，旋即晴朗，祭祭仍爲停止，祈晴得晴，禮當報謝，而今番則祭祭停止之請，既在多日之後，報謝祭設行一款，有不敢循例直請，何以爲之乎？敢稟。”傳曰：“問議大臣，更稟。”

예조가 아뢰기를,

“기청제를 지내자 날이 개었으니 예의상 보사제를 지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영제를 정지하라는 청이 이미 수일 뒤에 있었으니, 보사제를 설행하는 한 조목을 감히 규례대로 곧장 청하지 못하겠다고 초기를 올렸더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다시 물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의정부 우의정 김이교^{金履喬}가 아뢰기를,

‘영제 이후에 다시 비가 뿌리기는 하였으나 점차 개었고 그날 이후 날씨가 연달아 좋았으니 영험이 매우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전례로 말하자면 재계를 마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사를 정지하라는 청이 있었고, 제사를 지낸 여러 관원에게 애당초 논상^{論賞}하는 은전이 없었으니, 예전에 이러한 때는 보사제를 거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를 참고하여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듯한데,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영중추부사 남공철^{南公轍}, 행 판중추부사 이상황^{李相璜}, 행 판중추부사 정만석^{鄭晩錫}은 모두 병 때문에 헌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헌의대로 하라.”

하였다.

一. 曹啓曰：“祈晴得晴，禮當報謝，而今番則祭停止之請，既在多日之後，報謝設行一款，有不敢循例直請事草記，傳曰：‘問議大臣更稟’事，命下矣。謹依聖教，問議于大臣，則議政府右議政臣金以爲：‘祭以後，雖復霏霖，漸就開霽，伊後日候連佳，靈貺孔多，而第以已例言之，罷齋多日，始有停祭之請，將事諸官，初無論賞之典，在前如此之時，未有報謝之舉，今亦按例仍寢，恐爲得宜，上裁何如’云。領中樞府事臣南·行判中樞府事臣李·行判中樞府事臣鄭，俱爲病未獻議云矣。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大臣議爲之可也。”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종묘·삼각산·목덕산·한강의 기우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최복기^{崔福基}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8월 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각산·목덕산·한강 세 곳의 보사제는 마침 절향과 겹치니 전례대로 겸행하겠습니다. 축문을 지어 내고 보태 넣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사년¹⁸³³ 6월 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봄 말과 여름 초에 비와 햇볕이 모두 알맞았으나 단옷날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며칠 전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그치고 끝내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복이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이 한시가 급하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祈雨報謝

一. 曹單子: “宗廟·三角山·木覓山·漢江祈雨報謝祭, 待立秋後設行事, 啓下矣. 吉日令日官崔福基推擇, 則來八月初九日爲吉云. 以此日設行, 而三角山·木覓山·漢江三處, 則適與節享相值, 依前例兼行, 祝文撰出添入等事, 令藝文館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癸巳六月初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春末夏初, 雨暘均適, 及至端陽以後, 跨朔之間, 暘乾太甚, 日前甘澍, 既始旋止, 終靳沛然, 初庚已過, 秧節漸晚, 言念民事, 誠極渴悶, 圭璧之舉, 一時爲急,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五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사알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기우제의 향을 받기 전에 단비가 연달아 쏟아졌으니 예조에서 필시 다시 묻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전례를 조사하여 들이라.”
라고 하교하였다. 그러므로 전례는 승정원에서 거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뢰어 정지하겠다는 뜻으로 들어가 여쭙었다.【본조에서 거행하지 않았다.】

계사년¹⁸³³ 6월 4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의 계사에,
“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이번 5일에 1차 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단비가 밤새 그치지 않았고, 지금 비 내리는 형세를 보니 아직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때는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비가 두루 적셨으니 농사에 있어 매우 다행이다. 기우제는 정지하라.”
하였다.

一. 司謁口傳下教曰：“祈雨祭受香前，甘露連注，禮曹必有更稟之舉矣。其前例知入事，下教，故前例則自政院舉行，而待明朝啓稟停止之意，入稟。”【本曹無舉行.】

癸巳六月初四日

● 祈雨停止

一. 政院啓辭：“因禮曹草記，今初五日，初次祈雨祭親傳香事，命下，而昨日甘露，通宵不止，見今雨勢，尙此繼霑，在前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例，何以爲之？敢稟。”傳曰：“甘露周洽，民事萬幸，祈雨祭停止.”

계사년¹⁸³³ 7월 13일

● 기청제

전교하기를,

“장맛비가 한 달 넘게 지루하게 내리고 있는데 기청제를 지내는 일이 아직 이렇듯 더딘 것은 지극히 신중히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또 연달아 비가 내리고 갇 조짐이 전혀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스럽고 두렵다. 기청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되, 제관은 근래의 전례대로 각신으로 차임하여 보내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이번 14일에 설행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당일에 향을 받았다.】

계사년¹⁸³³ 7월 27일

● 기청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개었고 간혹 비가 뿌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그쳤습니다. 그날 이후 날씨가 지극히 맑으니 보사하는 절차를 거

癸巳七月十三日

● 祈晴

一. 傳曰：“霖雨跨朔支離，而祈晴之舉，尙此遲遲者，出於十分難慎矣。今又連霖，頓無開霽之意，言念穡事，萬萬憂悚，祈晴祭，不卜日，明日設行事，分付該曹，祭官依近例，閣臣差遣可也。”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四門禁祭，今十四日設行，三日而止事，分付何如？”傳曰：“允。”【當日受香.】

癸巳七月二十七日

● 祈晴報謝

一. 曹啓曰：“禁祭設行後，積雨快霽，間或霏灑，旋即收止，伊後日候極其晴和，報謝之節，當爲舉行，四門報謝祭吉

행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김유진 金有晉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30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대로 성문을 닫지 말라고 일체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⁸³⁵ 윤6월 14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가을철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장맛비가 아직도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⁸³⁵ 윤6월 21일

● 기청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하자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말끔히 개었고 이후로 날씨가 연이어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를 거행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日，令日官金有晉推擇，則今七月三十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教，勿閉城門事，一體知委舉行，何如？”傳曰：“允。”

乙未閏六月十四日

● 祈晴

一. 曹啓曰：“見今秋節已屆，霖雨尙未開霽，言念穡事，誠極悶然，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禋祭，不卜日，今十六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乙未閏六月二十一日

● 祈晴報謝

一. 曹啓曰：“禋祭設行，積雨快霽，伊後日候，連爲晴和，報謝之節，當爲舉行，四門報謝祭吉日，令日官朴周煥推擇，

박주환朴周煥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윤6월 27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의 내
용대로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통지하여 거행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신년¹⁸³⁶ 12월 12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기설제를 택일
하지 말고 설행하라는 자전慈殿의 하교를 삼가 받았
습니다. 종묘·사직·북교에 이번 14일 전례대로 중신
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신년¹⁸³⁶ 12월 15일

● 기설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뒤 영험이 메아리처럼 빨랐습니
다. 비록 눈이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하룻밤에
내린 양으로 백성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을 듯합니
다. 기도하여 영험이 있으면 보사한다는 내용이 예
문禮文에 실려 있으니, 종묘·사직·북교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則今閏六月二十七日爲吉云。
以此日設行，而謹依受敎，勿
閉城門事，一體知委舉行，何
如?” 傳曰：“允。”

丙申十二月十二日

● 祈雪

一. 曹啓曰：“因大臣筵奏，祈
雪祭，不卜日設行事，伏承慈
教矣。宗廟·社稷·北郊，今
十四日，依例遣重臣設行事，
知委何如?” 傳曰：“允。”

丙申十二月十五日

● 祈雪報謝

一. 曹啓曰：“祈雪祭設行後，
靈應如響，雪下雖未優渥，一
宵所得，庶慰三農之望，凡祈
有應，則報謝載在禮文矣。宗
廟·社稷·北郊報謝祭，卽爲
擇日設行，何如?” 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신년¹⁸³⁶ 12월 16일

● 기설제의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종묘·사직·북교 기설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 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12월 20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⁸³⁶ 12월 19일

● 기설제의 보사제를 미루어 거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의 보사제를 이번 20일로 잡았으니 오늘 향을 받아야 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날과 겹칩니다. 보사제를 다시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기설제의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종묘·사직·북교 기설제의 보사제를 다시 택일하여

丙申十二月十六日

● 祈雪報謝

一. 曹單子：“宗廟·社稷·北郊祈雪報謝祭，擇日設行事，草記允下矣。吉日今日官李秉洪推擇，則今十二月二十日爲吉云。以此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丙申十二月十九日

● 祈雪報謝退行

一. 曹啓曰：“祈雪報謝祭，以今二十日推擇，受香在今日，而大辟相值，報謝祭，更爲擇日設行，何如？”傳曰：“允。”

● 祈雪報謝

一. 曹單子：“宗廟·社稷·北郊祈雪報謝祭，更爲擇日設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12월 21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⁸³⁷ 5월 12일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는 자전慈殿의 하교를 삼가 받았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월 14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⁸³⁷ 5월 15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行事, 草記允下矣. 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十二月二十一日爲吉云. 以此日設行之意,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酉五月十二日

一. 大王大妃殿傳曰: “祈雨祭, 不卜日設行事, 分付禮曹.”

● 初次祈雨

一. 曹單子: “祈雨祭, 不卜日設行事, 伏承慈教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五月十四日,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酉五月十五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17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⁸³⁷ 5월 1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0일에 남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관상감의 측우 단자에 기록된 수심이 3분이었다.】

정유년¹⁸³⁷ 5월 21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내린 단비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세 차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지만 아직 한 번도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3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卜日，今十七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酉五月十八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日，南壇·雩祀壇，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觀象監測雨單子，水深三分。】

丁酉五月二十一日

● 四次

一. 曹啓曰：“再昨甘澍，僅止涸塵，三次致虔，一霈尙靳，四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三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정유년¹⁸³⁷ 5월 24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 종묘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⁸³⁷ 5월 27일

【26일부터 같은 날 밤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1촌 7분이었다.】

●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는 갈망하던 끝에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거의 몇 촌에 가까워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지금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으니 이어서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또 불경한 일에 가까우니, 6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丁酉五月二十四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六日，宗廟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酉五月二十七日

【自二十六日至同日夜，水深一寸七分。】

● 祈雨觀勢

一. 曹啓曰：“昨日甘霖，得於渴望之餘，言念民事，誠爲萬幸，而自朝至宵，水深幾近數寸，雖未周洽，見今濃雲四布，繼此沛然，方切顒望，而圭璧之屢薦，且近瀆褻，六次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 傳曰：“允。”

정유년¹⁸³⁷ 6월 1일

● 기우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6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고 거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갈망하던 끝에 이처럼 단비가 내려 측우기의 수심이 이미 반 척을 넘어 두 루 적실 수 있을 듯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겠습니다. 보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종묘 보사제는 삼가 예법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선행하겠습니다. 3차 기우제 이후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가 내렸으므로 역시 보사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남단과 우사단의 보사제를 일체 선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⁸³⁷ 7월 8일

● 위와 같은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남단·우사단 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선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김유진^{金有晉}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3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선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丁酉六月初一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六次祈雨祭，觀勢設行事，草記允下矣。渴望之餘，得此甘霖，測雨器水深，既過半尺，庶可周洽，言念民事，誠爲萬幸，祈雨祭，依例停止，當有報謝之舉，宗廟報謝祭，謹依禮典，待立秋後設行，而三次祈雨之後，所得雖有大小之殊，亦不可無報謝之節，南壇·雩祀壇報謝祭，一體設行，何如？”傳曰：“允。”

丁酉七月初八日

● 上同

一. 曹啓曰：“宗廟·南壇·雩祀壇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草記允下矣。吉日令日官金有晉推擇，則今七月十三日爲吉云。以此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무술년¹⁸³⁸ 5월 6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비와 햇볕이 모두 알맞아 모에 물을 덜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보름 이후 줄곧 가물어 간혹 비가 뿌렸으나 곧바로 그쳤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모내기할 시기가 점차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8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5월 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11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戊戌五月初六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雨暘均適，注秧無愆矣。第自去月望後，一直早乾，間或霏灑，乍始旋止，夏至已過，秧節漸晚，言念民事，誠爲渴悶，圭璧之薦，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初八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

戊戌五月初九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十一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무술년¹⁸³⁸ 5월 1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5월 15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내린 비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세 차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는데 아직 한 번도 비가 쏟아지지 않아 농사철을 놓치게 되었으니 너무도 애타고 걱정입니다.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17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5월 18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0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戊戌五月十二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四日，南壇・雩祀壇，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戊戌五月十五日

● 祈雨四次

一. 曹啓曰：“再昨之雨，僅止涸塵，三次虔禱，一霈尙靳，農節將愆，萬萬渴悶，四次祈雨祭，不卜日，今十七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戊戌五月十八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日，宗廟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

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5월 21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3일에 삼각산·목역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5월 24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수심이 3분이었으나 곧바로 그쳤다.】

● 제관을 별도로 차임하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여섯 차례나 지냈지만 비가 내릴 조짐이

施行.

戊戌五月二十一日

● 六次

一. 曹單子: “六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三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戊戌五月二十四日

● 七次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六日, 龍山江·楮子島, 遣重臣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同日夕始雨, 水深爲三分, 而仍卽收止.】

● 祭官別差

一. 大王大妃殿傳曰: “祈雨祭至爲六次, 而雨意藐然, 言念

막연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비할 데 없이 다급하고 걱정스럽다. 7차 기우제는 정경(正卿)과 각신(閣臣)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무술년 1838 5월 27일

● 8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3일 전에 내린 비가 겨우 생기날을 적실 정도였는데 곧바로 그쳤습니다. 지금 초복이 다가왔는데 끝내 한 번도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애타고 걱정입니다. 8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9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하다. 중신과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무술년 1838 6월 1일

● 9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여덟 차례 기우제를 지냈지만 영험이 아직도 아득하여 서늘한 바람이 불고 비가 조금 흩뿌렸으나 끝내 한 번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복이 이미 지났는

民事，遑悶無比，七次祈雨祭官，以正卿閣臣填差。”

戊戌五月二十七日

● 八次

一. 曹啓曰：“三昨之雨，僅爲鋤澇，旋即收止，見今初庚在邇，一霈終靳，言念民事，轉益渴悶，八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九日，南壇·雩祀壇，遣重臣設行，何如？”傳曰：“允。重臣·閣臣填差。”

戊戌六月初一日

● 九次

一. 曹啓曰：“八薦圭璧，靈應尙邇，淒吹霏滴，終靳一霈，初庚已屆，農節轉愆，民情遑汲，日甚一日，九次祈雨祭，不

데 농사가 점차 늦어지니 민심이 황급하기가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9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3일에 북교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되, 석척동자 기우제는 전례에 9차 기우제부터 시작하여 모화관 못가·경회루 못가·춘당대 못가에서 연이어 세 차례 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조 계유년¹⁷⁵³ 수교受敎로 인하여 모화관 못가와 춘당대 못가에서는 설행하지 않고, 경회루 못가에만 종2품 무신을 보내 같은 날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였습니다. 선조先朝(순조) 신미년¹⁸¹¹에는 특교로 인하여 모화관·경회루·만상문萬祥門 안의 못가에서 3일 연이어 차례를 나누어 설행하였고, 갑술년¹⁸¹⁴에는 또 계유년¹⁷⁵³의 전례대로 경회루 못가에서만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갑술년의 전례대로 통지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석척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예전에 석척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는 헌관과 감찰이 경복궁 안에서 유숙하였고, 본조의 낭청과 형조의 낭청 각 1원이 동자군 100명을 거느리고 궁 밖에 유숙하면서 특별히 검칙하고 날마다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냈으며, 내자시·내섬시·예빈시로 하여금 번갈아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고, 제물은 없으며 헌관은 향만 피

卜日，今初三日，北郊遣重臣設行，蜥蜴童子祈雨，舊例自九次爲始，慕華館池邊·慶會樓池邊·春塘臺池邊，連行三次，而英廟朝癸酉年因受敎，慕華館池邊·春塘臺池邊，不爲設行，但於慶會樓池邊，遣從二品武臣，同日爲始，三日而止，先朝辛未，因特敎，慕華館·慶會樓·萬祥門內池邊，連三日分次設行，甲戌則又依癸酉例，只行於慶會樓池邊矣。今番則依甲戌例，知委設行，何如?” 傳曰：“允。”

● 蜥蜴祈雨

一. 曹啓曰：“謹稽謄錄，則在前蜥蜴童子祈雨時，獻官·監察宿於景福宮內，本曹郎廳·刑曹郎廳各一員，領率童子軍一百名，留宿宮外，另加檢飭，逐日待開門入送，而令內資寺·內贍寺·禮賓寺，輪回供饋，無祭物，獻官只焚香，監

우고 감찰은 단속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석척은 사복시司僕寺에서 진배하고, 거행은 봉상시 수복이 하였다. 4일에 1촌 2분 정도 비가 내렸으나,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설행하였다.】

● 기우제 때 재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석척 기우제 때는 매일 기우제의 향을 받는 날의 전례대로 재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술년¹⁸³⁸ 6월 4일

● 별기우제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이미 아홉 차례나 지냈는데도 아직 만족스러운 영험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의 가뭄은 무엇 때문인가.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통하다. 재해를 만나 자신을 책망하는 도리로 주상이 친히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어린 나이로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 종묘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설행하게 하라. 내일 향을 받고, 제문은 문임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며 집사들 역시 각별히 신중하게 택하라고 분

察檢飭而已. 今亦依前例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蜥蜴則司僕寺進排, 舉行則奉常寺守僕·初四日雨下一寸二分, 而不撤仍設.】

● 祈雨用齋

一. 曹啓曰: “謹稽膳錄, 則蜥蜴祈雨祭時, 每日依祈雨祭受香日例, 用齋矣. 今亦依此舉行, 何如?” 傳曰: “允.”

戊戌六月初四日

● 別祈雨祭

一. 大王大妃殿傳曰: “圭璧之舉, 已至九次, 而尚未快得靈應, 今茲之旱, 是何故也? 言念民事, 萬萬哀痛, 遇災責躬之道, 主上事當親禱, 而方在沖年, 有難將事, 宗廟別祈雨祭, 遣大臣攝行, 明日受香, 祭文令文任撰進, 諸執事亦爲各別慎擇事, 分付.” 【祭官祭物,

부하라.”

하였다. 【제관祭官과 제물祭物은 이전 종묘 기우제의 전례대로 각 관사에서 거행하였다. 같은 날 청좌廳座 때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4분이었고, 같은 날 전교한 후 소나기가 내렸는데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1촌 2분이었다.】

무술년¹⁸³⁸ 6월 7일

● 10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아홉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단비가 한 번 내려 다행히 1촌을 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그쳐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전의 간곡한 전교로 특별히 종묘에 기도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뚜렷하지만 아직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의 형편과 백성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황급합니다.

10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9일에 사직에大神을 보내 설행하되, 민간의 물병에 버들을 꽂고 향을 피우는 일은 향을 받는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依前此宗廟祈雨祭例，各司舉行。同日廳座，觀象監水深四分，同日傳教後，驟雨注下，觀象監水深一寸二分。】

戊戌六月初七日

● 十次祈雨

一. 曹啓曰：“九薦圭幣，一雨甘澍，幸得過寸，而旋即收止，未爲優洽，慈教懇摯，特舉攝祈太廟之禮，而雨意雖緊，霈注尙靳，農形民情，日益遑汲，十次祈雨祭，不卜日，今初九日，社稷遣大臣設行，閭閻瓶柳，受香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무술년¹⁸³⁸ 6월 8일

- 기우제에 사용할 향을 받은 뒤 비가 내렸다는 내용을 보태 넣다.

승정원의 계사에,

“아침에 기우제에 사용할 향을 받았는데 지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내용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 관원으로 하여금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2촌 5분이었다.】

무술년¹⁸³⁸ 6월 9일

- 제관에게 상을 주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위하여 실로 몹시 다행이다. 별기우제의 헌관과 사직 기우제의 헌관에게 모두 내구마^{內廐馬} 1필을 면급^{面給}하고, 나머지 집사들에게 모두 상현궁^{上弦弓} 1장을 내려주라.”

하였다.

戊戌六月初八日

- 祈雨祭受香後, 得雨添入

一. 政院啓辭: “朝者祈雨祭受香, 而見今甘露方始, 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意, 令知製教措辭添入, 使香室官員, 急速陪進, 何如?” 傳曰: “允.”

【觀象監測雨水深, 二寸五分.】

戊戌六月初九日

- 祭官賞典

一. 大王大妃殿傳曰: “久旱之餘, 得此甘露, 爲民事實爲萬幸, 別祈雨祭獻官及社稷祈雨祭獻官, 並內廐馬一匹面給, 其餘諸執事, 並上弦弓一張賜給.”

무술년¹⁸³⁸ 6월 10일

● 기우제의 보사제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행 예조 판서 정원용^{鄭元容}이
아되기를,

“오랜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연이어 내려
6촌을 넘어 농민을 충분히 위로하였으니 농사에 있
어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오늘부터 정지하겠습
니다. 자전의 간곡한 전교로 별기우제를 행하고 정
성이 닿아 보우를 받아 단비가 충분히 적셔 주었으
니, 종묘에 보사하는 예식이 있어야 하며, 사직에도
일체 설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사제를 지낼 때는 택일하여 곧바로 설행한
전례도 있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제사를 지낸 때
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리고 9차 북교 기우제 이후 비가 내려 1촌 남짓이 넘
었으니, 예조의 전례를 삼가 살펴보건대 함께 보사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가 두루 적셔 주었으니 농사
에 있어 매우 다행이다. 종묘와 사직의 보사제를 즉
시 택일하여 설행하고, 북교의 보사제도 일체 설행
하라.”

하였다. 【사사로운 기록에는 어느 곳의 몇 차 기우
제인지를 막론하고 두서너 푼의 비가 내린 경우는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북교의 경우만 거론

戊戌六月初十日

● 祈雨報謝

一. 次對入侍時, 行禮曹判書
鄭所啓: “久暘渴望之餘, 甘雨
連注, 至過六寸, 慰滿三農, 民
事萬幸, 祈雨祭, 自今日停止,
而慈教懇摯, 特行別祈, 格誠
荷佑, 澍澤優洽, 太廟宜有報
謝之禮, 社稷亦當一體設行,
而在前報謝之時, 或有擇日即
行之例, 亦有待秋將事之時,
今番則何以爲之? 而九次北
郊祭後得雨, 亦過寸餘, 謹考
曹例, 合有同爲報謝之節, 依
例舉行, 何如?” 大王大妃殿
答曰: “久待之餘, 甘霖周洽,
民事萬幸. 宗廟·社稷報謝祭,
卽爲擇日設行, 北郊報謝祭,
亦一體設行可也.” 【私記無
論某處幾次, 得雨二三四分,
初不舉論, 只北郊.】

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정지하고 종묘와 사직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되, 복교의 보사제도 일체 설행하라
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최복
기^{崔福基}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17일이 길하다
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⁸³⁹ 6월 1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된 지 마침내 한 달이 넘었
습니다. 잠시 그쳤다가도 곧바로 쏟아져 날이 갠 기
약이 없습니다. 농사가 손상을 입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스러우니,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월의 기청제는 대신에게
가서 의논한 경우와 구대^{求對}하여 여쭙어 청한 경우
가 아니면 해당 조에서 먼저 지례 초기를 올리지 말
라고 예전 정묘조^{正廟朝}에 수교^{受敎}하여 정식으로 삼
았습니다. 정식대로 신 권돈인^{權敦仁}이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도 전례대로 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 上同

一. 曹啓曰：“祈雨祭停止，宗
廟・社稷報謝祭，卽爲擇日設
行，北郊報謝祭一體設行事，
命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
崔福基推擇，則今六月十七日
爲吉云。以此日設行，何如？”
傳曰：“允。”

己亥六月初一日

● 禳祭

一. 曹啓曰：“一雨成霖，遂至
跨朔，乍歇旋霖，開霽無期，
稼穡受損，誠極悶慮，祈晴之
舉，不容少緩，而六月祈晴，除
非往議大臣及求對稟請，自該
曹莫或徑先草記事，曾有正廟
朝受敎定式矣。依定式，臣敦
仁往議于大臣，則大臣之意，
亦以依已例設行爲宜，四門禳
祭，不卜日，今初三日設行，三
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
“允。”

이번 3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⁸³⁹ 6월 6일

- 형세를 보아 영제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6일 묘시부터 인정까지 비가 5분 내렸고, 인정부터 7일 동틀 무렵까지 비가 2촌 3분 내렸는데, 다시 며칠 동안 보자는 거조가 있었으므로 2차 영제는 일단 거행하지 않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이번 장마가 홍수가 되는 바람에 이미 익은 보리가 전부 버려지게 되었고, 일찍 모내기한 보리싹은 대부분 녹아 버렸으며, 밭에 종자를 뿌리고 김매는 일도 때가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민심이 걱정하고 다급하여 작년에 가뭄을 근심하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제를 지낸 뒤에 날씨가 영험이 나타날 가망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 또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흠뻑리니, 근심스러운 마음을 더욱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2차 영제를 즉시 청해야 하지만 일단 비가 쏟아지지는 않고 있으니 갑자기 성상을 번거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며칠 동안 보고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己亥六月初六日

- 祭觀勢，初六日自卯時至人定，雨下五分，自人定至初七日開東，雨下二寸三分，而有更觀數日之舉條，故再祈姑不舉行。

一.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李所啓：“今番雨潦，便成極備，已熟之牟麥，殆至全棄，早移之禾苗，率多消融，田種播鋤，亦未免愆時，際此民情之憂遑，無異於昨年悶旱之時，祭後，天氣頗有靈應之望，今又崇朝霏灑，尤不勝憂憫，再次祭祭，即當仰請，而姑未滂沱，有難遽瀆，更觀數日，稟旨舉行之意，分付該曹，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기해년¹⁸³⁹ 6월 11일

● 영제의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에 3일 안에 개었으므로 보사하는 절차를 즉시 거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비가 조금씩 내려 여전히 말끔히 개지는 않았습니
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혹시 2차 영제를 지낼 수도 있었으므로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맑아 더 이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사문의 보사제는 삼가 예문^{禮文}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⁸³⁹ 7월 21일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번 수재^{水災}는 홍수라고 말할 만한데, 근래 조금 겔 조짐이 있어 말끔히 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

己亥六月十一日

● 禁祭報謝

一. 曹啓曰：“禁祭設行後得晴，既在三日之內，報謝之節，當卽舉行，而旋復霏微，猶未快霽，因大臣筵奏，擬或再舉，姑爲遲待矣。今則日候晴朗，更無雨意，四門報謝祭，謹依禮文，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

己亥七月二十一日

● 再次禁祭

一. 曹啓曰：“傳曰：‘今年水災，可謂極備，伊來稍有霽意，深望其快收，今又若是大霖，言念民事，萬萬罔措，再次禁祭，

데 지금 또 이처럼 비가 쏟아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2차 영제를 해당 조로 하
여금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게 하고, 헌관은 당상관
으로 채워 차임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전교대로 2차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3일에 설행하여 3
일 뒤에 정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해년¹⁸³⁹ 7월 26일

● 영제의 보사제 때 성문을 닫지 말라고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영제를 특교로 인하여 설행하자 오랫동안 내리
던 비가 깨끗이 그치고 날씨가 연이어 화창하니, 보
사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길일
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30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겠습니다. 1차 기청제
이후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도록 전
에 이미 계품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그믐 이후 비가 또 자주 내려 일단 날을 잡지 않
았습니다. 이번 보사제의 축문에 1차 영제를 지내고
날이 갠 연유를 일체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에 성
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令該曹不卜日設行，獻官以
堂上填差事，命下矣。謹依聖
教，再次四門祭祭，不卜日，今
二十三日設行，三日而止事，知
委何如？”傳曰：“允。”

己亥七月二十六日

● 祭祭報謝勿閉城門

一. 曹啓曰：“再次祭祭，因特
教設行，積雨快霽，日候連和，
報謝之舉，不容少緩，吉日令
日官李秉洪推擇，則今七月
三十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
初次祈晴³³後報謝祭，待立秋
設行事，前已啓稟蒙允，而去
晦以來，雨又頻仍，姑未卜日³⁴
矣。今此報謝祭祝文中，初次
得晴之由，一體措辭撰出，而
謹依受教受香後，城門勿閉
事，並爲知委舉行，何如？”傳

³³ 晴：저본에는 ‘雨晴’. 『승정원일기』
현종 5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³⁴ 日：저본에는 ‘吉’. 『승정원일기』
현종 5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5월 20일

● 1차 기우제

이번 5월 20일 약방이 입진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하지가 지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간간이 흠뻑리
기는 하였으나 쟁기날을 적실 만큼도 채우지 못하
여 주앙^{注秧}(볍씨를 모판에 뿌림)이 몹시 늦어져 민심이 애
태우고 걱정하기가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
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

예조의 단자에,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이번 2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
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曰：“允。”

壬寅五月二十日

● 初次祈雨

今五月二十日，藥房入診入侍
時，領議政趙所啓：“夏至已
過多日，一雨尙此漠然，雖或
有間間沾灑，而未滿鋤犁，注
秧多愆，民情渴悶，日甚一日，
圭璧之舉，有難虛徐，初次祈
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
付該曹，何如？”上曰：“依爲
之。”

● 上同

一. 曹單子：“因大臣筵奏，初
次祈雨祭，不卜日設行事，命下
矣。初次祈雨祭，今二十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
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
如？”啓依所啓施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5월 23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정성껏 지내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고 끝내 비가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5월 26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28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축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기우제의 향축은 내가 직접 전달할 것이다. 운검^{雲劍}과 보검^{寶劍}은 그만두고 시위는 입직하는 군병

壬寅五月二十三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初次虔禱，甘澍伊始，而僅止沍塵，終靳一霈，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五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壬寅五月二十六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八日，南壇·雲祀壇，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 香祝親傳

一. 傳曰：“明日祈雨祭香祝，當親傳矣，雲寶劍置之，侍衛入直磨鍊，該房知悉。”

으로 마련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5월 29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에 북교에
제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같은 날
낮부터 밤까지 비가 내렸는데, 관상감 측우기의 수
심이 5분이었다고 아뢰었다.】

임인년¹⁸⁴² 6월 3일

【6월 1일 동틀 때부터 오시^{午時}까지 비가 내렸는데,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2분이었다고 아뢰었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큰 가뭄이 든 와중에 엇그제 비가 내렸으나 먼지를
적실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차례나 기우제
를 지냈지만 끝내 비가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아 모내
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
다.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壬寅五月二十九日

● 四次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
卜日，來六月初二日，北郊遣
宰臣，社稷遣重臣設行事，知
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同日晝夜所得，雲觀測雨器，
水深五分，啓.】

壬寅六月初三日

【六月初一日，自開東至午時，
雲觀測雨器水深二分，啓.】

● 五次

一. 曹啓曰：“亢旱之餘，日昨
雨澤，不過過塵，四薦圭璧，一
霈終靳，秧節漸愆，民事渴悶，
五次祈雨祭，不卜日，今初五
日，宗廟遣重臣設行事，知委
何如？” 傳曰：“允。香祝當親
傳矣。”

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향축은 내가 직접 전달할 것이다.”

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6월 6일

【5일 5경부터 동틀 때까지 비가 내렸는데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4분이었고, 묘시부터 사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또 9분이었다.】

● 기우제의 보사제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다섯 차례나 지내면서 밤낮으로 애태우고 걱정하느라 잠자리가 편치 않았는데, 다행히 조종^{祖宗}의 신령에 힘입어 이처럼 단비가 내렸으니, 어찌 기쁨을 고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종묘 보사제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설행하고, 어제 기우제의 헌관에게는 내하 호피^{內下虎皮} 1령을 내려주고, 대축 이하 집사들과 묘사관에게는 각각 상현궁을 내려주고, 거행한 수복들에게는 해당 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상을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보사제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

壬寅六月初六日

【初五日自五更至開東，雲觀水深四分，自卯時至巳時，雲觀水深又九分。】

● 祈雨報謝

一. 傳曰：“圭璧之舉，至于五次，夙宵渴悶，寢息靡安，幸賴祖宗之靈，得此甘霖，豈可無告喜之舉乎？宗廟報謝祭，不待秋成，即爲設行，昨日祈雨祭獻官，內下虎皮一令賜給，大祝以下諸執事廟司官，各上弦弓賜給，舉行守僕等，令該曹酌加賞給。”

● 上同

一. 曹啓曰：“宗廟報謝祭，不待秋成，即爲設行事，命下矣。”

시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고,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15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거행하겠습니다. 1차와 3차 기우제 이후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일 안에 비가 내렸으니 또한 보사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남단·우사단의 보사제를 같은 날 모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⁸⁴² 6월 7일

● 보사제를 겸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종묘 보사제는 이번 6월 15일 설행하라고 방금 이미 계하하셨는데, 망제^{望祭}를 지내는 날과 겹칩니다. 예문에는 초하루나 보름에 지내는 제사가 별제^{別祭}와 겹치는 경우에는 별제만 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예문대로 보사제만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祈雨祭, 依例停止, 報謝祭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六月十五日爲吉云. 以此日舉行, 而初次三次祈雨後, 所得雖有大小之殊, 既在三日之內, 亦不可無報謝之節, 三角山·木覓山·漢江·南壇·雩祀壇報謝祭, 同日一體設行, 何如?”

傳曰: “允.”

壬寅六月初七日

● 報謝兼行

一. 曹單子: “宗廟報謝祭, 今六月十五日設行事, 纔已啓下, 而與望祭相值, 禮文內, 朔望若值別祭, 則只行別祭亦爲白有置, 今亦依禮文, 只行報謝祭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기우제등록 제6책

1848~1889년

기우기청등록 8

祈雨祈晴謄錄 八

헌종조 무신년¹⁸⁴⁸부터 병신년¹⁷⁷⁶까지

전향사 상

自憲廟朝戊申

典享司 上

무신년¹⁸⁴⁸ 5월 28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여름에는 비가 간혹 내리지 않았으나 여러 도에 간간히 내려 고루 적셨습니다. 다만 경기·충청·강원·황해 및 서울은 지금도 여전히 가물어 간혹 호미를 적실 정도의 비는 내렸지만 곧 날이 개어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가 점차 늦어져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니, 제사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30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30일에 관상감 측우기의 수심이 1촌 5분이었다.】

무신년¹⁸⁴⁸ 6월 1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는데 어제 소나기가 내렸으나 많이 내리지 않고 곧 날이 개어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戊申五月二十八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夏雨澤，雖或慳閔，諸路所得，間多均霑，惟畿甸·湖西·關東·海西及京中，尙今旱乾，間或有鋤涸之雨，而旋即開霽，終未優洽，夏至已過，秧節漸晚，言念民事，誠極渴閔。圭璧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三十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傳曰：“允”【三十日，雲觀測雨器水深，一寸五分】

戊申六月初一日

● 再次祈雨

一. 曹啓曰：“圭璧之舉，伊始矣，昨日驟雨，所得無多，旋即開霽，一霽尙靳，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三日，龍山江·楸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무신년¹⁸⁴⁸ 6월 4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제사를 두 차례 지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겨우 먼지만 적시고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6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5일에 수심이 5분이었다.】

무신년¹⁸⁴⁸ 6월 7일

● 4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몇 촌의 단비가 내려 비록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지금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장차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지나친 듯하니, 4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戊申六月初四日

● 三次祈雨

一. 曹啓曰：“圭璧再薦，甘澍伊始，而僅止涸塵，終未周洽，三次祈雨祭，不卜日，今初六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何如？”傳曰：“允。”【初五日，水深五分】

戊申六月初七日

● 四次祈雨，姑爲觀勢設行

一. 曹啓曰：“再昨日，數寸之甘澍，雖未周洽，見今濃雲四布，將有霑然之望，此際又薦圭璧，恐涉瀆襲，四次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傳曰：“允。”

무신년¹⁸⁴⁸ 6월 10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일전의 비가 이미 여러 촌을 넘겼고 또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실로 번거롭고 지나치기에 계품하여 일단 정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났는데 아침에는 흐리다가 저녁에는 화창하여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2일에 복교에 제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수심이 1촌 1분이었다.】

무신년¹⁸⁴⁸ 6월 13일

● 5차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 간간이 호미를 적실 만한 비가 자주 내리다가 어제 단비가 또 몇 촌 정도 내렸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5차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를 법전대로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戊申六月初十日

● 四次祈雨

一. 曹啓曰：“日前之雨，既過數寸，且有霑然之望，屢薦圭璧，實涉瀆襲，啓稟姑停矣。伊後四日，朝陰晚暘，尙闕一霈，四次祈雨祭，不卜日，今十二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何如？”傳曰：“允。”【水深一寸一分】

戊申六月十三日

● 五次祈雨停止

一. 曹啓曰：“屢舉圭璧，間有鋤雨之頻仍，而昨日甘澍，又得寸餘，誠甚萬幸。五次祈雨祭停止，報謝祭，依法典，待立秋設行，何如？”傳曰：“允。”

무신년¹⁸⁴⁸ 7월 6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를 지내자 곧바로 신령이 감응하였으니 보사하는 절차는 가을을 기다려 설행하겠다고 초기를 올려 윤택을 받았습니다. 절향^{節享}과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남단·삼각산·목멱산·한강은 오는 8월 4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우사단·북교·용산강·저자도는 절향이 없으니 보사제를 같은 날 일체 설행하며, 사직단의 보사제는 같은 달 7일 대제^{大祭}와 겸행하고, 축문에 보태 넣는 일과 지어 내는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신년¹⁸⁴⁸ 7월 11일

● 북교 보사제는 하루 물러 지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봉상시의 보고를 받으니,

‘남단·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4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우사단·북교·용산강·저자도의 보사제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도록 본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북교의 위판 19위 중에 중앙의 삼각산·목멱산·한강의 3위는 절향에 배진^{陪進}하여 북교에 중앙위가 없으니 전례대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

戊申七月初六日

● 報謝祭

一. 曹啓曰：“四次祈雨，輒有靈應，報謝之節，待秋設行事，草記允下矣。節享兼行，多有已例，南壇·三角山·木覓山·漢江，來八月初四日，節享兼行，雩祀壇·北郊·龍山江·楮子島，既無節享，報謝祭，同日一體設行，社稷報謝祭，同月初七日，大祭兼行，祝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行事，並爲分付，何如?” 傳曰：“允。”

戊申七月十一日

● 北郊報謝退行一日

一. 曹啓曰：“即接奉常寺所報，則南壇·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來八月初四日節享兼行，雩祀壇·北郊·龍山江·楮子島報謝祭，同日一體設行事，自本曹磨鍊，而北郊位版十九位內，中央三角山·木覓山·漢江三位，節享陪進，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영조조 갑신년¹⁷⁶⁴ 기우보사 제 등록을 살펴보니, 후직씨^{后稷氏}의 위판 1위를 배위^{配位}로 삼아 선농단에 봉안해야 하고, 또 정위^{正位}로 삼아 우사단에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하나의 위판을 같은 날 각기 제향하면 거행하기 혼란하니, 선농단 배향을 중시해야 한다는 태상시의 보고로 인하여 신의 조^曹가 아뢰어 우사단의 보사제를 특교로 하루 물러 설행하였습니다. 이번 보사제는 절향이 중요하니, 복교 보사제 또한 하루 물러 설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 전례대로 하루 물러 설행하라.”

하였다.

경술년¹⁸⁵⁰ 7월 1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장마가 아직도 개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北郊無中央位，不得如例舉行云矣。謹考英廟朝甲申年祈雨報謝謄錄，則后稷氏位版是一位，而以配位當奉於先農壇，又以正位並設於雩祀壇，而一位版同日各享，眩於舉行，當歸重於先農壇配享事，因太常牒報，自臣曹啓稟，而雩祀壇報謝，因特教退行一日矣。今此報謝，節享爲重，則北郊報謝，亦當退行一日，而自下不敢擅便，何以爲之乎？敢稟。”傳曰：“依已例退行一日。”

庚戌七月初一日

● 禋祭

一. 曹啓曰：“見今秋節已屆，霖雨尙未開霽，言念穡事，誠極悶然。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禋祭，不卜日，今初三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경술년¹⁸⁵⁰ 7월 11일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날씨가 흐렸다가 맑아지고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치며 아직 날이 갠 가망이 없습니다. 농사가 손상을 입으니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2차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3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5월 26일

●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전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전교하기를,
“지방에는 비가 제법 내렸다고 하는데, 도성과 경기는 여전히 가물었다.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올해 절기가 평년에 비해 조금 늦다고 하나 지극히 애타고 걱정스러워 편히 먹고 자지 못하겠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는 자전^{慈殿}의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5

庚戌七月十一日

● 再次

一. 曹啓曰：“禁祭設行後，日候載陰載陽，乍止旋霏，尙無開霽之望，稼穡受損，誠極悶慮。再次四門禁祭，不卜日，今十三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辛亥五月二十六日

● 祈雨祭設行事，傳教

一. 大王大妃殿傳曰：“外道雨水，聞頗霑霑，都下及近圻亢旱，今夏至已過，今年節序，比常年，雖云稍晚，渴悶之極，寢食靡甘。祈雨祭，不卜日設行事，知委禮曹。”

● 初次

一. 曹單子：“祈雨祭不卜日設行事，伏承慈教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五月二十八日，

월 28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5월 2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2일에 용산강·저지도에 전례대로 종2품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6월 1일

● 승정원의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단자로 인하여 2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어제 단비가 밤새도록 아침까지 연달아 내렸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 2차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였다.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 何如?” 啓
依所啓施行.

辛亥五月二十九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來六月初二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從二品, 虔誠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辛亥六月初一日

● 院啓

一. 政院啓曰: “因禮曹單子, 再次祈雨祭, 今日當爲傳香, 而昨日甘沛通宵至朝¹, 連爲注下, 在前如此之時, 有啓稟停止之例,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猶爲未洽, 再次設行.”

1 而昨日甘沛通宵至朝: 저본에는 '而甘沛通宵至朝'. 『승정원일기』 철종 2년 6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제문에 보태 넣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2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단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6월 3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내린 비는 비록 3촌을 넘겼으나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아직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5일에 남단·우사단에서 종2품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6월 4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단비가 지금 충분히 적셨으니 3차 기우제는 일단 정지하라.”

하였다.

● 祭文添入

一. 政院啓曰: “再次祈雨祭, 今日當爲傳香, 而見今甘露方霽, 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意, 令知製教措辭添入, 何如?” 傳曰: “允.”

辛亥六月初三日

● 三次

一. 曹啓曰: “今番之雨, 雖過三寸, 渴望之餘, 猶未周洽.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五日, 南壇·雩祀壇, 遣從二品, 虔誠設行, 何如?” 傳曰: “允.”

辛亥六月初四日

● 祈雨停止

一. 大王大妃殿傳曰: “甘露今則周洽, 三次祈雨祭, 姑爲停止.”

● 이미 받은 향축을 불태우다.

예조가 아뢰기를,

“3차 기우제를 일단 정지하라는 자전의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향을 받았으니, 신위판은 다시 봉안하고 향축 또한 향실에 봉안해 와서 깨끗한 곳에서 불태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6월 6일

●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자전의 전교에 따라 정지하였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보사제를 예전禮典에 따라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7월 12일

● 보사제는 절향과 겸하여 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삼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에서 기우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절향을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10일에 절향과 겸행

● 已受香祝燒火

一. 曹啓曰：“三次祈雨祭，姑爲停止事，伏承慈教，而今既受香矣，神位版還奉安，香祝亦爲奉來香室，淨處燒火，何如？”傳曰：“允。”

辛亥六月初六日

● 報謝設行

一. 曹啓曰：“祈雨祭，因慈教停止矣。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楮子島報謝祭，依禮典，待立秋後設行，何如？”傳曰：“允。”

辛亥七月十二日

● 報謝祭節享兼行

一. 曹單子：“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楮子島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啓下矣。節享兼告，多有已例是白如乎，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來八月初十日，節享

하고, 용산강·저자도는 절향이 없으니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 내는 일은 예문관
 으로 하여금 설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해년¹⁸⁵¹ 8월 1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수재가 이렇게 놀랍고 걱정스러운 중에
 지금 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
 으로 애가 탄다. 사문영제를 중신을 보내어 택일하
 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이 설행하는 일에 대한 초기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수재가 이렇게 놀랍고 걱정스러운 중에 지
 금 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
 로 애가 탄다. 사문영제를 중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 설행하고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兼行, 龍山江·楮子島, 既無節
 享, 同日一體設行, 而祝文添
 入撰出事, 令藝文館舉行, 何
 如?” 啓依所啓施行.

辛亥八月初一日

● 祭傳敎

一. 傳曰: “關西水災, 方此驚
 悶之中, 今雨若是極備, 言念
 穡事, 實爲憧憧. 四門祭, 遣
 重臣, 不卜日, 虔誠設行.”

● 上同設行事, 草記

一. 曹啓曰: “傳曰: ‘關西水災,
 方此驚悶之中, 今雨若是極
 備, 言念穡事, 實爲憧憧, 四門
 祭, 遣重臣, 不卜日, 虔誠設
 行’事, 命下矣. 四門祭, 不
 卜日, 今初三日設行, 三日而止
 事, 知委何如?” 傳曰: “允.”

신해년¹⁸⁵¹ 8월 11일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잠깐 개었다가 다시 비가 내려 날
이 개기를 바랐는데, 지금 비가 연달아 쏟아지니, 이
어서 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
니다. 2차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3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겠습니다. 헌관은 당하 3품
관원을 보내는 것이 법전인데, 1차 영제를 지낼 때
는 특교에 따라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였습니다. 이
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높은 품계를 보내 내일 설행하라.”
하였다.

임자년¹⁸⁵² 6월 6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단비가 꺾은비가 되어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
으니 지금 농사를 망칠 근심을 말하지 않아도 상상
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편안하
지 않다. 입추 전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많이 있으
니,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
게 하라.”
하였다.

辛亥八月十一日

● 再次禳祭

一. 曹啓曰：“禳祭設行後，乍
陽旋雨，庶冀開霽，見今雨勢
連霖，繼又祈晴，有不容少
緩。四門再次禳祭，不卜日，今
十三日設行，三日而止，而獻
官遣堂下三品官，卽是法典，
初次禳祭時，因特敕遣重臣設
行矣。今番則何以爲之乎？敢
稟。”傳曰：“遣崇品，明日設
行。”

壬子六月初六日

● 禳祭傳教

一. 傳曰：“喜雨仍成苦霖，跨
朔不止，此時痒稼之患，不言
可想，念及於此，寢食靡安。
立秋前祈晴之舉，亦多有近例
矣。令該曹，不卜日，使之虔誠
設行。”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단비가 콧은비가 되어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으니 지금 농사를 망칠 근심을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입추 전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많이 있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자년¹⁸⁵² 6월 10일

● 영제 보사제는 가을을 기다려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건혀 날이 맑아졌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보사제는 삼가 예문대로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上同設行

一. 曹啓曰：“傳曰：‘喜雨仍成苦霖，跨朔不止，此時庠稼之患，不言可想，念及於此，寢食靡安。立秋前祈晴之舉，亦多有近例矣。令該曹，不卜日，使之虔誠設行’事，命下矣。四門祭，不卜日，今初八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壬子六月初十日

● 祭報謝，待秋設行

一. 曹啓曰：“祭報謝設行後，積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之節。四門報謝祭，謹依禮文，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

임자년¹⁸⁵² 6월 22일

● 위의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영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라고 계
하하였습니다. 사문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
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7일이 길하다고 하였
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대로 성문을 닫
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6월 30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여름에는 비 내리는 날과 맑은 날이 적절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13일 이후로는 한결같이 가
물어 더위가 타는 듯하고 큰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
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때에 맞추어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7월
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
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子六月二十二日

● 上同報謝祭設行

一. 曹單子：“祭報謝祭，待
立秋後設行事，啓下矣。四門
報謝祭吉日，令日官李秉洪
推擇，則來七月初七日爲吉
云。以此日時設行，而謹依受
敎，勿閉城文事，並以分付，何
如？” 啓依所啓施行。

癸丑六月三十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雨暘
無愆矣。第自今月十三日以後，
一直亢旱，暑氣如燄，一需尙
靳，言念民事，誠爲渴悶，趁
此圭璧之薦，恐不容少緩。初
次祈雨祭，不卜日，來七月初二
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
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
何如？” 傳曰：“允。”

계축년¹⁸⁵³ 7월 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5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7월 6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7월 9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1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癸丑七月初三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五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癸丑七月初六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初八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癸丑七月初九日

● 四次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卜日，今十一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계축년¹⁸⁵³ 7월 12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4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7월 15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7월 18일

●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6차 기우제를 지내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급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가을이 이미 늦었으니 기우제는 일단 정지하고,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

癸丑七月十二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四日, 宗廟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癸丑七月十五日

● 六次

一. 曹單子: “六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七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癸丑七月十八日

● 祈雨停止, 報謝設行

一. 曹啓曰: “六次虔禱, 甘澍伊始, 昨日之雨, 雖未優洽, 庶可救急, 言念民事, 誠爲萬幸. 見今秋節已晚, 祈雨祭姑爲停止,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擇日舉行, 何如?” 傳曰:

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6차 기우제의 헌관에
게는 각각 녹비鹿皮 1영令을 하사하고, 나머지 집사들
에게는 모두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였다.

● 위의 보사제를 절향과 겸하여 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기우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
행하겠다는 초기를 올려 윤희를 받았습니다. 절향
을 겸행한 전례가 많으니, 세 곳의 보사제는 오는 8
월 8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
태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12월 14일

● 기설제를 설행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올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오려고 하는데 눈
이 아직도 내리지 않아 전에 없는 겨울 가뭄으로 보
리가 마르고 밭이 메말랐습니다. 민심을 생각하면
지극히 근심스럽고 애가 탑니다. 기설제를 설행하는
일이 비록 드물다고는 하지만 인용할 만한 전례가
있으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允.” 六次祈雨祭獻官，各內
下鹿皮一令賜給，其餘諸執
事，並兒馬一匹賜給。

● 上同報謝節享兼行

一. 曹啓曰：“三角山·木覓山
·漢江祈雨報謝祭，擇日舉行
事，草記允下矣。節享兼告，多
有已例，三處報謝祭，來八月
初八日，節享兼行，祝文中，措
辭添入事，分付何如？”傳曰：
“允。”

癸丑十二月十四日

● 祈雪祭設行事，備局草記

一. 備邊司啓曰：“見今天序垂
更，歲律將新，而一雪尙靳，冬
旱曠前，牟之枯，田疇之涸，言
念民情，極爲悶渴，祈雪祭設
行，雖曰絕罕，而亦有可援之
已例，不卜日，虔誠設行之意，
知委該曹，何如？”傳曰：“允。”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는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묘당에서 초기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종묘·사직·북교에 이달 16일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축년¹⁸⁵³ 12월 21일

● 기설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뒤 며칠 안에 눈과 비가 번갈아 내려 영험한 복이 이미 많으니 오랜 가뭄 뒤에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도하여 감응이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종묘·사직단·북교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위의 제사를 납향^{臘享}과 겸하여 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종묘·사직·북교의 기설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보사제를 절향^{節享}과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종묘·사직의 보사제는 이번 25일 납향대제^{臘享大祭}와 겸하여 지내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며, 북교 보사제

● 上同設行

一. 曹啓曰：“祈雪祭，不卜日，虔誠設行事，自廟堂草記，允下矣。宗廟·社稷·北郊，今十六日，依例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癸丑十二月二十一日

● 祈雪報謝

一. 曹啓曰：“祈雪祭設行後，數日之內，雪雨交下，靈貺既多，久旱之餘，誠爲萬幸，凡祈有應，則當有報謝之節，宗廟·社稷·北郊報謝祭，卽爲擇日設行，何如？”傳曰：“允。”

● 上同祭臘享兼行

一. 曹單子：“宗廟·社稷·北郊祈雪報謝祭，擇日設行事，草記允下矣。報謝祭之節享兼行，多有已例，宗廟·社稷報謝祭，今二十五日臘享大祭兼行，祝文中措辭添入，北郊報謝

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5월 18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랜 가뭄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비 내릴 조짐이 여전히 막막합니다. 올해 절기가 비록 조금 늦는다고는 해도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실로 걱정스럽고 애가 탑니다. 하지 전후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통지하겠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관직이 걱정스러우니, 상경한 수령을 며칠 안에 내려가라고 재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변사의 초기로 인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祭, 同日一體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寅五月十八日

● 祈雨祭設行事, 備局草記

一. 備邊司啓曰: “亢旱跨朔, 雨意尙邈, 今年節序, 雖曰差晚, 念及農情, 實爲悶渴, 夏至前後, 有難遲待, 祈雨祭, 不卜日設行之意, 知委, 此時曠官, 委屬可念, 上京守令, 不多日內, 催促下送, 何如?” 傳曰: “允.”

● 上同設行

一. 曹單子: “因備邊司草記, 祈雨祭不卜日設行事, 命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日,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갑인년¹⁸⁵⁴ 5월 21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3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5월 24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6일에 남단·우사단에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5월 27일

● 전교

전교하기를,

“제사를 이미 세 차례 지냈으나 신령의 감응은 갈수록 막막하니 백성이 다급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헌관은 정경^{正卿}과 각신^{閣臣}으로 채워 차임하며 집사들 역시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甲寅五月二十一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三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寅五月二十四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六日, 南壇·雩祀壇, 遣宰臣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寅五月二十七日

● 傳教

一. 傳曰: “圭璧已至三次, 靈應去益邈然, 民情遑汲之狀, 若在目中, 四次祈雨祭, 不卜日, 明日受香, 獻官, 正卿閣臣填差, 諸執事亦爲各別擇差.”

하였다.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제사를 이미 세 차례 지냈으나 신령의 감응은 갈수록 막막하니 백성이 다급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헌관은 정경과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며 집사들 역시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직·북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9일에 정경과 각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5월 28일

● 4차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4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단비가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때에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지하라.”

하였다.

● 四次

一. 曹啓曰：“傳曰：‘圭璧已至三次，靈應去益邈然，民情遑汲之狀，若在目中。四次祈雨祭，不卜日，明日受香，獻官，正卿閣臣填差，諸執事亦爲各別擇差’事，命下矣。社稷·北郊四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九日，遣正卿閣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甲寅五月二十八日

● 四次停止

一. 政院啓曰：“四次祈雨祭，今日當爲傳香，而見今甘霖，自夜至朝，連爲注下，在前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例，何以爲之？敢稟。”傳曰：“停止。”

갑인년¹⁸⁵⁴ 6월 2일

● 보사제를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는 승정원의 계품으로 인하여 정지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세 차례 지내자 신령의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라 갈망하던 끝에 이런 단비가 내려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농사가 천만다행입니다. 남단·우사단에 보사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사제를 지낼 때 간혹 택일하여 거행한 전례가 있고, 또 가을을 기다려 제사를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전교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6월 3일

● 위의 택일을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우사단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0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甲寅六月初二日

● 報謝祭稟

一. 曹啓曰：“四次祈雨祭，因政院啓稟，有停止之命矣。圭璧三舉，靈應如響，渴望之餘，得此甘霖，庶爲三農之望，民事萬幸。南壇·雩祀壇，宜有報謝之禮，而在前報謝之時，或有擇日舉行之例，亦有待秋將事之時，今番則何以爲之乎？敢稟。”傳曰：“擇日舉行。”

甲寅六月初三日

● 上同擇日

一. 曹啓曰：“南壇·雩祀壇報謝祭，擇日舉行事，命下矣。吉日今日官李秉洪推擇，則今六月十二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

갑인년¹⁸⁵⁴ 7월 19일

● 영제를 지내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입추가 이미 지났는데 큰비가 연달아 쏟아지니 홍수가 일어날 염려가 없지 않아 농사가 걱정입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변사의 초기에 따라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6일에 설행하되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인년¹⁸⁵⁴ 7월 29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이 맑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甲寅七月十九日

● 祭備局草記

一. 備邊司啓曰：“立秋已過，霖雨連霖，不無極備之慮，民事憧憧。四門祭祭，不卜日，虔誠設行之意，知委儀曹，何如？”傳曰：“允。”

● 上同設行

一. 曹單子：“因備邊司草記，四門祭祭，不卜日，虔誠設行事，命下矣。四門祭祭，不卜日，今二十六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甲寅七月二十九日

● 祭報謝

一. 曹啓曰：“祭祭設行後，積雨收霽，日候清朗，當有報謝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如？”傳曰：“允。”

갑인년¹⁸⁵⁴ 7월 30일

● 위와 같이 택일하다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윤7월 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5월 20일

● 전교

전교하기를,
“월초에 쟁기를 적실 만한 비만 내려 이미 부족하다는 탄식이 있었고, 이후 열흘 넘게 가뭄이 들었으니 백성이 더욱 걱정하고 애태운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월초에 쟁기를 적실 만한 비만 내려 이미 부족하다는 탄식이 있었고, 이후 열흘 넘게 가뭄이 들었으니 백성이 더욱 걱정하고 애태운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甲寅七月三十日

● 上同擇日

一. 曹單子：“四門禁祭報謝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來閏七月初九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事，並以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

丙辰五月二十日

● 傳敎

一. 傳曰：“月初鋤犁之雨，已有不足之歎，而伊後亢旱跨旬，民情轉益憂悶，圭璧之舉，不卜日設行事，分付儀曹。”

● 初次設行

一. 曹啓曰：“傳曰：‘月初鋤犁之雨，已有不足之歎，而伊後亢旱跨旬，民情轉益憂，悶圭璧之舉，不卜日設行事，分付儀曹’事，命下矣。初次祈雨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2일에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5월 2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5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5월 26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8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祭, 不卜日, 今二十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丙辰五月二十三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五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辰五月二十六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八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병진년¹⁸⁵⁶ 5월 29일

● 4차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비가 이미 3촌 가까이 내렸는데 새벽에도 다시 쏟아졌고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장차 큰비가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이때 연달아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번잡한 듯합니다. 4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6월 2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라고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적서 준 뒤 또 연달아 큰비가 내려 지금은 충분히 적서 농민을 만족시켰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3차로 정성껏 기도한 뒤 신령한 감응이 모두 사흘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의 보사제를 삼가 예전^{禮典}에 따라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丙辰五月二十九日

● 四次停止

一. 曹啓曰：“再昨之雨，已近三寸，曉又注灑，濃雲四布，將有霑下之望，此時連舉圭璧，恐涉瀆屑。四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如？”傳曰：“允。”

丙辰六月初二日

● 報謝

一. 曹啓曰：“四次祈雨祭，觀勢舉行事，允下矣。日前甘澍霑潤之餘，又得連日霑然之澤，今可周洽，慰滿三農，言念民事，誠甚萬幸。祈雨祭仍爲停止，而今番再次三次虔禱後，靈應俱在於三日之內，當有報謝之節，龍山江·楮子島·南壇·雩祀壇報謝祭，謹依禮典，待立秋後，擇日舉行，何如？”傳曰：“允。”

병진년¹⁸⁵⁶ 7월 6일

●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기우제를 설행한 뒤 단비가 충분히 내려 예조에서 입추 이후에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겠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날이 가물어 백성이 애태우고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이미 1년에 재차 기우제를 지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조로 하여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변사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설행하라고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7월 9일

●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丙辰七月初六日

● 祈雨祭更爲設行事, 備局草記

一. 備邊司啓曰: “向於祈雨祭設行後, 甘露周洽, 自該曹至有立秋後, 報謝祭擇日舉行之啓, 而見今跨朔亢旱, 民情渴悶, 故取考臚錄, 已有一年再祈之例, 今亦令該曹祈雨祭, 不卜日, 更爲虔誠設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 上同設行

一. 曹單子: “因備邊司草記, 祈雨祭, 不卜日, 更爲設行事, 允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八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辰七月初九日

● 停止

一. 曹啓曰: “昨日之雨, 既過

“어제 내린 비가 이미 3촌을 넘어 신령한 감응이 이렇게 빨랐으니 농사에 매우 다행입니다. 오래 가뭄이 든 뒤라 비록 충분하지는 않으나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연달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기우제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진년¹⁸⁵⁶ 7월 12일

● 보사제의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삼각산·목멱산·한강에 기우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절향을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남단·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8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용산강·저자도·우사단은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을 지어 내고 보태 넣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사년¹⁸⁵⁷ 7월 21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입추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연일 비가 내려 잠간

三寸，靈應斯捷，民事甚幸。久旱之餘，雖未洽滿，秋節已屆，連瀆不安，祈雨祭停止，何如?” 傳曰：“允。”

丙辰七月十二日

● 報謝擇日

一. 曹啓曰：“龍山江·楮子島·南壇·雩祀壇·三角山·木覓山·漢江祈雨報謝祭，擇日舉行事，已爲啓下矣。節享兼告，多有已例，南壇·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來八月初八日，節享兼行，龍山江·楮子島·雩祀壇，同日一體設行，而祝文撰出添入等事，令藝文館舉行事，分付何如?” 傳曰：“允。”

丁巳七月二十一日

● 禋祭

一. 曹啓曰：“立秋已過一朔，連日之雨，乍歇旋霖，尙未快

그쳤다가 도로 쏟아져 아직 깨끗이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3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사년¹⁸⁵⁷ 7월 28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맛비가 걷히고 날씨가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사년¹⁸⁵⁷ 7월 29일

● 위와 같이 택일하다.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8월 4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대로 향을 받은 후 성문을 닫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霽,言念穡事,誠極悶然.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禁祭,不卜日,今二十三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丁巳七月二十八日

● 禁祭報謝

一. 曹啓曰:“禁祭設行後,霖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如?”傳曰:“允.”

丁巳七月二十九日

● 上同擇日

一. 曹單子:“四門禁祭報謝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來八月初四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事,並以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

무오년¹⁸⁵⁸ 5월 7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하지가 하루 남았는데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실로 다급하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위와 같이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변사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오년¹⁸⁵⁸ 5월 11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곧 그쳐 아직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3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

戊午五月初七日

祈雨設行事, 廟堂草記

一. 備邊司啓曰: “見今夏至隔日, 一需尙靳, 言念農功, 實係遑悶, 圭璧之舉, 不容少緩, 祈雨祭, 不卜日, 設行事,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 上同設行

一. 曹單子: “因備邊司草記, 祈雨祭, 不卜日, 設行事, 命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戊午五月十一日

● 再次

一. 曹啓曰: “昨日甘澍, 伊時旋止, 尙未優洽,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三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오년¹⁸⁵⁸ 5월 14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연일 내리는 비가 급한 가뭄을 해결하였지만 아직 큰비가 쏟아지지 않아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6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오년¹⁸⁵⁸ 5월 17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9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事, 知委何如?” 傳曰: “允.”

戊午五月十四日

● 三次

一. 曹啓曰: “連日之雨, 庶爲救急, 一需尙靳, 猶未周洽,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六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戊午五月十七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九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무오년¹⁸⁵⁸ 5월 20일

- 5차 기우제는 중지하고 보사제를 입추 뒤에 택 일하여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가 이미 네 차례에 이르렀는데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라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중지하고 보사하는 절차를 입추를 기다린 뒤 택 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4차 기우제의 헌관 이하에게 상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위해 천만다행이다. 4차 기우제의 헌관에게는 대내에서 내린 녹비^{鹿皮} 1영^令을 하사하고, 나머지 집사들에게는 모두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라.”
하였다.

무오년¹⁸⁵⁸ 6월 20일

- 보사제의 날짜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후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절향을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사직 보사제는 오는 8월 6

戊午五月二十日

- 五次停止, 報謝祭立秋後擇日設行.

一. 曹啓曰: “圭璧之薦, 已至四次, 靈應如響, 得此甘霖, 言念農功, 誠爲萬幸. 祈雨祭, 依例停止, 報謝之節, 待立秋後, 擇日設行, 何如?” 傳曰: “允.”

- 四次獻官以下, 賞典

一. 傳曰: “渴望之餘, 得此甘霖, 爲民事萬幸. 四次祈雨祭, 獻官內下鹿皮一令賜給, 其餘諸執事, 並兒馬一匹賜給.”

戊午六月二十日

- 報謝祭日子

一. 曹單子: “祈雨報謝祭, 待立秋後, 擇日設行事, 前已啓下矣. 節享兼行, 多有已例, 社稷報謝祭, 來八月初六日, 大

일에 대제^{大祭}와 겸행하고,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같은 달 8일에 절향과 겸행하며, 북교·용
산강·저자도는 절향이 없기에 길일을 일관 이병홍
에게 잡게 하였더니 같은 달 11일이 길하다고 하였
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 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祭兼行, 三角山·木覓山·漢江
報謝祭, 同月初八日, 節享兼
行, 北郊·龍山江·楮子島, 既
無節享, 吉日令日官李秉洪推
擇, 則同月十一日爲吉云. 以
此日設行, 祝文添入撰出等事,
令藝文館舉行, 何如?” 啓依
所啓施行.

경신년¹⁸⁶⁰ 5월 16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복날이 머지않았는데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
고 동풍이 계속 부는데 큰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습
니다. 지방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경기의 농사는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庚申五月十六日

● 籌司艸記祈雨設行

一. 備邊司啓曰: “見今伏日不
遠, 秧節漸晚, 而東風連吹,
一需尙靳, 外道則未知如何,
而控畿農形, 則誠爲渴悶. 祈
雨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知
委儀曹, 何如?” 答曰: “允.”

● 1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비변사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
지 말고 이달 18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

● 初次設行

一. 曹單子: “因備邊司草記,
祈雨祭, 不卜日設行事, 命下
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
十八日, 三角山·木覓山·漢

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19일

● 2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1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22일

● 3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4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축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남단·우사단의 기우제에 쓰는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房은 잘 알도록 하라.”

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庚申五月十九日

● 再次設行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一日, 龍山江·楸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庚申五月二十二日

三次設行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四日, 南壇·雪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香祝親傳

一. 傳曰: “南壇·雪祀壇祈雨祭香祝, 當親傳矣, 該房知悉.”

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23일

● 향을 받은 뒤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내용을 보태 넣겠다는 승정원의 계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기우제 헌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제문에 비가 내렸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의 관원에게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우사단의 헌관이 제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지냈으니 파직하는 법전을 시행하겠다는 승정원의 계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기우제 제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겠다고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당마^{塘馬}로 먼저 두 제단에 통지하여 향실 관원에게 모시고 가게 하였더니, 우사단에서 제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의 전례와 법의 의도가 얼마나 신중한데 너무 일찍 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무도 놀랍고 송구합니다. 해당 헌관을 엄히 감률해야 하나, 본원에서 추고를 청하는 것 외에 달리 시행할 벌이 없습니

庚申五月二十三日

● 政院啓辭, 受香後, 祭文中添入得雨事.

一. 政院啓曰: “朝者祈雨祭獻官, 既已受香, 而見今甘霖方始, 祭文中, 似當添入得雨之意, 令知製教措辭添入, 使香室官員, 急速陪進, 何如?” 傳曰: “允.”

● 政院啓辭, 雩壇獻官, 不待正時, 徑先過享, 施以譴罷之典.

一. 政院啓曰: “祈雨祭祭文, 措辭添入之意, 既蒙允下, 以塘馬先爲知委於兩壇, 使香室官員陪進矣. 雩祀壇, 則不待正時, 徑先過享, 祀典法意, 何等審慎, 而失之太早, 萬萬驚悚. 當該獻官, 所當重勘,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而雖以奏時官

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각을 아뢰는 관원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몹시 놀랍습니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해당 헌관에게 파직하는 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25일

● 기우제를 중지하고 보사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단비가 처음 내린 뒤 다시 연일 큰비가 내려 지금 충분하니 농사가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중지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3차로 정성껏 기도한 뒤 신령한 감응이 모두 사흘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에 보사제를 삼가 예전에 따라 입추를 기다린 뒤 정성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4차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설행하라.”

하였다.

言之,不善舉行,亦甚駭然,令攸司科治,何如?”傳曰:“允.當駭獻官,施以譴罷之典.”

庚申五月二十五日

● 祈雨停止報謝祭設行

一. 曹啓曰:“再昨甘澍始下之餘,又得連日霈然之澤,今可周洽,民事萬幸. 祈雨祭停止,而今番再次三次虔禱後,靈應俱在於三日之內,當有報謝之節. 龍山江·楮子島·南壇·雩祀壇報謝祭,謹依禮典,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憫旱之餘,得此甘霖,喜幸曷已. 四次祈雨祭,依例停止,報謝祭,不待立秋,卽爲設行.”

● 위와 같이 택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에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뒤 즉시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유준호(劉俊祐)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5월 2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26일

● 헌관의 상전

전교하기를,
“이번 2차, 3차 기우제의 헌관에게 모두 대내에서 내린 녹비 1영을 하사하고, 나머지 집사들에게는 모두 아마 1필을 하사하라.”
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5월 27일

● 보사제를 물러 설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보사제는 날이 맑기를 기다려 설행하라.”
하였다.

● 上同擇日

一. 曹啓曰：“龍山江·格子島·南壇·雩祀壇報謝祭，不待立秋，即爲設行事，命下矣。吉日令日官劉俊祐推擇，則今五月二十九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

庚申五月二十六日

● 獻官賞典

一. 傳曰：“今番再三次祈雨祭獻官，並內下鹿皮一令賜給，其餘諸執事，並兒馬一匹賜給。”

庚申五月二十七日

● 報謝祭退行傳教

一. 傳曰：“雨勢如此，報謝祭，待晴設行。”

경신년¹⁸⁶⁰ 6월 10일

● 보사제를 다시 택일하여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의 보사제는 날이 맑
 기를 기다려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유준호^{劉俊祐}에게 다시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13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6월 17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
 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되, 제관은 승지와 각신을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
 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되, 제관은 승지와 각신을 채워 차임하라.’

庚申六月初十日

● 報謝祭更擇設行

一. 曹啓曰：“龍山江·楮子島
 ·南壇·雩祀壇報謝祭，待晴
 設行事，命下矣。吉日令日官
 劉俊祐，更爲推擇，則今六月
 十三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
 祝文令藝文館撰出事，知委何
 如？”傳曰：“允。”

庚申六月十七日

● 祭傳教

一. 傳曰：“甘露便成長霖，言
 念民事，寢食靡甘。四門祭，
 不卜日設行，祭官以承旨·閣臣
 填差。”

● 祭設行

一. 曹啓曰：“傳曰：‘甘露便成
 長霖，言念民事，寢食靡甘。四
 門祭，不卜日設行，祭官以承
 旨·閣臣填差’事命下矣。四門
 祭，不卜日，今十九日設行，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9일에 설행하되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신년¹⁸⁶⁰ 6월 22일

● 2차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잠깐 개었다가 다시 비가 내려 지금 비가 몹시 많이 내리고 신령한 감응은 막막하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애가 탄다. 2차 영제는 정경^{正卿}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

하였다.

● 2차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잠깐 개었다가 다시 비가 내려 지금 비가 몹시 많이 내리고 신령한 감응은 막막하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애가 탄다. 2차 영제는 정경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차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4일에 설행하되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庚申六月二十二日

● 再次祭禮傳教

一. 傳曰：“乍晴旋雨，今焉極備，靈應邈然，憂悶萬萬。再次祭禮，遣正卿，不卜日設行。”

● 再次祭禮設行

一. 曹啓曰：“傳曰：‘乍晴旋雨，今焉極備，靈應邈然，憂悶萬萬。再次祭禮，遣正卿，不卜日設行’事，命下矣。四門再次祭禮，祭，不卜日，今二十四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경신년¹⁸⁶⁰ 7월 6일

● 3차 영제를 지내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비변사가 아뢰기를,
“한 번 장마가 석 달이나 이어져 날이 갠 기약이 없고 처서가 하루 남았는데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3차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3차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변사의 초기에 따라 3차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3차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며, 헌관은 당하 3품 관원을 보내는 것이 법전인데, 2차 영제 때는 특교로 인하여 정경을 보내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높은 품계를 보내 설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신유년¹⁸⁶¹ 12월 15일

● 기설제

비변사가 아뢰기를,
“추위가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눈이 내리지 않으니

庚申七月初六日

● 籌司三次榮祭草記

一. 備邊司啓曰：“一霖三朔，開霽無期，處暑隔日，節氣漸涼，言念穡事，憂遑靡屆。三次榮祭，不卜日，更爲虔誠設行事，知委儀曹何如？”傳曰：“允。”

● 三次榮祭設行

一. 曹啓曰：“因備邊司草記，三次榮祭，不卜日，更爲設行事，命下矣。四門三次榮祭，不卜日，今初八日設行，三日而止，而獻官遣堂下三品官，卽是法典，再次榮祭時，因特教，遣正卿設行矣。今番則何以爲之乎？敢稟。”傳曰：“遣崇品設行。”

辛酉十二月十五日

● 祈雪

一. 備邊司啓曰：“寒沍垂窮，而一連無雪，嗣歲農功，恐有

내년의 농사가 가뭄이 들 걱정이 있습니다. 기설제를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같은 날, 위와 같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는 묘당의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종묘·사직·북교의 기설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유년¹⁸⁶¹ 12월 18일

● 기설 보사제를 택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뒤 신령한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리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비록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급한 사정을 해결할 만합니다. 기도하여 감응이 있으면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종묘·사직·북교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悶旱之慮，祈雪祭，令儀曹，不卜日，虔誠設行之意，分付何如？”答曰：“允。”

● 同日上同

一. 曹啓曰：“祈雪祭，不卜日，虔誠設行事，自廟堂草記，允下矣。宗廟·社稷·北郊祈雪祭，不卜日，今十七日，依例遣重臣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辛酉十二月十八日

● 祈雪報謝祭擇日

一. 曹啓曰：“祈雪祭設行後，靈應如響，昨日雪下，雖未優渥，庶可救急。凡祈有應，則當有報謝之節，宗廟·社稷·北郊報謝祭，卽爲擇日設行，何如？”傳曰：“允。”

신유년¹⁸⁶¹ 12월 19일

● 기설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종묘·사직단·북교의 기설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 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험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유준호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12월 2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5월 29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한결같이 가무니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기우제를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험한다고 전교하였다.

辛酉十二月十九日

● 祈雪報謝

一. 曹單子：“宗廟·社稷·北郊祈雪報謝祭，擇日設行事，草記允下矣。吉日令日官劉俊祐推擇，則今十二月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壬戌五月二十九日

● 祈雨祭傳敎

傳曰：“夏至已過，一直亢旱，言念穡事，丙枕靡安。圭璧之舉，令該曹不卜日設行。”

● 初次祈雨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來六月初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임술년¹⁸⁶² 6월 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4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정식대로 태상사에서 용을 그려 모시고 가고 희생은 사용하지 않으며, 호조에서 거위 등을 진배^{進排}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6월 5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7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6월 8일¹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내린 비는 비록 1촌이 넘었으나 갈망하던 뒤

¹ 임술년 6월 8일 : 저본에는 이 뒤에 ‘親傳香’이 있으나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壬戌六月初二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四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依定式, 自太常畫龍陪進, 不用牲, 自戶曹鵝屬進排事.】

壬戌六月初五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七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壬戌六月初八日

● 四次祈雨

一. 曹啓曰: “今番之雨, 雖過寸餘, 渴望之際, 猶未周洽.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

인지라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4차 기우제를 택일
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
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6월 11일

● 보사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농민을 위로하였으니 농사
를 위해 천만다행이다. 5차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
하고, 보사제는 천천히 기다릴 필요 없으니 입추에
즉시 설행하라. 사직·북교의 헌관에게는 모두 녹비
1영을 하사하고, 집사들에게는 상현궁 1장을 하사하
고, 2차, 3차 헌관 역시 일체 시상하라.”

하였다.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농민을 위로하였으니 농사
를 위해 천만다행이다. 5차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
하고, 보사제는 천천히 기다릴 필요 없으니 입추에
즉시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전교대로 5차

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壬戌六月十一日

● 報謝祭傳教

一. 傳曰: “旱餘甘澍, 慰滿三農, 爲民事萬幸. 五次祈雨祭, 依例停止, 報謝祭, 不必遲待, 立秋卽爲設行. 社稷·北郊獻官, 並鹿皮一令賜給, 諸執事上弦弓一張賜給, 再三次獻官, 亦一體施賞.”

● 祈雨報謝祭

一. 曹啓曰: “傳曰: ‘旱餘甘澍, 慰滿三農, 爲民事萬幸. 五次祈雨祭, 依例停止, 報謝祭, 不必遲待, 立秋卽爲設行事, 命下矣. 謹依聖教, 五次祈雨祭, 依例停止, 社稷·北郊報謝祭吉日, 令日官李興善推擇, 則

기우제는 전례대로 중지하고, 사직·북교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흥선李興善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16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이번에는 2차, 3차 정성껏 기도한 뒤 신령한 감응이 모두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용산강·저자도·남단·우사단의 보사제를 같은 날 함께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7월 6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처음에 단비가 내리다가 곧 장마가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이 끝이 없다. 영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예조로 하여금 전례대로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今六月十六日爲吉云. 以此日設行, 而今番再三次虔禱後, 靈應俱在於三日之內, 當有報謝之節, 龍山江·楸子島·南壇·雩祀壇報謝祭, 同日一體設行, 何如?” 傳曰: “允.”

壬戌七月初六日

● 祭傳教

一. 傳曰: “始也甘霖, 便成長霖, 言念穡事, 憧憧靡已. 祭不待立秋, 令該曹依例設行.”

● 祭設行

一. 曹啓曰: “傳曰云云事, 命下矣. 四門祭, 不卜日, 今初八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임술년¹⁸⁶² 7월 13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
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같은 날,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
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유준호^{劉俊祐}에게 잡게 하였더
니 이번 7월 19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
하되, 삼가 수교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
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8월 22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최근 내리는 비가 이미 지극히 걱정스러운데 날씨
가 점점 서늘해지는데도 여전히 갭 기미가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이 끝이 없다. 사문영제를 중
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되 당일 향을 받게 하라.”
하였다.

壬戌七月十三日

● 祭報謝

一. 曹啓曰：“祭設行後，積
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
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
何如？”傳曰：“允。”【同日，曹
單子：“四門祭報謝祭，擇日
設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
劉俊祐推擇，則今七月十九日
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
受教，受香後，勿閉城門事，並
以分付，何如？”啓依所啓施
行。】

壬戌八月二十二日

● 祭傳教

一. 傳曰：“近日之雨，已極憂
悶，而節氣漸涼，尙無開霽之
意，言念穡事，惶惶無已。四門
祭，遣重臣，虔誠設行，使之
當日受香。”

●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성상의 전교대로 당일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술년¹⁸⁶² 8월 27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를 거행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김제정^{金濟正}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윤 8월 2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대로 성문을 닫지 말라고 일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⁸⁶³ 5월 10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큰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애타고 걱정스럽다. 기우제를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게

● 禳祭設行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四門禳祭，謹依聖教，當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壬戌八月二十七日

● 禳祭報謝

一. 曹啓曰：“禳祭設行後，積雨收霽，日候晴和，報謝之節，當爲舉行，四門報謝祭吉日，令日官金濟正推擇，則來閏八月初二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教，勿閉城門事，一體知委，何如？”傳曰：“允。”

癸亥五月初十日

● 祈雨教下

一. 傳曰：“夏至已過，一霈尙遲，言念穡事，極爲渴悶，祈雨祭，令該曹不卜日設行。”

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⁸⁶³ 5월 13일

●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처음 기우제를 지내자 어제 단비가 내려 쏟아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였는데, 지금 비 내리는 형세를 보니 이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고, 보사하는 절차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5일에 전교하기를,

“이번 기우제의 헌관 이하에게는 각각 상현궁 1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 初次祈雨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二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癸亥五月十三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初舉圭璧，昨日甘澍，或霏或灑，見今雨勢，繼此霈然，言念農功，誠爲萬幸。祈雨祭，依例停止，報謝之節，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十五日，傳曰：“今番祈雨祭獻官以下，各上弦弓一張賜給。”】

계해년¹⁸⁶³ 6월 18일

● 영제를 지내라는 하교

전교하기를,

“한 번 비가 내리더니 장마가 되어 갯 조짐이 없다. 도랑이 잠겨 농사를 해치는 것이 걱정이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초조하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1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⁸⁶³ 6월 25일

● 기우 보사제를 절향과 겸하여 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덕산·한강의 기우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겠다고 초기를 올려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절향을 겸행한 전례가 많으니, 세 곳의 보사제는 오는 8월 7일에 절향과 겸행하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癸亥六月十八日

● 祭下教

傳曰：“一雨成霖，訖無霽意，溝塍沈墊，瘠稼可悶，言念民事，極爲憧憧。四門祭祭，不卜日，遣宰臣虔誠設行。”

● 初次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祭祭，不卜日，今二十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癸亥六月二十五日

● 祈雨報謝節享兼行

一. 曹啓曰：“三角山·木覓山·漢江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草記，已爲允下矣。節享兼告，多有已例，三處報謝祭，來八月初七日，節享兼行，祝文中措辭添入事，分付何如?” 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해년¹⁸⁶³ 6월 26일

● 영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
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영제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
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유준호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4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
되 삼가 수교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5월 14일

의정부가 아뢰기를,
“열흘 전 한 번 비가 쏟아졌으니 다행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하지가 다 되었는데 가뭄 걱정이
갈수록 심해지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

癸亥六月二十六日

● 禁祭停止

一. 曹啓曰：“禁祭設行後，積
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
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
何如？”傳曰：“允。”

● 禁祭報謝

一. 曹單子：“四門禁祭報謝
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
令日官劉俊祐推擇，則來七月初
四日爲吉云。以此日設行，
而謹依受教，受香後，勿閉城
門事，並以分付，何如？”啓依
所啓施行。

甲子五月十四日

一. 議政府啓曰：“旬前一霽，
非不爲幸，而見今夏至，只隔
惜乾轉緊，祈雨祭，不卜日，虔
誠設行事，知委該曹，何如？”

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는 18일이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6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14일 묘시부터 초저녁까지 수심이 7분이고 인정부터 5경까지 수심이 4분이었다.】

갑자년¹⁸⁶⁴ 5월 17일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거위 따위를 사용하며, 용을 그려 진배하되 거위 따위는 호조에서, 용 그림은 봉상시에서 하다.】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내린 비는 비록 1촌이 넘었으나 곧 개었으니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9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曰：“允。”【夏至十八日.】

● 初次祈雨

一. 曹單子：“因議政府草記，祈雨祭，不卜日設行事，啓下矣. 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六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十四日，自卯時，至初昏，水深七分，自人定，至五更，水深四分.】

甲子五月十七日,

【不用牲鵝屬進用，而畫龍進排，鵝屬則戶曹，畫龍則奉常寺.】

● 再次祈雨

一. 曹啓曰：“今番之雨，雖過寸餘，旋即開霽，猶未優洽，再次祈雨祭，不卜日，今十九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5월 20일

【19일 밤의 수심은 2분이었다.】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내린 비는 겨우 먼지나 적실 뿐이어서 가뭄을
근심하던 나머지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22일에 남단·우
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5월 23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5일에 북교에 재
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
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甲子五月二十日

【十九日夜水深二分】

● 三次祈雨

一. 曹啓曰：“昨日之雨，僅止
涸塵，惜乾之餘，誠極渴悶。

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二
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
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甲子五月二十三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
卜日，今二十五日，北郊遣宰

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갑자년¹⁸⁶⁴ 5월 2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8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5월 29일

【호두^{虎頭}를 진배^{進排}하는 일은 경기 감영에 공문을 보내다.】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전교하기를,

“6차 기우제의 제관은 당상 각신을 채워 차임하라. 이조에서 거행하라.”

하였다.【30일의 수심은 2분이었다.】

甲子五月二十六日

● 五次祈雨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八日，宗廟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甲子五月二十九日

【虎頭進排事，移文畿營】

● 六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卜日，來六月初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依例遣近侍，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一. 傳曰：“六次祈雨祭祭官，堂上閣臣填差，吏曹舉行。”
【三十日，水深二分。】

갑자년¹⁸⁶⁴ 6월 1일

● 7차 기우제에 높은 품계를 보낸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이미 6번이 넘도록 지냈는데 단비가 여전히 오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7차 기우제는 내일 향을 받고 높은 품계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이 마련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7차 기우제는 이달 3일에 용산강·저자도에 높은 품계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6월 4일

【3일 묘시부터 유시까지 수심이 1촌 1분이었고 바로 날이 개었다.】

● 8차 기우제는 상황을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1촌 남짓 단비가 내렸으니 비록 충분하지는 않으나 갈망하던 때에 내렸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이어서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여러 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또한 너무 지나칩니

甲子六月初一日

● 七次祈雨遣崇品

一. 傳曰：“圭璧之舉，已過六次，而甘霖尙遲，言念民事，寢食靡安。七次祈雨祭，明日受香，遣崇品，虔誠設行。”

● 上同磨鍊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七次祈雨祭，今初三日，龍山江·楮子島，遣崇品，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甲子六月初四日

【初三日，自卯時，至酉時，水深一寸一分，仍爲開霽。】

● 八次祈雨觀勢

一. 曹啓曰：“昨日寸餘甘霖，雖未周洽，得於渴望之際，誠甚萬幸。繼此沛然，方切顒祝，而屢薦圭璧，亦係瀆褻。八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

다. 8차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5일 밤의 수심은 1촌 4분이었다.】

갑자년¹⁸⁶⁴ 6월 11일

【10일 묘시부터 인정^{人定}까지 수심이 2촌 1분이었다. 11일 동틀녘부터 12일 동틀녘까지 수심이 2촌 2분이었다.】

●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8차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거행하겠다고 초기를 올려 윤희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적신 뒤 또 어제 비가 쏟아져 두루 적실 수 있어 농민을 위로하니 농사가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7차로 정성껏 기도한 뒤 신령한 감응이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용산강·저자도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자년¹⁸⁶⁴ 7월 6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如?” 傳曰：“允。”【初五日夜，水深一寸四分。】

甲子六月十一日

【初十日，自卯時，至人定，水深二寸一分。十一日，自開東，至十二日開東，水深二寸二分。】

● 祈雨停止

一. 曹啓曰：“八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事，草記允下矣。日前甘澍霑潤之餘，又得昨今霈澤，庶可周洽，慰滿三農，民事萬幸。祈雨祭，仍爲停止，而七次虔禱後，靈應既在三日之內，當有報謝之舉，龍山江·楮子島報謝祭，待立秋後，擇日舉行何如?” 傳曰：“允。”

甲子七月初六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龍山江·楮子島

“용산강·저자도의 기우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李秉洪)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이날은 입추이다.】

을축년 1865 5월 28일[하짓날]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하지가 이미 다가왔는데 큰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애타고 걱정입니다. 20일 이후 한 번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기다릴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윤5월 1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祈雨報謝祭，待立秋後，擇日舉行事，已爲啓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今七月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何如？”傳曰：“允。”
【此日立秋。】

乙丑五月二十八日

【夏至日】

● 祈雨祭設行事，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夏至已屆，需施尙靳，言念農功，甚涉渴悶，不可以念後一雨之在屬耳，有所遲待。初次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知委儀曹，何如？”傳曰：“允。”

● 初次

一. 曹單子：“因議政府草記，祈雨祭，不卜日設行事，啓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來閏五月初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4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5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7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8일

【6일, 7일에 비가 내려 수심이 2분이었다.】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고 곧 개었으니 농민의 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

乙丑閏五月初二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四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丑閏五月初五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初七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丑閏五月初八日

【初六日七日之雨，水深二分。】

● 四次

一. 曹啓曰：“微雨浥塵，旋即開霽，言念農情，誠爲渴願，四次祈雨祭，不卜日，今初十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傳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11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3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12일

● 6차 기우제는 아경과 각신을 보내다.

전교하기를,

“화창한 날씨가 한결같이 짙어지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지 지금 여러 차례이나 신령한 감응이 막막하여 아직 큰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다. 6차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고 아경과 각신을 보내어 설행하라. 제문은 문임에게 지어 바치게 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曰：“允。”

乙丑閏五月十一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宗廟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丑閏五月十二日

● 六次遣亞卿閣臣

一. 傳曰：“亢暘一直杲杲，禱雨今至幾次，靈應愈邇，一霈尙靳，言念農事，不勝焦慮。六次祈雨祭，不容少緩，不卜日，明日受香，遣亞卿閣臣設行，祭文令文任撰進，諸執事另加擇差。”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6차 기우제는 이달 14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각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15일
【14일에 내린 비의 수심은 9분이다.】

● 7차 기우제는 높은 품계의 각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단비가 가뭄을 적셨으나 1촌도 채우지 못하였습니
 다. 모내기철이 이미 늦어 농민의 사정이 갈수록 급해지니, 7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7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높은 품계의 각신을 보내고, 집례^{執禮}와 대축^{大祝}은 각신과 별점춘추를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향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시위는 입직으로 마련하고 윤검과 보검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六次祈雨祭，今十四日，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亞卿閣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乙丑閏五月十五日
【十四日之雨，水深九分。】

● 七次遣崇品閣臣

一. 曹啓曰：“甘雨露渴，未滿一寸，秧節已晚，農情轉急，七次祈雨祭，不卜日，今十七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遣崇品閣臣，執禮·大祝，以閣臣·別兼春秋塡差。”

● 親傳香

一. 傳曰：“明日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侍衛入直磨鍊，雲寶釧置之。”

은 그만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의 제문은 문임에게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18일

● 8차 기우제는 높은 품계를 보낸다.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높은 품계를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차임하며, 제문은 문임에게 지어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

● 향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기우제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一. 傳曰：“祈雨祭祭文，令文任撰進。”

乙丑閏五月十八日

● 八次遣崇品

一. 曹單子：“八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日，南壇·雩祀壇，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以崇品填差，諸執事，另加擇差，祭文，令文任撰進。

● 親傳香

一. 傳曰：“明日祈雨祭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21일

● 종묘 별기우제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기우제가 이미 8차를 넘었는데 신령한 감응은 아직도 더디니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큰일을 지금 시작하려는데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니 하늘의 뜻을 감히 알 수 없다. 재해를 만나 자신을 책망하는 도리에 있어 주상이 친히 기도해야 하나, 지금 어린 나이라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 종묘 별기우제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되 내일 향을 받고, 제문은 문임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며 집사들 역시 신중히 가려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향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제관과 제물 등의 일은 기우제의 전례대로 거행하고, 여러 관사에 감결만 보내고 다른 것은 거행하지 않았다.】

乙丑閏五月二十一日

● 宗廟別祈雨

一. 大王大妃殿傳曰：“圭璧之舉，已過八次，靈應尙遲，已極渴悶，而大役方此經始，亢旱如是孔酷，天意所在，有未敢知也。其在遇災責躬之道，主上當爲親禱，而方在沖年，有難將事。宗廟別祈雨祭，遣大臣攝行，明日受香，祭文令文任撰進，諸執事亦爲慎擇事，分付。”

● 親傳香

一. 傳曰：“明日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祭官·祭物等事，依祈雨祭例舉行，只捧甘各該司，而無他舉行.】

을축년¹⁸⁶⁵ 윤5월 24일

【23일 내린 비의 수심은 9분이고, 24일 내린 비의 수심은 3촌 2분이었다.】

● 기우제는 상황을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단비가 내려 새벽까지 쏟아져 이어서 충분히 쏟아지기를 바랄 수 있으니, 농민의 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6월 2일

●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설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종묘 별기우제를 지낸 뒤 그날 단비가 내려 수심이 3촌이 넘었으며 어제 오늘 내린 비가 또 2촌입니다. 신령한 감응이 이르렀으니 보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乙丑閏五月二十四日

【二十三日之雨，水深九分，二十四日之雨，水深三寸二分】

● 祈雨觀勢

一. 曹啓曰：“甘雨霈然，達曙滂沱，繼霽周洽，庶幾可望，言念農情，誠爲萬幸，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如？”傳曰：“允。”

乙丑六月初二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祈雨祭，姑爲觀勢舉行事，已爲允下矣。宗廟別祈雨後，當日甘雨，洽過三寸，昨今霈霑，又爲二寸，靈應所格，宜有報謝之舉，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

을축년¹⁸⁶⁵ 6월 3일

● 기우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종묘 별기우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2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7월 9일 [처서는 3일이다.]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처서가 이미 지났으나 찬비가 이처럼 거세게 퍼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마음이 쓰인다. 사문영제를 아경과 각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영제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11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乙丑六月初三日

● 祈雨報謝

一. 曹單子: “宗廟別祈雨報謝祭, 待立秋後, 擇日設行事, 已爲允下矣. 報謝祭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六月二十二日爲吉云. 以此日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乙丑七月初九日

【處暑初三日】

● 祭祭傳教

一. 大王大妃殿傳曰: “處暑已過, 冷雨如是暴注, 言念穡事, 誠極關心. 四門祭祭, 遣亞卿閣臣, 不卜日設行事, 分付該曹.”

● 祭祭設行

一. 曹啓曰: “大王大妃殿傳曰: 云云事, 命下矣. 四門祭祭, 不卜日, 今十一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축년¹⁸⁶⁵ 7월 24일

● 영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
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영제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디
니 이번 7월 2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
행하되, 삼가 수교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8일

【하지는 10일이다.】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하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뭄 걱정이 점차 심해

乙丑七月二十四日

● 禁祭停止

一. 曹啓曰：“禁祭設行後，積
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
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
何如？”傳曰：“允。”

● 禁祭報謝

一. 曹單子：“四門禁祭報謝
祭，擇日設行事，允下矣。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則今七月
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
而謹依受教，受香後，勿閉城
門事，並以分付，何如？”啓依
所啓施行。

丙寅五月初八日

【夏至初十日】

● 祈雨設行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夏至只隔，
惜乾轉緊，言念農功，甚涉渴

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애가 탑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겠습니다. 지금 빈자리 또한 걱정스러우니, 말미를 받아 상경하거나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을 모두 며칠 내에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11일

● 2차 기우제는 상황을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오늘 내린 비가 비록 1촌을 채우지는 못하였으나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장차 비가 쏟아질 조짐이 있습니다. 이때 기우제를 연달아 지내는 것은 번거로운 듯하니, 2차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望. 初次祈雨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知委儀曹. 此時曠官, 亦爲可悶, 受由上京及未下直守令, 並令不多日內, 催促下送, 何如?” 傳曰: “允.”

● 初次

一. 曹單子: “因議政府草記, 祈雨祭, 不卜日設行事, 啓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寅五月十一日

● 再次觀勢

一. 曹啓曰: “昨今之雨, 雖未滿寸, 濃雲四布, 將有繼注之望, 此時連薦圭璧, 恐涉瀆屑, 再次祈雨祭, 姑爲觀勢舉行, 何如?” 傳曰: “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18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거행하라고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비록 간간히 비가 뿌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몹시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0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2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3일에 남단·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고 각신을 채워 차임하라고 하였다.

丙寅五月十八日

● 再次

一. 曹啓曰：“再次祈雨祭，觀勢舉行事，已爲允下矣。伊後雖有間或霏灑，尙靳一霈，言念農功，誠甚渴悶。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丙寅五月二十一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三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閣臣填差。²

² 啓依所啓施行，閣臣填差. : 저본에는 ‘啓閣臣填差’. 『승정원일기』 고종 3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병인년¹⁸⁶⁶ 5월 23일

● 종묘와 사직의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신령한 감응이 여전히 막막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애타고 걱정이다. 내일 모레 종묘와 사직의 별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높은 품계의 각신과 유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며, 집축^{執祝} 역시 각신, 유신, 별검춘추를 채워 차임하라. 제문은 문임에게 지어 바치게 하고,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각 해당 관서에 감결만 보냈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26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8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5월 29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이 이어지다 어제 단비가 내려 비록 충분하지

丙寅五月二十三日

● 宗廟社稷別祈雨

一. 傳曰: “圭璧屢薦, 靈應尙邇, 言念民事, 極爲渴悶. 再明日宗廟·社稷別祈雨祭, 不卜日, 遣崇品閣臣·儒臣, 虔誠設行, 執祝亦以閣臣·儒臣·別兼填差, 祭文令文任撰進,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 【只捧甘各該司.】

丙寅五月二十六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八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寅五月二十九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 “餘, 昨日甘澍, 雖未周洽, 水深既過三寸, 庶可

는 얹으나 수심이 이미 3촌을 넘었으니 급한 상황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또한 번거로우니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6월 5일

● 기우제를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거행하라고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적서 준 뒤 또 연일 비가 내렸으니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고, 이번 별기우제와 4차 기우제를 지낸 뒤 신령한 감응이 모두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종묘·사직단·북교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6월 25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사직·북교의 기우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救急，屢薦圭璧，亦係瀆屑，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如？”
傳曰：“允。”

丙寅六月初五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祈雨祭，觀勢舉行事，已爲允下矣。日前甘澍潤霑之餘，又得連日之雨，庶慰三農之望，言念民事，誠甚萬幸。祈雨祭，仍爲停止，而今番別祈雨及四次祈雨後，靈應俱在於三日之內，當有報謝之節。宗廟·社稷·北郊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
傳曰：“允。”

丙寅六月二十五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宗廟·社稷·北郊祈雨報謝祭，待立秋後，擇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1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종묘 보사제는 같은 날 삭제(朔祭)와 겸행하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12월 1일

● 기설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의 초기에,

“입동 이후로 계속 눈이 내리지 않아 내년 농사에 가뭄이 들 염려가 있으니 기설제를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종묘·사직·북교의 기설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日設行事，已爲允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來七月初一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宗廟報謝祭，同日朔祭兼行，祝文中措辭添入事，分付何如?” 傳曰：“允。”

丙寅十二月初一日

● 祈雪設行政府草記

一. 議政府草記：“入冬以後，一連無雪，嗣歲農功，有憫旱之慮，祈雪祭令儀曹，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何如?” 傳曰：“允。”

● 祈雪

一. 曹啓曰：“祈雪祭，不卜日設行事，自議政府草記，允下矣。宗廟·社稷·北郊祈雪祭，不卜日，今初三日，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分付何如?” 傳曰：“允。”

병인년¹⁸⁶⁶ 12월 2일

● 축문에 보태 넣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기설제의 헌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눈이 내리니 비록 1척은 채우지 못하였으나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됩니다. 축문에 눈이 내렸다는 뜻을 보태넣어야 할 듯하니,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지어 넣게 하고, 향실 관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인년¹⁸⁶⁶ 12월 4일

● 기설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뒤 어제 눈이 내려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여 감응이 있으면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삼가 전례대로 종묘, 사직의 보사제를 이달 10일 납향 대제(臘享大祭)와 겸행하고, 축문에 말을 만들어 보태 넣으며, 북교의 보사제는 같은 날 일체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丙寅十二月初二日

● 祝文添入

一. 政院啓曰：“朝者祈雪祭，獻官既已受香，而見今雨雪，雖未盈尺，稍慰渴悶，祝文中，似當添入得雪之意，令知製教，措辭添入，使香室官員，急速陪進，何如？”傳曰：“允。”

丙寅十二月初四日

● 祈雪報謝

一. 曹啓曰：“祈雪祭設行後，昨日雪下，庶慰三農之望。凡祈有應，則當有報謝之節，謹依已例，宗廟·社稷報謝祭，今初十日，臘享大祭兼行，祝文中，措辭添入，北郊報謝祭，同日一體設行事，分付何如？”傳曰：“允。”

정묘년¹⁸⁶⁷ 5월 13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의 초기에,
“하지가 머지않았는데 아직도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애가 탑니다. 기우제를 택 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5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하지는 22일이다.】

정묘년¹⁸⁶⁷ 5월 16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8일에 용산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丁卯五月十三日

● 祈雨設行政府草記

一. 議政府草記：“夏至不遠，一需尚遲，言念農功，殊涉渴望。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知委儀曹，何如？”傳曰：“允。”

● 初次

一. 曹單子：“因議政府草記，祈雨祭，不卜日，設行事，啓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五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夏至二十二日。】

丁卯五月十六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十八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5월 19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이 든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수심이 몇 촌을 충분히 넘었고, 뭉게구름이 여전히 짙으니 장차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기우제는 일단 상황을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5월 25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적셔 준 뒤 또 어제와 오늘 비가 쏟아져 농민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중지하고, 용산강·저자도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丁卯五月十九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旱乾之餘，得此甘霖，言念民事，誠甚萬幸。水深洽過數寸，油雲尙多濃意，將有沛然之望，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傳曰：“允。”

丁卯五月二十五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祈雨祭，觀勢設行事，已爲允下矣。日前甘霖霑潤之餘，又得昨今霑澤，庶慰三農之望，言念民事，誠甚萬幸。祈雨祭，仍爲停止，龍山江·楸子島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

● 상전

전교하기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농민을 위로하니 농사를 위하여 참으로 천만다행이다. 2차 기우제 헌관에게 각각 대내에서 내린 녹비 1영을 하사하고, 집사들에게는 모두 아마 1필을 하사하라.”

하였다. 【24일과 25일의 수심은 6촌 1분이었다.】

정묘년¹⁸⁶⁷ 6월 29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되어 여전히 날이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걱정이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높은 품계를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사알^{司諫}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이번 영제의 헌관은 각신과 유신을 모두 의망하라.”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되어 여전히 날이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걱정이다. 사문영제를 택

● 賞典

一. 傳曰：“旱餘甘澍，慰滿三農，爲民事，誠爲萬幸。再次祈雨祭獻官，各內下鹿皮一令賜給，諸執事，并兒馬一匹賜給。

【二十四日，二十五日，水深六寸一分。】

丁卯六月二十九日

● 祭祭傳教

一. 傳曰：“一雨成霖，開霽尙遲，言念穡事，甚涉悶然。四門祭祭，不卜日，遣崇品，虔誠設行。”

一. 以司諫口傳下教曰：“今番祭祭獻官，閣臣·儒臣并擬。”

● 祭祭

一. 曹啓曰：“傳曰：‘一雨成霖，開霽尙遲，言念穡事，甚涉悶然。四門祭祭，不卜日，遣崇品，虔誠設行’事，命下矣。四門祭

일하지 말고 높은 품계를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월 2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7월 2일

● 기우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용산강·저자도의 기우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이미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보
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3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영제를 중지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신령한 감응이 이처럼 빨라 장마가 깨끗이 그쳤으
니 농사를 위해 천만다행이다. 내일 모레 영제는 중
지하게 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려 택일하여 설
행하라.”
하였다.

祭, 不卜日, 來七月初二日設
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丁卯七月初二日

● 祈雨報謝

一. 曹單子: “龍山江·楮子島
祈雨報謝祭, 待立秋後, 擇日
設行事, 已爲允下矣. 報謝祭
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 則
今七月十三日爲吉云. 以此日
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 祭停止傳教

一. 傳曰: “靈應斯捷, 積雨快
晴, 爲民事萬幸. 再明日祭祭,
其令停止, 報謝祭, 待立秋, 卜
日設行.”

● 영제를 3일차에 중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후 택일하여 설행하겠습니다. 영제는 이달 2일과 3일 이틀 연속으로 설행한 뒤 그대로 정지하였으니, 3일차 축문을 일체 망료望燎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초경初更 무렵 하교하여 사문에 통지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7월 10일

● 영제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이미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20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8월 4일

● 2차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 祭第三日停止³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報謝祭，待立秋後，當爲擇日設行，而祭，今初二日初三日，連二日設行後，仍爲停止。第三日祝文，一體望燎事，分付何如?” 傳曰：“允。”
【初更量下教，而知委四門.】

丁卯七月初十日

● 祭報謝

一. 曹單子：“四門祭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事，已爲允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今七月二十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教，受香後，勿閉城門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卯八月初四日

● 再次祭傳教

一. 傳曰：“時當秋節，冷雨成

3 위 기사는 『승정원일기』 고종 4년 (1867) 7월 3일 자 기사에 나온다.

“지금 가을철인데 찬비가 꺾은비가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하지 않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정경과 각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사알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사문영제의 대축은 유신을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6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묘년¹⁸⁶⁷ 8월 5일

● 1차 영제를 설행한 뒤 중지하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지금 이미 화창한데 영제를 전례대로 계속 설행하는 것은 도리어 번잡하다. 1차 영제를 지낸 뒤 보사제를 그대로 설행하되, 내일 향을 받게 하라.” 하였다.

霖, 言念穡事, 寢食靡甘. 四門
禋祭, 不卜日, 遣正卿閣臣, 虔
誠設行.”

一. 以司謁口傳下教曰: “四門
禋祭, 大祝以儒臣填差.”

● 再次

一. 曹啓曰: “傳曰: 云云事, 命
下矣. 四門禋祭, 不卜日, 今初
六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
如?” 傳曰: “允.”

丁卯八月初五日

● 禋祭初次後停止

一. 傳曰: “日候今既清佳矣,
禋祭之如例連設, 還涉瀆屑,
初次將事後, 報謝祭, 仍爲設
行, 使之明日受香.”

● 보사제의 헌관을 그대로 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순조조 갑자년¹⁸⁰⁴의 전례대로 영제를 이달 6일에 설행한 뒤 그대로 중지하겠습니다. 보사제는 7일에 설행하고 신위관은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에 봉안하며 헌관과 전사관은 일단 머물러 기다리다가 보사제의 헌관이 향을 받고 나아간 뒤 만나서 물러가겠습니다. 영제의 축문 2장은 보사제를 설행한 뒤 함께 망료하고, 성문을 단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희한다. 전사관은 우선 향소에 머무르고 헌관은 영제의 헌관을 그대로 쓰라.”

하였다. 【4경 2점이다.】

무진년¹⁸⁶⁸ 6월 8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한 차례 비가 장마가 되어 그칠 기미가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걱정이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당상 각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報謝祭獻官仍用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謹依純祖朝甲子年例，祭祭今初六日設行後，仍爲停止。報謝祭，初七日設行，而神位版，仍奉祭所，獻官與典祀官，姑爲留待，報謝祭獻官，受香進詣後，面看退去，祭祭祝文二張，報謝祭設行後，同爲望燎，勿閉城門事，并爲分付，何如？”傳曰：“允。典祀官姑留享所，獻官以祭祭獻官仍用。”【四更二點.】

戊辰六月初八日

● 祭祭傳教

一. 傳曰：“一雨成霖，訖無開霽之意，念到民事，極爲憂悶。四門祭祭，不卜日，遣堂上閣臣，虔誠設行事，分付。”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
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0일에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 1870 5월 11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긴 가뭄 끝에 가랑비가 내리다 그쳤으니 농사를 생
각하면 더욱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기우제
를 지내는 일을 하지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우
제는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통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오년 1870 5월 11일 [하지는 같은 달 24일이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에 따라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3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 禳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禳祭，不卜日，今初十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庚午五月十一日

● 祈雨設行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亢旱之餘，微雨而止，言念農功，轉益渴悶。此時圭璧之舉，有不可遲待夏至，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知委儀曹，何如？”傳曰：“允。”

庚午五月十一日

【夏至同月二十四日】

● 初次

一. 曹單子：“因議政府草記，祈雨祭，不卜日設行事，啓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三角山·木覓山·漢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기우제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
은 잘 알도록 하라. 시위는 방방^{放榜}하였을 때의 시
위를 그대로 쓰라.”

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1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6일에 용산
강·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
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17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9일에 남단·우
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
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
啓施行.

● 親傳香

一. 傳曰: “明日祈雨祭香祝⁴,
當親傳矣, 該房知悉. 侍衛, 以
放榜時侍衛仍用.”

庚午五月十四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卜日, 今十六日, 龍山江·楮子
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庚午五月十七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
卜日, 今十九日, 南壇·雩祀
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4 明日祈雨祭香祝: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5월 11일자 기사에는 “十三
日祈雨祭”로 되어 있다.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수심은 9
분이다.】

● 향을 친히 전달하다.

전교하기를,
“내일 기우제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
은 잘 알도록 하라. 제반 시위는 동가할 때의 시위를
검용하라.”
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18일

● 문로

전교하기를,
“오늘 기우제 향축을 친히 전달할 때의 문로는 사정
문^{思政門}으로 하라. 시위는 입직으로 마련하고 운검
과 보검은 그만두라.”
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20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2일 북교에 재
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水深九分.】

● 親傳香

一. 傳曰: “明日祈雨祭香祝,
當親傳矣, 該房知悉. 諸般侍
衛, 動駕時侍衛兼用.”

庚午五月十八日

● 門路

一. 傳曰: “今日祈雨祭香祝親
傳時, 門路思政門爲之, 侍衛
入直磨鍊, 雲寶劍置之.”

庚午五月二十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
卜日, 今二十二日, 北郊遣宰
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23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 종묘에 전례
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오년¹⁸⁷⁰ 5월 24일

● 승정원의 계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5차 기우제의 향품을 지금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단비가 이미 쏟아졌고 비가 더 내릴 기색이 아직 짙
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때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
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을 근심하던 중에 이러한 단비를 만났으니, 농
사를 위해 기쁘고 다행스럽지만 아직 흡족하지 않
다. 즉시 향을 전달하라.”

하였다.

庚午五月二十三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不
卜日，今二十五日，宗廟依例
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庚午五月二十四日

● 院啓

一. 政院啓曰：“五次祈雨祭，
今當爲傳香，而見今甘霖既霑，
餘意尙濃，在前如此之時，有
啓稟停止之例，何以爲之？ 敢
稟。” 傳曰：“憫旱之餘，得此甘
霖，爲民事欣幸，猶未洽足，卽
爲傳香。”

경오년¹⁸⁷⁰ 5월 26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이 든 끝에 여러 차례 단비가 내려 위급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듯하니, 농사를 위해 몹시 다행입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어 장차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으니, 연달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지나친 듯합니다. 6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25일 밤은 수심이 7분, 28·29일은 9분, 30일은 2촌 7분, 6월 1일은 8분이었다.】

경오년¹⁸⁷⁰ 6월 2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4차와 5차 기우제를 지내며 정성껏 빌 때 간간이 소나기가 내렸고, 이후에 여러 날 비가 내려 두루 적셨기에 농민들을 위로하고 만족시켰으니 참으로 지극히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사직·북교·종묘에 보사제를 예전禮典에 따라 입추立秋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庚午五月二十六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旱乾之餘，數次甘霖澍，庶可救急，爲民事萬幸。見今濃雲四布，將有沛然之望，連薦圭璧，恐涉瀆襲，六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如？”傳曰：“允。”【二十五日夜，水深七分。二十八九日，水深九分。三十日，二寸七分。六月初一日，八分。】

庚午六月初二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祈雨祭，姑爲觀勢舉行事，已爲允下矣。四次五次，虔禱之際，雨澤間驟霑，伊後連日之雨，庶可周洽，慰滿三農，誠極萬幸。祈雨祭停止，社稷·北郊·宗廟報謝祭，依禮典，待立秋，擇日舉行，何如？”傳曰：“允。”

경오년¹⁸⁷⁰ 6월 3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북교·종묘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日官} 이병홍^{李秉洪}에
게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15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종묘 보사제는 같은 날의 망제^{望祭}
와 겸하여 지내고,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 내는
등의 일을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모
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⁷¹ 6월 1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비와 햇볕이 고르고 적절
하여 범씨를 모판에 뿌릴 때를 놓치지 않았고, 보리
농사가 잘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보름 이후로 한
결같이 심한 가뭄이 들어 초복^{初伏}이 이미 왔는데도
모내기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우니, 기
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3일에 삼각산·목
멧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
껏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庚午六月初三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社稷·北郊·宗
廟報謝祭，擇日舉行事，允下
矣。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
則來七月十五日爲吉云。以此
日設行，而宗廟報謝祭，同日
望祭兼行，祝文添入撰出等
事，令藝文館舉行事，并以分
付，何如？”傳曰：“允。”

辛未六月初一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
雨暘均適，注秧無愆，麥農善
就矣。第自去月望後，一直亢
旱，初庚已屆，秧節漸晚，言念
民事，誠極渴悶，圭璧之舉，不
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
今初三日，三角山·木覓山·漢
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
設行，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⁷¹ 6월 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정성껏 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전교하기를,

“2차 기우제의 헌관은 각신^{閣臣}과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축문에 보태 넣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기우제의 헌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단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제문에 비가 내린
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
금 말을 만들어 보태 넣게 하고, 향실 관원으로 하
여금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辛未六月初四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卜日, 今初六日, 龍山江·楮子
島, 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

一. 傳曰: “再次祈雨祭獻官,
以閣臣·儒臣填差.”

● 祝文添入

一. 政院啓曰: “朝者, 祈雨祭
獻官既已受香, 而見今甘霖方
始, 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意,
令知製教措辭添入, 使香室官
員, 急速陪進, 何如?” 傳曰:
“允.”

신미년¹⁸⁷¹ 6월 7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제사를 재차 거행하자 영험이 빠르게 나타나 단비가 두루 적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만족시켰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전례대로 정지하고 보사제를 지내야 합니다. 용산강과 저자도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되, 1차 기우제 이후 영험이 사흘 안에 나타났으니 역시 보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를 모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미년¹⁸⁷¹ 6월 24일

● 기우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삼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의 기우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라고 이미 계하셨습니다. 절향^{節享}을 겸하여 지낸 전례가 많이 있으니, 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는 오는 8월 7일 절향과 겸하여 지내고, 용산강과 저자도는 절향이 없으니 같은 날 모두 설행하되, 축문에 보태 넣거나 지어 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辛未六月初七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圭璧再舉，靈應斯捷，甘霖周洽，慰滿三農，言念民事，誠爲萬幸。祈雨祭，依例停止，當有報謝之舉，龍山江·楸子島報謝祭，待立秋後設行，而初次虔禱之後，靈應既在三日之內，亦不可無報謝之節，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一體設行，何如？”傳曰：“允。”

辛未六月二十四日

● 祈雨報謝

一. 曹單子：“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楸子島祈雨報謝祭，待立秋後設行事，已爲啓下矣。節享兼行，多有已例，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來八月初七日節享兼行，龍山江·楸子島，既無節享，同日一體設行，而祝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行事，分付何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입추는 7월 22일이다.】

신미년¹⁸⁷¹ 7월 3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되어 아직도 개지 않고 있으니, 민가가 떠나려가고 독이 터질까 걱정이다. 농사를 해칠까 하는 근심 역시 면하지 못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치 않다. 사문영제를 높은 품계의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해당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5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유년¹⁸⁷³ 7월 16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如?” 啓依所啓施行.【立秋七月二十二日.】

辛未七月初三日

● 祭傳教

一. 傳曰：“一雨成霖，尙未開霽，漂瀕潰決，已是可悶，而痒稼之患，亦所不免，言念民事，丙枕靡安，四門祭祭，遣崇品，不卜日設行事，分付該曹.”

● 祭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 四門祭祭，不卜日，今初五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癸酉七月十六日

● 祭傳教

一. 傳曰：“當此穰稔向熟之

“지금 벼가 익어 가는 시기에 차가운 비바람이 연일 그치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실로 걱정이 다. 사문영제를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8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유년¹⁸⁷³ 7월 18일

● 1차 영제를 지낸 뒤 정지하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지금 이미 개었으니 영제를 전례대로 설행하는 것은 도리어 번거롭고 지나친 듯하다. 보사제를 이어서 설행하고 오늘 향을 받게 하라.”
하였다.

● 보사제 헌관을 그대로 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하교대로 영제를 정지하고 보사제는 이번 19일에 설행

時，凍風冷雨，連日不止，言念民事，實爲憂悶。四門禋祭，遣重臣，不卜日，虔誠設行。”

● 禋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禋祭，不卜日，今十八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癸酉七月十八日

● 禋祭初次後停止

一. 傳曰：“日候今既開霽，禋祭之如例設行，還涉瀆褻，報謝祭仍爲設行，使之今日受香。”

● 報謝祭獻官仍用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謹依下教，禋祭停止，報謝祭今十九日設行，而神位版

하셨습니다. 신위관은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에 봉안해 두고 헌관과 전사관典祀官은 일단 머물러 기다리다가 보사제 헌관이 향을 받고 나아간 뒤에 얼굴을 보고서 물러나며, 영제의 축문 2장은 보사제를 설행한 뒤에 함께 망료望燎를 행하고 성문을 단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전사관은 일단 향소에 머무르고, 헌관은 영제 때의 헌관을 그대로 쓰라.”

하였다.

을해년¹⁸⁷⁵ 7월 22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지금 온갖 곡식의 이삭이 패는 때에 이렇게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치 않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과루 후에 명이 내렸으므로 이튿날 계사를 올려 택일하지 않고 24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다.】

仍奉祭所，獻官及典祀官，姑爲留待，報謝祭獻官受香進詣後，面看退去，祭祝文二張，報謝祭設行後，同爲望燎，勿閉城門事，并爲分付，何如？”
傳曰：“允。典祀官姑留享所，獻官以祭祭時獻官仍用。”

乙亥七月二十二日

● 祭傳教

一. 傳曰：“今當百穀之發穗，有此一雨之成霖，言念民事，丙枕靡安，四門祭祭，不卜日，虔誠設行。”【罷漏後命下，故以翌日修啓，而以二十四日不卜日磨鍊.】

을해년¹⁸⁷⁵ 7월 23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4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처서^{處暑}는 23일이다.

을해년¹⁸⁷⁵ 7월 27일

● 2차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비가 끝내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걱정이다. 2차 영제를 정정^{正卿}을 보내 당일에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차 사문영제를 이번 28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乙亥七月二十三日

● 禳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禳祭，不卜日，今二十四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處暑二十三日。】

乙亥七月二十七日

● 再次傳教

一. 傳曰：“雨勢終不開霽，言念穡事，極爲憂悶。再次祭，遣正卿，當日虔誠設行。”

● 再次禳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再次四門禳祭，今二十八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을해년¹⁸⁷⁵ 8월 3일

● 영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으니, 보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를 택 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영제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이병홍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8월 8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4월 14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이번 가뭄은 어찌 이리도 심한가. 입하^{立夏}가 이미 지났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스럽다. 하지^{夏至} 전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이미 시행한 전례가 많으니,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

乙亥八月初三日

● 禁祭停止

一. 曹啓曰：“禁祭設行後，積雨收霽，日候晴朗，當有報謝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如？”傳曰：“允。”

● 禁祭報謝

一. 曹單子：“四門禁祭報謝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李秉洪推擇，則今八月初八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事，并以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

丙子四月十四日

● 祈雨傳敎

一. 傳曰：“今茲之旱，胡至此甚。立夏已過，雨意愈邈，言念穡事，誠極渴悶。夏至前禱雨，多有已行之例⁵，初次祈雨

⁵ 例: 저본에는 ‘禮’.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14일 3경오후11시~오전1시 무렵 하교하였고, 15일
밥 먹은 뒤 향을 받았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
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삼각산·목멱산·한
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
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4월 1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9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4월 20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2일에 남단과

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分
付該曹.”【十四日三更量下教,
十五日食後受香.】

● 初次

一. 曹啓曰: “傳曰云云事, 命
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
十六日, 三角山·木覓山·漢
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
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丙子四月十七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卜日, 今十九日, 龍山江·楮子
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四月二十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
卜日, 今二十二日, 南壇·雩祀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4월 22일

- 4차 기우제를 당겨 정하고 친히 향을 전달하겠
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제사를 연달아 지냈는데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여전
히 아득하니,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루가 급하
다. 4차 기우제를 내일로 당겨 정하여 설행하되, 친
히 향을 전달하겠다. 해당 방^房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4차 기우
제를 이번 24일로 당겨 정하되 북교에 재신을 보내
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四月二十二日

- 四次進定親傳香

一. 傳曰: “圭璧連舉, 雨意尙
邈, 念及民情, 一日爲急. 四次
祈雨祭, 明日進定設行, 當親
傳香矣, 該房知悉.”

- 四次

一. 曹啓曰: “傳曰云云事, 命
下矣. 四次祈雨祭, 進定於今
二十四日, 北郊遣宰臣, 社稷
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
如?” 傳曰: “允.”

병자년¹⁸⁷⁶ 4월 25일

【24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25일 동틀 때가 되자 측우기의 수심이 1촌 2분이었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비가 비록 1촌 넘게 내렸으나 간절히 바라던 뒤라 아직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7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친히 향을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가뭄 끝에 한 번 비가 쏟아졌으나 아직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으니,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조바심이 난다. 5차 기우제의 제관은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고,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4월 28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丙子四月二十五日

【自二十四日申時量始雨，至二十五日開東，水深一寸二分.】

● 五次

一. 曹啓曰：“今番之雨，雖過寸餘，渴望之餘，猶未周治. 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七日，宗廟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 親傳香

一. 傳曰：“旱餘一霈，尚未周治，念及民情，去益惶惶. 五次祈雨祭，祭官以閣臣填差，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

丙子四月二十八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1일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1876 5월 2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2일 미시未時, 오후1시~3시부터 유시오후5시~7시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1분이었다.】

병자년1876 5월 5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卜日, 來五月初一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依例遣近侍,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五月初二日

● 七次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四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初二日未時, 至酉時, 水深一分.】

丙子五月初五日

● 八次

一. 曹單子: “八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七日, 南壇·雩祀壇, 依例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병자년¹⁸⁷⁶ 5월 7일

● 사직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제사를 이미 여덟 차례 넘게 지냈는데도 서늘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단비는 더욱 까마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백성의 실정이 갈수록 더욱 안타깝고 걱정스러워 비단옷과 좋은 음식이 편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사직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7일 5경부터 8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분이었다.】

병자년¹⁸⁷⁶ 5월 10일

● 종묘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종묘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10일 해가 진 뒤 하교하였다.】

● 문로門路

전교하기를,

“내일 출궁할 문로는 숭양문崇陽門으로 하라.”

하였다.【9차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를 오늘 올

丙子五月初七日

● 社稷別祈雨親傳香

一. 傳曰：“薦璧已過八次，而涼風甚乖，甘霖愈邇，言念稽事，民情之轉益渴悶，不啻錦玉靡安。社稷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自初七日五更，至初八日開東，水深二分。】

丙子五月初十日

● 宗廟別祈雨親傳香

一. 傳曰：“宗廟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初十日入後下教。】

● 門路

一. 傳曰：“明日出宮門路，以崇陽門爲之。”【九次設行草記，今日爲入呈日次，故欲於

리는 날짜였으므로 청좌廳座에서 올리려고 하였으나, 차비差備를 통해 하교하여 초기를 올리지 말라고 분부를 받았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이 하교가 있었으므로 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병자년1876 5월 11일

● 별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종묘 별기우제를 설행하되 향축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단비가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때에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를 얻었으니, 농사를 위해 몹시 다행이다. 별기우제를 정지하라.”
하였다.【10일 인정人定, 오후9시~11시부터 11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촌이었다.】

병자년1876 5월 30일

● 종묘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한 차례 비가 내려 애타고 걱정하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였으나 두루 적시지 못하고 이어서 심

廳坐入呈矣. 因差備下教, 草記勿爲入呈事, 承分付, 而日昏時有此教, 故只捧甘各司.】

丙子五月十一日

● 別祈雨停止

一. 政院啓曰: “宗廟別祈雨祭設行, 香祝親傳事, 命下矣. 見今甘露, 自夜至朝, 連爲注下, 在前如此之時, 有啓稟停止之例, 何以爲之? 敢稟.” 傳曰: “渴望之餘, 得此甘露, 爲民事萬幸. 別祈雨祭停止.” 【初十日人定, 至十一日開東, 水深二寸.】

丙子五月三十日

● 宗廟別祈親傳香

一. 傳曰: “向日一霈, 庶慰民情之渴悶, 既未周洽, 仍爲亢旱. 今焉夏至已屆矣, 秧節惜

한 가뭄이 들었다. 지금 벌써 하지가 되어 모내기할 시기에 가뭄을 걱정하고 있으니, 애타는 마음 더욱 간절하다. 종묘 별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별기우제의 날짜를 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종묘 별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윤5월 2일에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3일

● 남단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남단 별기우제를 모래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제문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고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乾, 尤切憧憧, 宗廟別祈雨祭, 不卜日, 遣大臣, 虔誠設行,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

● 別祈定日

一. 曹啓曰：“傳曰云云事, 命下矣. 宗廟別祈雨祭, 不卜日, 來閏五月初二日, 遣大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允.”

丙子閏五月初三日

● 南壇別祈親傳香

一. 傳曰：“南壇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 祭文令文任撰出,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 【只捧甘各司而已.】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6일

● 북교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북교 별기우제를 모레 종친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9일

● 선농단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별기우제를 모레 선농단에 의빈^{儀賓}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12일

● 우사단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우사단 별기우제를 모레 높은 품계의 각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丙子閏五月初六日

● 北郊別祈

一. 傳曰：“北郊別祈雨祭，再明日，遣宗親，虔誠設行。”【只捧甘各司而已.】

丙子閏五月初九日

● 先農壇別祈雨

一. 傳曰：“別祈雨祭，再明日，先農壇遣儀賓，虔誠設行。”【只捧甘各司而已.】

丙子閏五月十二日

● 雩祀壇別祈

一. 傳曰：“雩祀壇別祈雨祭，再明日，遣崇品閣臣，虔誠設行。”【只捧甘各司.】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15일

● 9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8차 기우제를 얼마 전에 이미 설행하였고, 중간에 특교^{特敎}로 인해 별기우제까지 연달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의 마음이 더욱 급합니다. 9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7일 북교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삼가 법전에 따라 모화관의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는 종2품 무신을 보내 같은 날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석척 기우제 때는 기우제 때 향을 받는 날의 전례대로 매일 재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석척 기우제

같은 날의 감결

“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하받은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모화관의 연못가에서 3일 동안 석척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 헌관과 감찰은

丙子閏五月十五日

● 九次

一. 曹啓曰：“八次祈雨祭，向日已爲設行，而間因特敎，連行別祈雨祭矣。甘澍尙闕，民情愈急，九次祈雨祭，不卜日，今十七日，北郊依例遣重臣，虔誠設行，而謹依法典，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遣從二品武臣，同日爲始設行，而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 用齋

一. 曹啓曰：“謹稽謄錄，則蜥蜴祈雨時，每日依祈雨祭受香日例，用齋矣。今亦依此舉行，何如?” 傳曰：“允。”

● 蜥蜴祈雨

同日甘結

“右甘結，爲粘連啓下內辭意，奉審舉行爲旂，慕華館池邊蜥蜴童子，連三日祈雨時，獻官

모화관 근처에서 유숙하고, 본조의 낭청과 형조의 낭청 각 1원은 동자군 100명을 거느리고서 역시 근처에서 유숙하면서 특별히 검직하기를 날마다 거행하되, 제물 없이 헌관은 향만 피우고 감찰은 검직만 하는 일을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십시오.

동자군 100명과 예차^{預差} 50명은 복색이 선명한 자로 가려 뽑아 하루 전에 점고^{點考}한 뒤 계속 재숙^{齋宿}하고, 축어^{祝語}는 무술년¹⁸³⁸에 사용한 축어대로 미리 사적으로 연습하여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헌관과 감찰은 전례대로 공복^{公服}을 착용하고 누수기^{漏水器}의 숫자대로 둘러싸고 서서 같은 달 17일 향을 받아 행하되, 다음 날과 다음다음 날의 향은 제용감에서 전례대로 진배^{進排}하며, 동자군 50명씩 내자시·내접시·예빈시가 담당하여 음식을 제공하며, 적대^{楹大} 등의 일은 별도로 감역관을 정하여 속히 거행하되, 만약 삼가지 않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관원은 엄한 심문을 면치 못할 것이니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유념하여 거행하십시오.

석척·누기옹^{漏器瓮}·급수군^{汲水軍} 등은 전례대로 진배하여 대령하여 제때 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십시오. 각자 맡은 일들을 전례를 살펴 거행하되 만일 지체하면 달게 벌을 받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석척은 사복사에서 진배하고, 거행은 봉상시 수복^{首僕}이 하였다.】

·監察宿於慕華館近處，本曹郎廳·刑曹郎廳各一員，領率童子軍一百名，亦爲留宿近處，另加檢飭，逐日舉行，而無祭物，獻官只焚香，監察檢飭而已事，并依前例舉行爲旃，童子軍一百名，預差五十名，服色鮮明者抄擇，前一日點考後，仍爲齋宿，祝語依戊戌祝語，預爲私習，俾無訛謬失措之弊爲旃，獻官·監察，依前例着公服，以漏水器數回立，同月十七日受香行事爲有矣，翌日三日，香則濟用監依例進排，童子軍伍拾名式，內資寺·內膳寺·禮賓寺次知供饋爲旃，楹大等事，別定監役官，急速舉行，而如有不謹之弊，則當該官員，難免重究，除尋常，惕念舉行爲旃，蜥蜴·漏器瓮·汲水軍等，依例進排待令，俾無未及之弊爲旃，各其所掌等事，照例舉行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蜥蜴則司僕寺進排，舉行則奉常寺首僕。】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19일

●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봄여름 이래로 줄곧 심하게 가뭄어 기우제를 두루 지냈지만 영험이 더욱 아득하다. 농사가 끝내 해를 입어 백성의 마음이 타는 듯한데, 지금 와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백성이 목숨을 거는 것은 농사이고 내가 믿는 것은 백성인데, 백성이 이처럼 애 태우고 있으니 내 어찌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며 정성을 다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일 사직단에 나아가서 몸소 기우제를 지낼 것이다.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시위^{侍衛}를 줄이다.

전교하기를,

“내일 거동할 때 연輦^輦과 여輿^輿는 보련^{步輦}으로 대신하고, 시위는 평상시의 10분의 1로 마련하며, 길거리를 치우고 정리하는 등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일은 모두 그만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희생과 기물을 살피는 절차는 전례대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

丙子閏五月十九日

● 社壇親禱

一. 傳曰: “春夏以來, 一直亢旱, 圭璧遍舉, 靈應愈邈, 穡事之卒瘁, 民情之如焚, 到此而一日甚一日矣. 民之所爲命者稼穡, 而予之所恃者民也. 赤子之焦遑如是, 而予豈暇豫度日, 不思所以盡誠之道乎? 明日當詣社稷壇, 躬行祈雨祭矣, 該房知悉.”

● 侍衛減省

一. 傳曰: “明日動駕時, 輦輿代以步輦, 侍衛以常時之十分一磨鍊, 街路除治之凡係煩民者, 並置之事, 分付.”

● 省牲器

一. 曹啓曰: “今此社稷祈雨親祭時, 省牲省器之節, 依例以親臨磨鍊之意, 敢稟.” 傳曰:

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享官}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직 기우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산재는 형편상 전례대로 마련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정전^{正殿}에서 하루, 재소^{齋所}에서 하루 치재하고, 제관^{祭官}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들은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하루, 제소^{祭所}에서 하루 치재하며, 제사에 배종하는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堽門}을 지키는 자들은 각기 본사에서 하루 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의식을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이번 20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재소^{齋所}에 도착한 뒤 중사·승지와 함께 흑단령 차림으로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당일 친림하여 단상^{壇上}에서 제기를 살피고 서문 밖에서 희생

“知道.”

● 齋戒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禮，而今此社稷親祭，只隔二日，散齋勢未及如例磨鍊，自今日，殿下致齋一日於正殿，⁶一日於齋所，諸祭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日致齋一日於本司，一日於祭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堽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 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今二十日質明，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承旨，以黑團領，依例私習儀，俾無失儀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私記當日親臨省器於壇上，省牲於壇西門外後，因口

6 一日於正殿：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윤5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을 살핀 뒤 구전 하교로 인하여 그대로 단내에서 의식 연습을 행한 것을 사사로이 기록하였다. ○신시
申時, 오후 3시~5시 이후 전교대로 제물을 친히 살펴보았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22일

-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리지 않고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마음으로 가뭄을 걱정하여 친히 사직에 기도하였는데, 제사를 지내자마자 영험이 메아리와 같아 단비가 쏟아져 밤부터 낮까지 이어져 백성을 위로하고 만족시켰으니 농사에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친히 기도하여 비가 내린 뒤에는 보사제를 입추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행하는 전례가 이미 있으니, 즉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23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단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초기를 올리니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최영원을

傳下敎, 仍行習儀於壇內. ○
申後以傳敎, 祭物親看審.】

丙子閏五月二十二日

- 祈雨停止, 報謝不待立秋設行

一. 曹啓曰: “聖心憫旱, 親禱社稷, 圭璧纔陳, 靈應如響, 甘澍沛然, 夜以繼晝, 慰滿三農, 民事萬幸. 祈雨祭停止, 親禱得雨後, 報謝不待立秋設行, 既有已例, 卽爲擇日舉行, 何如?” 傳曰: “允.”

丙子閏五月二十三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 “社稷報謝祭, 卽爲擇日舉行, 草記允下矣. 吉日令日官崔榮遠推擇, 則今閏

崔榮遠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윤5월 26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거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사직 보사제를 친히 지내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며칠 전 몸소 기도하여 정성을 다하는 의리를 조금이나마 뵈는데, 제사를 지낸 뒤 단비가 마침 내렸다. 오랜 가뭄 뒤인지라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애타고 절박한 심정을 풀어 주기 충분하였으니, 참으로 신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를 얻었겠는가. 보사하고 기쁨을 고하는 일을 다시 몸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레 사직단에서 친제를 지낼 것이다.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여러 절차는 20일 거행했을 때에 따라 마련하되 보련은 연과 여로 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윤5월 24일

●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보사제를 친행할 때 희생과 기물을 살피보는 절차는 전례대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였다.【올린 뒤 섭행^{攝行}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내

五月二十六日爲吉云。以此日舉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

● 社稷報謝親祭

一. 傳曰：“日前躬禱，粗伸盡誠之義，而將事之後，甘霖適降，久旱之餘，雖未周洽，足以紓渴悶切急之情，固非靈佑，何以得此？報謝告喜之舉，不容不更爲躬將，當於再明日，社稷壇親祭矣，該房知悉，諸般節次，依二十日動駕時例磨鍊，步輦以輦輿爲之。”

丙子閏五月二十四日

● 省牲器

一. 曹啓曰：“社稷報謝祭親行時，省牲省器之節，依例以親臨磨鍊之意，敢啓。”【入呈以後，有攝行之命，故未下】

리지 않았다.】

●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하고
치재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직 보사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산재는 형세상
전례대로 마련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정전에서 하루, 재소에서 하루 치재하고, 제관들 및
가까이 모시는 관원 중에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들
은 오늘부터 본사에서 하루, 제소에서 하루 치재하
며, 제사에 배종하는 백관과 여러 위의 소속으로서
유문(塿門)을 지키는 자들은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
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의식을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보사 친제를 행할 때, 향관들은 이번 25
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재소에 도착한 뒤 중사·승지와 함께 흑단령 차림으
로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齋戒

一. 曹啓曰：“報謝親祭時，自
上逮至諸享官，例⁷有散致齋
之禮，而今此社稷親行報謝
祭，只隔二日，散齋勢未及如
例磨鍊，自今日，殿下致齋一
日於正殿，一日於齋所，諸祭
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
日致齋一日於本司，一日於祭
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
塿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
知委何如？”

● 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報謝
祭親行教是時，諸享官，今
二十五日質明，先詣祭所爲白
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
使承旨，以黑團領，依例私習
儀，俾無失儀事，知委何如？”

7 例: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고
종 13년 윤5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 사직 보사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시임·원임 대신의 연명 차자에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보
 사제를 몸소 지내는 것은 그 전례를 중시하고 그 기
 쁨을 고하려는 것이니, 시종일관 정성을 다하는 방
 도에 있어 어찌 무더위를 꺼리겠는가. 그러나 경들
 의 간청이 이와 같으니, 부득이 애써 따르기는 하겠
 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억누를 수가 없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비답을 사관을 보내 전유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래 사직단 보사제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되, 한결
 같이 친제의 전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1일

●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난달 사직단에 친히 기도한 뒤 영험이 빠르게 나
 타나 단비가 즉시 내려 보사제를 거행하기까지 하였
 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또다시 혹심하여 민심
 과 농사가 몹시 애타고 위급합니다. 1년에 재차 기도
 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

● 社稷報謝命攝

一. 答時原任大臣聯名劄曰：
 “省劄具悉卿等之懇，躬行報
 謝，欲重其典，而告其喜也，
 其在盡誠終始之道，何憚暑熱
 乎？然而卿等之告懇既如此，
 雖不得已勉從，予心蹙蹙，有
 不能自己者矣。”仍傳曰：“此
 批答，遣史官傳諭。”

一. 傳曰：“再明日社稷壇報謝
 祭，遣大臣攝行，一依親祭例
 磨鍊。”

丙子六月初一日

● 祈雨更設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前月社壇
 親禱後，靈應斯捷，甘霖即降，
 至行報謝之舉矣。見今嘆乾，
 又復孔酷，民情嚮事，十分渴
 急，一年再祈，厥有已例，祈雨
 祭，不卜日，更爲虔誠設行之

시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로 인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설행하라고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3일

●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어찌하여 이처럼 다시 혹심한가. 지난번 몸소 기도하여 한 차례 비가 쏟아졌으나 영험이 참으로 다 이르지 않는아 충분히 적서 우리 백성의 급박한 마음을 영원히 풀어 주지는 못하였으니, 스스로 돌아보면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이어서 근심스럽고 두렵다. 내가 듣기로 재앙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불러들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만약 그 허물을 찾는다면 이것이 어찌 나 한 사람에게 있는

意, 分付儀曹, 何如?” 傳曰: “允.”

● 初次

一. 曹單子: “因議政府草記, 祈雨祭, 不卜日, 更爲設行事, 允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四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六月初三日

● 避正殿減膳撤樂

一. 傳曰: “今茲日旱, 胡爲而若是復酷也? 向日躬禱, 雖得一霽之, 靈應誠未盡格, 不能周洽, 永紓我民情之切急, 自顧慚歎, 繼以憂懼. 予聞災不虛生, 必有所召, 苟執厥咎, 此豈非在予一人乎? 圭璧今既復舉, 限得雨前, 避正殿·減膳·撤樂, 粗伸一分修省之義, 而

것이 아니겠는가. 기우제를 지금 이미 재차 거행하였으니,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여 수신하고 반성하는 의리를 조금이나마 펴고자 한다. 대신이 혹 이로 인하여 인책하는 상소를 올린다면 결코 군신 상하가 성심으로 재앙을 물리치는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나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5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 단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곧바로 그쳤으니, 심한 가뭄이 든 나머지 너무도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6일

●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애써 따른다.

시임·원임 대신의 차자에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무더위가 이처럼 몹시 심한데 어찌 그저 걱정스럽다고

大臣若或有因此引⁸章之舉，
決非君臣上下以誠弭災之道，
須諒悉予至意。”

丙子六月初五日

● 再次

一. 曹啓曰：“日前甘霖，驟霽旋止，亢旱之餘，萬萬渴悶，再次祈雨祭，不卜日，今初七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丙子六月初六日

● 復膳勉從

一. 答時原任大臣筭曰：“省筭具悉卿等之懇，蘊隆之若是太

8 此引: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6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만 말하겠는가. 이번 일은 바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스스로 경계하려는 것뿐이다. 약원에서 연일 번거롭게 청하니 이미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데, 경들의 연명 상소가 또 어찌하여 왔단 말인가. 그러나 크게 별일 필요가 없는 일을 가지고 이처럼 서로 고집하는 것은 도리어 겉치레인 듯하다. 이에 부득이 애써 따르지만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은 조금도 풀 수가 없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비답을 사관을 보내 전유하라.”

하였다.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의 차자로 인하여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애써 따르겠다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부터 전례대로 평상시의 음식을 다시 올리니, 정전^{正殿}으로 도로 나아가며 법악^{法樂}을 다시 사용하는 일도 모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甚, 何可但以憂悶言哉? 今茲之舉, 卽兢惕自警而已. 藥院之連日煩請, 已是不諒予意, 而卿等之聯章, 又奚爲至也? 然而以不必張大之事, 如是相持, 反涉彌文, 茲不得已勉從, 而憂懼之心, 有不能少弛矣.” 仍傳曰: “此批答, 遣史官傳諭.”

● 還御正殿

一. 曹啓曰: “因大臣劄子, 復膳勉從事, 批下矣. 自今日依例復進常膳, 而還御正殿, 復用法樂, 一體舉行, 何如?” 傳曰: “允.”

丙子六月初八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11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이번 13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14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17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비로 위급한 상황은 구제한 듯하지만 심한 가

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六月十一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今十三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六月十四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今十六日, 宗廟依例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丙子六月十七日

● 六次

一. 曹啓曰: “今番之雨, 庶爲救急, 亢旱之餘, 猶未優洽. 六

몹 뒤인지라 아직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습니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9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20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연일 비가 내려 지금 이미 충분히 적셨으니 오랜 가뭄 뒤인지라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되 이번 5차, 6차 기우제 이후 영험이 모두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종묘·삼각산·목멱산·한강의 보사제를 즉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⁸⁷⁶ 6월 21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삼각산·목멱산·한강 기우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초기를 올리니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최영원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9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

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九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依例遣近侍,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丙子六月二十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 “連日之雨, 今已優洽, 久旱之餘, 誠爲喜幸, 祈雨祭, 仍爲停止, 而今番五次六次虔禱之後, 靈應俱在三日之內, 不可無報謝之節. 宗廟·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卽爲擇日舉行, 何如?” 傳曰: “允.”

丙子六月二十一日

● 祈雨報謝

一. 曹單子啓曰: “宗廟·三角山·木覓山·漢江祈雨報謝祭, 擇日舉行事, 草記允下矣. 吉日令日官崔榮遠推擇, 則今六月二十九日爲吉云. 以此日設

땡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무인년¹⁸⁷⁸ 8월 10일

●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심한 가뭄이 달을 넘기고 셋바람이 계속 부니, 농사 형편과 백성의 마음이 몹시 애타고 걱정입니다. 삼가 전례를 살펴보니, 기우제를 간혹 국휼^{國恤}의 줄 꼭^卒 이전에 설행한 적이 있고, 또 처서가 지난 뒤에 설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의정부의 초기로 인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2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行, 何如?” 傳曰: “允.”

戊寅八月初十日

● 祈雨設行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 “亢旱跨朔, 東風連吹, 農形民情, 萬萬渴悶. 謹考已例, 則祈雨祭或有國恤卒哭前設行之時, 又有處暑後設行之時矣. 今亦不卜日, 虔誠設行之意, 分付儀曹, 何如?” 傳曰: “允.”

● 初次

一. 曹單子: “因議政府草記, 祈雨祭, 不卜日設行事, 允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二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무인년¹⁸⁷⁸ 8월 13일

● 2차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1차로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참으로 몹시 다행입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때때로 비를 뿌리니, 이어서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인년¹⁸⁷⁸ 8월 15일

● 2차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이미 1촌을 넘었으니, 애타게 바라던 때에 백성을 위로할 듯합니다. 지금 가을이 저물어 가니,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보사하는 절차는 국휼의 줄곡이 지난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戊寅八月十三日

● 再次觀勢

一. 曹啓曰：“初次虔禱，甘澍伊始，惜乾之餘，誠甚萬幸，而見今濃雲不解，有時霏灑，繼此快霽，方切顚望。再次祈雨祭，姑爲觀勢設行，何如？”傳曰：“允。”

戊寅八月十五日

● 再次停止

一. 曹啓曰：“再次祈雨祭，觀勢設行事，草記允下矣。兩日之雨，既過寸餘，渴望之際，庶慰三農，見今秋勢且晚，祈雨祭仍爲停止，報謝之節，待國恤卒哭後，擇日舉行，何如？”傳曰：“允。”

무인년¹⁸⁷⁸ 10월 3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의 보사제는 국휼의 줄곡이 지난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겠다는 초기에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삼각산·목덕산·한강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최영원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10월 11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6월 2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한 번 내린 비가 장마가 되어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이미 많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되, 헌관은 근시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내외 각 관사의 입직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

戊寅十月初三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祈雨報謝祭，待國恤卒哭後，擇日舉行事，已爲草記允下矣。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吉日，令日官崔榮遠推擇，則今十月十一日爲吉云。以此日設行事，分付何如？”傳曰：“允。”

己卯六月初二日

● 禳祭傳教

一. 傳曰：“一雨成霖，經月不止，言念穡事，萬萬憂悶。祈晴之不待秋節，多有已例，四門禳祭，不卜日設行，獻官以近侍填差，諸執事以內外各司入直官員填差事，分付。”

● 禳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禳祭，不卜日，今初

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6월 7일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청제를 특교로 인하여 설행하였으나 비가 갠 조짐이 아직 없으니, 이어서 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2차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9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되, 헌관은 당하 3품 관원을 보내도록 법전에 실려 있지만 1차 영제 때는 특교로 인하여 근시를 보내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날 설행하되, 헌관은 아경^{亞卿}과 각신^{閣臣}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을 가려 보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6월 8일

● 영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문영제를 지낼 것이니 오늘 향을 받아야 하는데,

四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己卯六月初七日

● 再次祭

一. 曹啓曰: “初次祈晴祭, 因特教設行, 而雨勢尙無開霽之意, 繼又祈晴, 不容少緩, 四門再次祭, 不卜日, 今初九日設行, 三日而止, 而獻官遣堂下三品官, 雖是法典, 初次祭時, 因特教, 遣近侍設行, 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以此日設行, 獻官以亞卿閣臣填差, 諸執事擇送事, 分付.”

己卯六月初八日

● 祭停止

一. 政院啓曰: “四門祭, 今日當爲受香, 而自昨夕始霽,

어제 저녁부터 비로소 비가 개어 일단 비가 내릴 조짐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때에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비가 이미 개었으니, 영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라.”

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6월 9일

● 2차 영제를 그대로 설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어제는 날이 깨끗이 갠 조짐이 있는 듯하여 승정원의 계사대로 영제는 정지하고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려 설행하라고 비답을 내렸는데, 곧바로 비가 계속 쏟아져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몹시 걱정이다. 2차 영제를 그대로 설행하되, 헌관과 집사들은 그대로 쓰고, 당일에 향을 받으며, 보사제는 날이 개기를 기다려 다시 마련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차 사

姑無雨意，在前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例，何以爲之？敢稟。”傳曰：“今既開霽，禁祭停止，報謝祭待立秋設行。”

己卯六月初九日

● 再次仍設傳教

一. 傳曰：“昨日似有快霽之意，依院啓，禁祭停止，報謝祭待立秋設行，有所批下矣。旋即連霽，達宵不止，言念民事，誠切憂悶。再次禁祭，仍爲設行，獻官諸執事仍用，當日受香，報謝祭待開霽，更爲磨鍊事，分付。”

● 再次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再次四門禁祭，今初十

문영제를 이번 10일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6월 25일

● 3차 영제를 지내겠다는 의정부의 초기

의정부가 아뢰기를,
“입추가 이미 지났는데도 긴 장마가 그치지 않으니,
농사와 민심이 모두 걱정입니다. 3차 영제를 택일하
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3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의정부의 초기로 인하여 3차 영제를 택일하지 말
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3차 사문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되, 헌관은 당하 3품 관원을 보내는 것이 법
전의 내용이지만 2차 영제 때는 특교로 인하여 아경
과 각신을 보내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
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관은 높은 품계의 관원 중에서 채워 차임하고 대
축^{大祝}은 각신과 옥당 중에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

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
如?” 傳曰：“允。”

己卯六月二十五日

● 三次祭政府草記

一. 議政府啓曰：“立秋已過，
長霖不止，穡事民情，俱庸憂
悶。三次祭祭，不卜日，虔誠設
行事，知委何如?” 傳曰：“允。”

● 三次

一. 曹啓曰：“因議政府草記，
三次祭祭，不卜日，虔誠設行
事，命下矣。四門三次祭祭，不
卜日，今二十六日設行，三日而
止，而獻官遣堂下三品官，卽
是法典，再次祭祭時，因特教，
遣亞卿閣臣設行矣。今番何以
爲之乎? 敢稟。” 傳曰：“獻官
崇品中填差，大祝閣臣玉堂中
填差，諸執事各別擇差。”

은 각각 별도로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기묘년¹⁸⁷⁹ 7월 1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장마가 건헐었으니 사문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택일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
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한응익^{韓應翼}에게 잡게 하였더
니, 이번 7월 20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
되,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⁸⁸¹ 윤7월 6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도 장마가 그치지 않으니, 농

己卯七月初一日

● 祭報謝

一. 曹啓曰：“祭設行後，當
有報謝之節，而見今積雨收
霽，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
如？”傳曰：“允。”

● 擇日

一. 曹單子：“四門祭報謝
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
令日官韓應翼推擇，則今七月
二十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
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
事，并以分付，何如？”啓依所
啓施行。

辛巳閏七月初六日

● 祭傳敎

一. 傳曰：“秋序已深，霖雨不
霽，言念穡事，萬萬憂悶。四門

사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스럽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8일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사년¹⁸⁸¹ 윤7월 14일

● 2차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잠깐 별이 났다가 곧바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개기를 바랐지만 지금 비가 연달아 쏟아지니, 이어서 또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2차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전교하기를,
“2차 영제의 헌관은 모두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禁祭, 不卜日設行事, 分付.”

● 禁祭

一. 曹啓曰: “傳曰云云事, 命下矣. 四門禁祭, 不卜日, 今初八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辛巳閏七月十四日

● 再次

一. 曹啓曰: “禁祭設行後, 乍陽旋雨, 庶冀開霽, 見今雨勢連霪, 繼又祈晴, 有不容少緩. 四門再次禁祭, 不卜日, 今十六日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一. 傳曰: “再次禁祭獻官, 并以閣臣填差.”

신사년¹⁸⁸¹ 윤7월 21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장마가 그쳤으니 사문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택일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
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한응익^{韓應翼}에게 잡게 하였디
니, 이번 윤7월 24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
하되,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
을 닫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4월 17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이토록 심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
로 매우 근심스럽다. 하지 이전에 비가 내리기를 기
도한 일은 이미 시행한 전례가 이미 많으니, 1차 기
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18일 동틀 때 하교하여 17일 날짜로 반포하

辛巳閏七月二十一日

● 祭報謝

一. 曹啓曰：“祭設行後，當
有報謝之節，而見今霖雨收
霽，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
如？”傳曰：“允。”

● 擇日

一. 曹單子：“四門祭報謝祭
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令
日官韓應翼推擇，則今閏七月
二十四日爲吉云。以此日設行，
而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
門事，并以分付，何如？”啓依
所啓施行。

壬午四月十七日

● 祈雨傳敎

一. 傳曰：“見今惜乾，至於此
甚，爲念穡事，誠切憂悶。夏
至前禱雨，多有已行之例，初
次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
事，分付。”【十八日出時下敎，
而以十七日頒布，故十九日設

였으므로 19일에 설행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9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18일 묘시卯時, 오전 5시~7시부터 인정人定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3분, 인정부터 19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6분, 동틀 때부터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분이었다.】

임오년¹⁸⁸² 4월 20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내린 비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으니, 가뭄을 걱정하던 중이라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2일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行.】

● 初次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九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十八日自卯時至人定，水深三分。自人定至十九日開東，水深六分。自開東至午時，水深二分.】

壬午四月二十日

● 再次

一. 曹啓曰：“日昨之雨，僅止涸塵，惜乾之餘，誠極渴悶。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二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임오년¹⁸⁸² 4월 23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같은 날 진시^{辰時}, 오전7시~9시부터 미시^{未時}, 오후1시~3시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4분이었다.】

임오년¹⁸⁸² 4월 26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8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4월 29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1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壬午四月二十三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五日, 南壇雩祀壇,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同日自辰時至未時, 水深四分.】

壬午四月二十六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八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依例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壬午四月二十九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來五月初一日, 宗廟依例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높은 품계의 각신을 보내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네 차례나 지냈으나 영험이 갈수록 더욱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달지 않
다.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되, 헌
관은 높은 품계의 각신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
또한 각기 별도로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5월 2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일에 삼각산·목
덕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5월 5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 遣崇品閣臣

一. 傳曰：“圭璧已至四次，靈
應去益邈然，言念民事，寢食
靡甘，五次祈雨祭，不卜日，明
日受香，獻官以崇品閣臣填差，
諸執事亦爲各別擇差。”

壬午五月初二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
卜日，今初四日，三角山·木覓
山·漢江沈虎頭，依例遣近侍，
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
依所啓施行。

壬午五月初五日

● 七次

一. 曹單子：“七次祈雨祭，不
卜日，今初七日，龍山江·楸子
島，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5월 8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 정1품 관원을 보낸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누차 지냈으나 영험이 지금까지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도 달지 않다. 8차 기
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되, 헌관은 정1
품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 또한 각기 별도로
가려 차임하라.”【9일 동틀 때부터 인정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7분이었다.】

임오년¹⁸⁸² 5월 11일

● 9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엿그제 내린 비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였는데 곧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壬午五月初八日

● 八次

一. 曹單子: “八次祈雨祭, 不
卜日, 今初十日, 南壇·雩祀壇
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 遣正一品

一. 傳曰: “圭璧屢舉, 靈應尙
今邈然, 言念穡事, 寢食靡甘.
八次祈雨祭, 不卜日, 明日受
香, 獻官正一品填差, 諸執事
亦爲各別擇差.” 【初九日開東
至人定, 水深七分.】

壬午五月十一日

● 九次

一. 曹啓曰: “再昨之雨, 僅爲
浥塵, 旋即收霽, 渴望尤切. 九

바로 개였으니, 애타게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9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북교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삼가 법전대로 모화관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는 종2품 무신을 보내 같은 날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석척 기우제는 경회루 연못가에서 지내라.”

하였다.

● 석척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예전에 석척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 헌관과 감찰은 경복궁 안에서 유숙하고, 본조의 낭청과 형조의 낭청 각 1원이 동자군 100명을 거느리고 궁 밖에 유숙하면서 특별히 검칙하고 날마다 쥘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내며 내자시·내섬시·예빈사로 하여금 번갈아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제물은 없고, 헌관은 향만 피우고 감찰은 검칙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三日, 北郊遣重臣, 虔誠設行, 而謹依法典, 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遣從二品武臣, 同日爲始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曰: “允. 蜥蜴祈雨, 慶會樓池邊爲之.”

● 蜥蜴祈雨

一. 曹啓曰: “謹稽謄錄, 則在前蜥蜴童子祈雨時, 獻官·監察, 宿於景福宮內, 本曹郎廳·刑曹郎廳各一員, 領率童子軍一百名, 留宿宮外, 另加檢飭, 逐日待開門入送, 而令內資寺·內膳寺·禮賓寺, 輪回供饋, 無祭物, 獻官只焚香, 監察檢飭而已. 今亦依前例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 用齋

一. 曹啓曰: “謹稽謄錄, 則蜥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석척 기우제 때는 기우제 때 향을 받는 날의 전례대로 매일 재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5월 11일 감결

● 감결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하받은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경회루 연못가에서 3일 동안 석척 기우제를 지낼 때 동자군 100명과 예차 50명은 복색이 선명한 자로 가려 뽑고 하루 전에 점고^{點考}한 뒤 그대로 재숙^{齋宿}하고, 축어^{祝語}는 병자년¹⁸⁷⁶ 사용한 축어대로 하고 미리 사적으로 연습하여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헌관과 감찰은 전례대로 공복^{公服}을 입고 누수기^{漏水器}의 숫자대로 둘러싸고 서서 같은 달 13일 향을 받아 제사를 지내되, 다음 날과 다음다음 날의 향은 제용감에서 전례대로 진배하며, 동자군 50명씩을 내자시·내섬시·예빈시가 담당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적대^{櫓大} 등의 일은 별도로 감역관을 정하여 속히 거행하십시오. 석척·누기웅·급수군 등은 전례대로 진배하여 대령하여 제때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십시오. 각자 맡은 일들을 전례를 살펴 거행하되 만일 지체하면 달게 벌을 받아도 사양하지 마십시오.”

蜩祈雨時，每日依祈雨祭受香日例，用齋矣。今亦依此舉行，何如？”傳曰：“允。”

壬午五月十一日甘結

● 甘結

“右甘結，爲粘連啓下內，辭意奉審，慶會樓池邊，連三日蜩蜩祈雨時，童子軍一百名，預差五十名，服色鮮明者抄擇，前一日點考後，仍爲齋宿，祝語依丙子祝語，預爲私習，俾無訛謬之弊爲旂，獻官·監察，依前例，着公服以漏水器數回立，同月十三日，受香行事爲有矣，翌日三日，香則濟用監依例進排爲旂，童子軍五十名式，內資寺·內贍寺·禮賓寺次知供饋爲旂，櫓大等事，別定監役官，急速舉行爲旂，蜩蜩漏器瓮汲水軍等，依例進排待令，俾無未及之弊爲旂，各其所掌等事，照例舉行爲有矣，萬一遲緩，甘罪不辭。”

임오년¹⁸⁸² 5월 16일

● 사직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줄곧 가뭄이 들어 농사가 재앙을 입고 있다. 재앙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긋난 날씨를 초래한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면 부끄럽고 근심스러우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직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내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18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부터 유시^{酉時, 오후 5시~7시}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6분이었다.】

임오년¹⁸⁸² 5월 18일

● 종묘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 단비가 내렸으나 흠족하게 적시지 못하였는데 곧바로 개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 더욱 간절하다. 종묘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壬午五月十六日

● 社稷別祈親傳香

一. 傳曰: “一直嘆乾, 民穡受災, 災不虛生, 寔由寡躬不能敬天而恤民, 致此愆候, 自顧慚悶, 曷以爲言? 社稷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 【十八日申時至酉時, 水深六分.⁹⁾】

壬午五月十八日

● 宗廟別祈親傳香

一. 傳曰: “昨日甘霖, 未洽而旋霽, 言念農稼, 渴悶尤切. 宗廟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¹⁰⁾ 【只捧甘各司.】

9 十八日……六分: 저본에는 ‘十八日申時至酉時 水深六分’,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5월 18일 기사에는 ‘自申時至酉時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五分’

10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5월 19일 기사에 보인다.

임오년¹⁸⁸² 5월 22일

● 남단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단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니,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더욱 근심스럽다. 남단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⁸⁸² 5월 25일

● 북교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누차 지냈고 절기가 점점 늦어지는데 영험이 아득하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북교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5월 28일

● 선농단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壬午五月二十二日

● 南壇別祈親傳香

一. 傳曰：“甘雨已始，尙未周洽，渴望之餘，轉益憂悶。南壇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只捧甘各司.】

壬午五月二十五日

● 北郊別祈親傳香

一. 傳曰：“圭璧屢舉，節序漸晚，而靈應斯邈，渴悶彌切，北郊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

壬午五月二十八日

● 先農壇別祈親傳香

一. 傳曰：“雨意日緊，一霽尙遲，屢舉圭璧，誠未孚格而然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뚜렷한데 큰비가 아직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누차 제사를 지냈으나 정성이 감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갈수록 더욱 애타고 걱정스러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선농단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⁸⁸² 6월 2일

● 우사단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단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니, 애타고 걱정스러운 마음 더욱 간절하다. 우사단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⁸⁸² 6월 5일

● 사직단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엿그제 단비가 내려 백성을 두루 흠족하게 해 주리라 생각하였는데 곧바로 날이 개었다. 계절이 점점 저물어 가서 매우 걱정스러우니, 어찌 번거롭다고 꺼릴 수 있겠는가. 사직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

歟? 轉益渴悶, 無以爲言. 先農壇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 香祝當親傳矣, 該房知悉.”【只捧甘各司.】

壬午六月初二日

● 雩祀壇別祈

一. 傳曰: “甘雨已始, 尙未慰治, 渴悶之心, 尤有切焉. 雩祀壇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只捧甘各司.】

壬午六月初五日

● 社稷別祈

一. 傳曰: “日昨甘霖, 竊謂普治三農, 旋即開霽, 時序漸晚, 憂憫之至, 何可以屑瀆爲嫌乎? 社稷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只捧甘各司.】

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⁸⁸² 6월 8일

● 종묘 별기우제의 향을 친히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여러 차례 지냈는데도 단비가 적서 주지 않으니, 들리는 곳마다 농사가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한다. 어질고 사랑하는 하늘의 마음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 단지 농사를 중시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나의 정성이 형식적이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한탄스러워 먹고 자는 것도 달지 않다. 종묘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⁸⁸² 6월 11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충분히 적서 주었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정지하고, 보사하는 절차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各司.】

壬午六月初八日

● 宗廟別祈親傳香

一. 傳曰：“牲璧屢舉，甘霖未治，聽聞所及，年事將歉，仁愛天心，寧忍如是？職由予重農保民之誠，以文而不以實也。反躬慚歎，寢食靡甘，宗廟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只捧甘各司.】

壬午六月十一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憫旱之餘，甘霖優洽，誠切萬幸。祈雨祭停止，報謝之節，待立秋後，擇日舉行，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⁸⁸² 7월 10일

● 택일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별기우제 이후 단비가 충분히 적서 주었으니
보사하는 절차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거
행하라고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
관 한응익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20일이 길
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5월 16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절기가 늦어지는 데도 도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
리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
부하라.”
하였다.

壬午七月初十日

● 擇日

一. 曹啓曰：“宗廟別祈雨祭
後，甘霈優洽，報謝之節，待立
秋後，擇日舉行事，允下矣。報
謝祭吉日，令日官韓應翼推擇，
則今七月二十日爲吉云。以此
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
事，分付何如？”傳曰：“允。”

癸未五月十六日

● 祈雨傳教

一. 傳曰：“節序尙晚，一霈尙
遲，言念民穡，萬萬憂憫。初
次祈雨祭，不卜日設行事，分
付儀曹。”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8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5월 1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1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5월 22일

【21일 밤에 내린 비의 수심이 4분이었다.】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잠깐 내리기 시작했다가 곧바로 그쳤으니, 가뭄을 걱정하던 중이라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4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

● 初次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八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癸未五月十九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一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癸未五月二十二日

【二十一日夜，水深四分。】

● 三次

一. 曹啓曰：“昨日甘澍，乍始旋止，惜乾之餘，渴悶尤切，三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四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5월 25일

【23일 밤에 내린 비의 수심이 2분이었다.】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7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27일 내린 비의 수심이 1촌 4분이었다.】

계미년¹⁸⁸³ 5월 28일

● 5차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1촌 남짓 단비가 내려 넉넉히 적셔 주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때때로 비가 흠뻑리니, 이어서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달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지나친 듯하니, 5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28일에 내린 비의 수

傳曰：“允.”

癸未五月二十五日

【二十三日夜水深二分】

● 四次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七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二十七日，水深一寸四分。】

癸未五月二十八日

● 五次觀勢

一. 曹啓曰：“昨日寸餘甘澍，雖未優洽，見今濃雲四布，有時霏灑，繼此沛然，方切顒望，而連薦圭璧，恐涉瀆屑，五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何如？”傳曰：“允。”【二十八日，水深七分。】

십이 7분이었다.】

계미년¹⁸⁸³ 6월 1일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에 내린 몇 촌의 비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가뭄이 들고 큰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
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황급합니다. 5
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월 3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6월 4일

● 6차 기우제는 정1품 관원을 보내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누차 지냈으나 영험한 비가 아직 두루 적
서 주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어찌 말하겠는가.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
고 내일 향을 받되, 헌관은 정1품 관원으로 채워 차
임하고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癸未六月初一日

● 五次

一. 曹啓曰：“日前數寸之雨，
雖得解渴，旋即乾曝，需意愈
邈，言念民事，轉益遑急。五
次祈雨祭，不卜日，今六月初三
日，宗廟依例遣重臣，虔誠設
行事，知委何如？”傳曰：“允。”

癸未六月初四日

● 六次遣正一品

一. 傳曰：“圭璧屢藏¹¹，靈雨
尙未周洽，言念民事，渴悶何
喻？六次祈雨祭，不卜日，明日
受香，獻官正一品填差，諸執
事各別擇差事，分付。”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

¹¹ 藏：저본에는 ‘藏’. 『승정원일기』
고종 20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6월 6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정1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6월 7일

● 사직단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가 재해를 입었다. 가뭄이 심한 허물은 진실로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니, 부끄럽고 한탄스러우며 근심스럽고 민망하여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사직단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계미년¹⁸⁸³ 6월 10일

● 종묘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단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흠족하게 적서 주지 못하고 곧바로 개었으니,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근심이 갈수록 심해진다. 종묘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각 관사에만 감결을 보냈다. 11일 내린 비의

下矣. 六次祈雨祭, 不卜日, 今六月初六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正一品,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癸未六月初七日

● 社稷別祈

一. 傳曰: “嘆乾太甚, 農稼受災, 極備之咎, 諒由否德, 慚歎憂悶, 靡能自寧, 社稷別祈雨祭, 遣大臣, 虔誠設行.” 【只捧甘各司.】

癸未六月初十日

● 宗廟別祈

一. 傳曰: “甘雨既始, 未洽而旋霽, 渴望之餘, 憂悶轉甚, 宗廟別祈雨祭, 再明日, 遣大臣, 虔誠設行.” 【只捧甘各司. 十一日水深五分, 十二日八

수심은 5분, 12일 내린 비의 수심은 8분이었다.】

계미년¹⁸⁸³ 6월 13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선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연일 내린 비의 수심이 이미 몇 촌을 넘었고 짙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어 또 비가 쏟아질 가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연달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지나친 듯하니,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⁸⁸³ 6월 14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형세를 보아 거행하라고 어제의 초기에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단비가 연일 높고 낮은 곳에 쏟아져 두루 적실 듯하니 백성을 위로하고 만족시켜 농사에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종묘 별기우제 이후 영험이 이처럼 매우 분명하니, 보사제를 삼가 예전^{禮典}에 따라 입추 이후 선행하겠습니다. 4차 사직 기우제와 복교 기우제 이후 3일 안에 이미 몇 촌의 비가 내렸으니, 또한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례대로 모두 설

分.¹²⁾】

癸未六月十三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 “連日之雨, 既過數寸, 濃雲四布, 且有沛然之望, 此際連薦圭璧, 恐涉瀆褻, 祈雨祭, 姑爲觀勢舉行, 何如?” 傳曰: “允.”

癸未六月十四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 “祈雨祭, 觀勢舉行事, 昨已草記, 允下矣. 甘露連日, 滂沱高低, 庶可周洽, 慰滿三農, 民事萬幸. 祈雨祭, 仍爲停止, 宗廟別祈雨後, 靈應若是孔昭, 報謝祭, 謹依禮典¹³⁾, 立秋後設行, 而四次社稷

12 十一日……八分: 저본에는 ‘十一日水深五分 十二日八分’. 『승정원일기』 고종 20년 6월 11일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고종 20년 6월 12일 기사에는 ‘自開東至未時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九分’

13 禮: 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고종 20년 6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5촌이었다.】

계미년¹⁸⁸³ 7월 4일

● 기우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사직·북교 기우제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에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한응익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3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⁸⁸⁴ 7월 12일

● 영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서늘한 가을이 이미 왔는데도 늦장마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몹시 근심스럽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되, 헌관은 근시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별도로 가려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北郊祈雨，三日之內，既得數寸之雨，亦當有報謝之節，依例一體設行，何如？”傳曰：“允。”【自十三日至十四日，水深五寸。】

癸未七月初四日

● 祈雨報謝

一. 曹啓曰：“宗廟·社稷·北郊祈雨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事，前已啓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韓應翼推擇，則今七月十三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事，分付何如？”傳曰：“允。”

甲申七月十二日

● 祭祭傳教

一. 傳曰：“秋涼已屆，晚霖不霽，言念穡事，誠切憂悶，四門祭祭，不卜日設行，獻官以近侍填差，諸執事另爲擇差事，

수정

하였다.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⁸⁸⁴ 7월 22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고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⁸⁸⁴ 7월 23일

● 택일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한응익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27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分付.”

● 禳祭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四門禳祭，不卜日，今十四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甲申七月二十二日

● 禳祭報謝

一. 曹啓曰：“禳祭設行後，積雨收霽，日候清朗，當有報謝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何如？”傳曰：“允。”

甲申七月二十三日

擇日

一. 曹單子：“四門禳祭報謝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令日官韓應翼推擇，則今七月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11일

● 기우제를 지내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가뭄이 갈수록 심해져 모내기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 큰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근심스럽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1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而謹依受敎, 受香後, 勿閉城門事, 並以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十一日

● 祈雨傳敎

傳曰: “亢旱轉甚, 秧節已過, 尙靳一需, 言念穡事, 極爲憂悶. 祈雨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分付.”

● 初次祈雨

一. 曹啓曰: “傳曰云云事, 命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十三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¹⁴

乙酉五月十四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

¹⁴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5월 12일 기사에 보인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17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9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20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2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21일 인정부터 22일 동틀 때까지 비가 내렸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2분이었다.】

卜日，今十六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十七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今十九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乙酉五月二十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四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二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自二十一日人定，至二十二日開東，灑雨下雨，測雨器水深二分。】

을유년¹⁸⁸⁵ 5월 23일

【내린 비의 수심이 4분이었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연일 내린 단비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으니, 가뭄을 걱정하던 중이라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5일에 종묘에 전례대로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26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8일에 삼각산·목격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의 헌관

전교하기를,
“엿그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가 곧바로 그쳐 또다시 가뭄을 걱정하고 있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애타고 걱정이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되, 헌관은 높은 품계의 관원

乙酉五月二十三日

【水深四分】

● 五次祈雨

一. 曹啓曰：“連日甘澍，僅止涸塵，惜乾之餘，渴悶尤切。五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五日，宗廟依例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乙酉五月二十六日

● 六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八日，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依例遣近侍，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 上同獻官

一. 傳曰：“日昨甘澍，既始旋止，又復惜乾，言念穡事，轉益渴悶。六次祈雨祭，不卜日，明日受香，獻官以崇品填差，諸執事亦另擇事，分付。”

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 역시 별도로 뿔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5월 29일

【28일 내린 비의 수심이 1촌 3분이었다.】

● 기우제는 상황을 보도록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이미 1촌 넘게 내렸고 지금 짙은 구름
이 사방에 퍼져 때때로 부슬비가 내리니, 이어서 비
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달아 제
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지나친 듯하니, 기우제
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6월 4일

●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형세를 보아 거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며칠 전 단비가 내리고서 또
연일 비가 내렸으니, 백성을 위로하고 농사가 몹시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6차 기우
제를 정성껏 설행한 뒤 영험이 이미 3일 안에 있었
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삼각산·목덕

乙酉五月二十九日

【二十八日水深一寸三分】

● 祈雨觀勢稟

一. 曹啓曰：“昨日甘澍，既過
寸餘，見今濃雲四布，有時霏
微，繼此霈然，方切顒望，而
連薦圭璧，恐涉瀆屑，祈雨祭，
姑爲觀勢舉行，何如？”傳曰：
“允。”

乙酉六月初四日

● 停止

一. 曹啓曰：“祈雨祭，觀勢舉
行事，草記允下矣。日前甘澍
霑潤之餘，又得連日之雨，庶
慰三農，民事萬幸。祈雨祭，仍
爲停止，而六次虔禱後，靈應
既在三日之內，當有報謝之節，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산·한강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7월 3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삼각산·목멱산·한강 기우제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
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한응익에게 잡게 하였
더니, 이번 7월 20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
하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7월 16일

● 영제

전교하기를,
“단비가 그대로 장마가 되고 절기가 이미 늦었는데
날이 아직 개지 않으니, 홍수가 날 염려가 없지 않
다.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치 않으니, 사문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아 정성껏 설행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
傳曰：“允。”

乙酉七月初三日

● 報謝

一. 曹啓曰：“三角山·木覓山·
漢江祈雨報謝祭，待立秋後，
擇日設行事，前已啓下矣。報
謝祭吉日，今日官韓應翼推擇，
則今七月二十日爲吉云。以此
日設行，而祝文令藝文館撰出
事，分付何如？”傳曰：“允。”

乙酉七月十六日

● 祭

一. 傳曰：“喜雨仍作長霖，節
序已晚，尙無開霽，不無極備
之慮。言念穡事，丙枕靡安。四
門祭，不卜日，明日受香，虔
誠設行事，分付。”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단비가 그대로 장마가 되고 절기가 이미 늦었는데
날이 아직 개지 않으니, 홍수가 날 염려가 없지 않
다.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치 않으니, 사문
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아 정성껏 설행
하라고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8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1885 7월 22일

● 영제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설행한 뒤에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개어 화
창하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문의 보
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1885 7월 23일

● 위와 같은 내용의 택일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의 보사제를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

一. 曹啓曰：“傳曰：‘喜雨仍作
長霖，節序已晚，尙無開霽，不
無極備之慮。言念穡事，丙枕
靡安。四門祭，不卜日，明日
受香，虔誠設行事，分付’事，
命下矣。四門祭，不卜日，今
十八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
何如？”傳曰：“允。”

乙酉七月二十二日

● 祭報謝

一. 曹啓曰：“祭設行後，積
雨收霽，日候晴¹⁵朗，當有報謝
之節，四門報謝祭，擇日設行，
何如？”傳曰：“允。”

乙酉七月二十三日

● 上同擇日

一. 曹單子：“四門祭報謝
祭，擇日設行事，啓下矣。吉日

15 晴: 저본에는 '晴', 『승정원일기』 고
종 22년 7월 22일 기사에는 '淸'

셨습니다. 길일을 일관 한응익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27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7월 25일

● 영제 보사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 이후 보사제를 이번 27일에 설행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곧바로 쏟아져 아직도 개곳이 개지 않았으니, 보사제는 일단 정지하고 형세를 보아 다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8월 6일

● 2차 영제

전교하기를,
“지금 이삭이 쫄 때 찬비가 심하게 쏟아져 밤새 그치지 않고 있으니, 실로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다.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근심스러우니, 사문 영제를 어찌 채차 지내는 것이 번거롭다고 꺼릴 수 있겠는가. 택일하지 말고 정경正卿을 보내 당일에 향

令日官韓應翼推擇，則今七月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事，並以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

乙酉七月二十五日

● 榮祭報謝觀勢

一. 曹啓曰：“榮祭後報謝祭，以今二十七日設行事，已爲啓下，而見今雨勢旋靄，尙未快霽，報謝祭，姑爲停止，觀勢更爲擇日舉行，何如？”傳曰：“允.”

乙酉八月初六日

● 榮祭再次

一. 傳曰：“當此發穗之時，冷雨暴靄，徹宵不止，實有痒稼之慮，念及民事，轉益憂悶，四門榮祭，何可以再舉之瀆屑爲嫌，不卜日，遣正卿，當日受香，虔誠設行.”

을 받아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위와 같음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금 이삭이 쫄 때 찬비가 심하게 쏟아져 밤새 그치지 않고 있으니, 실로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다.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근심스러우니, 사문영제를 어찌 재차 지내는 것이 번거롭다고 꺼릴 수 있겠는가. 택일하지 말고 정경을 보내 당일에 향을 받아 정성껏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차 사문영제를 이번 7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⁸⁸⁵ 8월 12일

● 1차, 2차 영제의 보사제를 합하여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2차 영제를 지낸 뒤에 곧바로 비가 그쳐 날씨가 개고 화창하니, 보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1차 영제 이후 보사제를 다시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계하하셨으니, 1차, 2차 보사제를 합하여 설행해야 합니다. 사문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한응익에

● 上同

一. 曹啓曰：“傳曰：‘當此發穗之時，冷雨暴霖，徹宵不止，實有痒稼之慮，念及民事，轉益憂悶，四門禋祭，何可以再舉之瀆屑爲嫌？不卜日，遣正卿，當日受香，虔誠設行事，命下矣。再次四門禋祭，今初七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乙酉八月十二日

● 初再次禋祭合設

一. 曹啓曰：“再次禋祭後，旋即開霽，日候晴¹⁶朗，報謝之節，當爲磨鍊，而初次禋祭後報謝，既以更擇舉行事，啓下矣。初再次報謝，當爲合設，

¹⁶ 晴: 저본에는 ‘晴’.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8월 12일 기사에는 ‘淸’

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8월 19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에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고, 삼가 수교受敎의 내용대로 향을 받은 뒤 성문을 닫지 말라고 모두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四門報謝祭吉日，令日官韓應翼推擇，則今八月十九日爲吉云。以此日設行，而祝文中措辭撰出，謹依受敎，受香後，勿閉城門事，一體知委舉行，何如？”傳曰：“允。”

정해년¹⁸⁸⁷ 윤4월 22일

● 기우제

전교하기를,

“근래 가뭄이 든 지 제법 오래되어 익으려던 보리와 옮겨 심지 못한 모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스러워 하루가 급하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丁亥閏四月二十二日

● 祈雨

一. 傳曰：“近嘆頗久，將熟之麥，未移之秧，俱未免枯損，言念民事，其所憂悶，一日爲急。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근래 가뭄이 든 지 제법 오래되어 익으려던 보리와 옮겨 심지 못한 모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스러워 하루가 급하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4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

● 初次

一. 曹啓曰：“傳曰：‘近嘆頗久，將熟之麥，未移之秧，俱未免枯損，言念民事，其所憂悶，一日爲急。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四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

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향을 받기 전에 측우기의 수심이 1촌 4분이었다.】

정해년¹⁸⁸⁷ 윤4월 25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엿그제의 비는 향을 받기 전에 내렸고, 수심이 1촌을 넘었지만, 아직 두루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7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윤4월 2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1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知委何如?” 傳曰：“允.”¹⁷【受香前，測雨器水深一寸四分.】

丁亥閏四月二十五日

● 再次

一. 曹啓曰：“再昨日之雨，乃在於受香之前，而水深雖過寸餘，猶未周洽。再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七日，龍山江·楮子島，遣宰臣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丁亥閏四月二十八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不卜日，來五月初一日，南壇·雩祀壇，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¹⁷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윤4월 23일 기사에 보인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2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4일에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5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7일에 종묘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8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0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전례대로 근시를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丁亥五月初二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四日,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五月初五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今初七日, 宗廟遣重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亥五月初八日

● 六次

一. 曹單子: “六次祈雨祭, 不卜日, 今初十日,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依例遣近侍,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연달아 거행하였는데도 하늘의 응답이 아직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조바심이 나고 근심스러워 하루가 급하다.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 향을 받되, 헌관은 높은 품계의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 역시 별도로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11일

전교하기를,

“비가 올 조짐이 연이어 있는데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니, 절기가 점점 늦어져 농사가 더욱 급하다. 사직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별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비가 올 조짐이 연이어 있는데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니, 절기가 점점 늦어져 농사가 더욱 급하다. 사직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직 별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3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一. 傳曰：“圭璧連舉，冥應尙遲，言念式穡，憧憧憂悶，日急一日。六次祈雨祭，不卜日，明日受香，獻官以崇品填差，諸執事亦另擇事，分付。”

丁亥五月十一日

一. 傳曰：“連有雨意，一需尙靳，節序漸晚，民事愈急，社稷別祈雨祭，遣大臣，虔誠設行。”

● 別祈雨

一. 曹啓曰：“傳曰：‘連有雨意，一需尙靳，節序漸晚，民事愈急。社稷別祈雨祭，遣大臣，虔誠設行’事，命下矣。社稷別祈雨祭，不卜日，今十三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¹⁸

18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5월 12일 기사에 보인다.

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14일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7차례나 지냈는데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니, 농사와 민심이 갈수록 더욱 애타고 걱정이다. 종묘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하였다.

● 별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7차례나 지냈는데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니, 농사와 민심이 갈수록 더욱 애타고 걱정이다. 종묘 별기우제를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종묘 별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丁亥五月十四日

一. 傳曰：“薦璧已過七次，而晨夕風涼，雨意愈邈，穡事民情，去益渴悶。宗廟別祈雨祭，遣大臣，虔誠設行。”

● 別祈雨

一. 曹啓曰：“傳曰：‘薦璧已過七次，而晨夕風涼，雨意愈邈，穡事民情，去益渴悶。宗廟別祈雨祭，遣大臣，虔誠設行’事，命下矣。宗廟別祈雨祭，不卜日，今十六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정해년¹⁸⁸⁷ 5월 17일

● 별기우제

전교하기를,

“봄에 이미 날씨가 궂고 추웠던 데다가 여름에 또 크게 가물어 농사가 끝내 해를 입었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타는 듯하다. 이를 생각하면 비단옷에 좋은 음식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남단 별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되, 제문은 문임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하고 향축은 친히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17일부터 18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촌 1분이었다.】

정해년¹⁸⁸⁷ 5월 18일

● 별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의 계사에,

“남단 별기우제를 설행하되 향축은 친히 전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비가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때에 계품하여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이런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에 있어 참으로 매우 다행이다. 별기우제를 정지하라.” 하였다.

丁亥五月十七日

● 別祈雨

一. 傳曰：“春已乖寒，夏又亢旱，穡事之卒瘁，民情之如悵，念之到此，錦玉何安？南壇別祈雨祭，再明日遣大臣，虔誠設行，祭文令文任撰出，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十七日以十八日開東至，水深二寸一分。】

丁亥五月十八日

● 別祈雨停止

一. 政院啓辭：“南壇別祈雨祭設行，香祝當親傳事，命下，而見今甘霖，自夜至朝，連爲注下，在前如此之時，有啓稟停止之例，何以爲之？敢稟。”傳曰：“渴望之餘，得此甘霖，爲民穡事，誠切萬幸。別祈雨祭停止。”

정해년¹⁸⁸⁷ 5월 20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며칠 전에 내린 단비가 충분히 적실 만하였는데 또 연일 비가 내려 백성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을 듯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번 종묘 별기우제를 지낸 뒤에 영험이 이미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종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⁸⁸⁷ 6월 5일

● 택일

예조의 단자에,

“종묘 별기우제의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이미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김동만^{金東萬}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6월 25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무자년¹⁸⁸⁸ 5월 24일

예조가 아뢰기를,

丁亥五月二十日

● 報謝

一. 曹啓曰：“日前甘澍，足可霑潤，又得連日之雨，庶慰三農之望，言念民事，誠爲萬幸。今番宗廟別祈雨後，靈應既在於三日之內，當有報謝之節，宗廟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何如？”傳曰：“允。”

丁亥六月初五日

● 擇日

一. 曹單子：“宗廟別祈雨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事，已爲允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金東萬推擇，則今六月二十五日爲吉云。以此日設行，何如？”啓依所啓施行。

戊子五月二十四日

一. 曹啓曰：“今年春夏之交，

“올해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비와 햇볕이 모두 고르고 적절하여 벼씨를 모판에 뿌릴 때를 놓치지 않았고, 보리농사가 잘되었습니다. 다만 이달 이후로 가뭄이 갈수록 심해져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 큰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이니,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신에게 문의한 뒤 초기를 지어 올리려는 때 특교가 이미 내렸다.】

전교하기를,

“근래 호미날만큼 비가 내렸으나 곧바로 개고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근심스럽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근래 호미날만큼 비가 내렸으나 곧바로 개고 큰비가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가 이미 지났

雨暘均適，注秧無愆，麥農善就矣。第自今月以後，嘆乾轉甚，見今夏至已過，一需尙靳，言念民事，誠爲渴悶，圭璧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六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何如？”【問議大臣後，修呈草記之際，特教已下。】

一. 傳曰：“邇來雖有鋤沍之潤，旋即開霽，尙靳一需，夏至已過，秧節漸晚，言念民事，誠切憂悶。初次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事，分付儀曹。”

● 初次

一. 曹啓曰：“傳曰：‘邇來雖有鋤沍之潤，旋即開霽，尙靳一需，夏至已過，秧節漸晚，言念民事，誠切憂悶。初次祈雨

는데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근심스럽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6일에 삼각산·목덕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자년¹⁸⁸⁸ 5월 2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29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28일 2경오후9시~11시부터 6월 1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1척 4촌 7분이었다.】

무자년¹⁸⁸⁸ 6월 1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두 차례 지내자 영험이 빠르게 나타나 한 번의 비가 충분히 적서 주어 백성이 위로받고 만족스러워하니,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매우 기쁘고 다

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分付儀曹’事, 命下矣. 初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六日, 三角山·木覓山·漢江, 依例遣堂下三品官,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戊子五月二十七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不卜日, 今二十九日, 龍山江·楮子島, 依例遣宰臣, 虔誠設行事, 知委何如?” 【二十八日二更至初一日開東, 水深一尺四寸七分.】

戊子六月初一日

● 報謝

一. 曹啓曰: “圭璧再舉, 靈應斯捷, 一雨優洽, 三農慰滿, 渴望之餘, 萬萬喜幸. 祈雨祭仍爲停止, 龍山江·楮子島報謝

행스럽습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용산강과 저자도의 보사제를 전례대로 입추를 기다려 택일하여 설행하되, 이번 비는 1차 기우제를 지낸 뒤 3일 안에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삼각산·목멩산·한강의 보사제를 모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무자년 1888 7월 1일

● 택일

예조의 단자에,
“삼각산·목멩산·한강·용산강·저자도의 기우 보사제를 입추를 기다린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 김동만(金東萬)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1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기축년 1889 5월 10일

● 1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줄곧 가뭄이 들어 간혹 조금 비가 내리긴 하였으나 백성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치 않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祭, 依已例, 待立秋擇日設行, 而今番之雨, 既始於初次行事之後, 三日之內, 三角山·木覓山·漢江報謝祭, 一體設行, 何如?” 傳曰: “允.”

戊子七月初一日

● 擇日

一. 曹單子: “三角山·木覓山·漢江·龍山江·楮子島祈雨報謝祭, 待立秋後擇日設行事, 已爲允下矣. 報謝祭吉日, 令日官金東萬推擇, 則今七月十一日爲吉云. 以此日設行, 何如?” 啓依所啓施行.

己丑五月初十日

● 初次

傳曰: “自春徂夏, 一直亢旱, 間或有小霽, 而未足慰三農, 言念民事, 丙枕靡安. 祈雨祭, 不卜日, 虔誠設行事, 分付.”¹⁹⁾

19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 고종 26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1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전례대로 당하 3품 관원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친히 향을 전달하겠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의 향축은 내가 직접 전달할 것이니 해당 방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⁸⁸⁹ 5월 1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번 14일에 용산강과 저자도에 전례대로 재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14일 미시未時, 오후 1시~3시부터 15일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4분이었다.】

一. 曹啓曰：“傳曰云云事，命下矣。初次祈雨祭，不卜日，今十一日，三角山·木覓山·漢江，依例遣堂下三品官，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 親傳香

傳曰：“祈雨祭香祝，當親傳矣，該房知悉。”

己丑五月十二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不卜日，今十四日，龍山江·楮子島，依例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十四日未時至十五日，水深四分。】

년(1889) 5월 9일 기사에 보인다.

기축년¹⁸⁸⁹ 5월 15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단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충분히 적
시지 못하고 곧바로 개었으니, 애타게 바라던 나머
지 근심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3차 기우제를 택일하
지 말고 이번 17일에 남단과 우사단에 전례대로 재
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였다.

기축년¹⁸⁸⁹ 5월 18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영험이 빠르게 나타나 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농사가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비가 연달아 내려 장차 쏟아질 가망이 있으니,
4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18일 동틀 때부터 19
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촌이었다.】

己丑五月十五日

● 三次

一. 曹啓曰：“昨日甘雨既始，
未洽而旋止，渴望之餘，憂悶
轉甚，三次祈雨祭，不卜日，今
十七日，南壇・雩祀壇，依例
遣宰臣，虔誠設行事，知委何
如？”

己丑五月十八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三薦圭璧，靈應
斯捷，甘澍伊始，民事萬幸。見
今雨勢連霖，將有霑然之望，
四次祈雨祭，姑爲觀勢舉行，
何如？”傳曰：“允。”【自十八
日開東至十九日開東，水深二
寸。】

기축년¹⁸⁸⁹ 5월 23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며칠 전 몇 촌의 비가 내려 해갈되기는 하였지만, 그날 이후 비가 내릴 조짐이 연이어 있었으나 아직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가 이미 되었는데도 모내기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4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25일에 복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정성껏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축년¹⁸⁸⁹ 5월 26일

● 기우제는 상황을 보아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네 차례 기우제를 지내자 영험이 이미 나타나 어제와 오늘 내린 비가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비가 연일 내려 장차 쏟아질 가망이 있으니, 5차 기우제는 일단 정지하고 형세를 보아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5일 인정부터 26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1촌 4분이었다. 26일

己丑五月二十三日

● 四次

一. 曹啓曰：“四次祈雨祭，觀勢設行事，草記允下矣。日前數寸之雨，雖得解渴，伊日以後，連有雨意，而尙靳一需，夏至已屆，秧節漸晚，言念民事，誠極渴悶。四次祈雨祭，不卜日，今二十五日，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虔誠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己丑五月二十六日

● 祈雨觀勢

一. 曹啓曰：“四薦圭璧，靈應既至，昨今之雨，雖未周洽，庶可救急，而見今連日霪灑，將有霈然之望。五次祈雨祭，姑爲停止，觀勢設行，何如？”傳曰：“允。”【二十五日自人定至二十六日開東，水深一寸四分。二十六日開東至二十七日開東，水深二寸七分。二十七日自

동틀 때부터 27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2촌 7분이었다. 27일 동틀 때부터 28일 동틀 때까지 내린 비의 수심이 4분이었다.】

기축년¹⁸⁸⁹ 5월 29일

●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5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이미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4차 기우제를 정성껏 지낸 뒤 연이어 단비가 내려 측우기의 수심이 거의 5촌에 가까워 두루 적실 수 있을 듯하니, 농사에 몹시 다행입니다. 기우제는 그대로 정지하고, 사직과 북교의 보사제를 삼가 예전^{禮典}에 따라 입추를 기다린 뒤 설행하겠습니다. 3차 기우제를 지낸 뒤 3일 안에 이미 몇 촌의 비가 내렸으니, 역시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남단과 우사단의 보사제를 일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開東至二十八日開東，水深四分。²⁰⁾】

己丑五月二十九日

● 停止

一. 曹啓曰：“五次祈雨祭，觀勢設行事，已爲草記允下矣。四次虔禱後，連得甘澍，測雨器水深，幾近五寸，庶可周洽，民事萬幸。祈雨祭仍爲停止，社稷·北郊報謝祭，謹依禮典，待立秋後設行，而三次祈雨後，三日之內，既得數寸之雨，亦當有報謝之節，南壇·雩祀壇報謝祭，一體設行，何如？”傳曰：“允。”

20 二十六日……四分：저본에는 ‘二十六日開東至二十七日開東 水深二寸七分 二十七日自開東至二十八日開東 水深四分.’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5월 26일 기사에는 ‘自開東至人定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二寸二分 自人定至二十七日開東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二分’으로 되어 있고, 고종 26년 5월 27일 기사에는 ‘夜自三更至二十八日開東 灑雨下雨 測雨器水深一分’

기축년¹⁸⁸⁹ 7월 13일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북교·남단·우사단의 기우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전에 이미 계하셨습니다. 절향^{節享}을 겸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사직 보사제는 오는 8월 5일 대제^{大祭}와 겸하여 설행하고, 남단 보사제는 같은 달 6일 절향과 겸하여 설행하고, 우사단·북교는 절향이 없어 길일을 일관 김동만^{金東萬}에게 잡게 하였더니, 같은 달 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되, 축문에 보태 넣고 지어내는 등의 일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己丑七月十三日

報謝

一. 曹啓曰：“社稷·北郊·南壇·雩祀壇祈雨報謝祭，待立秋後，擇日設行事，前已啓下矣。節享兼告，多有已例，社稷報謝祭，來八月初五日，大祭兼行，南壇報謝祭，同月初六日，節享兼行，雩祀壇·北郊，既無節享，吉日令日官金東萬推擇，則同月初七日爲吉，以此日設行。祝文添入撰出等事，令藝文館舉行事，分付何如？”傳曰：“允。”

기우제등록 용어집

가

가례청嘉禮廳: 왕실의 혼례인 가례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가전 별초駕前別抄: 어가御駕의 앞에서 시위侍衛하는 금군禁軍이다.

가후 별초駕後別抄: 어가御駕의 뒤에서 시위侍衛하는 금군禁軍이다.

각신閣臣: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등을 말한다.

감결甘結: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으로 보내는 공문서이다.

강신주降神酒: 제사에서 신이 강림하기를 바라며 올리는 술이다.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준말. 신하들이 연석에서 진달한 말들 중에 조보朝報에 낼 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반포하는 것이다.

건공탕建功湯: 탕제湯劑의 일종으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의 약칭이다.

견여내시肩輿內侍: 두 사람이 앞뒤에서 메는 가마를 메는 내시이다.

경감京監: 군자감軍資監에 소속된 경감京監, 분감分監, 강감江監의 하나이다.

경고更鼓: 밤 시간을 5경更으로 나누어 알리는 북이나 북소리를 말한다.

경일庚日: 간지干支에 경庚이 들어간 날이다.

경재卿宰: 2품 이상 관원의 통칭이다.

경진지평庚辰地平: 1760년(영조36) 청계천을 준

천한 뒤 수표에 새긴 글이다. 이 해의 간지가 경진년이므로 당시 청계천 바닥의 기준이라는 뜻이다.

계목啓目: 국왕에게 간략히 아뢴 때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다.

계본啓本: 국왕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직계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아뢰는 문서 형식이다.

계사啓辭: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이다.

계일癸日: 간지干支에 계癸가 들어간 날이다.

계자인啓字印: 왕이 재가하는 의미로 찍어 주는 계림자가 새겨진 도장이다.

계청啓請: 신하가 임금에게 말이나 글로 청하는 것이다.

계품啓稟: 신하가 임금에게 여쭙거나 아뢰는 것이다.

계하啓下: 신하가 올린 문서에 대해 ‘계림’자를 새긴 인장을 찍어서 임금이 재가하여 내려주는 것이다.

고유제告由祭: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고직庫直: 창고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고지기라고 한다.

고취鼓吹: 국가의 전례 때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 또는 그 음악을 말한다.

곡속장穀諫章: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의 마지막 장으로, 제 선왕齊宣王이 제사에 사용할 소를 불쌍히 여겨 양으로 바꾸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공복公服: 조정朝廷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다.

공상供上: 국왕 또는 왕실에게 올리는 물건을 말한다.

공의功議: 처벌을 경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제公除: 국왕이 일정 기간이 지나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한다.

공초供招: 죄인이나 사건 관련자 등이 신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과죄科罪: 죄목을 정한다는 말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관문關文: 동등 이하의 관청에 보내는 문서의 일종이다.

교단郊壇: 교외의 제단이다.

교서敎書: 국왕이 신하 또는 백성에게 선포하거나 훈유하기 위해 내리는 문서이다.

구경九卿: 본디 주周나라의 관직인데 조선에서는 의정부 좌우 참찬, 육조 판서, 한성 판윤을 말한다.

구기拘忌: 불길하다는 이유로 금기로 삼는 것이다.

구대求對: 신하가 국왕에게 빗기를 청하는 일이다.

구마廐馬: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이다.

구전하교口傳下敎: 구두로 내리는 국왕의 명령이다.

국궁鞠躬: 몸을 굽혀 예를 표하는 것이다.

국기國忌: 왕과 왕후의 기일忌日이다.

국별장局別將: 훈련도감 소속의 장교이다.

국휼國恤: 국상國喪을 말한다.

군망羣望: 제사 대상에 해당하는 별과 산천 등을 말한다.

군호軍號: 도성과 대궐의 순라군巡邏軍이 식별을 위해 사용한 암호이다.

궁관宮官: 세자궁世子宮의 관원이다.

근습近習 → 근시

근시近侍: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를 말한다.

금고金鼓: 징과 북을 말한다.

금군禁軍: 국왕과 왕실을 호위하는 군사를 말한다.

금루관禁漏官: 관상감에 소속되어 시각을 알리는 관원이다.

기고군旗鼓軍: 군기軍旗를 들거나 북을 치는 군사이다.

기고제祈告祭: 바라는 일이 있거나 알릴 일이 있을 때 지내는 제사이다.

기신제忌辰祭: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양제祈禳祭: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기우의장祈雨儀仗: 기우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의장이다.

기청제祈晴祭: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길복吉服: 상복을 벗고 난 뒤 입는 옷이다.

L

나수 전지拿囚傳旨: 죄인을 잡아다 의금부에 가두라는 국왕의 명령서이다.

남단南壇: 도성 남쪽 교외에 있었던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이다.

납일臘日: 동지冬至 이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이때 눈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납향臘享: 납일臘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납향대제臘享大祭: 종묘에서 납일臘일에 지내는 대규모 제사이다.

내구마內廐馬: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이다.

내국內局: 내의원內醫院을 말한다.
내영內營: 도성에 자리한 군영軍營이다.
내적간內摘奸: 임금이 근시近侍 등을 시켜 행하는 적간이다.
내하호피內下虎皮: 왕실에서 하사한 범가죽이다.
녹계錄啓: 사안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녹비鹿皮: 사슴가죽이다.
누기漏器 → 누수기
누기옹漏器瓮: 누수 그릇으로 사용하는 동이다.
누수기漏水器: 물을 토해내는 누수 그릇을 말한다.

C

단사壇司: 제단祭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 또는 그 관원을 말한다.
단사대감壇司臺監: 단사壇司를 감찰하는 관원이다.
단소壇所: 제단祭壇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단엄單嚴: 한 차례 복을 쳐서 경계 태세를 알리는 것이다.
단오제端午祭: 단오에 지내는 제사이다.
단오첩端午帖: 단오를 맞이하여 축하의 의미로 붙이는 글이다.
단유壇墀: 제단 주위에 쌓은 담을 말한다.
단직壇直: 제단을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말로는 단지기라고 한다.
달하達下: 왕세자의 재가를 말한다.
당고黨綱: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일어난 대규모 사화士禍이다.
당마塘馬: 척후斥候를 맡은 기병이다.
대가大駕: 임금이 탄 어가御駕를 말한다.

대례大禮: 중대한 예식을 말한다.
대사大祀: 국가의 중대한 제사이다. 제사는 중요도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눈다.
대상大祥: 사람이 죽고 2년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신大臣: 의정議政을 말한다. 통상 전현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다.
대압代押: 관원이 국왕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이다.
대조大朝: 세자가 있을 때 국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차大次: 전례典禮를 행할 때 왕이 머무는 천막이다.
대책對策: 정국의 현안이나 경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글이다.
대청臺廳: 대간臺諫이 아뢴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궁중의 청사이다.
대축大祝: 제사에서 축문祝文을 읽는 관원이다.
도가導駕: 왕이나 왕비 등이 타고 있는 여輿나 연輦을 인도하는 것이다.
도령都領: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행위나 그 역할을 맡은 지휘관을 말한다.
도시都試: 금군禁軍의 무예를 시험하는 과거이다.
도신道臣: 관찰사를 말한다.
도청都廳: 도감都監에 속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이다.
도형徒刑: 오형五刑의 세 번째 등급의 형벌로, 노역형의 일종이다.
도회都會: 지방에서 과거를 치를 때 그 지방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곳이다.
동가動駕: 왕이나 왕비 등이 여輿나 연輦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동자군童子軍: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글을 외는 아이들이다.

동자기우童子祈雨 → 석척동자기우제

동지사冬至使: 동짓달에 중국으로 파견하는 사신이다.

동향제冬享祭: 겨울철 종묘에 지내는 동향대제冬享大祭이다.



마군馬軍: 기병을 말한다.

마단자馬單子: 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단자單子이다.

마병馬兵: 기병을 말한다.

망료望燎: 제사를 마친 뒤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의 소각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망예望瘞: 제사를 마친 뒤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망제望祭: 명산대천을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이다.

망종芒種: 24절기의 하나로 모를 심는 때이다.

맹인기우제盲人祈雨祭: 맹인을 동원하여 지내는 기우제이다.

면급面給: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다.

면복冕服: 면류관과 곤룡포를 말한다.

면임面任: 각 읍의 면 단위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임嚮任이다.

명관命官: 국왕을 대신하여 과거를 주관하는 관원이다.

모군募軍: 샅을 주고 고용한 일꾼이다.

묘문廟門: 종묘의 문이다.

묘현례廟見禮: 종묘에 알현하는 의식이다.

무녀기우제巫女祈雨祭: 무녀를 동원하여 지내는 기우제이다.

묵쇠墨衰: 검은색의 상복이다.

문로門路: 국왕이 출입하는 길을 말한다.

문임文任: 국왕의 교서와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提學을 말한다.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의 별칭이다.

문후問候: 안부를 묻는 것이다.

물선物膳: 음식을 만드는 재료이다.



반상盤床: 음식을 차려놓는 소반이다.

반송사伴送使: 서울 관소館所에 머무는 외국 사신의 접대와 수행을 담당하는 관원이다.

반숙마半熟馬: 조금 길들인 말이다.

발인發引: 장사지내기 위해 상여가 출발하는 것이다.

방물方物: 각 지역의 토산물이다.

방민坊民: 한양의 행정구역인 방坊 안에 사는 백성이다.

방방放榜: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는 의식이다.

방춘우方寸雨: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서 내리는 비이다.

배설排設: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을 차려놓는 것이다.

배위配位: 정위正位 또는 주위主位에 함께 배향한 신위神位이다.

배위陪衛: 모시거나 호위하는 행위 및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제陪祭: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따라서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배종陪從: 국왕 등을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다.

배진陪進: 모시고 가는 것이다.

배향配享: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일이다.

배향陪香: 임금이 내린 향품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다.

번육膳肉: 제사에 쓰고 난 고기이다.
법악法樂: 궁중의 음악이다.
변례變禮: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해당하는 예법이다.
별기사別騎士: 별도로 편성된 기병이다.
별기우제別祈雨祭: 기우제 회차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설행하는 기우제이다.
별단別單: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이다.
별제別祭: 정례 외에 특별히 설행하는 제사이다.
병류屏柳: 민간에서 웅기에 물을 담고 버들가지를 꽂아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이다.
병문屏門: 임금이 거동하는 골목 어귀의 길가이다.
보검寶劍: 의장용 검의 일종이다.
보군步軍: 보병을 말한다.
보련步輦: 사람이 끄는 수레이다.
보방保放: 보증인을 세우고 죄수를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다.
보부報府: 제관祭官으로 차출된 사람의 성명을 사헌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보사報謝: 기원이 성취되어 신에게 감사한다는 뜻이다.
보사제報祀祭: 기원의 효과가 나타나면 보답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보여步輿: 사람이 메는 가마이다.
복계覆啓: 사안이 담당 관사에 내려지면 그 처리에 대한 의견을 아뢰는 행위이다.
복선復膳: 음식 가짓수를 줄였다가 평상시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봉납捧納: 돈이나 물건을 거두어 바친다는 말이다.
봉두封頭: 앞부분을 봉하여 함부로 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봉심奉審: 장소나 물건에 탈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봉안奉安: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봉입捧入: 승정원이 받아서 국왕에게 들이는 것이다.
봉조관捧俎官: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인 조俎를 전달하는 관원이다.
봉진封進: 왕실에 진상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것이다.
봉행奉行: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부련副輦: 임금이 거동할 때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동하는 비어 있는 연輦이다.
부묘祔廟: 삼년상을 마치고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이다.
부장궁不粧弓: 장식을 하지 않은 활이다.
분시焚柴: 켄을 태워 연기를 올려보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불의不宜: 적절치 않다는 말로, 일진이 불길함을 뜻한다.
비답批答 → 비지
비망기備忘記: 사알司謫이나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전달하는 국왕의 명령이다.
비지批旨: 신하나 관사가 올린 각종 문서에 대해 국왕이 글로 답변하는 것 또는 답변한 문서이다. 비답批答이라고도 한다.
빈전殯殿: 국상國喪 때 왕실 인물의 관을 모시는 전각이다.



사단社壇 → 사직단社稷壇
사문기청영제四門祈晴靈祭 → 사문영제四門靈祭
사문영제四門靈祭: 입추가 지나도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사대문에 날이 개기를 기도

하는 제사이다.
사신詞臣: 문학을 담당한 신하이다.
사전祀典: 제사 지낼 대상을 규정한 국가의 법전을 말한다.
사제賜祭: 임금의 제사를 내려 주는 것이다.
사직단社稷壇: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다.
사직추향대제社稷秋享大祭: 사직단에서 가을철 실행하는 대규모 제사이다.
사판仕版: 관원 명부이다.
삭망제朔望祭: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삭선朔膳: 매달 초하루 임금에게 바치는 특산물이다.
삭제朔祭: 초하루에 지내는 제사이다.
산재散齋: 제사를 지내기 전에 외물을 막고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재계이다.
산천단山川壇: 남교南郊에 설치된 제단으로 산천의 신을 모시는 곳이다.
삼경三庚: 초복, 중복, 말복이다.
삼단三壇: 주공周公이 태왕太王, 왕계王季, 문왕文王을 위해 만든 제단이다.
삼명일三名日: 임금의 탄신일, 설날, 동지를 말한다.
삼엄三嚴: 행사에 앞서 세 차례 복을 쳐서 때를 알리는데 세 번째를 삼엄이라 한다.
삼찬三饌: 세 개의 음식상이다.
삼태三台: 태위太衛, 사도司徒, 사공司空의 삼공三公을 말한다.
삼헌관三獻官: 제사에서 술잔을 올리는 역할을 맡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이다.
상고相考: 견주어 살펴본다는 말이다.
상변군上番軍: 차례가 되어 번표를 서기 위해 올라오는 군사이다.

상선常膳: 평상시의 음식이다.
상신相臣: 정승을 말한다.
상신일上辛日: 매월 상순 간지干支에 신축이 들어간 날이다.
상제祥祭: 사람이 죽고 2년이 지난 대상大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상참常參: 정승 이하 관원들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국왕에게 정사를 아뢰는 일이다.
상현궁上弦弓: 반달 모양의 활이다.
새전賽田: 토지신을 말한다.
색리色吏: 서울 각 관사 또는 지방 각 도 이하 단위에서 특정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이다.
색정랑色正郎: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정랑이다.
서계書啓: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서계誓戒: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이다.
서랑西廊: 서쪽 행랑이다.
서송書送: 써서 보낸 글이다.
서원書員: 서리書吏의 일종이다.
서장書狀: 보고하는 문서의 일종이다.
서직반黍稷飯: 기장밥이다.
석강夕講: 국왕이 신하들과 하는 저녁 강론講論이다.
석대石臺: 돌로 쌓은 대臺이다.
석채釋采: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석척蜥蜴: 도마뱀이다.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 → 석척동자기우제
석척동자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 아이들에게 버들가지로 도마뱀을 넣은 향아리를 두드리게 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선상先廂: 국왕이 행차할 때 앞쪽을 호위하는 군사이다.

선유宣諭: 국왕의 뜻을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섭행攝行: 국왕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성산聖算: 임금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성상소城上所: 대간臺諫이 공사公事を 출납하는 역할을 맡을 때 이들을 성상소라고 한다.

성책成冊: 문서를 책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소가小駕: 임금이 거동할 때 사용하는 간소한 어가御駕이다.

소대召對: 국왕이 신하를 불러 정국의 현안과 경전의 의미를 의논하는 일이다.

소사小祀: 국가의 제사는 중요도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며, 소사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제사이다.

소여小輿: 의자가 달려 있는 작은 가마이다.

소주小註: 주석에 대한 주석이다.

소차小次: 전례典禮를 행할 때 장막을 쳐서 왕, 왕비, 왕세자 등이 머물며 휴식하는 곳이다.

수가隨駕: 어가御駕를 따르는 것이다.

수가군隨駕軍: 어가御駕를 따르는 군사이다.

수교受敎: 신하나 관사가 국왕으로부터 받은 전교傳敎이다.

수궁守宮: 궁궐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수도안囚徒案: 형조, 의금부, 전옥서에 보관되어 있는 현재 수감 중인 죄수들에 대한 기록이다.

수복守僕: 묘廟, 사社, 능陵, 원園 등의 허드렛일을 맡은 사람이다.

수복首僕: 수복守僕의 우두머리이다.

수본手本: 속아屬屬衙門이 소속屬曹에,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부하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할 때 등에 사용하는 문서이다.

수성修誠: 성심을 다한다는 말이다.

수응酬應: 일에 대응하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말한다.

수위首醫: 의관醫官의 우두머리이다.

수위收議: 조정에 일이 있을 때에 시원임 대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수정관修井官: 우물을 수리하는 업무를 맡은 관원이다.

수직守直: 담당자를 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다.

수표水標: 수위를 재기 위하여 눈금을 새긴 표지이다.

수표교水標橋: 수위를 재는 표지를 새긴 다리로 청계천에 있다.

수표단자水標單子: 수표의 수위를 보고하는 단자이다.

수표석水標石: 수표를 새긴 바위이다.

수표직水標直: 수표교水標橋 수위 측정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숙마熟馬: 길이 잘 든 말이다.

숙설熟設: 음식을 익혀 만드는 것이다.

순부順付: 인편 등에 부쳐 보내는 것이다.

습의단자習儀單子: 의식을 연습하는 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단자이다.

승전承傳: 국왕이 내린 전지傳旨를 받드는 것이다.

승전색承傳色: 내시부內侍府 소속으로 국왕 및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직책이다.

시각단자時刻單子: 행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시각을 기록한 단자이다.

시복時服: 평상시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시사視事: 정무를 보는 것이다.

시사試射: 활쏘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소試所: 시험을 치르는 장소이다.
시어소時御所: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시위侍衛: 임금을 모시고 호위하는 것이다.
시임時任: 현재 직임을 맡고 있는 관원이다.
시장試場: 시험을 치르는 장소이다.
시종侍從 → 시종신
시종신侍從臣: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이다.
시탕侍湯: 임금의 병환을 간호하는 것이다.
시향時享: 음력 2, 5, 8, 11월에 지내는 제사이다.
신실神室: 신위神位를 모신 방을 말한다.
신여神輿: 신위를 싣고 운반하는 여輿이다.
신연神輦: 신위를 싣고 운반하는 연輦이다.
신영新營: 새로 설치한 병영兵營이다.
신일辛日: 간지干支에 신辛이 들어간 날이다.
신주문神廚門: 제수祭需를 만드는 주방이다.
신칙申飭: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다.
실차實差: 실제로 관직에 제수하거나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관원이나 군병을 말한다.
십악절명十惡絕命: 10가지 악한 기운으로 크게 실패하는 일진이다.



아마兒馬: 길이 들지 않은 작은 말이다.
아헌亞獻: 제사에서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안산安山: 집터나 뒷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이다.
안향청安香廳: 향종과 축문祝文을 보관하는 곳이다.
알자謁者: 제향을 지낼 때 헌관獻官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야대夜對: 밤에 여는 소대召對이다.
야차野次: 임금이 교외에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다.
양 의사兩醫司: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이다.
어공御供: 국왕에게 바치는 물건이다.
어재실御齋室: 국왕이 재계하는 방이다.
여輿: 임금이 타는 가마의 일종이다.
여제厲祭: 병을 옮기는 역귀疫鬼 또는 한을 품은 원귀冤鬼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여차廬次: 상을 치르는 동안 거처하는 곳이다.
역로驛路: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이다.
연輦: 임금이 타는 가마의 일종이다.
연석筵席: 국왕이 신하들과 정무를 의논하는 자리이다.
연신筵臣: 연석筵席에 입시한 신하이다.
연여輦輿: 임금이 타는 가마인 연輦과 여輿의 통칭이다.
연제練祭: 사람이 죽고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염문廉問: 사정을 몰래 알아보는 것이다.
영단靈丹: 신령한 효과가 있는 단약丹藥이다.
영단靈壇: 신령을 모신 제단을 말한다.
영문營門: 감영監營, 유수영留守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통제영統制營을 말한다.
영전令箭: 군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화살이다.
영제祭祭 → 사문영제四門祭祭
영지令旨: 대리청정하는 왕세자가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영하읍營下邑: 영문營門의 다스림을 받는 고을이다.
예문禮文: 예서禮書 문구文句로, 이 책에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말한다.
예사관禮祀官: 예법에 따라 제사를 맡은 관원이다.
예의사禮儀使: 제사의 의례를 담당하는 관원

이다.

예차預差: 실차實差로 차출된 관원이나 군병 등이 탈이 생겼을 때 그 대신 임무를 맡기기 위해 예비로 차출한 관원이나 군병이다.

오방신기五方神旗: 다섯 방위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오방도룡제五方土龍祭: 다섯 방위에서 흙으로 빚은 용에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오부五部: 서울의 행정구역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이다.

오패午牌: 정오를 알리는 패牌이다.

오향五享: 종묘에 1, 4, 7, 10, 12월 다섯 차례 지내는 제사이다.

옥백玉帛: 옥과 비단이라는 뜻으로 예물을 말한다.

외사外司: 대궐 밖에 있는 관사이다.

외영外營: 대궐 밖에 있는 병영이다.

외재궁外梓宮: 왕과 왕비의 관인 재궁梓宮을 담은 외곽外槨이다.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이다.

용정龍亨: 옥책玉冊, 금보金寶 등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수레이다.

우구雨具: 비를 막는 우비를 말한다.

우사단雲祀壇: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단이다.

우약羽籥: 춤의 일종이다. 깃털을 잡고 춤을 추며 피리를 분다.

우제雩祭: 기우제를 말한다.

운검雲劍: 의장용 검의 일종이다.

원량元良: 왕세자 또는 왕세손을 말한다.

원상院相: 국왕 유고시 승정원에서 국왕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승이다.

원역員役: 관아에 소속된 일꾼을 말한다.

원임대신原任大臣: 전임 대신을 말한다.

원침園寢: 왕세자나 왕세자빈 등의 묘소이다.

원호元戶: 원래의 호구戶口이다.

월대月臺: 대궐 앞에 설치하는 기단 형식의 대臺이다.

월름月廩: 월급으로 주는 곡식이다.

월봉越俸: 정기적인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처벌이다.

위판位版: 신위로 사용하는 나무판이다.

유단塤壇: 담으로 둘러싸인 제단이다.

유도留都: 임금이 도성을 비울 때 도성에 남는 것을 말한다.

유문留門: 성문 또는 궐문을 닫아야 할 시간에 여는 일이다.

유문塤門: 제단 주위의 담장에 낸 출입문이다.

유사有司: 담당 관원을 말한다.

유서諭書: 국왕이 신하에게 훈유訓諭하는 글이다.

유시諭示: 국왕이 신하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다.

유신儒臣: 경연經筵이나 소대召對에 참석하는 홍문관의 관원이다.

유영留營: 유수留守가 있는 영문營門이다.

유원留院: 승정원에 남겨둔다는 말이다.

유진留陣: 군대가 진을 치고 머무는 일이다.

유차일油遮日: 기름 먹인 차일이다.

유청군관有廳軍官: 베를 받는 군관으로 영조 때 설치하였다.

유형流刑: 오형五刑의 두 번째 등급의 형벌로, 유배형이다.

육경六卿: 본디 주周나라의 관직으로, 조선시대에는 육조 판서를 말한다.

윤음綸音: 일반적으로 임금의 발언을 가리키며, 특별한 사안으로 인하여 따로 반포하는 명령을 가리키기도 한다.

윤복戎服: 군복을 말한다.

을일乙日: 간지干支에 을乙이 들어간 날이다.
읍사邑社: 각 고을의 토지신을 모신 곳이다.
의기義起: 예법에 없으나 의리에 근거하여 만
 든 것이다.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인 부마駙馬를 비롯하여
 왕실과 혼인한 사람을 말한다.
의절儀節: 의식의 절차를 말한다.
의주儀注: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어移御: 임금이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인견引見: 국왕이 관원을 만나보는 것이다.
인산因山: 왕실의 장례를 말한다.
인정人定: 밤에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종을
 28번 치는 때이다.
일관日官: 길일吉日을 잡는 관원이다.
일영원철日影圓鐵: 해 그림자의 움직임을 표시
 하는 해시계이다.
일차공상日次供上: 날마다 임금에게 물건을 올
 리는 것이다.
입계入啓: 관사나 관원이 올린 문서를 국왕에
 게 들여보내는 것이다.
입진入診: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
 하는 것이다.

ㅈ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를 말한다.
작헌례酌獻禮: 종묘 등지에 참배하고 잔을 올리
 는 예식이다.
잠저潛邸: 임금이 즉위 전 거처하던 곳이다.
잡역雜役: 공역公役 이외의 잡다한 신역身役을
 말한다.
장계狀啓: 지방 관원 및 사신이 국왕에게 올리
 는 글이다.
장달狀達: 지방 관원 및 사신이 왕세자에게 올

리는 글이다.
장대將臺: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장빙제藏氷祭: 음력 12월에 얼음을 보관하며
 지내는 제사이다.
재계齋戒: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
 화하는 행위이다.
재관齋官: 재계하는 관원을 말한다.
재궁齋宮: 능묘陵墓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다.
재랑齋郎: 참봉參奉을 말한다.
재소齋所: 재계하는 장소이다.
재숙齋宿: 재관祭官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보내
 는 것이다.
재신宰臣: 정3품 이상의 관원이다.
재실齋室: 능묘陵墓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다.
저치미儲置米: 저축하여 둔 쌀이다.
적간摘奸: 관원을 보내 다른 관원의 근무 상태
 및 일의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본다 불성
 실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다.
적자赤子: 본디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백성을
 비유한다.
적전籍田: 임금이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기 위
 해 마련한 땅이다.
전숯筵炭: 영좌靈座에 음식을 올리는 일이다.
전강殿講: 국왕 앞에서 경서를 외거나 풀이하
 게 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전계傳啓: 대간臺諫이 국왕에게 전달하는 계사
 啓辭이다.
전교傳敕: 국왕이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명령
 이다.
전배前排: 임금이 거동할 때의 앞줄을 말한다.
전배기前排旗鼓: 임금이 거동할 때 앞줄에 위
 치한 깃발과 북을 말한다.
전사관典祀官: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을 담당하
 는 관원이다.
전상군前廂軍: 국왕이 행차할 때 앞쪽을 호위

하는 군사이다.

전알展謁: 국왕이나 왕세자가 능陵, 원園, 묘廟에 참배하는 것이다.

전좌殿坐: 의식을 행할 때 국왕이 어좌御座에 나와 앉는 것이다.

전향단자傳香單子: 국왕이 제향을 위해 향을 전 달하는 일과 관련된 단자이다.

절목節目: 구체적 절차를 말한다.

절제節祭: 명절 제사를 말한다.

절주節奏: 음악의 박자를 말한다.

절향節享: 명절 제향을 말한다.

점고點考: 명부에 점을 찍으면서 수효를 점검하는 일이다.

정간井間: 가로 세로로 선을 그어 만든 칸이다.

정과呈課: 사헌부 관원이 금령을 어긴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다.

정기旌旗: 깃발을 말한다.

정사呈辭: 관원이 사직, 휴직, 휴가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문서이다.

정시正時: 정각正刻부터 초각初刻까지 1시간을 말한다.

정위正位: 주된 자리를 차지하는 신위神位이다.

정자丁字閣: 능陵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정丁자 모양으로 지은 집이다.

정침正寢: 임금이 평소 거처하는 곳이다.

제감祭監: 제향祭享을 감독하는 관원이다.

제관기祭官記: 제관의 명단이다.

제보부祭報府: 제관祭官의 성명을 사헌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제사題辭: 백성이 제출한 소장에 대한 관청의 판결이다.

제소祭所: 제사 지내는 장소이다.

제술製述: 글짓기로 주로 시험과 관련하여 쓰인다.

제위諸衛: 조선의 중앙군 조직인 오위五衛를 말

한다.

제의祭儀: 제사 지내는 의식이다.

제전祭奠: 장례葬禮와 상례喪禮 기간 동안 올리는 여러 의식과 제사이다.

제향의祭享儀: 제향을 올리는 의식이다.

조강朝講: 국왕이 신하들과 하는 아침 강론講論이다.

조복朝服: 조회할 때 입는 복장이다.

조사曹司: 말단의 관원을 말한다.

졸곡卒哭: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곡을 끝내는 절차이다.

종고鐘鼓: 종과 북이다.

종일終日: 간지가 진辰, 술戌, 축丑, 미未에 해당되는 날이다.

주강晝講: 국왕이 신하들과 하는 낮 강론講論이다.

주척周尺: 길이를 재는 척도로 주周나라에서 기원하였다.

중관中官: 대내大內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내시內侍라고도 한다.

중사中祀: 국가의 제사는 중요도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며, 중사는 중간 등급의 제사이다.

중신重臣: 정2품 이상의 관원이다.

중앙 토룡제中央土龍祭: 흙을 빚어 만든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토룡제라고 한다. 다섯 방위에 토룡을 두었는데, 이중 중앙의 토룡에게 지내는 기우제이다.

중일中日: 간지가 자子, 오午, 묘卯, 유酉에 해당되는 날이다.

지만遲晚: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지방紙榜: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이다.

지송祔送: 백관이 임금의 어가를 공손히 전송하는 것이다.

지영祔迎: 백관이 임금의 어가를 공손히 맞이

하는 것이다.

진배進排: 대궐이나 관아에서 쓸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치는 것이다.

진배관進排官: 물건을 바치는 업무를 맡은 관원이다.

진산鎭山: 지역의 주산主山을 말한다.

진전眞殿: 어진御眞을 보관한 전각이다.

진정賑政: 진휼賑恤을 위한 정사를 말한다.

진정辰正: 진시辰時 정각正刻으로 지금의 오전 8시경이다.

진찬례進饌禮: 왕실에 경하할 일이 있을 때 설행하는 잔치이다.

진초辰初: 진시辰時 초각初刻으로 지금의 오전 7시경이다.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폐백과 술잔, 술을 바치는 관원이다.

진향사進香使: 중국의 국상國喪에 향을 바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이다.

집례執禮: 예식의 집행을 맡은 관원이다.

집사관執事官: 제사 등에서 일을 맡은 관원이다.

집준執尊: 제사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다.

집축執祝: 제사에서 축문을 맡은 관원이다.

犬

차대次對: 매달 여섯 차례 의정부 당상 등이 국왕에게 정무를 아뢰는 일이다.

차비差備: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이다.

차사원差使員: 중요한 임무를 맡겨 파견하는 임시직이다.

차일遮日: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천막이다.

차일장 → 차일

차임差任: 직임을 맡을 사람을 가린다는 뜻으로, 차출差出과 같다.

차자劄子: 국왕에게 아뢰는 문서이다.

찬실贊室: 빈전殯殿에서 관을 안치한 방이다.

찬의贊儀: 의식의 진행을 맡은 전의典儀를 돕는 관원이다.

찬인贊引: 제사의 절차를 돕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찬자贊者: 제사의 절차를 돕는 사람이다.

창검군槍劍軍: 창검을 든 군사이다.

천단天壇: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단이다.

천시遷市: 기우제를 위해 시장을 옮기는 것이다.

천적天賊: 흉신凶神의 하나이다.

천조관薦俎官: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인 조俎를 올리는 관원이다.

천종天宗: 해와 달과 별의 신을 말한다.

천폐작주관薦幣爵酒官: 폐백과 술잔, 술을 올리는 역할을 맡은 관원이다.

첩보牒報: 하급 관청과 관원이 상급 관청과 관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첩정牒呈: 조선시대 하급 관청이나 하급 관원이 상급 관청이나 상급 관원에게 올리던 문서의 일종이다.

청대請對: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을 뵈기를 청하는 것이다.

청재淸齋: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하는 것이다.

청재단자淸齋單子: 재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단자이다.

청좌廳座: 승지들이 승정원에 걸려 있는 계판啓版 앞에 정렬하여 예를 행하는 일이다.

체柶: 천자天子가 시조始祖의 묘에 올리는 제사이다.

초각初刻: 1각을 말한다. 지금의 15분에 해당한다.

초경初更: 오후 7~9시이다.

초기草記: 도제조가 있는 아문에서 왕에게 아
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문서의 일종
으로, 지방 관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 관부에서만 사용하던 문서.

초돈草屯: 띠풀이나 부들로 엮어 만든 것으로
비나 햇볕을 가리는 데 사용한다.

초루譙樓: 성문 위에 있는 망루를 말한다.

초일初日: 간지가 인寅, 신申, 사巳, 해亥에 해당
하는 날이다.

최마衰麻: 베로 만든 상복이다.

추고推考: 죄를 지은 관원에게 경고하는 의미
의 형식적인 처벌이다.

추향단자秋享單子: 가을 제사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한 단자이다.

축사祝史: 축문祝文을 읽는 역할을 맡은 관원
이다.

축사祝辭: 축문祝文의 내용을 말한다.

축어祝語: 축원하는 말이다.

축판祝板: 제사 지내는 대상에게 고하는 내용
을 적은 목판이다.

춘모春辭: 봄보리이다.

치계馳啓: 급히 장계狀啓 또는 서계書啓를 올린
다는 말이다.

치재致齋: 제사를 지내기 전에 내면을 정돈하
여 마음을 삼가는 재계이다

치제致祭: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이다.

칙서勅書: 중국 황제의 명령서이다.

친림기우제親臨祈雨祭: 국왕이 직접 지내는 기
우제이다.

친압親押: 국왕이 축문에 직접 이름을 써넣는
행위다.

친제親祭: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제사이다.

친제등록親祭謄錄: 국왕이 직접 지낸 제사에 관
한 문서를 기록한 책이다.

친행親行: 국왕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친향親享: 국왕이 직접 지내는 제향祭享이다.

칠정七情: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인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이다.

침호두沈虎頭: 범 머리를 물에 넣어 비가 내리
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ㄷ

탈품頒褫: 예정된 행사를 행할 수 없다고 보고
하는 것이다.

탑전榻前: 임금이 위치한 여탑御榻 앞이다.

태거汰去: 잘못을 저지르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관원에게 직무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이다.

태을太乙: 병란兵亂과 재화災禍를 담당하는 별
이다.

토릉제土龍祭: 흙으로 빚은 용을 놓고 지내는
제사이다.

통청通淸: 청직淸職의 망단자望單子에 이름을 올
리는 것이다.

특교特敎: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다.

ㄹ

파루罷漏: 오경五更에 북을 33번 치고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것이다.

판부判付: 신하나 관사가 올린 문서에 대한 국
왕의 판결이다.

판위版位: 임금 등이 각종 의식에서 대기하거
나 배례拜禮 등을 행하는 자리이다.

판하判下: 신하나 관사가 올린 문서에 대해 국
왕이 판결하여 내려 주는 것이다.

패군牌軍: 중앙의 시위를 담당하는 군사이다.

패초牌招: 임금의 관원에게 패牌를 보내 부르는 것이다.

편복便服: 평상시의 간편한 옷차림이다.

편전便殿: 임금이 평상시 거처하는 궁전이다.

편차인編次人: 어제御製의 정리를 맡은 관원으로 영조가 두었다.

평길平吉: 별다른 화복禍福 없이 무난하다는 말이다.

평신平身: 몸을 똑바로 펴는 것이다.

폐문閉門: 기우제를 위해 남대문을 닫는 것이다.

포백척布帛尺: 길이를 재는 척도尺度로서 의복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포수砲手: 총포를 가진 군사이다.

포제醺祭: 병충해를 끼치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표하군標下軍: 대장 이하 장수를 수행하는 군사이다.

품대品帶: 관원이 관복을 입고 차는 허리띠이다.

품지稟旨: 각 관사에서 국사를 거행하거나 처리할 때 임금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품처稟處: 각 관사에서 국사를 거행할 때 임금의 의사를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

풍기風旗: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풍기죽風旗竹: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또는 여기에 사용하는 대나무이다.

풍운뇌우산천단風雲雷雨山川壇: 남교南郊에 설치된 제단으로 바람, 구름, 우레, 비, 산천의 신을 모시는 곳이다.

피전避殿: 피정전避正殿. 임금이 근신하는 차원에서 정전正殿을 떠나 머무는 것이다.

ㅎ

하령下令: 왕세자의 명령이다.

하례下隸: 관아에 소속된 하인을 말한다.

하리下吏: 관아에 소속된 아전을 말한다.

하속下屬: 관아에 소속된 하인을 말한다.

하첩下帖: 체문[帖文]을 내려보내 지시하는 것이다.

하향대제夏享大祭: 여름철 종묘에서 지내는 대규모 제사이다.

한강도 승漢江渡丞: 한강진漢江津의 관리를 담당한 종9품 관원이다.

한역녹관漢譯祿官: 중국어를 번역하는 업무를 맡아 녹봉을 받는 관원이다.

합문閤門: 각전各殿의 대문에서 신하들이 출입하는 좌우 협문挾門이다.

해방該房: 해당 방房이라는 뜻으로, 승지는 이, 호, 예, 병, 형, 공 6방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해정亥正: 해시亥時 정각으로 지금의 오후 10시 경에 해당한다.

행궁行宮: 임금이 대궐을 나가 임시로 머무는 별궁이다.

행이行移: 공문을 보낸다는 말이다.

행회行會: 공문을 보내 알린다는 말이다.

향관香官: 임금이 내려주는 제향에 사용할 향을 받는 관원이다.

향도香途: 임금이 제사에 사용도록 내려준 향품이 지나가는 길이다.

향례享禮: 제향祭享하는 예법이다.

향소享所: 제향祭享을 올리는 장소이다.

향축香祝: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향과 축문을 말한다.

헌관獻官: 국가에서 설행하는 제사에서 술잔을 올리는 관원이다.

헌의獻議: 정사에 대한 국왕의 질문에 의견을 올리는 것이다.

헌정軒庭: 마루[軒]가 있는 건물의 뜰[庭]이다.

현궁弦弓: 시위를 엮은 활이다.

협련군挾輦軍: 임금이 탄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이다.

협시挾侍: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다.

협여군挾輿軍: 국왕 또는 세자가 타는 여輿를 호위하는 군사이다.

형살刑殺: 형벌로 주살誅殺함을 말한다.

호두虎頭: 범머리

호보戶保: 군역을 맡은 가구에 할당하는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조한다.

홀기笏記: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이다.

홍문紅門: 능陵, 묘廟, 궁宮 등의 입구에 세우는 홍살문[紅箭門]을 말한다.

화룡기우畫龍祈雨: 용을 그려놓고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화소火巢: 산불 방지를 위해 능묘 밖의 초목을 불사른 곳이다.

황극皇極: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칙이다.

황정荒政: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사이다.

황종척黃鍾尺: 길이를 재는 척도尺度の 하나로 악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회감會減: 장부에 등록된 재화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말한다.

회계回啓: 국왕의 지시나 문의에 대해 의견이나 대책을 마련하여 아뢰는 것이다.

회유回諭: 국왕이 회답하여 유시諭示하는 것이다.

후상군後廂軍: 국왕이 행차할 때 뒤쪽을 호위하는 군사이다.

후직씨后稷氏: 주周나라의 시조로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쳤기에 농사의 신으로 모

신다.

훈채葷菜: 매운맛이 나는 채소로, 재계할 때는 먹지 않는다.

휘지徽旨: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내리는 명령이다.

홀전恤典: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베푸는 은전恩典이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유승(성균관대학교)
공동번역	김해인·이정우·김연수/ 부유섭·이승재·김중섭·강민형
출판교열	장유승
감수	김문식(단국대학교)
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디자인	임범상·이선정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85-01

ISBN 979-11-6988-366-5(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